

嶺南樓題詠詩文

密陽文化院

꿈이 없으면 일을 것도 없을 텐데

글 | 이웅걸 목사

꿈이 없으면 일을 것도 없을 텐데

글 | 이웅걸 목사



글쓴이 / 이웅걸 목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감리교 목사로서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자연과 벗하며 구도(求道)의 길을 가고자 한다. 언젠가 작고 느슨한 수도공동체를 일구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 쓴 책으로는 '장 담그시는 하나님' (한생명)이 있다.

嶺南樓題詠詩文



密陽文化院

영남루제영시문 간행사

밀양은 옛날 변진시대 미리미동국으로, 신라시대에는 추화군 밀성군으로 불리었고, 고려조에는 밀주로 불리었으며, 조선조에는 밀양으로 불렸다. 산은 높고 물은 길어서 고을이름의 변천만큼이나 역사도 길고 배출된 인물도 많아서 골짜마다 문화 유적이 산재하여 있다. 오래된 마을마다 정자와 재사가 있고 이름난 산과 계곡에는 오래된 사찰이 있으며, 그곳에는 또한 선현들이 남긴 시문과 전설과 사적이 있다. 이 모두가 밀양문화의 재산이요 긍지이다.

수많은 밀양의 문화재 가운데서도 영남루는 밀양의 상징이다. 밀양 사람은 물론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칭송하여 영남루가 없으면 밀양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밀양을 대표하는 누정이다. 춘하추동 언제라도 영남루에 올라가면 밀양의 산수가 그림을 펼쳐놓은 듯 난간에 떠오르고, 시인이 아니라도 남천강물과 용두목과 마암산 사이로 펼쳐진 들을 바라보면 저도 몰래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감회가 떠오른다. 그러한 명소이기에 고려조 이래로 이곳에 쉬거나 놀다간 시인과 운치있는 선비들이 풍정을 노래한 시문도 많아서 지금 남아 전하는 것만으로도 수백 수에 달한다.

옛날 영남루에는 선현들이 남긴 시문을 나무판에 아로새겨 현판으로 걸어놓고 지나는 유람객이 풍경을 바라보는 여가에 시문을 읽고 감상하면서 옛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서 느끼는 회포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한문으로 기록된 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점차 드물어짐에 따라 시문 현판도 점차 훼손 분실되었고, 영남루의 아름다운 시정을 읊은 주옥같은 시를 감상하며 천고의 옛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게 되었다.

명승고적을 찾는 것은 거기에 아름다운 풍광과 그 풍광을 보고 즐길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이 있음은 물론 운치 있고 덕망 높은 사람들의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과 좋은 풍광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할 만한 인물들의 자취가 없으면 그저 삭막한 풍경일 따름이다. 이번에 영남루의 역대 시문을 모아 한권의 책자로 엮어 간행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려 전기의 시인 임춘이 영남사 누각을 읊은 이래로 800여년 동안 수많은 시인 문사와 명현들이 이곳을 거쳐가며 남긴 시문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문헌에 산재되어 있는데다가 대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일반인들이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화원에서는 역대 문헌에 나타나

는 영남루 관련 시문을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고 주석하여 사람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기로 하고 이 일을 경성대학교 정경주 교수에게 위촉한 것이 2001년 5월이었다. 이후 자료를 수집하여 초역 원고를 만들고 다시 이운성 선생에게 교열과 윤문을 부탁하여 2002년 가을에 이르러 마무리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영남루제영시문집의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이상조 밀양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책의 편집과 번역의 전과정을 전담해주신 정경주 교수와 교열 윤문을 맡아주신 이운성 선생에게 재삼 감사드린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문화는 오랜 세월 사람이 살면서 가꾸어온 삶의 자취이다. 세계화 국제화 하여 밖을 향해 내닫고 있지만 우리의 귀중한 문화를 내동댕이 치고 무턱대고 남의 것을 추종하다 보면 남는 것은 허수아비가 될 뿐이다. 조선이 남긴 훌륭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보존 전승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일이다. 이제 이 책을 읽고 다시 영남루에 올라가 우리의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 고장 밀양의 자랑 영남루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밀양의 자존심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서기 2002년 12월 일

密陽文化院長 孫 琪 鉉 謹職

일러두기

1. 이 책에는 역대 밀양읍지(密陽邑誌)와 밀양부지(密陽府誌)의 누정(樓亭) 제영(題詠) 조에 수록된 영남루(嶺南樓), 능파당(凌波堂), 망호당(望湖堂), 소루(召樓)의 제영시와, 역대 제가의 문집에 실린 관련 시문을 두루 채록하였다. 다만 서기 1950년 이후에 몰한 인물의 시문은 제외하였다.
2. 구 밀양지에는 영남루와 능파당과 소루의 제영시를 따로 구분하고, 시운(詩韻)에 따라 분류하여 실어놓은 문헌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영남루 제영, 영남루의 유래, 영남루의 전설 등 세 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3. 영남루제영에는 영남루 본루와 능파당, 망호당, 소루의 구분을 별도로 두지않고 한결같이 작자의 생몰 연대순에 따라 배열하였다. 작자의 생몰 연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문헌에 수록된 선후에 따라 가장 합당한 곳에 배치하였다.
4. 시제(詩題)는 가능한 한 해당 작가의 문집에 표기된 대로 따라 바꾸었으나,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구 밀양지의 분류에 따라 관련 누각 이름을 붙여서 제목을 대신하였다.
5. 영남루의 유래에는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 등의 문(文)을 모아 실었다. 영남루의 전설에는 문헌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설화를 번역하여 실었다.
6. 시문의 원문은 작가의 본 문집에 실린 것을 표준으로 하여 교감하였다. 다만 기록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주에 밝혔다.



조선 정조 무신년(1788) 당대의 명필 송하(松下)
조윤형(曹允亨, 1725~1799)이 쓴 영남루 편액



조선 헌종(憲宗) 9년 계묘년(1843)에 밀양부사 이인재
(李寅在)가 영남루를 중건할 때 이인재부사의 아들
이현석(李玄石)이 일곱살의 나이로 쓴 편액



조선 헌종 9년 계묘(1843)년 영남루 중건 때 이인재부사의 아들 이증석(李憎石)이 11세의 나이로 쓴 편액, 본루 중앙 대들보에 걸려 있다.



1931년 보수공사 때 성파(星坡) 하동주(河東州)가 쓴 영남루 편액, 본루 남쪽 정면에 걸려 있다.



조선 말기의 명필 굴산(橋山)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필적으로, 월성세가(月城世家), 굴산(橋山), 내각대제한림기거(內閣待制翰林起居) 등의 낙관이 있다.



영남루 본루 북쪽 도리에 걸려 있는 강성여화(江城如畫) 편액, 가림지조(嘉林之趙)와 동당한관(東堂漢館)이란 낙관이 있다. 격안리공명월(隔岸里共明月)이란 두인(頭印)이 이채롭다.



영남루 본루 동편 도리 위에 걸린 용금루(湧金樓) 편액,
산하(山河)라는 낙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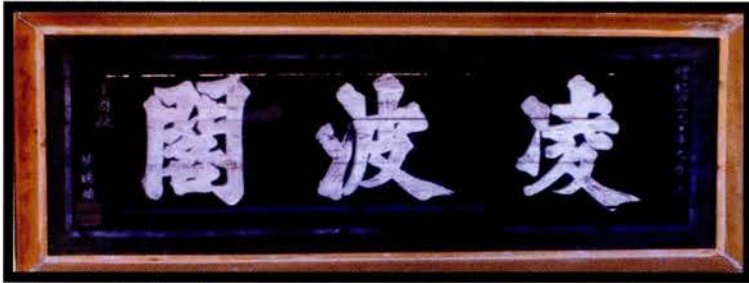
영남루 본루 대들보 위에 걸린 현창관(顯敞觀) 편액,
병인(丙寅) 5월 이상억(李象億)의 필적이다.



아랑각 사당 편액, 성과(星坡) 하동주(河東州)의 필적이다.



아랑각 입구의 신문(神門)인 정순문(貞純門) 편액, 소전(素筌)손재형(孫在馨)의 필적이다.



1957년 영남루 중수 공사 때 김해인 배수환(裴綉煥)이 쓴
능파각 편액



1957년 영남루 중수 시 김해인(金海人) 배수환(裴綉煥)이
쓴 침류각(枕流閣) 편액

영남루제영시문 목차

<발간사>

영남루 제영

영남사에서	임 춘	25
영남사의 죽루	임 춘	26
밀양에 노닐면서	임 춘	27
2월 15일 밤 달을 마주하여	임 춘	29
영남루	성원도	30
영남루	이인복	31
영남루	이 색	32
영남루	문익점	33
밀성 사군 이석지에게	정 추	34
다시 밀성에 놀며, 임강선 곡조로 짓다	이 침	34
영남루에서	이승인	35
영남루	도원홍	36
영남루	유 관	37
영남루	하 룬	37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권 근	38
밀양 태수 여공이 은어를 보내주었기에, 영남루의 묵은 시운을 사용하여 절구 두 수를 읊어, 하나는 여공에게 올리고 하나는 밀양군 교수인 박군에게 올린다.		
.....	권 근	39
영남루	이 원	39
영남루에서	하 연	40
경재를 모시고 영남루에 올라 시판의 운을 사용하여	하 척	41
소루	권맹손	41
소루	정지담	42
소루	성념조	42
소루	안수기	43
밀양 영남루 운	이석형	43
밀양 소루 운	이석형	44
소루	조 추	44
밀양영남루 운을 따라	서거정	45
밀양십경	서거정	45
영남루 시운을 따라	김종직	51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고	김종직	51
태허의 운을 사용하여 영남루의 좋은 경치를 기록하여 경력 최윤신에게 주다	김종직	52
응천죽지곡 9장	김종직	52
영남루	김계창	54
영남루	김계창	55
영남루	신 부	55
영남루	신 부	56
영남루	일본인 용장	57
영남루	이 칙	57
영남루 운을 따라	양희지	58
영남루	양희지	58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성 현	59
다시금 영남루 운을 따라	성 현	59
영남루에 올라 운을 따라	유호인	60
밀양 영남루에서 점필재를 뵈옵고	남효온	60
영남루	김준손	61
영남루	박의영	62
영남루 2수	문경동	62
영남루	유순정	63
영남루	이 윤	64
점필재 선생의 영남루 운을 따라	손중돈	64
영남루	한효원	65
이서보를 밀양으로 보내며	어득강	66
영남루	이사균	66
영남루 2수	김극성	67
밀양에서 황비안의 운을 따라	김극성	68
영남루	신맹경	68
영남루	신맹경	68
영남루	허 지	69
영남루	김 영	70
영남루 운을 따라 2수	박 상	70
영남루 모인 자리에서 우병사 회지에게 주다. 3수	박 상	72
영남루 술자리에서 주인인 이충걸공과 시임 우병사 김세희, 그리고 황장목 경차관 인 곽지번과 함께 만나	박 상	73
영남루	소세량	75
영남루	권 벌	76
영남루 망호당에서 2수	김안국	76
영남루에서 비에 지체되어 몇 일 머물며	김안국	77

영남루 취한 자리에서 봉중의 운을 따라 급히 지어 올림 2수

.....	김안국	77
영남루	채소권	78
소루	장 적	78
영남루	성창세	79
영남루 운을 따라	신광한	79
영남루	신광한	80
영남루중수기문의 뒤에	신광한	81
김밀양의 영남루 운을 따라	신광한	82
영남루 2수	김정국	82
영남루	오 상	83
영남루에서 일본 사신 수축동당에게 잔치를 베풀고 글을 적어 송별하다		
.....	이언적	84
영남루	최 호	84
영남루	정만중	84
영남루	조광원	85
소루	박세후	85
소루	박세후	86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송 순	86
영남루 동편의 봉래관 운을 따라 2수	송 순	87
영남루에서 경차관 이원길공에게 주다	송 순	87
유천역 지나는 길에 영남루를 추억하며	송 순	88
소루	양 답	88
영남루	송 겸	89
영남루 운을 따라, 밀양으로 부임하는 사군 안태고를 전송하며		
.....	주세붕	89
영남루	채무일	90
영남루	이도남	90
영남루	오 겸	91
영남루	정언각	91
영남루	심통원	91
영남루	이몽량	92
영남루 2수	채무적	92
영남루	이 황	93
영남루	이 황	44
게임이 밀양 영남루에서 박창세의 스물 두 운 시에 화답한 시를 차운하여		
.....	이 황	95
영남루	조사수	97
영남루	조사수	98

소루	임억령	98
소루	유 수	99
영남루	신 일	100
소루	신 일	101
영남루	성세장	101
영남루	정응두	102
영남루	박승간	102
영남루	홍 담	102
영남루	유 강	103
영남루	정종영	103
영남루	남응룡	104
영남루	박소립	104
영남루에서 영자 운을 사용하여 능파당의 주인 안태고에게 주다		
.....	정유길	105
영남루에서 또 제자 운을 사용하여		
.....	정유길	105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2수		
.....	심수경	106
영남루	김수문	107
영남루	유경심	107
영남루	조 숙	107
영남루	양 홍	108
영남루	장문보	109
소루	장문보	109
영남루	최개국	110
영남루에서 부사 정현의 시에 화답함 2수		
.....	황준량	111
영남루	양응태	111
영남루	한여철	112
영남루	이희검	112
영남루	윤 반	112
밀양 영남루 운에 따라 2수		
.....	권 벽	113
가을 날 영남루에 올라		
.....	권 벽	114
영남루	이 감	114
영남루	정언지	115
영남루	이 명	116
영남루	신의충	116
영남루	곽회영	117
영남루	조광언	118
영남루	이 린	118
영남루	황 서	119
영남루	정복시	119

영남루	김우홍	119
영남루	유 홍	120
영남루	유 홍	120
영남루	유 홍	121
영남루	박계현	121
영남루	이귀수	122
영남루	유 훈	122
영남루	이양원	122
영남루	최 웅	123
영남루	홍 연	123
영남루	이경우	123
영남루	윤지형	124
영남루	이경희	125
영남루	손홍서	126
다시 앞 시의 운에 따라 사회에게 응답한 시 5수 가운데 영남루의 명승		
.....	구사맹	126
영남루 운을 따라	구사맹	127
영남루	송정순	127
영남루	송정순	128
영남루 운을 따라 밀양으로 부임하는 행가를 전송하며	권호문	128
늦봄에 송원에서 잔치를 베풀며 영남루 운을 차운하다	권호문	129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홍성민	129
영남루 운을 따라	홍성민	130
능파당 운을 따라 4수	홍성민	130
침류당 운 3수	홍성민	131
능파당 운 5수	홍성민	132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주인인 밀양부사에게 주다	홍성민	133
밀양의 누선 운	홍성민	134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4수	홍성민	134
영남루	윤우신	135
영남루	김희필	136
영남루	작자미상	136
영남루	민덕룡	138
영남루	기 령	138
영남루	김성일	139
영남루	윤탁연	141
영남루	김극일	143
영남루	김극일	144
영남루	김극일	145

영남루	김극일	145
영남루	김천일	145
밀양 영남루 운 2수	김 룩	146
안태고 주가 밀양으로 가는 걸음에 지어 준다. 열 수 가운데 그 다섯째와 여섯째 시	이덕홍	147
영남루에서 밤에 일어나 우연이 읊다	이 우	147
영남루	윤우신	148
영남루	유성룡	148
영남루	정희번	149
영남루	정경달	149
영남루에서 심상사를 이별하며	양대박	150
꿈에 여러 벗들과 영남루에 올라 운자를 불러 시를 지었는데 꿈을 깨어 그중 절구 두 수를 적다	손기양	151
한음 이상공이 영남루 옛터를 지나며 읊은 시의 운을 따라	손기양	151
영남루에서 사신 행렬을 동래로 보내며	손기양	152
능파당에서 조여익과 송별하며	손기양	153
능파당에서 조사군 두 형제분에게 준다.	손기양	153
소루	김지남	154
송운 스님의 운자를 따라 영남루를 읊다. 2수.	이덕형	154
소루	유 도	155
능파당에 올라 2수	허 적	156
영남루에서 한음 이상공의 시를 따라 2수	강 향	157
소루	이연영	158
능파당	안 숙	159
영남루에서 앞의 운을 따라	안 숙	159
영남루 새로 지은 누각을 읊다 3수	이안눌	160
영남루 옛 시운을 따라 3수	이안눌	162
영남루에서 다시 읊시를 짓다	이안눌	163
영남루에서 손오한과 더불어 창수하다	박수춘	164
영남루 자리에서 동악 이안눌의 낙성 시운을 따라	박수춘	165
영남루에서 시판의 운을 따라 지어 함께 노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다.	조임도	166
소루	신득연	166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고	김웅조	167
영남루 운을 따라	김웅조	167
영남루	조 빈	168
소루	이민구	168
소루	윤일민	169

소루	곽천구	169
영남루	이 침	170
영남루 운을 따라	윤순지	170
소루	최 욱	171
도은의 영남루 운을 따라 밀양의 사군 김효징에게 주다	이경석	172
소루	이기조	172
영남루 2수	임 담	173
밀양 영남루	김홍욱	174
영남루에서 시판의 운에 따라	김홍욱	174
섬아가 지은 밀양도의 운에 따라	신익전	175
영남루	임의백	175
영남루	조 형	176
소루	민 회	176
방백 이명웅의 영남루 연석의 운에 따라 2수	이이정	177
영남루에서 시판의 운을 따라	홍 위	178
영남루에서 저물녘에 읊다	홍 위	179
밤에 영남루 앞 강에 배를 띄우고	홍 위	179
영남루 2수	안후직	180
영남루 3수	남용익	181
영남루에서 옛 운을 따라	남용익	182
영남루에서 독우 민위와 상사 박양 두 동년을 만남을 기뻐하며 겸하여 주인인 이 사군 진에게 올림	남용익	183
영남루에서 벽 위의 운을 따라	신 정	183
밀양 영남루에 올라	임상원	184
순찰사 홍만조가 영남루에 와서 써서 보여준 시운에 화답하여	임 방	185
영남루에서 경차관 윤유기의 시운을 따라 급히 짓다	손석좌	185
밀양부사 홍구언이 보낸 시에 대한 답장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나는 안동에 있었기 에 시를 지어 갚다	최석정	186
밀양 영남루에 올라	이현석	186
밀양 사또 홍수주가 억지로 시를 요구하기에 입으로 불러 지어 주다	이현석	187
영남루에서 주인인 부사 홍구언과 더불어 주고받은 연구	이현석	188
영남루	김창흡	189
밀양 영남루	김창흡	190
영남루에서 주인인 사또 이계상에게	김창흡	190
주인 사또과 함께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고 3수	김창흡	191
영남루 시판의 운을 따라	권두경	192
영남루에서 윤경차관의 시운을 따라	이만백	193

늦봄에 영남루 글모임에서 순찰사에게 올림	이만백	193
영남루 잔치 자리에서 명부에게 올리다	이만백	195
영남루	채팽윤	196
학산이 영남루를 지나며 오르지 못하고 지은 시를 따라	조태억	197
영남루를 중수하고 3수	이희주	198
영남루	이 위	199
영남루에 올라	윤봉구	200
영남루	조언신	200
영남루	김리만	201
영남루	권 만	201
영남루	이광보	202
영남루	남덕로	202
영남루	임 정	203
영남루	임 정	204
영남루	정민교	204
영남루	김천택	205
영남루	황경원	205
영남루	이인상	206
영남루	박사해	206
영남루	이형만	207
영남루	이현태	207
영남루에 올라	이현경	208
영남루	안경점	208
무봉암	안경점	209
영남루	정범조	209
영남루 시판의 운을 따라	정범조	210
객지에서의 밤에 영남루를 바라보며	정범조	210
영남루	이 미	211
영남루	김상집	211
영남루에서 벽 위의 운을 따라	조 경	212
영남루	권심언	212
영남루	김노진	213
영남루 절구 열 수, 부사 박종우에게 바침	안인일	213
영남루	윤 기	217
영남루 모임 석상에서 루자 운을 뽑아	손병로	217
영남루의 뱃놀이, 신경희 택명에게 줌	손병로	218
영남루 주석에서 급하게 지어 사또 박종우를 전별하다. 2수	손병로	219
영남루 모인 자리에서 운을 뽑아 누(樓)를 얻었다.	남경희	220

영남루	김재일	220
영남루	허 형	221
영남루	김광태	221
영남루	조덕상	222
영남루에서 삼연 선조의 시운을 따라	김리탁	222
영남루	김리탁	224
영남루	조휘진	225
영남루	김광목	225
영남루 2수	남공철	226
영남루 시판의 운을 따라	이근오	227
영남루	윤광호	227
영남루 4수	박종우	228
영남루 2수	이상도	229
영남루	김노웅	230
영남루	유한식	231
영남루	이면승	231
영남루 아래 주점에서 입으로 읊다	이학규	232
영남루	이학규	232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고	노우수	233
영남루	김양순	233
영남루 2수	김정균	234
영남루 2수	서락수	235
영남루 3수	조기복	236
영남루 운을 따라	유 현	237
영남루	황기원	237
영남루	허 전	238
영남루에서 승선 이정민을 전송하며 2수, 정민은 금릉에서 사면 받아 돌아가는 길 이었다.	이제영	239
영남루 상량을 보면서	이제영	240
영남루에서 점필재의 운에 따라	이형렬	240
영남루 주석에서 책실 정기생 형제를 송별하며	손종태	241
영남루 운을 따라	손종태	244
영남루에서 사군 이경의 시운을 따라	손종태	244
영남루의 노래, 악부 12울로 지어 명부 정노용에게 주다 ...	손종태	245
점필재 선생이 양씨 아가씨에게 지어 준 영남루 죽지곡 9장을 따라	손종태	248
영남루 운을 따라 연서 사군의 삼랑진 행헌 아래에 바침 ..	손종태	250
영남루 주석에서 장삼에게	손종태	250
영남루	임익상	251

영남루에서 시판의 운을 따라	배극소	252
영남루 벽에 짓다	강 위	252
영남루	김기호	253
밀양 영남루에 올라	장석룡	254
이성오 영구가 영남루에 놀며 지은 시의 운을 따라 급히 지어 화답하다 2수	손회수	254
영남루	노필연	255
영남루에서 유부사와 함께 시판의 운을 따라	허원식	256
달밤에 영남루에 올라	허 훈	256
영남루	신석균	257
무봉대	신석균	257
영남루 시판 운에 삼가 사족을 달다	이정봉	258
영남루	송병선	258
영남루에서 양현공 시판의 운을 경건히 차운하여	이조한	259
영남루	이만도	259
영남루	김진호	260
권하석을 밀양부로 찾아가서 영남루에 오르다	이상규	261
영남루	장석영	261
영남루	장승원	262
영남루	장상학	262
아랑각	장상학	263
무봉암	신익균	264
영남루에 올라	안하진	264
중수 뒤의 영남루에 올라	강신철	265
영남루	조종진	265
무봉대	작자미상	266
삼가 시판의 운을 차운함		266

영남루의 내력

영남루중수기(1365)	김 주	269
소루기(1442)	권 기	271
영남루기(1460)	신숙주	272
영남루중수기(1542)	신광한	274
능파당소기(1542)	신광한	276
영남루기(1588)	윤의정	277
영남루중건기(1724)	이희주	279
영남루중수기(1793)	김광목	281

영남루중수기(1806)	김재화	282
능파당기(1825)	이화연	283
영남루중수기(1844)	조인영	284
영남루중수기(1848)	안인일	286
유영남루기(1768)	유휘문	292
능파당상량문(1642)	이이정	294
영남루중수상량문(1832)	조기복	300
영남루중건상량문(1844)	김홍근	306

영남루의 전설

원한 씻은 붉은 깃발	김경진	318
영남루의 붉은 깃발	이원명	324
영남루 달밤에 이상사를 만나 전생의 원한을 말하다	배극소	329

영남루 제영시

영남루는 영남 제일의 시루(詩樓)이다. 그 빼어난 경관으로 인하여 고금의 시인들이 수많은 제영을 남겼다. 조선 선조 때 영남루에 걸린 시판은 이미 3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은 12개의 시판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전해지는 시는 모두 명편 걸작이다.

영남사에서[題嶺南寺]

임 춘(林 椿)¹⁾

일찍이 푸른 바다 신선 사는 원교²⁾에
영롱한 누각이 큰 자라 타고 있었는데
자라 기울고 바다 흔들려 신선들이 놀라고
높은 봉우리 하나를 아득히 잃어버렸다지.
그게 문득 이곳으로 옮겨 날아와서는
옛 성 해자 앞에 천고토록 웅크리고 있네.
공중에 옥을 쌓듯 우뚝 솟아서
백 길 맑은 못에 질푸른 물이 비끼고,
복사꽃 띄운 물이 골짜에서 나오니
주민은 완전히 선진의 풍속³⁾.
푸른 산 그림자 속에 두 세 집이요,
수양버들 그늘 속에 천이요 만 집.
해 저문 들녘에 소와 말은 돌아오고
봄 깊은 물가에는 물오리 헤엄친다.
어부가 젓는 배는 나는 듯한데
계곡을 몇 구비나 틀고 돌았나?
서울을 떠난 손은 어느 때 떠나왔나,
누각 위에서 천리 길 멀리 보려네.
산인가 구름인가 멀어서 한 빛인데
먼 하늘 기러기 점 끊어졌다 이어지네.
하늘가에 저무는 모습 참으로 창연하여
고향집 생각 다급한 마음을 어찌하나?
다시 와서 이 누각에 오르지 말자,
풍경 좋은 곳이 시름을⁴⁾ 자아내나니.

- 1) 임춘(林椿; 1148-1189): 고려 명종 때의 문인. 자는 기지(耆之), 서하(西河) 사람. 예천(醴泉) 임씨의 시조이다. 무신(武臣)의 난 이후 전국 각지로 피신하여 다녔으며, 이인로(李仁老) 오세재(吳世才) 등과 칠현의 교분을 맺고 시로 명성을 떨쳤다.
- 2) 원교(圓嶠): 다섯 곳 선산(仙山)의 하나. 《열자(列子)》 <탕문(湯問)>에, “발해의 동쪽에 큰 바다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여(岱輿), 원교(員嶠), 방호(方壺), 영주(瀛洲), 봉래(蓬萊) 등 다섯 개의 산이 있다. 그 산들은 높이와 둘레가 각기 3만리이고 그 정상에 평탄한 곳이 9천리이며 산의 중간 사이의 거리가 7만리이며, 그 위의 대관은 모두 금과 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의 금수는 모두 순백색이며, 옥같은 나무가 무리지어 나 있고 그 열매는 모두 맛이 좋으며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도 않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신선과 성인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 3) 선진(先秦)의 풍속: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무릉 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전국시대 말엽 진(秦)나라의 난을 피하여 숨은 사람들로서, 진나라 이전의 풍속을 지키고 있다 하였다.

曾聞圓嶠臨蒼濤 樓閣玲瓏駕巨鼇
 鼇傾海動群仙駭 茫茫失去一峯高
 飛來恍惚移於斯 磅礴千古當古壕
 突起連空如疊玉 百丈清潭橫鴨綠
 水泛桃花出洞中 居人宛如⁵⁾秦餘俗
 青山影裡兩三家 垂柳陰中千萬屋
 日暮郊原牛馬歸 春深洲渚鳬鷺⁶⁾浴
 漁舟之子棹如飛 溪岸不知盤幾曲
 洛城遷客來何時 樓上欲窮千里目
 山耶雲耶遠一色 雁點長空行斷續
 天涯晚色正蒼然 其奈思家心更速
 不用重來登此樓 烟波好處使人愁

영남사의 죽루[嶺南寺竹樓]

임 춘

영남의 산수는 남방에 으뜸이라,
 누각 위에 봄이 오자 우연히 한 번 올랐네.
 근심스레 찌푸린 눈썹은 멀리 외딴 뱃부리요
 마전하여 고루 편 배는 맑고 푸른 물결이라.
 구름은 그림 도리에서 상포⁷⁾로 날아가고
 바람은 고깃배를 무릉⁸⁾으로 보내네.
 시 읊고 붓을 휘둘러 분벽에 남겨두나니
 다시 오면 내 옛 일을 기억하려고.

嶺南山水甲吳興 樓上春來偶一登
 橫皺愁眉孤岫遠 平鋪淨練碧波澄
 雲飛畫棟歸湘浦 風送漁舟入武陵
 吟罷揮毫留粉壁 重遊聊欲記吾曾

4) 풍경 좋은 곳이: 당나라 시인 최호(崔顥)의 <동황학루(登黃鶴樓)> 시에, “해 저문 타향 이곳이 어디메나?/ 강가의 풍경이 사람을 근심하게 하네[日暮鄉關何處是 烟波江上使人愁]”라 하였다.

5) 문집에는 如→是

6) 문집에는 鷺→鳬

7) 상포(湘浦): 영남루 서남편으로 보이는 삽포(鍾浦; 沙浦)를 가리킨 듯하다.

8) 무릉(武陵): 영남루 동남편으로 무릉리가 있다.

밀양에 노닐면서[遊密州書事]

임 춘

산 많은 고을에 아름다운 곳 많아
 명성이 높기로는 한 방면의 으뜸.
 땅이 신령하여 인재 절로 걸출하고
 들이 비옥하여 해마다 풍년이 드네.
 배와 수레가 몰려드는 도회지요
 예의의 풍속이 남아 있는 고장.
 촉군처럼⁹⁾ 선비도 많은데다
 절경은 여항¹⁰⁾의 첫째라네.
 술과 국화는 팽택¹¹⁾에 황량하고
 안개와 파도는 악양¹²⁾에 흔들리네.
 산이 깊어 새가 지저귀고
 하늘은 물과 더불어 아득하네.
 메뿌리 푸르게 새 병풍 열고
 호수 맑아서 말끔하게 단장했네.
 하늘에 닿도록 나무 장막 치고
 눈을 떨치고 차 앞이 하늘거린다.
 사철 내내 대나무 푸르고
 일 천 대문에 가는 버들 노랑네.
 밥상 위엔 바다와 육지의 산물 넉넉하고
 관현악 음악소리 궁상(宮商)의 곡조 묘하다.
 좋은 경치 만나 시흥(詩興)을 더하고
 한가한 여유 있어 술잔에 취하네.
 봄 오리 노는 물이 따뜻하고
 저녁 제비는 봉황의 누대에 서늘한데,
 서창(書窓)의 달빛에 꿈을 깨고
 연침(燕寢)의 향내가 옷에 어리네.

9) 촉군(蜀郡)처럼: 한나라 때 문옹(文翁)이 촉군(蜀郡) 태수가 되어 학문을 권장하자, 한 고을의 기풍이 바뀌어 사마상여(司馬相如), 왕포(王褒), 엄준(嚴遵), 양웅(揚雄) 등의 걸출한 인재가 배출되었다.

10) 여항(餘杭): 중국의 절강성 항주(杭州)이다. 예로부터 산수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칭송된 곳이다.

11) 팽택(彭澤): 중국 강서성(江西省) 호구현(湖口縣)의 동쪽에 있었던 옛 고을 이름. 진(晉)나라의 도연명이 일시 이곳에 현령을 지낸 적이 있었다.

12) 악양(岳陽):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악양현(岳陽縣). 악양현의 서문(西門)에 있는 누각이 악양루이다.

구경하는 마음에 즐거운 일 함께 하고
 흥을 타고 청광¹³⁾을 마음껏 하였네.
 오래도록 좋은 산천에 잡혀 머물다
 돌아보니 갈 길이 너무 멀구나
 스러지는 노을에 등왕각¹⁴⁾ 바라보고
 밤비에 소상강¹⁵⁾ 소리를 들으며
 채찍을 재촉하여 갈 길을 떠나니
 마음도 기러기 따라 충충하구려.
 왕발¹⁶⁾처럼 노을과 따오기로
 남창¹⁷⁾의 풍치를 적을 필력이 없네.

山郡多佳麗 名高冠一方
 地靈人自傑 野沃歲頻穰
 路控舟車會 風存禮義鄉
 多儒如蜀郡 絕景甲餘杭
 松菊荒彭澤 烟波動岳陽
 山深禽格磔 天與水蒼茫
 岫碧開新障 湖晴倚淡粧
 際天排樹幄 拂雪裊茶槍
 四序叢筠綠 千門細柳黃
 盃盤饒海陸 絃管妙宮商
 遇勝添詩興 餘閑泥酒觴
 春行晝渚暖 暮燕鳳樓涼
 夢覺書窓月 衣凝宴寢香
 賞心并樂事 乘興放清狂

- 13) 청광(淸狂): 사심 없이 천진난만하여 미친 듯한 모습.
 14) 등왕각(滕王閣): 당나라 고조(高祖)의 아들 원영(元嬰)은 등왕(滕王)으로 책봉되었는데, 일찍이 홍주(洪州)의 자사가 되어 세운 누각이다.
 15) 소상강(瀟湘江): 중국 호남성의 강 이름. 상고시대 순(舜)이 남방을 순시하다가 이곳에서 운명하였는데, 그 두 부인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피눈물을 뿌리며 슬퍼하다 죽었기에 그곳 대나무에 붉은 반점이 있는 반죽(斑竹)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곳이다.
 16) 왕발(王勃): 당나라의 문인. 자는 자안(子安)이다. 당나라 함형(咸亨) 2년(671)에 홍주목사 염백서(閔伯巖)가 등왕각에서 빈객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 때 등왕각서를 지어 명성을 떨쳤다.
 17) 남창(南昌): 등왕각이 있는 홍주(洪州)의 옛 이름. 왕발의 <등왕각서>는 “남창은 옛 군이요 홍도는 새 읍이라[南昌古郡 洪都新府]”는 구절로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지는 노을은 외로운 따오기와 나란히 날고/ 가을 강물은 먼 하늘과 한 빛이라[落霞與孤鶩齊飛 秋水共長天一色]”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왕발이 이 두 구절을 짓자, 홍주목사 염백서가 손백을 치며 기묘하다 감탄하였다고 한다.

久被山川住 飜嗟道路長
殘霞望滕閣 夜雨聽瀟湘
鞭促征鞍發 心隨去鴈忙
嫌無王勃筆 霞鷺記南昌

2월 15일 밤 달을 마주하여[二月十五夜對月并序]

임 춘

옛날 한림 황공¹⁸⁾이 일찍이 중춘에 달을 마주하여 지은 시에 “봄밤은 얼마나 삭막하며/ 추석은 너무도 스산하구나”라고 하였는데 그 말과 이치가 다 합당함을 사랑하였다. 영남사에 노닐다가 마침 그 저녁이 되어 누대에 올라 달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그 구절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어 읊는다.[昔黃翰林公嘗作仲春對月詩云 春宵何索莫 秋夕獨喧顛 嘗愛其詞理俱得 及遊嶺南寺 適值此夕 登樓望月 忽憶其句 遂續而賦之.]

예로부터 시인들은
모두들 추석이 좋다고 말하였지만,
본디 이 설도 공평하지 못한 것은
매양 중춘이 되면 공연히 탄식하기 때문.
차고 더운 여름 겨울 두 계절 가운데라
좋은 경치 맑은 광경 참으로 대등하나,
밝은 달은 무심히 이지러졌다 둥그는데
사람 생각이 저절로 가을빛을 슬퍼하네.
이러한 시인들의 한 가지 묘한 일에
동이와 시비를 그 누가 변론하리?
선생께선 당년에 홀로 글을 지어서
천고의 의문을 하루아침에 풀어주었네.
금년 봄 이월이라 보름날 저녁,
나는 영남루 누각 위로 갔었네.
온 세상이 맑게 개이고 미풍이 불며
옥쟁반 같은 달이 올라 먼 하늘 푸른데,
발 걸자 문 밖은 대낮처럼 밝고
안팎으로 실안개 하나 없었지.
침침한 달빛 찬 시내를 바로 비추니
맑은 물결 아래위를 구별하기 어렵네.

18) 한림(翰林) 황공: 송나라의 시인 황정건(黃庭堅).

지금 사람 도리어 황정견¹⁹⁾을 생각하며
봄밤이 얼마나 삭막하냐고 말할 줄 아네.

吾聞自古風騷客 皆言勝賞唯秋夕
由來此說亦未公 每到仲春空歎惜
寒暄天氣兩得中 美景清光眞自敵
明月無心缺復圓 自緣人意悲秋色
念此詩家一段奇 同異是非誰辨析
夫子當年獨著篇 千年疑論一朝釋
今春二月十五夜 我向嶺南樓上適
乾坤開霽微風緊 玉盤東轉長空碧
捲簾門外明如晝 表裏更無纖靄隔
沈沈正照寒溪面 澄波上下難相別
今人却憶黃庭堅 解道春宵何索寞

영남루(嶺南樓)

성원도(成元度)²⁰⁾

나는 사방으로 돌면서 빼어난 누관(樓觀)을 많이 관람하였으나, 걸음을 많이 옮기지 않고서도 올라와 먼 곳을 조망하며 끝없이 활달하기로는 이 누각 만한 곳이 없었다. 남방의 아름다운 누각으로 안동의 영호루(映湖樓)와 울산의 태화루(太和樓)와 김해의 연자루(燕子樓)와 진주의 축석루(矗石樓)와 함천의 함벽루(涵碧樓)가 있지만, 모두가 이 누각과 어깨를 견주지 못한다. 여강의 청심루(淸心樓)나 평해의 망사정(望槎亭), 단양의 봉소루(鳳韶樓)와 비교하여 말하여도 그 중에서 감을 차지한다 할 것이다. 이 누각은 밀양부의 길가에 위치하였는데, 북쪽으로는 소나무 언덕에 의지하였고 서쪽으로는 관도(官道)에 임하였으며, 큰 강이 그 사이로 비껴 흐르고, 삼면에 겹겹이 산으로 에워싸였으며, 아득하게 넓은 광야가 바둑판처럼 평탄하고, 그 가운데 큰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흐린 날이나 개인 날이나 아침저녁과 사철의 경치가 무궁하여, 시로 다 기록할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낼 수가 없다. 생각건대 남방 산수의 정령이 밀양에 모여 이 누각을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정 갑신년(1344) 봄에 찰방(察訪)의 직책을 받들어 이 도를 순시하면서 이 군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군수 유공(兪公)이 나에게

19) 황정견(黃庭堅); 북송의 시인으로 자는 노직(魯直)이며 호는 산곡(山谷)이다.

20) 성원도(成元度; 1344경): 창녕성씨 족보에 의하면 광정대부(匡靖大夫),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 집현전대학사(集賢殿大學士)를 지낸 성사홍(成士弘)의 본디 이름이 원도(元度)라 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영남루 조에는 임춘의 시 앞에 이 시가 맨 먼저 실려 있었다.

눈을 붙일 만한 글을 위촉하였다. 그래서 사운(四韻) 장구(長句)를 지어 판 위에 새긴다. 뒤에 오는 군자들은 시가 치졸하다고 꾸짖지 말기를 바란다. [吾遊於四方 觀覽樓觀之勝者多矣. 不離跬步 登臨眺遠 豁然無極者 莫斯樓之若也. 南方之美者 有福之暎湖 蔚之太和 金之燕子 晉之礪石 陝之涵碧焉 皆不能并肩於斯樓. 若與驪江之清心 平海之望槎 丹陽之鳳韶言之 則可謂甲乙於其間. 斯樓處郡之路傍 北倚松岡 西臨官道 大江橫流於其間 列岫重圍於三面 廣野微茫 平如碁局 大林蒼蔚於其中 陰晴朝暮 四時之景 無窮焉. 詩不能盡記 畫不能盡摹. 疑其南方山水之靈 聚密陽 而扶擁於斯樓也歟. 予於至正甲申春 承察訪之命 出巡此道 道過是郡 郡之倅俞公 屬予寓目. 因作長句四韻 書于板上. 後來君子 毋以拙惡爲誚. 詩曰.]

붉은 난간은 우뚝 구름 하늘에 치솟고
 늘어선 산 이어진 봉우리 눈앞에 몰려든다.
 아래로는 긴 강이 흘러 그치지 않고
 남쪽으로 임한 큰 들은 끝없이 넓구나.
 시골 다리에 짙은 버들은 일천 숲의 비요
 관로²¹⁾의 밝은 꽃은 십리의 연기로다.
 풍경을 구경하러 올라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환영 잔치를 베풀까봐.

朱欄突兀出雲天 列岫連峰湊眼前
 下有長江流不盡 南臨大野闊無邊
 村橋柳暗千林雨 官路花明十里煙
 不欲登臨賞風景 恐人因此設歡筵

영남루

이인복(李仁復)²²⁾

더위 무릅쓰고 올랐더니 하늘 가득 가을이요
 눈앞의 장관은 전에 없던 경치로다.
 산은 서쪽에서 꺾여 구름 밖에 비졌고
 물은 동에서 흘러와 언덕 가로 돌렀네.
 관현악 흥겨운 곡조 세월이 한가롭고

21) 관로(官路): 관청에서 개설한 도로.

22) 이인복(李仁復; 1308-1374): 자는 극례(克禮) 호는 초은(樵隱), 성주인(星州人). 충숙왕 13년(1326) 문과에 급제하고 충혜왕 복위 3년(1342) 원나라의 제과(制科)에 급제하였으며, 공민왕 때 관직이 정당문학(政堂文學)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검교시중(檢校侍中)에 이르고 성산군(星山君), 흥안부원군(興安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긴 숲 무성한 풀에 바람 안개 좋구나.
 줄곧 노니는 광경 어찌 일에 방해되랴,
 한껏 취해 끝까지 비단 자리를 밟아야지.

觸熱登臨秋滿天 眼中壯觀覺無前
 山從西折橫雲表 水自東流繞岸邊
 急管繁絃閑日月 長林豐草好風烟
 留連光景何妨事 爛醉終須踏錦筵

2

영남루

이 색(李穡)²³⁾

위는 나의 목은 선조의 시이다. 옛날에 판각이 있었는데 임진 계사의 재난에 화재를 면했으나 읍 사람들이 잘 간수하지 아니하여 없어지게 되었으니 개탄스럽다. 소자는 마침 누각이 불에 탄지 십년 뒤에 부임하여 와서 유허에 올라 돌아보고는 고적이 점차 사라짐을 개탄하고 고쳐 짓는데 유의하여 재목을 모으고 돌을 캐어서 여덟 달을 거쳐 마침내 공사를 마쳤다. 누각이 완성됨에 선생께서 남긴 글을 다시 걸어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삼가 판각에 부쳐서 후세에 환하게 전하려 하나니, 이 누각과 더불어 없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갑진년(1844) 늦가을 하순에 16대손 부사 인제는 삼가 쓴다.[右卽我牧隱先祖詩也. 舊有板刻 龍蛇之厄 得免灰燼 而邑人不善藏守 以致遺亡 可慨也已. 小子適爲來蒞於樓燬十年之後 登遺墟而顧瞻 歎古蹟之寢湮 銳意改創 鳩材伐石 經八箇月而始得訖功 樓旣成矣 先生遺篇 不可不更爲表揭 故謹付劂劂 昭示來許 庶幾與斯樓而不朽也夫. 歲在甲辰暮秋下澣 十六代孫 府使 寅在 謹識.]

영남루 아래로 큰 내가 비껴
 가을 달 봄바람이 태평이로다.
 문득 눈앞에 삼삼한 은어,
 사문의 웃음소리 귀에 들리는 듯.²⁴⁾

23) 이색(李穡, 1328-1396):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한산인(韓山人). 14세에 진사가 되고 21세 때 원나라의 국자감 생원이 되었으며, 26세에 정동행성 향시(鄉試)에 장원하고 이듬해 원나라의 회시(會試)에 장원, 전시(殿試)에 2등으로 입격하여 원나라의 관직에 등용되었다가 귀국하여 홍건적의 난을 치르고 대사성(大司成), 문하시중(門下侍中)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 여러 곳으로 유배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시호는 문정(文靖). 이 시는 《목은시집》에 보이지 않으나, 후손 인제가 영남루에 새겨 걸어놓은 시판이 지금도 전해진다.

24) 사문(斯文)의 웃음소리: 손병현(孫柄鉉)이 편찬한 《밀주승람(密州勝覽)》에는 이 시에 주석을 붙여, “당시 밀양의 유생이 무슨 일로 선생에게 글을 청하면서 은어 포

嶺南樓下大川橫 秋月春風屬太平
忽得銀魚森在眼 斯文笑語可聞聲

영남루25)

문익점(文益漸)²⁶⁾

선조 삼우당 충선공께서는 옛날 홍무 병진년(1376)에 청도 군수로 와서 영남루 시를 지었는데 유고에 실려 있다. 이제 걸어놓은 시판이 없는 것은 필시 세월이 오래되고 여러 번 화재를 겪었기 때문이리라. 서글피 추모하는 마음에 삼가 시판에 새겨 걸어둔다. 순정 이후 네 번째 병오년(1846)에 후손 병렬은 삼가 쓴다.[先祖三憂堂忠宣公 昔在洪武丙辰 守清道 有題嶺南樓詩 載於遺稿. 今無揭板 必是歲紀悠遠 屢經回祿而然也. 不覺愴慕 敬刻于板以揭之. 崇禎四丙午後孫秉烈謹書.]

선선이 사는 곳에 있었던 골짜기를
여섯 자라 머리에 이고 이 앞에 읊었다지.
개인 내의 우거진 풀에는 산들바람 일고
외로운 따오기 지는 노을은 석양 가에 있네.
넓은 들에 말과 소는 나그네의 길을 분간하고
먼 마을 닭과 개 짖는 소리 인가가 이어졌네.
특별한 곳 풍경을 말로 다하기 어려워
그림으로 그려다가 임금님께 바치려네.

聞說神仙有洞天 六鰲頭戴忽移前
晴川芳草好風裡 孤鷺落霞斜日邊
曠野馬牛分客路 遠村鷄犬接人煙
別區光景言難竟 畫取吾將獻御筵

3

를 예물로 가져갔으므로 선생이 이 시를 지었다[時密陽儒生 以事謁文于先生 而以銀魚脯爲贄 故先生作此詩]"고 하였다.

25) 이 시의 시판은 현재 영남루에 걸려 있다.

26) 문익점(文益漸; 1329-1398): 초명은 익첨(益瞻), 자는 일신(日新), 호는 삼우당(三憂堂), 시호는 충선(忠宣), 남평인(南平人)이다. 공민왕 9년(1360) 문과에 급제하였고, 계품사의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다녀오면서 목화씨를 가지고 들여와 장인 정천익(鄭天益)과 더불어 이를 재배하여 보급하였다. 이 공으로 조선 세종 때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강성군(江城君)에 추봉되었다.

밀성 사군²⁷⁾ 이석지에게[寄密城李使君釋之]

정 추(鄭樞)²⁸⁾

아득히 남방의 고을을 바라보면
가을 바람 생각이²⁹⁾ 느긋해지네.
보낸 지 겨우 두어 달인데,
못 본 지 삼 년이나 되는 듯.
앞이 저서 산은 새로 여위고
모래 차가와 물은 급히 흐르는데,
옛 사람은 어느 곳 피리 소리에
길게 휘파람 불며 강루에 앉았나.

極目望南州 西風意轉悠
相遣纔數月 不見抵三秋
葉脫山新瘦 沙寒水急流
故人何處笛 長嘯坐江樓

다시 밀성에 놀며, 임강선 곡조로 짓다[重遊密城 臨江仙]

이 침(李詹)³⁰⁾

봄 여울은 연기와 섞여 먼 들을 나누고,
다리 가의 버들은 늘어졌는데,
꽃향기 타박타박 옷에 스미네.
누대가 한없이 좋아,
탕자는 어느 때나 돌아갈꼬?

27) 사군(使君); 지방 고을의 수령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28) 정추(鄭樞; 1333-1382); 자는 공권(公權), 호는 원재(圓齋), 시호는 문간(文簡), 청주인(淸州人)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좌사의대부로 공민왕 때 신돈(辛旽)을 탄핵했다가 동래현령으로 좌천되었다. 신돈이 처형된 후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하였다.

29) 가을 바람 생각[西風意]; 진(晉)나라 장한(張翰)은 자가 계웅(季鷹)이고 오군(吳郡) 사람인데, 벼슬살이를 하다가 어느 해 가을 바람이 불자 갑자기 고향의 순채(蓴菜)와 농어(鱸魚) 회가 생각나서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30) 이침(李詹; 1345-1405); 자는 중숙(中叔), 호는 쌍매당(雙梅堂), 시호는 문안(文安)이며 홍성인(洪城人)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대언을 역임하고 조선 개국 후에 대사헌과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하였다.

春瀨和煙分遠野
官橋楊柳依依
花香冉冉襲人衣
樓臺無限好
宕子甚時歸

배를 띄워 달밤에 놀던 지난 날,
농어가 낚시터에 펄쩍 뛰고,
중류에는 이슬꽃이 희미해졌지.
여기 와 지난 일 생각하니
황학루에 흰구름 날아감³¹⁾일세.

憶昔泛舟遊夜月
鱸魚跳上漁磯
中流漸覺露華微
此來思往事
黃鶴白雲飛

영남루에서[題嶺南樓]

이숭인(李崇仁)³²⁾

높은 누각 올라 보니 하늘에 오른 듯
좋은 경치 어지러이 앞뒤로 펼쳐졌네.
바람과 달 짝지어 맑음은 고금에 변함 없고
강과 산은 십리에 절로 안과 밖을 이루었네.
가을 깊어 관로에는 단풍 든 나무 어른거리고
해 저문 어촌에는 흰 연기 생겨나네.
나그네는 길게 읊조리며 시를 못 이루는데,
사군의 잔치 상은 손을 맞아 반듯하네.³³⁾

31) 황학루(黃鶴樓)에 흰 구름: 당나라 최호(崔顥)의 황학루 시에 “황학은 한 번 간 뒤 돌아오지 아니하고/ 흰 구름만 천년 토록 유유히게 흐른다[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라 하였다.

32) 이숭인(李崇仁; 1349-1392):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 성주인(星州人).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정몽주, 김구용 등과 함께 성균관의 학관을 역임하고, 예문 제학(提學),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이르렀다가 조선이 개국한 뒤 정몽주의 일당으로 몰려 유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살해되었다.

33) 손님 맞아; 《시경》 <빈지초연(賓之初筵)> 시에 “손님맞은 자리에/ 좌우가 반듯

高樓登眺若登天 景物紛然後忽前
 風月雙清是古今 江山十里自中邊
 秋深官路映紅樹 日暮漁村生白烟
 客子長吟詩未就 使君樽俎秩初筵

4

영남루34)

도원흥(都元興)³⁵⁾

단청한 누각이 밝아 물 속 하늘을 눌렀으니,
 옛날 누가 이 봉우리 앞에 지어두었던가?
 장대 하나 어적³⁶⁾은 빗소리 밖에 들리고,
 십리 저곳 나그네는 산 그림자 곁으로 간다.
 현함에 드는 구름은 무협³⁷⁾의 새벽에 생기고
 물 따라 흐르는 꽃은 무릉³⁸⁾의 연기에서 나오네.
 갈매기는 다만 양관곡³⁹⁾을 듣기만 할 뿐,
 근심스런 사람 송별 자리를 어찌 알겠나.

金碧樓明壓水天 昔年誰構此峰前
 一竿漁笛雨聲外 十里行人山影邊
 入檻雲生巫峽曉 逐波花出武陵煙
 沙鷗但聽陽關曲 那識愁人送別筵

f

하여[賓之初筵 左右秩秩]"라고 하였다.

34) 이 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이래 역대의 《밀양읍지(密陽邑誌)》에 대개 도원흥(都元興)의 작이라고 하였으나, 혹 도길부(都吉敷)의 작이라고 표기한 책도 있다. 《기아(箕雅)》와 《허암선생속집(虛庵先生續集)》에는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 1469-?)의 작으로 실려 있다.

35) 도원흥(都元興): 성주(星州) 도씨로 고려 공민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로서 정몽주의 당파로 몰려 유배되었던 도흥(都興)이 아닌가 생각되나, 상고를 요한다. 이 시를 도길부(都吉敷)의 작으로 표기한 문헌도 있다. 팔거도씨(八莒都氏) 세계(世系)에는 도길부의 아들로 도흥이 보인다.

36) 어적(漁笛): 어부가 부는 피리 소리.

37) 무협(巫峽): 중국 장강 중류에 있는 협곡 이름.

38) 무릉(武陵):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도화원기(桃花源記)의 배경이 된 곳.

39) 양관곡(陽關曲): 이별의 노래. 양관은 중국 감숙성(甘肅省) 둔황(敦煌) 서남쪽에 있었던 관문이니, 서쪽 변방으로 나가는 길목이다.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송인사안서(送人使安西)의 시에 "위성의 아침비 가벼운 먼지 적시고/ 객사에는 푸르디 푸른 버들 빛이 새롭네./ 그대 다시 한 잔 술을 드시게/ 양관 서쪽을 나서면 옛 친구 없을 터니[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위성곡 또는 양관곡이라 하여 이별시의 별칭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영남루

유 관(柳 觀)⁴⁰⁾

오른 때가 마침 깊어 가는 가을 날,
한없는 봉우리가 앞뒤로 에워쌌네.
따오기는 지는 노을 너머 가지런히 날고
기러기는 석양 가에 놀라서 일어난다.
붉은 난간 푸른 기와 모래밭에 달빛 맑고,
큰 들판 평지 숲엔 푸른 안개 비졌네.
기둥에 기대 시를 읊다 얼핏 졸았더니
꿈속에서 이따금 경연⁴¹⁾의 임금님 모셨네.

登臨正是九秋天 無限峰巒擁後前
孤鷺齊飛落霞外 斷鴻驚起夕陽邊
朱欄碧瓦淡沙月 大野平林橫翠烟
倚柱吟詩成一睡 夢中時復侍經筵

영남루

하 루(河 崙)⁴²⁾

하늘에 닿을 듯한 누각 누가 지었나?
벽에 걸린 제영은 모두가 전대의 시⁴³⁾.
넷가에 임하니 세월은 늣실늣실,
기둥에 기대니 지난 일 아득하네.

40) 유관(柳觀; 1346-1433): 자는 경부(敬夫), 호는 하정(夏亭), 문화인(文化人). 나중
에 이름을 관(寬)으로 고쳤다. 공민왕 20년(1371) 문과에 급제하여 전리정랑(典理正
郎), 성균사예(成均司藝)를 역임하고, 조선 개국 후에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을 거쳐 세종 때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

41) 경연(經筵): 조선조 때 학문이 높은 신하들이 임금을 모시고 경서(經書)를 강론하
던 자리.

42) 하륜(河崙; 1347-1416): 자는 대림(大臨), 호는 호정(浩亭), 진주인(晉州人). 공민
왕 14년(1365) 문과에 급제하고, 우왕 때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가 되었다가,
조선이 개국하자 경기도 관찰사가 되고 태종 때 영의정,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43) 전대의 시: 원문의 “노전(盧前)”이라는 말은 시학(詩學)이 융성하였던 당(唐)나라
시인 가운데 이른 시기의 걸출한 작가로 알려진 초당사절(初唐四傑) 중 가장 연장
자인 노조린(盧照鄰; 634-638)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노조린의 초당 이전의 시라
는 표현은 시의 풍격이 고풍(古風)에 가깝다는 말이다.

십리 우거진 들판 비이슬에 젖었고
한 구역 산수에는 안개구름 깊은데,
저물자 아름다운 석양 이미 보았고
긴 강에 달빛 차자 다시 잔치 베푸네.
誰構岑樓上接天 壁間題詠盡盧前
流年滾滾臨川裡 往事悠悠倚柱邊
十里桑麻深雨露 一區山水老雲烟
晚來已見斜陽好 月滿長江更肆筵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次密城嶺南樓韻]

권 근(權 近)⁴⁴⁾

일 백 척 높은 누락 먼 하늘을 당기고
안석 앞에 좋은 풍경 뻑뻑하게 펼쳐졌네.
내 가까워 물소리는 난간 밖으로 흐르고
구름 걷히자 푸른 산 빛 처마 가에 떨어진다.
일 천 이랑 벼논은 비를 맞아 푸르고
십리 여염집에 나무는 연기를 띠었다.
필마로 남방에 와서 명승지를 지나다가
빈객 자리 차지하여 올라 볼 만 하구려.
高樓百尺控長天 風景森羅几案前
川近水聲流檻外 雲開山翠滴簷邊
千畦壟畝禾經雨 十里閭閻樹帶烟
匹馬南遷過勝地 可堪登眺忝賓筵

밀양 태수 여공이 은어를 보내주었기에, 영남루의 목
은 시운을 사용하여 절구 두 수를 읊어, 하나는 여공
에게 올리고 하나는 밀양군 교수인 박군에게 올린다.
[密城守余公寄惠銀魚 謹用嶺南樓上牧隱詩韻二絕 一呈

44) 권근(權近; 1352-1409):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 안동인(安東人). 공민왕 16년(1367) 문과에 급제, 우왕 때 성균 대사성, 예의판서를 역임하고, 조선 개국 후에 정당문학(政堂文學),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책봉되고 예문관 대제학(大提學), 의정부 찬성사(贊成事)가 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余公 一呈郡教授官同年朴君]

권 근

영남 천리에 흰 구름이 비끼어
북녘 바라보며 때때로 불평할텐데,
홀연 강의 고기가 서찰을 전해 오기에
봉합 여니 담소하는 소리 완연하구려.
嶺南千里白雲橫 北望時時恨不平
忽見江魚傳尺素 開緘宛爾笑談聲

풍화루⁴⁵⁾ 앞으로 길 하나 비졌는데,
선생의 도학 강론 태평시대 거드네.
바닷가에 유배된 사람을 뉘 불쌍타 여기랴?
옛 절에 사람 없고 빗소리만 들리는데.
風化樓前一路橫 先生講道佐昇平
誰憐海上謫來客 古寺無人聞雨聲

영남루

이 원(李 原)⁴⁶⁾

오호라, 우리 선조 용헌선생께서 일찍이 영남 안찰사로 오셔서 이 누각에 서 이 시를 지었다. 당시 맑은 덕과 누각에 올라 지은 시가 남방의 고을에 회자되었고 임금께 알려져서 총애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 시는 그 중 하나이다. 증손인 쌍매당공께서는 점필재 문하에 종유하면서 도덕과 문장이 당대에 빛났는데 또한 그 명성을 계승하여 이 시운을 서술하셨다. 아아, 한 집안 사람이 읊조린 풍류는 죽히 강산의 명성과 광채를 덮어서 단청과 더불어 백대에 빛날 것이다. 시판이 이미 오래되어 지난 임신년에 누각을 증수할 적에 아울러 수리하였다가 기해년에 또 누각이 화재를 당하자 아울러 폐기되니, 후인들이 개탄하는 바요 하물며 자손된 자의 감회야 말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도 이제 누각이 새로 건립되니 시판 또한 새로 해야 하겠는

45) 풍화루(風化樓); 조선조 지방 향교의 문루(門樓)는 대개 풍속을 교화한다는 뜻으로 풍화루라 이름하였다. 여기서는 밀양향교의 문루를 가리킨다.

46) 이원(李原; 1368-1429): 자는 차산(次山), 호는 용헌(容軒), 철성인(鐵城人). 우왕 11년(1385)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과 병조정랑을 역임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지평(持平)이 되고 정종 때 철성군(鐵城君)에 책봉되었으며 세종 때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양헌(襄憲)이다. 이원은 태종 무자년(1408) 8월에 경상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부임하였다. 이 시는 후손 기선이 쌍매당 이원의 시와 함께 시판 하나로 만들어 영남루에 걸어두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다.

데, 후손 수장이 와서 말하기를, “제학공의 시운은 옛 제목대로 하였다”고 하므로, 두 세대의 시를 한 판에 이어 써 둔다. 갑진년(1844) 9월 일에 후손 기선은 삼가 다듬고 기록한다.[嗚呼 我先祖容軒先生 嘗按節嶺南 於此樓有此詩 時清德登樓之詩 膾炙南州 至登聞而寵褒焉. 此詩即其一也. 曾孫雙梅堂公從遊於佔畢齋門下 道德文章 光輝於當世 而又繼其聲 述此韻. 噫, 一家風詠足令江山被聲光 而與丹青照耀百代也. 題板既舊 逮去壬申 因樓修而並修焉. 至己亥又值樓火 而並廢焉. 後人之所慨也. 況子孫者感乎. 幸今也樓新 則板亦可新 而後孫秀長來言 提學公詩韻 依舊題. 故二代之詩 聯一板並書云爾. 歲在甲辰九月日 後孫基善謹修爲之記.]

우뚝한 누각 영남 하늘에 높이 올려놓아서
십리의 빼어난 경치 눈앞에 다 보이네.
고요한 낮 여울 소리 베개 머리에 이어지고
해 비끼자 솔 그림자 뜰 가에 떨어진다.
농부의 바쁜 봄 일 마을마다 비 내리고
들 객점엔 아침밥 짓느라 곳곳이 연기로다.
지난날 선군께서⁴⁷⁾ 이곳을 지나셨는데
부끄럽다 소자가 다시 잔치 여는 것이.

危樓高架嶺南天 十里奇觀一望前
書靜灘聲連枕上 日斜松影落庭邊
田夫春務村村雨 野店晨炊處處煙
憶得先君曾過此 還慚小子復張筵

영남루에서[題嶺南樓]

하 연(河演)⁴⁸⁾

영남루는 낙동강 동쪽 하늘에 있어
왕명 받기 전부터 명승지라 들었네.
발 걸으면 달 오르고 바람이 들며
난간에 기대면 솔개 날고 물고기 뜬다.
한 시내는 일 천 땀기 들에 굽이치고,

47) 이원(李原)의 선군(先君)인 이강(李岡; 1333-1368)은 자가 사비(思卑), 호를 평재(平齋)라 하였는데, 고려 공민왕 신축년(1361)에 경상도 제찰사(提察使)로 부임한 적이 있다.

48) 하연(河演; 1376-1453): 자는 연량(淵亮), 호는 경재(敬齋), 진주인(晉州人). 조선 태조 5년(1396) 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과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하연은 공민왕 신묘년(1351) 경상도 제찰사(提察使)였던 하윤원(河允源)의 손자이다. 태종 갑진년(1424) 12월에 경상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부임하였다.

두 골짜기는 일만 그루의 숲을 나누었구나.
 한스럽다 강하의 침석⁴⁹⁾을 깔지 못하니
 어찌 홀로 서늘한 곳에 자리 펼치리?

嶺南樓在洛東天 勝地曾聞受命前
 月到風來捲簾外 鳶飛魚躍凭欄邊
 一川曲折千畦野⁵⁰⁾ 兩峽分開萬樹烟
 却恨未陳江夏枕 豈宜涼處獨鋪筵

경재를 모시고 영남루에 올라 시판의 운을 사용하 여[陪敬齋登嶺南樓用板上韻]

하 척(河 滌)⁵¹⁾

높은 누각에 올랐더니 하늘도 손에 잡힐듯,
 온갖 경치 무궁하게 눈앞에 펼쳐지네.
 노을은 긴 숲의 외로운 따오기 너머 비추고
 해오라기는 맑은 시내 노는 물고기를 엿보네.
 낮은 담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는 대가 달빛을 거름이요,
 평탄한 들에 어리는 빛은 풀이 안개에 젖음일세.
 겨운 흥 홀쩍 날아 시 읊는 소리 호탕하고
 세속 일 잊고 신선 잔치에 난만하게 취하네.

高樓一上可攀天 萬景無窮眼界前
 霞映長林孤鷺外 鸞窺清澗戲魚邊
 短牆影動竹篩月 平野光凝草浥烟
 逸興遄飛吟浩蕩 忘機爛醉勝仙筵

소루(召樓)

권맹손(權孟孫)⁵²⁾

49) 강하(江夏)의 침석: 강하 사람인 황향(黃香)은 아홉 살 때 그 어머니를 잃고 혼자서 그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여름에는 침석에 부채질을 하여 서늘하게 하고, 겨울에는 몸으로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하여 섬겼다고 한다.

50) 문집에는 野→畺

51) 하연(河演)의 종제(從弟)이다.

52) 권맹손(權孟孫, 1390-1456): 자는 효백(孝伯), 호는 송당(松塘), 예천인이다. 태종 8년(1408)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을 거쳐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소년시절 일찍이 이 누각을 지나며
술과 노래로 마음 놓고 머물다 갔지.
감사로 이번에 와선 회포가 미치지 못해
달가이 한가로운 일을 마음 붙여 찾으려네.

少年曾此過青樓 樽俎絃歌任去留
建節今來懷靡及 甘將閑事着心求

소루(召樓)

정지담(鄭之澹)⁵³⁾

구구하게 누각에 어찌 다시 오를까마는
마루 기둥 널찍하여 오래 머물만 하네.
앉음에 …… 세속 생각 사라지니
명리의 길에 어찌 나가 구할 바 있으리.

何用區區更上樓 軒楹敞豁可淹留
坐來○○塵慮盡 肯向名途有所求

영남 천리 길에 가을이 또 돌아오고
북녘을 바라보니 대궐로 가는 길 열렸는데,
작은 힘이나마 산하 같은 성덕을 도와야 하지
쉽사리 귀거래를 읊을 것은 아닐세.

嶺南千里又秋廻 北望金門一路開
庶竭涓埃補河嶽 不須容易賦歸來

소루(召樓)

성념조(成念祖)⁵⁴⁾

북쪽으로 화산을 바라보며 거둬 돌아보니
향로 연기 일어나더니 해가 막 떠오르네.
남녘 고을 책임 맡음이 비록 영광스러우나

53) 정지담(鄭之澹): 안동인으로 태종 16년(1416)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안동부사를 역임하였다.

54) 성념조(成念祖, 1398-1450): 자는 자경(子敬), 창녕인이다. 세종 원년(1419) 증광별시에 급제하여 참판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내년 봄 어머니 문안 올 때와 어찌 같으리.

北望華山屢顧迴 爐烟浮起日初開

南州杖鉞雖光耀 爭似明春慰母來

바닷가 누각에 풍경이 끝없으니

순찰하며 몇 일을 머문들 무엇이 방해되랴.

산 위에 술이 있고 술 사이 대가 있어

이 가운데 빼어난 경치는 힘으로 구하기 어렵네.

風烟不○海上樓 巡歷何妨數日留

山上有松松間竹 此中形勝力難求

소루(召樓)

안수기(安修己)⁵⁵⁾

한 마루 풍경이 높은 누각보다 나아서

올라가 보려다가 다시 머무르노라.

이곳은 남방의 아름다운 곳인지라

봉래산 신선 경지를 다시 어찌 찾으리.

一軒風景勝高樓 欲去登臨且更留

此是南方佳麗地 蓬萊仙境復何求

밀양 영남루 운[密陽嶺南樓韻]

이석형(李石亨)⁵⁶⁾

호리병 속 별천지⁵⁷⁾를 믿지 아니했으나

55) 안수기(安修己): 순흥인으로 세종 원년(1419) 증광별시에 급제하여 한성소윤(漢城小尹)을 역임하였다.

56)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자는 백옥(白玉), 호는 저헌(樛軒), 시호는 문강(文康), 연안인(延安人)이다. 문과를 거쳐 예조참판, 경기관찰사를 역임하고 성종 때 판중추부사가 되고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으로 책봉되었다.

57) 호리병 속의 별천지[壺中天]: 후한 때 비장방이라는 사람이 시장의 관리로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호리병을 점포 머리에 걸어놓고 약을 팔고는, 시장이 과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필적 뛰어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비장방이 홀로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노인에게 예를 베풀었더니, 노인은 그를 데리고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는데, 호리병 속에는 화려한 궁궐과 맛있는 술과 음식이 넘치도록 있어서, 함께 마시고 나왔다고 한다.

누각 앞의 선경을 이제 비로소 보았노라.
 어부의 노래 소리 갈대 섬 너머 울리고
 나무꾼 피리소리 밤 숲가에 맴돈다.
 산허리 가는 구름 짙어서 비가 되고
 못 가운데 더운 해는 따뜻하여 연기 나네.
 오랫동안 세상 길 버리고 함부로 지내는지라
 읊고 나면 시 짓는 곳이 곧 춤 잔치이네.

未信壺中別有天 始看仙境在樓前
 漁謳響落蘆洲外 樵笛聲回栗藪邊
 山腹行雲濃作雨 潭心曛日暖生烟
 久拚世路欺疎放 吟罷詩壇卽舞筵

12

밀양 소루 운[密陽小樓韻]

이석형

점 점의 산봉우리 땅이 끝난 곳,
 일 천 골짜기 물이 강을 이뤘네.
 술이 회수 강물⁵⁸⁾처럼 있지 않았다면
 어찌 풍정에 이끌려 남방에 머물겠소?
 點點峰巒地盡頭 水從千澗作江流
 不緣尊酒如淮在 肯被風情似越留

소루(召樓)

조 추(趙 秋)⁵⁹⁾

영남 천리에 있는 영남루엔
 한 번 오르면 세상 근심 모조리 잊네.
 오늘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붉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굽어보소.

58) 술이 회수 강물처럼: 회수는 중국 황하와 장강 사이에 있는 큰 강 이름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 12년 조에 제후들이 모여서 투호(投壺)를 하고 놀면서 “회수처럼 술이 있고, 지산처럼 고기가 있다[有酒如淮 有肉如坻]”라고 축원한 말이 있으므로, 여러 지방관이 모인 술자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였다.

59) 조추(趙秋): 풍양인으로 세종 23년(1441)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일천 줄기 어린 대는 시 읊는 곳에 푸르고
한 조각 한가한 구름 시야 밖에 떠오른다.
저물 무렵 가벼운 바람 물가에 생기더니
삼복 더위가 도리어 늦가을처럼 시원하네.

嶺南千里嶺南樓 一上都忘世上愁
今日我言如不信 試憑丹檻俯中流
千竿嫩竹吟邊翠 一片閑雲望外浮
薄暮輕風生水檻 却將三伏作三秋

밀양영남루 운을 따라[次韻密陽嶺南樓]

서거정(徐居正)⁶⁰⁾

아름다운 남방에 별천지가 있으니
풍류와 인절이 지난 해 일인 듯.
성곽 가까이 푸른 빛 감돌아 삼면이 산이요
찬 물가에 흰줄을 그어 한편이 물이로다.
올라보면 다만 세월이 한가함을 느끼나
시 구절로 아직 풍경에 답하지 못했네.
부끄럽다 과객의 거친 붓이 호탕하여
미친 소리로 여러 번 좌중을 움직이네.

佳麗南州別有天 風流人傑想年前
靑回近郭山三面 白抹寒汀水一邊
但覺登臨閑日月 未將詩句答雲烟
還慙過客驪豪甚 屢發狂言動四筵

밀양십경(密陽十景)

서거정

우령산⁶¹⁾의 한가로운 구름[牛嶺閑雲]

60)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자는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 달성인(達城人).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외손으로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세조를 거쳐 성종 때까지 6대의 조정에 벼슬하여 오랫동안 문형(文衡)을 잡았고, 관직이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으며, 달성군(達城君)으로 책봉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61) 우령산(牛嶺山): 제대리의 우령산(牛齡山)을 말한다.

우령산 아스라이 푸른 하늘에 꽃혀
영남루 아름다움 천하의 독보로다.
신선 누각 그린 단청이 금자라 머리에 나타나고
한가로운 구름 빙 둘러 언제나 오색 빛을 띠네.
구름은 무심한 물건이라 누가 말했나?
생령을 운택하게 하는 술법이 있네.
어찌하여 해를 가리고 하늘을 덮었던가?
큰 가뭄에 장마 비를 불일 간에 내리리라.

牛嶺迢迢插層碧 嶺南佳麗天下獨
瓊樓畫棟金鰲頭 閑雲繚繞長五色
誰言雲是無心物 澤潤生靈元有術
何曾蔽日謾遮天 大旱成霖應不日

마암⁶²⁾에 흘날리는 비[馬山飛雨]

동풍이 열두 난간 발을 건으니
일망무제 열린 시야 동남쪽이 넓구나.
긴 숲엔 이쪽 저쪽 갯마율이 어른거리고
마암산은 청둥오리 머리 한 점이로다.
문득 강 위의 구름 칠혹 같더니
흰 빗발 날리며 은빛 화살 번뜩이다가,
긴 바람이 불어와 강 너머로 쓸어가니
한권의 푸른 산이 지는 해를 머금네.

東風簾捲十二欄 一望眼界東南寬
長林隱映浦隔浦 馬山一點青鴉鬣
忽有江雲黑如染 白雨飛飛銀箭瞥
長風吹掃過江去 半邊青山啣落日

응천의 낚싯배[凝川釣艇]

응천은 멀리 은하수에서 흘러 와서
누각 앞을 포도주처럼 푸르게 물들이네.
지난 밤 작은 비에 샷대 반쯤 물이 불어
어선이 마음대로 물길 따라 맴도는데,
도화랑⁶³⁾ 가는 물결에 쏘가리 살찌

62) 마암(馬巖); 전사포리의 마암산(馬巖山).

63) 도화랑(桃花浪): 복사꽃이 필 무렵 얼음이 풀리고 봄비가 내려 불어난 강물.

쟁반의 실같은 회는 눈이 내린 듯.
 얼큰하여 다리를 치며 창랑가 노래하니
 기린각⁶⁴⁾ 황각⁶⁵⁾의 일을 도무지 모를레라.

凝川遠從銀漢來 樓前綠染葡萄醅
 昨夜小雨漲半蒿 漁船隨意沿流廻
 桃花細浪鰕兒肥 盤心膾縷紛雪飛
 半酣鼓脚歌滄浪 麟臺黃閣都不知

삼포⁶⁶⁾의 고기잡이 등불[鎔浦漁燈]

삼포에 아침 오니 새물이 들어
 푸른 하늘 잠긴 물에 가을밤이 맑네.
 성긴 숲에 잎이 지고 강에는 바람 없고
 어선 등불 가물가물 별을 늘어놓았네.
 촌로들 서로 불러 자빠질 듯 반기면서
 금년엔 고기 풍족하니 값은 따지지 마세.
 막걸리에 누른 가재로 서로들 위로하고,
 밤중에 외론 배를 갈대꽃 가에 대었네.

鎔浦朝來新水生 碧空涵水秋夜清
 疏林葉盡江無風 漁燈耿耿排明星
 野老相喚喜欲顛 今年魚足休論錢
 白酒黃螯復相慰 孤舟夜泊蘆花邊

용두산⁶⁷⁾ 절벽의 봄 꽃[龍壁春花]

용두산 절벽 위에 봄이 정녕 좋아서
 철쭉꽃 산에 가득 봄 생각이 시끌하네.
 하루 저녁 좋은 비에 익은 술인 양
 꽃 두루 핀 데다 붉은 빛 불타는 듯.
 뉘 집 소년들인지 금장니⁶⁸⁾ 말을 타고
 술병 들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데,

64) 기린각(麒麟閣): 한나라 무제(武帝) 때 건립한 전각으로 공신의 초상을 그려 놓았다고 한다.

65) 황각(黃閣): 재상의 관청.

66) 삼포(鎔浦); 밀양 시가지 서쪽의 사포(沙浦).

67) 용두산(龍頭山);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산.

68) 금장니(錦障泥): 비단으로 장식한 말다래. 말에 탄 사람에게 진흙이 튀지 않도록 말의 배 좌우로 늘어뜨리는 장치가 말다래이다.

해 저물어 돌아오면 얼굴에 봄이 가득,
무수히 날리는 꽃이 말발굽에 붙누나.

龍頭壁上春正好 躑躅滿山春意鬧
一夜好雨如酒醇 花開已遍紅似燒
誰家少年錦障泥 携壺遊賞東復西
日暮歸來春滿面 無數飛花襯馬蹄

밤섬의 가을 연기[栗島秋烟]

누각 앞 십리에 뻗은 앵무주⁶⁹)에는
눈 같은 밤꽃에 향내가 등실등실.
주렁주렁 맺은 열매 별처럼 많아
가을이면 일만 섬 황금을 수확하네.
나무 끝에 달린 흰 빛 연기 아닌 연기.
일만 집 연기 불이 아득히 이어졌네.
태평한 기상을 그려내는 사람 없으니
묘한 숨씨 용면⁷⁰)에게 그리라 하리.

樓前十里鸚鵡洲 栗花如雪香浮浮
纍纍結子如繁星 秋來萬斛黃金收
樹梢拖白烟非烟 萬家烟火遙相連
太平氣象無人畫 妙手我欲煩龍眠

형봉의 해돋이[瑩峰初旭]

금닭이 조잘거리려 부상⁷¹)에 새벽 오니
여섯 용⁷²)이 붙들어 둥근 해를 내었다.

69) 앵무주(鸚鵡洲); 중국 강하(江夏) 지방 악주(鄂州)의 황학루(黃鶴樓) 앞의 강 가운데 있는 모래톱의 이름. 후한의 네형(禰衡)이 앵무부(鸚鵡賦)를 지어 유명하였는데 나중에 강하태수 황조(黃祖)에게 살해되어 이곳에 묻혔으므로 이를 앵무주라 불렀다고 한다.

70) 용면(龍眠): 중국 송나라 때 사람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호가 용면이다. 이공린은 관직에서 은퇴한 뒤 용면산에 은거하였는데, 뛰어난 서화가로 알려졌다.

71) 부상(扶桑);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전설상의 큰 나무. 동방삭(東方朔)이 지었다는 《신이경(神異經)》에 이르기를, “부상의 산 위에 옥계(玉鷄)가 있는데, 옥계가 울면 금계(金鷄)가 따라 울고, 금계가 울면 석계(石鷄)가 따라 울며, 석계가 울면 온 천하의 닭이 따라서 울고, 이에 응하여 해가 떠오른다”고 하였다.

72) 여섯 용[六龍]: 태양은 희화(羲和)가 모는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찌는 듯 붉은 열기 산호 빛을 내더니
 일만 이랑 큰 파도 황금이 반짝거린다.
 잠깐만에 일만 길 산 위로 날아올라
 아득한 하늘을 하루에 한 바퀴 도네.
 긴 줄로 아홉 까마귀⁷³⁾ 영원히 묶어서
 만고토록 하늘 가운데 걸어 두었으면.

金鷄啁哳扶桑晨 六龍扶出初日輪
 蒸紅鬧熱珊瑚光 洪濤萬頃金鱗鱗
 須臾飛上萬丈崗 一日一周天蒼茫
 我欲長繩繫九烏 萬古懸在天中央

나현에 쌓인 눈[羅峴積雪]

강의 구름 암담하여 짙은 먹을 풀고,
 눈 송이 부슬부슬 방석만큼 크구나.
 하늘 땅中间的 한 가닥 맑은 기운
 한 조각 가는 이내도 막힘이 없네.
 본디부터 삼백⁷⁴⁾은 풍년의 상서인데
 집집마다 흰 옥이 넓은 밭을 이루었네.
 황충을 땅 속 천 척 깊이⁷⁵⁾ 보냈으니
 명년에는 아마도 백전⁷⁶⁾의 벼를 수확하리.

江雲黯黯濃潑墨 雪片飛飛大於席
 天地中間一清氣 無有一片纖靄隔
 由來三白瑞豐年 家家白玉千頃田
 遺蝗入地已千尺 明年應取禾百廩

서쪽 교외의 계모임[西郊修禊]

73) 아홉 까마귀: 해 속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으므로 해를 가리키는 말이다.

74) 삼백(三白): 음력 정월에 사흘 동안 내리는 눈. 풍년의 징조라고 전한다.

75) 황충(蝗蟲)을 땅 속 천 척 깊이: 벼 포기를 갇아 먹는 황충(蝗蟲)은 땅 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벼 이삭이 펴 무렵에 나오는데, 겨울 추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땅 속 깊이 들어 가서, 눈이 한 자 쌓이면 1길 깊이로 들어가다가, 추위가 심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동파(蘇東坡)의 시에, “황충을 아마도 땅 속 천 척 깊이 들어가게 하였으리라[遺蝗入地應千尺]”라는 구절이 있다. 송(宋)나라 나대경(羅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에 나오는 말이다.

76) 백전(百廩): 전(廩)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혹 5무(畝)라 하기도 하고 혹은 2무 반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수확량의 많음을 나타낸다.

봄날이 사람에게 맞아 옥처럼 따뜻하니
 서쪽 교외 짙은 풀은 베를 잘 듯 가늘다.
 들판 가득 꽃비에 붉은 빛 분분하고
 봄 강물 출렁출렁 굽이쳐 흐르는데,
 고을 사람 계모임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잔 들어 급히 돌리니 모두가 얼큰하네.
 풍류는 난정의 봄보다 못하지 않으나
 왕우군⁷⁷⁾처럼 취한 글은 누가 쓰려나?

春日可人溫似玉 西郊芳草細於織
 滿郊花雨紅紛紛 春波粼粼流水曲
 鄉隣修楔簇如雲 飛觴轉急皆醺醺
 風流不減永和春 醉札誰似王將軍⁷⁸⁾

남포의 손님 전송[南浦送客]

아침에 작은 비가 기름처럼 반들거리더니
 관청 거리 푸른 버들 고치실처럼 가늘다.
 아이 하나 말 한 필에 백자 병 한 쌍으로
 손님을 전송하러 남포 다리를 지나네.
 인생의 모이고 흩어짐은 뜬구름 같아
 부자 이별 가난 이별 모두가 상심일세.
 여구⁷⁹⁾ 한 곡조 노래 이미 끝나면
 먼 하늘 긴 물에 수심이 사람을 괴롭히네.

朝來小雨潤如膏 官街碧柳細於縑
 單僮匹馬雙白瓶 送客直過南浦橋
 人生聚散如浮雲 富別貧別皆傷神
 驪駒一曲歌已闌 天長水遠愁殺人

77) 왕우군(王右軍): 진(晉)나라의 명필 왕희지(王羲之, 321-379). 영화(永和) 9년(353)에 회계산 북쪽의 난정(蘭亭)에서의 모임을 기록한 <난정기(蘭亭記)>는 그 글과 글씨가 모두 명품으로 전한다.

78) 문집에는 王將軍→玉右軍

79) 여구(驪駒): 고대에 송별할 때 불렀다는 노래의 하나. 빈객이 떠나려 하면, 여구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는 대략 “가라말 문간에 있고/ 마부도 함께 있네./ 가라말 길에 나서고/ 마부는 멍에를 올리네[驪駒在門 僕夫具存 驪駒在路 僕夫整駕]”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영남루 시운을 따라[嶺南樓次韻]

김종직(金宗直)⁸⁰⁾

등림한 날이 정녕 기수에 목욕하던⁸¹⁾ 모춘이라.
기둥에 기대어 서니 얼굴에 뿌리는 바람 이네.
남국의 산천경개 바다에서 실어오고
사방의 관현악 소리 구름 가에 소란하다.
들의 소는 코를 쳐들어 나루를 가로 건너고
등지의 백로 새끼 치느라 안개를 가르고 나른다.
알겠노라 내 행차 한적하지 않아서
어머니 문안 올 때마다 빈객 자리 차지함.

登臨正值浴沂天 灑面風生倚柱前
南國山川輸海上 八窓絃管鬧雲邊
野牛浮鼻橫官渡 巢鷺將雛割暝烟
方信吾行不牢落 每因省母忝賓筵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고[嶺南樓下泛舟]

김종직

난간 밖 맑은 강엔 일 백 이랑 구름이요
그림 배 빗겨 건너니 주름 무늬 생겨나네.
해저물자 반쯤 취해 샷대 버티고 바라보니
양쪽 두들 푸른 산이 정녕 그림 같구나.
檻外澄江百頃雲 畫船橫渡皺生紋
晚來半醉撐篙看 兩岸青山更十分

태허⁸²⁾의 운을 사용하여 영남루의 좋은 경치를 기

80)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자는 계온(季溫), 호는 점필재(佔畢齋), 선산인(善山人)으로 밀양에서 태어났다. 세조 5년(1459)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병마평사(兵馬評事)를 지내고 성종 때 경연관(經筵官)으로서 한성부윤, 형조판서,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문하에 학자가 배출되어 조선조 유학(儒學)을 크게 발흥시켰다. 밀양의 예림서원과 선산의 금오서원에서 향사하고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

81) 기수에 목욕하던: 《논어(論語)》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평소의 뜻을 묻자, 증점(曾點)이 이르기를, “모춘의 계절에 봄옷을 차려입고 어른 대여섯과 동자 예닐곱을 데리고 기수(沂水) 물가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 언덕에 바람을 쐬고 노래를 읊조리며 오겠다”고 하였다.

록하여 경력 최윤신에게 주다[用太虛韻 紀嶺南樓之勝 贈崔經歷潤身]

김종직

멀리 익주⁸³⁾에 임하여 별자리를 움직이니
 좋은 곳은 마땅히 좋은 사람 차지되어야지.
 응천 물은 마을을 둘러 쪽빛으로 출렁거리고
 용두산은 난간 앞에 옥처럼 솟았구나.
 전선⁸⁴⁾은 짐짓 눈처럼 가벼이 춤을 추고
 갈매기는 관-관- 티끌에 물들지 않았네.
 부끄럽다 나는 한번 떠나 그대로 관리되어
 고향동산 던져버리고 윤건⁸⁵⁾을 썼네.

遙臨益部動星辰 勝地還應屬勝人
 凝水繞村藍蕩漾 龍山當檻玉璘峴
 鉦蟬故故能回雪 鷗鷺關關不染塵
 愧我一行仍作吏 丘園拋却自綸巾

응천죽지곡 9장 [凝川竹枝曲九章書與梁娃]

김종직

높은 누각 관현악에 패옥소리 에워싸고
 여뀌 꽃 핀 물가에까지 향기 지는데,
 원앙과 축옥⁸⁶⁾은 쌍쌍이 춤을 추며
 여덟 팔자 눈썹 산을 근심스레 찡그리게 하네.

絲管高樓鳴珮環 輓香半落蓼花灣

82) 태허(太虛): 점필재의 문생인 매계(梅溪) 조위(曹偉, 1454-1503)의 자가 태허이다.

83) 익주(益州): 중국의 사천성, 파촉(巴蜀) 땅은 옛날의 익주이다. 후한 화제(和帝)가 지방관의 행정을 염담하기 위해 비밀리에 관원을 지방에 파견하였는데, 익주의 이합(李翊)이 천문을 보고 사성(使星) 둘이 익주로 향하고 있음을 알고 익주에 파견된 관리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서울에서 지방 행정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된 관리를 일컫는 말이다.

84) 전선(鉦蟬): 옛날 노래를 잘 불렀다는 가기(歌妓)의 이름. 온정균(溫庭筠)의 탄쟁(彈箏) 시에, “전선과 금안은 모두 사라지고/ 한 곡조 이주가에 눈물이 일만 줄(鉦蟬金雁皆零落 一曲伊州淚萬行)”이라 하였다.

85) 윤건(綸巾): 푸른 실로 꼰 끈으로 만든 두건.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諸葛亮)은 윤건을 쓰고 우선(羽扇)을 손에 잡고서 군령(軍令)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병마(兵馬)를 관리하는 직책에 종사했던 점필재의 관직 이력을 나타낸다.

86) 축옥(屬玉): 새 이름. 백로의 한 종류.

鳶鷺屬玉雙雙舞 惹得愁攢八字山

매우⁸⁷⁾ 시절 자욱하게 비가 자주오니,
구름 문 바위 구렁에 물소리 소란하다.
뉘 알라 일만 물줄기 한 데 모여 흐르는 뜻.
무한한 이별의 슬픔 누르지 못하는 것을.

梅天靄靄雨頻來 雲門巖壑水喧騰
誰知萬派同流意 無限離腸不自裁

누각 아래 맑은 강에 그림배 띄워 놓고
누각 가운데 피리 장구 갈매기가 놀라네.
사군이 황화 사신⁸⁸⁾ 접대 잔치 마치자
깊이 잠근 노래 무대 초생달이 드리우네.

樓下清江畫鷁浮 樓中簫鼓每驚鷗
使君燕罷皇華使 深鎖歌臺彈玉鉤

지금은 또 강 머리에 계불⁸⁹⁾하는 봄
한가하게 동무 따라 강 신에게 비네.
물가에 해 저물자 마름 꽃 토해내는데
소매 꿇고 이별한 사람 어떻게 부르나?

又是江頭祓禊春 閑迫女伴賽江神
汀洲日暮蘋花吐 安得招招損袂人

사월이라 강 머리에 버들 꽃 날리니
버들개지 강 건너다 맑은 강에 떨어진단다.
따라서 흐르는 건 부평초 뿐이니
인생의 이별 일을 어찌할거나.

四月江頭楊柳花 花飛渡江點晴波
相隨唯有浮萍草 奈此人生離別何

금동역⁹⁰⁾ 가에는 부들이 나풀나풀,
마암산 포구에는 마름이 가득한데,
좋은 철 청년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앞마을 조개잡이배 언제 뜰지 물어보네.

87) 매우(梅雨): 매실이 익을 무렵에 오는 비.

88) 황화 사신[皇華使]: 왕의 명령을 받들고 파견된 중앙의 관리.

89) 계불(袂褓): 삼월 상사일(上巳日)에 물가에서 부정을 털기 위해 올리는 제의.

90) 금동역(金洞驛): 상남면 기산리 금동(金洞)에 있었던 역.

金洞驛邊蒲獵獵 馬山港口荇田田
佳期三五又二八 試問前村採蚌船

낭군 마음은 흔들흔들 대나무 가지 같아,
첩의 마음을 연뿌리 실에 견주지 마세요.
대나무 가지 본디부터 마디 많지만
연뿌리 실이야 바늘 땀 적 언제 있나요?
郎意搖搖如竹枝 妾心休比藕中絲
竹枝從來多苦節 藕絲寧有勝針時

영정산⁹¹⁾ 머리에 달이 높으니
검은 깃 학이 강 언덕에 소리치네.
중추야 밝은 달밤 그대와 함께
창탄⁹²⁾에 배를 대고 눈 같은 파도 보세.
靈井山頭月欲高 玄裳羽客喚江皋
共君須向中秋夜 閑艤倉灘看雪濤

누각 지척 앞에 밀물이 닿을 듯하더니
잠깐만에 바다 문으로 되돌아가네.
장안의 먼 소식 부쳐도 좋은 것은
밀물이 오지 않아도 고기 절로 오나니.
咫尺樓前潮欲到 須臾却向海門廻
長安遠信猶堪寄 潮縱不來魚自來

영남루

김계창(金季昌)⁹³⁾

넓게 트인 동남쪽 만리 먼 하늘이라
한 구역 명승지를 술병 앞에 부쳤네.
조각 비 무심한 곳에 시가 이루어지고

91) 영정산(靈井山): 재약산(載藥山)의 아래에 영정사(靈井寺)가 있으므로 붙인 이름이다. 영정사는 뒤에 표충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92) 창탄(倉灘); 아마도 삼랑진읍 송지리에서 김해로 건너가는 나루터였던 창암진(蒼巖津)을 가리키는 듯하다.

93) 김계창(金季昌): 자는 세번(世蕃), 창원인(昌原人). 세조 8년(1462)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긴 강을 따라 끝없이 홍이 쫓아가는데,
갈매기 차는 물결 눈처럼 맑게 솟구치고
소가 조는 초원에는 푸른 안개 이는구나.
주인은 노는 이의 뜻을 잘 알아서
웃으며 봄바람 거느리고 술잔치에 들이네.

眼豁東南萬里天 一區形勝屬樽前
詩成片雨無心處 興逐長江不盡邊
鷗蹴驚波晴湧雪 牛眠芳草綠生烟
主人慣識遊人意 笑領春風入醉筵

15

영남루

김계창

누대 그림자는 물 속 하늘에 거꾸러지고
일만 줄기 수양버들 강 언덕에 휘날린다.
강은 저녁 밀물을 받아 바다로 돌아가고
구름은 언 비를 끌고 시냇가로 지나간다.
배 대는 독에 멀리 가까이 청작⁹⁴이 어른거리고
보리밭 독 높고 낮게 푸른 안개 넘치네.
구실아치 흠어지고 달 밝기를 기다렸다가
통소 소리 속에 화사한 자리에 누웠노라.

樓臺影倒水中天 萬縷垂楊拂岸前
江受晚潮歸海口 雲拖凍雨過溪邊
舟堤遠近迷青雀 麥壟高低漲翠烟
好待月明兼吏散 洞簫聲裡臥瓊筵

16

영남루

신 부(申 溥)⁹⁵

남녘 고을에 오랜 나그네 세모를 맞이하니,
화산⁹⁶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 몇 밤이더냐?

94) 청작(靑雀): 순풍을 기원하는 뜻에서 뱃전에 그려 넣는 새. 여기서는 청작을 그려 넣은 배를 말한다.

95) 신부(申溥): 고령인(高靈人). 신숙주의 아들이다. 예종 원년(1469)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음사(蔭仕)로 관직에 나가 관찰사(觀察使)를 지냈는데, 시로 명성이 있었다.

수국의 푸른 오리 너머 찬 서리 날리고
강성의 흰 기러기 곁에 낙엽 지는데,
강 언덕 갈꽃 우거진 곳 외론 배에 비 내리고
숲 건너 촌락에는 두너서 집의 연기로다.
실컷 놀고도 등림한 흥이 다하지 않아
난간에 기대어 서 지으니 달이 자리에 오르네.

客久南州歲暮天 幾宵歸夢華山前
霜飛水國青鳬外 木落江城白鴈邊
兩岸蘆花孤艇雨 隔林籬落數家烟
倦遊不盡登臨興 倚篇欄干月上筵

17

영남루

신 부(申 溥)

십리의 푸른 안개 옛 나루 머리에
흰 갈매기 물결은 옥 무지개 되어 흐르네.
반평생 물과 구름처럼 떠도는 정을 금치 못하여
명승지를 만나면 멋대로 가고 머무네.

十里蒼烟古渡頭 白鷗波作玉虹流
半生雲水情難禁 勝地逢來任去留

하늘 남쪽 땅 끝나는 곳에 나그네 되니
이 몸은 이 세상 흐르는 대로 맡긴 부평이네.
요즈음 흉년 구휼로 전혀 여가가 없으니
아름다운 사람 위해 잠신들 어찌 머물랴.

作客天南地盡頭 此身於世任萍流
爾來荒政渾無暇 肯爲佳人一少留

조유의 담장⁹⁷⁾ 아래 얼마나 머리 숙였는데
글이 강물 쏟는 듯하다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능연각⁹⁸⁾에 화상 그림은 나의 일이 아니지만
빈 이름의 내 몸이 유후⁹⁹⁾로 책봉된 듯 하구나.

96) 화산(華山): 서울에 있는 북한산(北漢山)의 별칭이다.

97) 조유(曹劉)의 담장: 위(魏)나라의 조식(曹植)과 유정(劉楨)과 같이 뛰어난 시인.

98) 능연각(凌煙閣):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공신(功臣) 24인의 초상화를 그려두게 하였던 누각.

曹劉牆下幾低頭 敢道詞源可倒流
 畫上凌烟非我事 虛名擬已足封留

영남루

일본인 용장(龍章)

누각 위의 관현악은 군천¹⁰⁰의 음악인 듯,
 춤추는 옷자락 앞에 재치 있는 이야기.
 멀리 산자락 밖으로 맑은 안개 걷히고
 강촌 가에 아득히 물새 낮게 내려온다.
 갈대는 삼경의 달빛을 넉넉하게 차지하고
 뽕나무는 일만 집의 연기 고루 나누었구나.
 가득 따른 파라¹⁰¹ 술잔 그대 사양 마소
 내일 아침 바다에서 이별 잔치 생각날테니.

登臨絲管悅鈞天 袞袞談鋒舞袖前
 晴靄遠收山郭外 暝禽低下水村邊
 蒹葭剩占三更月 桑柘平分萬戶烟
 滿酌叵羅君莫讓 明朝海上憶離筵

영남루

이 칙(李 則)¹⁰²

가만히 구름 산 세며 앉아 머리를 끄덕이고
 취하면 난간에 기대 맑은 물을 굽어본다.
 건곤 어느 곳인들 내 땅이 아니라,
 매양 높은 다락에서 종일토록 머무노라.

99) 유후(留侯): 한(漢)나라의 장자방(張子房)은 고조(高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유후(留侯)로 책봉되자 부귀영화를 버리고 적송자(赤松子)를 따라 노닐며 신선술을 닦았다고 한다.

100) 군천(鈞天): 하늘 북판 상제(上帝)가 사는 곳이라고 한다.

101) 파라(叵羅): 술잔의 한 종류. 남북조시대 북제(北齊)의 두태후(竇太后)가 잔치자리에서 금파라(金叵羅)를 잃었다가 취객의 모자 속에서 찾아낸 고사가 전한다.

102) 이칙(李則; 1438-1496): 자는 숙도(叔度), 고성인(固城人). 세조 8년(1462)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 이조정랑을 지내고 성종 때 대사성, 대사헌을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덕망과 선견(先見), 직언(直言)으로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 시호는 정숙(貞肅).

默數雲山坐點頭 醉憑危檻俯清流
乾坤何處非吾土 每向高樓盡日留

영남루 운을 따라[次嶺南樓韻]

양희지(楊熙止)¹⁰³⁾

거대한 누각 아스라이 하늘 반쯤 솟았으니
악양루¹⁰⁴⁾만 어찌 홀로 아름답다 칭송하리.
막힘 없는 천지는 시야 밖에 끝없고
다함없는 삼강¹⁰⁵⁾은 난간 가에 기대었네.
강언덕마다 어등¹⁰⁶⁾은 별자리처럼 늘어섰고
집집마다 대나무는 푸른 연기 끌어가네.
흰머리에 우습다 흥진 세상 나그네라니,
시정을 뽐느라고 자리에 취해 거꾸러졌노라.

傑閣崑嶠半入天 岳陽何必美專前
無遮大地窮眺外 不盡三江倚檻邊
岸岸漁燈欺列宿 家家竹樹捲晴烟
白頭堪笑紅塵客 觸撥詩情醉倒筵

1P

영남루

양희지(楊熙止)

청산이 끝나려는 곳에 당이 있고
당 앞에는 강물이 성을 안고 흐른다.
풍경이 건곤을 몰아다가 눈에 들이니
천천히 걸상을 내려 일부러 머무르노라.

堂在青山欲盡頭 堂前江水抱城流
風烟驅入乾坤眼 下榻遲遲故故留

103) 양희지(楊熙止; 1439-1504); 자는 가행(可行), 호는 대봉(大峰), 중화인(中和人)이다.

성종 5년(147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을 거쳐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04) 악양루(岳陽樓): 중국 호남성의 악양현(岳陽縣)의 서문(西門)에 있는 누각 이름. 동정호(洞庭湖)를 앞에두고 풍경이 아름다와 고금의 시인들이 남긴 뛰어난 시문이 많기로 유명하다.

105) 삼강(三江): 밀양에서 흐르는 웅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을 일컫는다.

106) 어등(漁燈); 고기를 잡기 위해 어선 위에 밝혀 놓은 등불.

맑은 강이 피륙 펼친 듯 그림 같은 당 앞에
 사현휘¹⁰⁷처럼 일류의 시인을 도리어 생각한다.
 다시금 달 밝으면 그럴 만한 곳 있으니
 고깃배 한 점이 거울 속에 머무일세.

澄江如練畫堂頭 却憶玄暉第一流
 更有月明堪畫處 漁舟一點鏡中留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次密陽嶺南樓韻]

성 현(成 倪)¹⁰⁸

일 백 척 층층 누각 하늘에 높이 꽃혔는데
 맑은 강 한 구비가 산 앞을 안았구나.
 석양 속에 늘어진 발을 가벼이 걸으니
 큰 들 가에 나무 빛이 아득히 가련하다.
 건너자 부르며 빼거덕거리는 배는 푸른 절벽을 타고
 사람 등지고 나는 새는 푸른 연기를 깨트리네.
 난간에 기대니 몸은 허공으로 날아오를 듯
 벽옥 같은 자리에 가득 바람이 일어나네.

百尺層樓高插天 淸江一曲抱山前
 簾旌輕捲斜陽裏 樹色遙憐大野邊
 喚渡鳴榔緣翠壁 背人飛鳥破蒼烟
 倚欄身世騰寥廓 滿座風生碧玉筵

다시금 영남루 운을 따라[復次密陽嶺南樓韻]

성 현

아스라이 넓은 물결 해 저무는 날에
 외로운 배 그림자 그림 누각 앞을 스치네.
 일 천 겹 산에는 멀고 가까이 구름과 이내,
 양편 강 언덕에는 꽃과 대가 들쭉날쭉.

107) 사현휘(謝玄暉): 중국 남조시대 사람 사조(謝朓; 464-499)의 자가 현휘이다. 젊어서 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문장이 맑고 고왔으며 초서와 예서를 잘 쓰고 오언시를 잘 지어, 심약(沈約)이 그의 시를 평하여 말하기를 200년 이래로 이런 시가 없었다고 극찬하였다고 한다.

108) 성현(成倪; 1439-1504): 자는 경숙(馨叔), 호는 용재(慵齋), 또는 허백당(虛白堂). 세 조 8년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관찰사와 양관대제학을 역임하였다.

팽택의 아담한 회포¹⁰⁹)로 잔을 돌리고
 두소릉¹¹⁰) 고상한 운치 풍경이 늙었구나.
 화사한 당에 달 밝으면 물 같이 서늘한데
 방긋 웃는 아가씨 자리 다시 펼치네.

渺渺滄波欲暮天 孤帆影拂畫樓前
 雲嵐遠近山千疊 花竹參差岸兩邊
 彭澤雅懷傳盞斝 杜陵高韻老風烟
 華堂月白涼如水 笑倩青娥更設筵

21

영남루에 올라 운을 따라[登嶺南樓次韻]

유호인(兪好仁)¹¹¹⁾

눈 높여 동남쪽을 보니 온통 푸른 하늘이요,
 시내와 산 뻥뻥하게 술통 앞에 펼쳐졌네.
 큰 강은 이슬 꽃 너머 아득히 봉긋 솟고
 남방의 계절은 매화나무에 먼저 밝았네.
 분주하게 다니며 세월을 얼마나 소비하였나?
 영웅은 예로부터 좋은 풍경을 차지하였네.
 회포는 늙을수록 자랑할 게 없는지라
 비단 자리에서 얼음 같은 달만 맞이하노라.

嵬眼東南一碧天 溪山鬱鬱在尊前
 大江遙凸露華外 南紀先明梅樹邊
 奔走幾回消歲月 英雄從古管風烟
 襟懷老去無多子 只逐冰輪上綺筵

22

밀양 영남루에서 점필재를 뵈옵고[密陽嶺南樓謁佔畢齋]

남효온(南孝溫)¹¹²⁾

109) 팽택(彭澤)의 아담한 회포: 팽택령(彭澤令)의 벼슬을 지냈던 진(晉)나라의 도연명(陶淵明)은 평소에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한다.

110) 두소릉(杜少陵):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111) 유호인(兪好仁; 1445-1494); 자는 극기(克己), 호는 뇌계(浦溪), 고령인(高靈人)이다.

112) 남효온(南孝溫; 1454-1492);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 의령인(宜寧人)이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문정(文貞)의 시호를 받았다.

증봉의 도사가 푸른 소에서 내리니,
 자부의 신선들¹¹³⁾ 의관 패옥 가득하네.
 천년의 한 인물은 점필재요
 백년의 명승지는 영남루로다.
 성 뿌리에 물결 치고 찬 못은 수려한데
 모래 언덕 서리 깊어 밤나무 잎 가을일세.
 노래 소리 일어나자 먹은 귀 점차 밝아지나
 타향의 음악소리 모두 근심인 것을.

甌峰道士下靑牛 紫府仙曹冠佩稠
 千載一人金佔畢 百年勝地嶺南樓
 城根浪打寒潭秀 沙岸霜深栗葉秋
 聲耳漸明歌管發 他鄉聽樂摠堪愁

영남루

김준손(金俊孫)¹¹⁴⁾

건너 숲엔 가는 연기 담담한 구름,
 난간에 기댄 객은 눈물이 흘러내릴 듯.
 해 지자 강은 비어 세속 일이 적은데
 봄이 깊어 밝은 달을 띠고 다시 머무르네.

烟微雲淡隔林頭 有客憑闌淚欲流
 日落江空塵事少 春深更帶月明留

풍경이 의구한 거울 같이 맑은 호수 머리
 이곳에서 세속 생각을 물에 멀리 흘려보낸다.
 사람은 바뀌어도 광경은 남아 있어
 화표주에 학¹¹⁵⁾이 돌아와 부질없이 읊조리노라.

113) 자부의 신선들: 청우(靑牛)는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소이고, 자부(紫府)는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다. 여기서 자부의 신선은 영남루에 모인 관원들을 가리킨다.

114) 김준손(金俊孫, 1454-?): 자는 자언(子彦), 호는 쇠헌(酒軒), 연기인(燕岐人)이다. 성종 17년(1486)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 연성군으로 책봉되었다.

115) 화표주(華表柱)에 학이: 요동 사람으로 신선술을 배워 천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람과 풍경이 모두 바뀌고 남아 있는 성문 앞의 화표주에 앉아 인간세상의 무상함을 탄식했다는 정령위(丁令威)의 고사이다.

風烟依舊鏡湖頭 是處塵懷付遠流
人事變遷光景在 鶴歸華表浪吟留

영남루

박의영(朴義榮)¹¹⁶⁾

팔방 창외 큰 누각이 성 머리에 놓였고
한 줄기 긴 강은 만고에 흘러간다.
십 년 동안 흥진 세상에 분주히 다닌 객이
오늘은 신선 구역에 잠시 머물러 있노라.
八窓傑閣枕城頭 一帶長江萬古流
十歲紅塵奔走客 仙區此日暫淹留

고향이 무슨 일로 마음에 와 닿는가?
객중에 흘러가는 세월 놀랍기만 하구나.
누각에 올라 경치를 구경함직 하다마는
나랏일 기한 있으니 어찌 머물러 지체하라!
故鄉何事到心頭 客裡偏驚歲月流
景物登臨雖¹¹⁷⁾可賞 王程有限肯遲留

영남루 2수

문경동(文敬全)¹¹⁸⁾

위대한 기왓골 높다랗게 반공중에 꽃히고
먼 메뿌리 가벼운 이내 난간 앞에 떨어지네.
친고의 풍류는 술잔 속에 있고
온 강의 수많은 사물은 그림 곁이로다.
들 객점에 향기로운 건 매화춘의 비요
푸른 옥 발을 드리운 건 대숲의 연기로다.

116) 박의영(朴義榮, 1456-1519): 자는 거화(去華), 밀양인 박중손(朴仲孫)의 손자. 성종 13년(1482) 진시 문과에 급제하고 연산군 때 사헌부 집의를 거쳐 대사간이 되고, 중종 반정 후 참의를 역임하였다.

117) 寫本의 誰를 雖로 고침.

118) 문경동(文敬全, 1457-1521): 자는 흠지(欽之), 호는 창계(滄溪), 안동인(安東人)이다. 성종 17년(1486) 생진 양과에 합격하고 연산군 원년(149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양산군수, 예천군수, 청풍군수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난간에 기대면 산에 달 있어 더욱 좋거니
광한전¹¹⁹⁾의 잔치 자리에 이 몸이 있는 듯하네.

危麓高插半青天 遠岵輕嵐落檻前
千古風流盃酒裏 一江雲物畫圖邊
香傳野店梅村雨 翠鎖琮簾竹塢烟
更好倚欄山有月 却疑身在廣漢筵

24

장한 뜻 가진 당시 하늘가에 칼을 쥔
광망이 곧바로 두우¹²⁰⁾ 앞으로 뻗었지.
반평생 사업은 푸른 등불 아래 있고
일단의 충성심은 밝은 해 곁이로다.
맑은 꿈 때때로 낚시하는 못을 찾지만
공명은 능연각에 오를 계책 없구나.
누각에 올라 의기가 너무도 거대하여
강개하게 읊조리니 바람이 자리를 스치네.

壯志當年劍倚天 光芒直射斗牛前
半生事業青燈下 一段忠貞白日邊
清夢有時尋釣澤 功名無計上凌烟
登樓意氣驅豪甚 慷慨長吟風拂筵

23

영남루

유순정(柳順汀)¹²¹⁾

강호 산천 만리 하늘에 옮겨 기대니
의연한 신세는 이십 년 전과 같네.
두서너 마을 물가의 대는 소 울음 너머 있고
한 줄기 구름은 새가 나는 곁을 가네.
꽃 지는 강변 여관 빗소리에 꿈이 깨고
석양의 버들 다리 연기에 시를 이루네.

119) 광한전(廣寒殿); 광한궁(廣寒宮). 달 속에 있다는 궁전.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도사를 따라 월궁(月宮)에 노닐적에 한 곳에 이르니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라 현관을 단 궁궐이 있었다고 한다.

120) 두우(斗牛):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별자리 이름이다.

121) 유순정(柳順汀; 1459-1512): 자는 지옹(智翁), 시호는 문정(文定)으로 진주인이다.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으로 성종 18년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연산군 때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가 추국을 당하였으며,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청천부원군에 책봉되고, 경오년 왜변을 평정하고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흰머리의 시인은 옛 생각이 많은데
술두루미 기울자 달빛이 자리에 가득함을 어찌 하리.

徙倚湖山萬里天 依然身世廿年前
數村水竹牛鳴外 一簇雲嵐鳥去邊
夢斷落花江館雨 詩成斜日柳橋烟
白頭詞客偏懷舊 奈此尊傾月滿筵

영남루

이 윤(李 胤)¹²²⁾

난간에 홀로 기대 먼 하늘 바라보니
기러기 떼 앞에 한 점의 산봉우리.
고금의 현인 달사 묵은 자취 속에
이 누각의 강산은 그림 같구나.
층층 숲 나뭇잎에 가을 비가 밝고,
먼 골목 인가에는 저녁 연기 하늘거린다.
잔뜩 취해 노래부르고 꺾꺾 웃나니
흰머리로 화사한 자리 나서지 말자.

獨憑危檻望遙天 一點螺岑鴈陣前
賢達古今陳迹裡 江山圖畫此樓邊
層林木葉明秋雨 遠巷人家裊夕烟
爛醉高歌仍大噱 白頭遮莫赴芳筵

점필재 선생의 영남루 운을 따라[次畢齋先生嶺南樓韻]

손중돈(孫仲墩)¹²³⁾

푸른 산 끊어진 곳 푸른 강 머리에
누각은 그림 같은 당을 누르고 당은 강물을 눌렀네.

122) 이윤(李胤: 1462-?): 자는 자백(子伯), 호는 쌍매당(雙梅堂), 고성인이다. 성종 병오년(1486) 문과에 급제하고, 부제학을 지냈다.

123) 손중돈(孫仲墩: 1463-1529); 자는 대발(大發), 호는 우재(愚齋), 시호는 경절(景節), 경주인이다. 성종 20년(1489)에 문과에 급제하고 연산군 원년(1495) 3월에 경상도 도사가 되어 부임하였으며, 이조참판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잠시 취해 덜 깨었는데 풍경이 저물고
호수 위에 달 밝으니 참으로 머물 만 하네.

靑山斷處碧江頭 樓壓畫堂堂壓流
小醉未醒風景暮 月明湖上儘堪留

영남루

한효원(韓效元)¹²⁴⁾

푸르스름한 성 남쪽 백 척 절벽 머리에
누대 그림자 거꾸러져 강물에 젖었구나.
한낮에 술이 깨어 깊은 꿈을 깨었더니
숲 너머 찢꼬리 소리 어지러이 지저귀네.

위의 시제; 조름 뒤에 찢꼬리 소리를 듣고
縹緲城南百尺頭 樓臺倒影浸江流
酒醒日午罷幽夢 林外亂啼黃栗留
右 睡餘聞鶯

지방관 되어 다시 오니 흰머리가 덮혔는데
억석당¹²⁵⁾ 망호당 앞엔 호수가 절로 흐르네.
밝은 달 맑은 바람 전연 옛날 같건마는
어떤 이가 나를 끌어 다시 머물게 하나?

위의 시제; 앞의 원님을 생각하며
重來按節雪蒙頭 憶昔望湖湖自流
明月清風渾似舊 何人挽我更遲留
右 追思前侯

천리 길 툄툄한 먼지 말머리를 뒤덮어
행인은 흘러내리는 땀을 씻어 내린다.
하늘이 우릴 위해 구름 무지개 보이니
상쾌한 흥에 술 두루미 열어 또 한 번 머무노라.
위의 시제; 오랜 가뭄에 비가 오기에

124) 한효원(韓效元, 1468-1534): 자는 원지(元之), 호는 오계(梧溪), 청주인이다. 성종 20년(1489)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관찰사 등 여러 관직을 거쳐 종종 때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125) 억석당(憶昔堂): 영남루 능파당 동북쪽에 있었던 건물 이름. 임진왜란 후에 부사 이영(李英)이 망호당 옛 터에 초옥으로 엮었는데 감사 한준겸(韓浚謙)이 억석당으로 이름을 지었다. 선조 41년(1608) 부사 기효복(奇孝福)이 다시 재건하여 그 전대로 망호당이라고 하였다가 후일 능파당이 되었다.

千里炎塵沒馬頭 行人揮汗滴成流
天公爲我雲霓望 乘快開樽又一留
右 久旱得雨

공을 견책하여 지방관으로 삼았는데
남방의 좋은 치적 속된 무리를 눌렀네.
백성을 살려내는 능숙한 수단을 가지고
병든 객을 보호하여 편안히 머물게 하네.
위의 시제; 병이 조금 나은 데 사례하여
屈公枳棘作遨頭 治最南方鎮俗流
更把醫民三昧手 從教病客護安留
右 謝病少愈

이서보를 밀양으로 보내며[送李恕父赴密州]

어득강¹²⁶⁾

영남루는 온 나라의 기특한 경치로 떨치나니
조망하러 오른 사람 누군들 시 읊지 않았으리.
붉은 나무 흰 연기는 진부한 말이니,
모름지기 점필재의 죽지사를 보시오.
嶺南樓擅一邦奇 登眺何人不賦詩
紅樹白烟便陳語 須看佔畢竹枝詞

영남루

이사균(李詞勻)¹²⁷⁾

면면이 푸른 산이요 한 쪽은 강물인데
숲을 둘러 해를 담그고 성을 흔들며 흐른다.
천석의 깊은 병이 뒤늦게 발작하여서지
늙은이가 남쪽 여인 때문에 머무르는 게 아니오.

126) 어득강(魚得江; 1470-1550): 자는 자순(子舜), 호는 관포당(灌圃堂)으로 함종인(咸從人)이다. 위 시는 네 편의 연작 시 중 두 번째 편이다.

127) 이사균(李思鈞, 1471-1536): 자는 중경(重卿), 호는 눌헌(訥軒), 경주인이다. 연산군 4년(1498)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부수찬에 이르고, 중종 때 문과증시를 거쳐 이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필사 원본에는 사균(詞勻)으로 표기되어 있다.

面面靑山水一頭 縈林蘸日撼城流
膏肓泉石旋遲發 老子非緣越女留

영남루 2수

김극성(金克成)¹²⁸⁾

남방의 풍정이라 하늘에 붙은 구름 끌고
둘러싼 강물 단란한 산이 눈앞에 모였네.
근심과 낙을 매양 시와 술에 부치니
한가한 이 바쁜 이가 두우성 곁에 함께 앉았네.
긴 숲의 비취빛에 찬 물결이 떠오르고
오솔길은 푸른 숲을 가르며 저녁 연기 떠있네.
숙취 깨지 않았으나 여흥이 남아 있어
마침내 어느 곳에다 꽃다운 자리 펼치나?

日南風情掃黏天 環水圍山聚眼前
憂樂每憑詩酒裏 閒忙共坐斗牛邊
長林積翠浮寒浪 細路分靑帶晚烟
宿醉未醒餘興在 竟於何處設芳筵

말을 타고 차츰 바닷가 세상을 찾아드니
백년 심사가 술두루미 앞에 있었네.
먼 숲 아득한 곳에 산이 에워싸고
붉은 난간 아스라한 곁에 사람이 기뻐는데,
물고기 뛰고 새가 울며 아침 저녁이 지나가고
찬 여울 고목에는 달빛이 연기와 뒤섞이네.
강에 나와 혼자 술 따르니 흥이 많지 않아
잠시 기악¹²⁹⁾을 불러 잔치 자리 즐기네.

鞍馬侵尋傍海天 百年心事在尊前
山圍遠樹微茫外 人倚朱欄縹緲邊
魚躍鳥啼朝復暮 灘寒木古月和烟
臨江獨酌無多興 覓乞紅裙樂四筵

밀양에서 황비안의 운을 따라[密陽次黃比安韻]

128) 김극성(金克成; 1474-1540); 자는 성지(成之), 호는 우정(憂亭), 시호는 충정(忠貞),
광주인(光州人)이다. 김극성은 중종 경진년(1520)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29) 기악(妓樂): 원문의 홍군(紅裙)은 붉은 치마를 두른 기녀를 가리킨다.

누각 위의 한 두루미 술에 눈이 반갑고
 누각 머리에 점점이 지는 꽃이 바쁘구나.
 장군의 예절이라 용모가 소홀한데,
 태수의 풍류인지 취한 광태 용서하네.
 즐거운 일 때가 있어 입에 웃음 짓고
 장기¹³⁰⁾ 구름 불과 같아 뱃속까지 뽀박하네.
 사람 놀랄 흰 고리옥¹³¹⁾은 어디에 던졌나?
 호숫가 가는 비가 저녁 한기 일으키네.

樓上一尊雙眼碧 樓頭千點落花忙
 將軍禮數容疎慢 太守風流恕醉狂
 樂事有時供笑口 瘴雲如火迫中腸
 驚人白璧投何處 細雨湖邊作晚涼

영남루

신맹경(辛孟卿)¹³²⁾

좋은 비가 절묘한 시를 이루도록 재촉하니
 읊조리는 곳에 봄빛이 십분 기이하네.
 나그네 흥이 가장 좋은 곳을 알려면
 동편 창문에 달 오를 때를 기다려 보소.

好雨催成幼婦詩 吟邊春色十分奇
 欲知客興最佳處 待看東窓月上時

영남루

신맹경(辛孟卿)

희디흰 것은 하늘 가운데 그림자요
 고깃배 노래는 한 밤중 소리로다.

130) 장기(瘴氣): 남방의 바닷가 더운 지방에 어리는 독한 기운.

131) 백벽(白璧): 흰색의 고리 모양으로 다듬은 귀한 옥. 여기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나타낸다.

132) 신맹경(辛孟卿): 자는 국로(國老), 영산인(靈山人)이다. 연산군 병인년(1506)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자(正字)를 역임하였다.

꿈에서 깨고 나니 도무지 번뇌인데
 다시금 봄을 아끼는 정을 더하네.
 皎皎中天影 漁歌半夜聲
 夢回渾作惱 添却惜春情

영남루

허 지(許 遲)¹³³⁾

화사한 누각 우뚝우뚝 강물을 베고 있고
 벽 사이의 제영은 모두 명사가 지었네.
 선군께서 남긴 글씨 어제 일인 듯 하기에
 소자는 슬피 읊으며 하루 종일 머무네.
 華構崢嶸枕水頭 壁間題詠儘名流
 先君墨跡渾如昨 小子悲吟盡日留

객중에 흰머리는 조금도 양보 아니하고
 인간 세상 부침하며 물은 절로 흐른다.
 젊은 시절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
 강산은 말을 아니하고 머물러 있네.
 客中華髮不饒頭 人世浮沈水自流
 憶得少年時日事 惟有江山不語留

구름 창 안개 누각이 바위 머리에 벌여서
 좋은 경치 본디부터 가장 좋았구려.
 나그네 홀로 읊다 돌이켜 굽어보니
 강 가득 안개비에 백로가 남아 있네.
 雲窓霧閣列巖頭 形勝由來第一流
 客子獨吟還俯瞰 滿江烟雨白鷗留

옛날의 소년이 지금은 흰머리 되었으니
 세상일을 다만 흐르는 물에 부치노라.
 가을 들자 물색은 모두 여전한데

133) 허지(許遲): 자는 희범(希范), 하양인(河陽人)이다. 연산군 10년(150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판교(判校)를 역임하였다.

당 위에 어떤 이가 나를 만류하는가?
 昔日少年今白頭 惟有世事付東流
 新秋物色渾依舊 堂上何人挽我留

영남루

김 영(金 瑛)¹³⁴⁾

땅이 동남쪽으로 갈라지고 하늘도 터져
 한없이 망망하게 주렴 앞에 펼쳐졌다.
 강의 단풍 늙은 고목 가을 소리요
 바다의 달 맑은 서리에 기러기 그림자.
 서늘한 밤 길쭉한 것은 초가 객점의 대나무요
 들판에 엷디엷은 것은 먼 마을 연기로다.
 낙포¹³⁵⁾의 능파선자¹³⁶⁾ 버선을 취해 잡고
 서상¹³⁷⁾으로 천천히 걸어 잔치 자리에 올랐네.

地坼東南又缺天 茫茫無限一簾前
 江楓老木秋聲裡 海月清霜鴈影邊
 涼夜脩脩茅店竹 平蕪薄薄遠村烟
 醉携洛浦凌波襪 緩步西廂踏錦筵

28

영남루 운을 따라[次嶺南樓韻] 2수

박 상(朴 祥)¹³⁸⁾

134) 김영(金瑛; 1475-1528); 자는 영지(瑛之), 호는 삼당(三塘), 안동인(安東人)이다. 연산군 병인년(1506)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35) 낙포(洛浦): 복희씨(伏羲氏)의 딸인 복비(宓妃)가 익사하여 신이 되었다는 낙수(洛水)이다. 삼국(三國) 위(魏)나라 문제(文帝) 조비(曹丕)의 아우인 조식(曹植)이 <낙신부(洛神賦)>를 지은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낙동강의 낙(洛)과 연관하여 사용하였다.

136) 능파선자(凌波仙子): 물결 위로 가벼이 걸어가는 선녀. 송나라의 시인 황정건(黃庭堅)은 수선화를 능파선자에 비유하여, “능파선자 버선에 먼지를 내며/ 물 위로 가벼이 미미한 달빛 밟고 걷네[凌波仙子生塵襪 水上輕盈步微月]”라고 하였다. 영남루 동편의 능파당은 공무로 파견된 관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기에 인용한 말이다.

137) 서상(西廂): 상(廂)은 비바람이 들치지 않도록 지붕과 바람벽만 쳐 놓은 집이다. 여기서 능파각 서편의 영남루를 가리킨다.

138) 박상(朴祥; 1474-1530); 자는 창세(昌世), 호는 눌재(訥齋), 시호는 문간(文簡), 충주인이다.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사가독서를 하였으며 종종 때 순천부사, 상주목

영남의 매화 처음 필 때 손이 오니,
 가평절¹³⁹⁾ 지난 뒤요 상원절¹⁴⁰⁾ 앞이로다.
 그림 북에서 봄이 생기니¹⁴¹⁾ 우리가 일 천이요
 푸른 산을 시에 모으니 해가 반쯤 지네.
 고깃배는 물가에 갇힌 달을 나누어 싣고
 관가의 양은 방죽 덮은 연기 밟고 다니네.
 여원 몸에 마음은 장하여 맑은 허공으로 솟구쳐
 건곤을 몰아다가 취한 자리에 들이네.

客到嶺梅初發天 嘉平之後上元前
 春生畫鼓雷千面 詩會青山日半邊
 漁艇載分籠渚月 官羊踏破羃坡烟
 形羸心壯凌清曠 驅使乾坤入醉筵

서호¹⁴²⁾는 만리 멀리 오나라 땅에 있는데
 동서로 푸른 물결 홀연 앞에 떨어졌네.
 하늘 위 옥루¹⁴³⁾는 몸이 앉은 곳이요
 바다 가운데 자라 머리¹⁴⁴⁾ 아스라이 보이네.
 강의 고기는 비파소리 익숙히 들었고
 성의 나무는 촛불 연기에 언제나 그을리네.
 조령 넘으며 부질없이 험한 곳이라 근심했으나
 평생토록 구경했던 것이 모두 속된 자리였네.

西湖萬里隔吳天 綠浪東西忽墮前
 天上玉樓身坐處 海中鰐極眼窮邊
 江魚慣聽青娥瑟 城樹恒燠錦燭烟

사, 나주목사 등 여러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139) 가평절(嘉平節): 한해를 보내며 세사(歲事)를 고하는 납향(臘享) 제를 올리는 날.
 동지 뒤의 셋째 술일(戌日), 조선조 태조 이후로는 셋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하였다.

140) 상원절(上元節): 음력 정월 대보름날.

141) 봄이 그림 북[畫鼓]에서 생기니: 당나라 현종 황제는 북 치기를 좋아하였는데, 어느 해 2월 초순 궁중의 버들과 살구꽃이 막 피려할 무렵 역사를 불러다가 북을 치게 하였는데, 북을 치고 나자 버들과 살구꽃이 있을 다 터트렸다고 한다.

142) 서호(西湖): 중국 절강성 항주(杭州) 서쪽에 있는 호수. 항주는 옛날 춘추전국시대 오나라 땅이다. 서호는 전당호(錢塘湖)라고도 하는데, 풍광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명승지로 알려졌다.

143) 옥루(玉樓): 신선이 사는 누각.

144) 자라머리[鰐頭]: 발해 바다 가운데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항상 조수를 따라 오르내리므로 상제가 큰 자라로 열 다섯 마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서 섬을 바치고 있게 하였다는 말이 《열자(列子)》에 있다. 여기서는 신선이 사는 곳을 말한다.

영남루 모인 자리에서 우병사 회지에게 주다[嶺南樓席上贈右兵使熙之甫] 3수

박 상

이름난 누각 드문 모임 은향아리 마주하고
담소하는 평상 앞에 산이 반갑네.
인생 백년 무한한 뜻 그리려 하니
늙어서 딸랑딸랑 울릴 좋은 시가 없소.
名樓稀會對銀餅 話榻前山眼共青
欲寫百年無限意 老無佳句響玲瓏

허리 아래 죽 뺀 한 쌍의 보배로운 칼,
장군의 호탕한 기상 하늘에 치솟을 듯.
간 곳마다 관현악을 울린다 꺼려 마시오,
변방이 조용하여 전쟁터의 북채 먼지 쌓였소.
腰下淋漓雙寶刀 將軍豪氣欲凌霄
莫嫌到處鏗絃奏 邊靜塵霾舊戰袍

세상에 당당할사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있음이니,
산양¹⁴⁵⁾ 땅에서 일찍이 병상의 몸을 어루만졌네.
지금도 베개 머리에 찰랑이는 눈물,
예전에 얼굴 닦던 수건 아직 있다오.
海內堂堂知己人 山陽曾撫病床身
至今枕上浪然淚 猶在當時拭面巾

영남루 술자리에서 주인인 이충걸공과 시임 우병사 김세희, 그리고 황장목 경차관인 곽지번과 함께 만나[嶺南樓觴席謝主人李公忠傑時右兵使金世熙黃腸木敬差官郭之蕃俱會]¹⁴⁶⁾

145) 산양(山陽): 진(晉)나라의 향수(向秀)는 자신이 예전에 살던 산양 땅을 지나가면서 피리 소리를 듣고 옛날 일을 추억하며 <사구부(思舊賦)>를 지었다.

146) 이 시와 관련하여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의 <벽오유고(碧梧遺稿)>에 이런 일

정묘년 동당시¹⁴⁷⁾ 과거 시험 치루던 날
 평생에 형주를 알게 된 일¹⁴⁸⁾ 얼마나 다행이나.
 어렴풋한 얼굴은 이별한지 오래됨이니,
 그럭저럭 흐른 세월 물어보자 얼마더냐?
 나그네 길 떠돌다가 설달이 되어
 공관에 안개 헤치고 원님을 뵈옵네.
 곳간의 돈 있으니 놀이비용을 어찌 아끼랴,
 술병의 옥 같은 술은 압도하려 해야지.
 침실에 향기 어린 좋은 객관 사양하고¹⁴⁹⁾
 붉은 계단 은하를 거쳐 높은 누각에 올랐네.
 바람 막는 갑장¹⁵⁰⁾을 삼면으로 에워싸고
 별 들이는 구슬발은 한 쪽 머리 건너올랐다.
 번들번들 채색 자리 비단 수를 놓았고
 선명한 붉은 문은 임랑¹⁵¹⁾을 깎아 놓은 듯.
 공조¹⁵²⁾가 뒤에 온 건 조정 일이 있어서요
 원수가 먼저 옴은 군사 절제가 군셈이로다.
 향로 향기 어지러움은 향불 자주 피움이요
 쪽진 머리 엇갈림은 기생 행렬 많아서라.
 술 오르자 웃음소리 점차 어울리고
 별정게 취해서도 도리어 술잔 주고받는다.
 황학루¹⁵³⁾ 개인 내에 하늘이 반쯤 떨어지고
 오문¹⁵⁴⁾의 자옥한 나무 땅이 지우쳐 뜨네.

화가 실려 있다. “놀재 박상이 일찍이 영남루에 놀면서 20운 배울 시를 지어 벽에 걸어 놓았는데 세상에서는 절창이라 한다. 퇴계선생께서 일찍이 칭송하기를 ‘영남루에 놀재의 시를 걸면서부터 한쪽이 기울어질 것 같다’고 하였다. [朴訥齋 嘗遊嶺南樓 有二十韻倍律懸板壁間. 世稱絕唱. 退陶先生嘗稱曰 嶺南樓 自懸訥齋詩 一邊將傾矣.]

147) 동당시(東堂試): 조선시대 문과(文科) 과거시험.

148) 형주를 알게 된 일: 후한 때 왕찬(王粲; 177-217)은 17세에 황문시랑이 되었다가 난리가 일어나자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의지하여 있었는데 그 때 <등루부(登樓賦)>를 지어 세상에 명성을 떨쳤다. 것처럼 나그네가 좋은 주인을 만나 시문을 자랑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149) 침실에 향기 어리어: 영남루의 협실 이름으로 응향각(凝香閣)이 있었다.

150) 갑장(甲帳): 최상품으로 장식한 휘장.

151) 임랑(琳琅): 좋은 옥의 일종이다.

152) 공조(工曹): 공조의 관리. 이 때 황장목 경차관으로 온 박지번은 공조의 관원이었다.

153) 황학루(黃鶴樓): 중국 호북성 악주(鄂州)에 있는 누각.

154) 오문(吳門): 중국 남방의 풍광 좋은 도시 소주(蘇州). 여기서는 남쪽지방을 말한다.

서쪽 다리 저물어서 어촌 시장 파하고
 남쪽 포구 아득히 바다 장삿배 다니네.
 저녁 장식 붉은 구름 붉은 봉황 나르고
 허공 누른 신령한 산은 푸른 이무기 춤추는 듯.
 넓은 가슴 드세게 대붕의 세계로 날아오르고
 시흥은 묵은 풀 우거진 섬에 나란히 퍼득인다.
 서왕모 복사꽃¹⁵⁵⁾은 다함 없이 피고
 무릉의 금 대접은¹⁵⁶⁾ 거두는 이 없이 흠어졌네.
 시로 한림의 달빛¹⁵⁷⁾에 보답하려 하니
 술잔 들면 모름지기 상강 물에¹⁵⁸⁾ 던지시게.
 원님은 은근하여 위로가 될 만하고
 나그네 정이 많아 거듭 머뭇거리네.
 티끌 세상에 신선 사는 곳 살피지 못했더니
 맑은 꿈 참으로 질편한 놀음이 되었네.
 술은 추운 날에 거문고 소리 분발하여 쟁쟁거리고,
 대는 강물 빛에 구슬 부딪치듯 슬피 다그락거린다.
 몽산¹⁵⁹⁾에 절뚝거리며 다시 올라 보는 것은,
 긴 숲의 찢꼬리 소리 듣고자 함이네.

丁卯東堂試院秋 平生何幸識荊州
 依倚面日嗟相關 荏苒星霜問幾周
 客路轉蓬逢蜡臘 公堂披霧謁君侯
 庫錢肯愛權娛費 罇玉聊爲壓倒謀
 燕寢凝香辭上館 丹梯跨漢赴高樓
 遮風甲帳圍三面 納日珠簾捲一頭

155) 서왕모 복사꽃: 서왕모(西王母)는 중국 상고시대 신녀(神女)이다.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곤륜산(崑崙山)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서왕모를 만나서 요지(瑤池)에서 놀았다 한다. 천도(天桃)는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곳에 있다는 복숭아인데, 3,000년에 한번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156) 무릉(茂陵)의 금대접: 무릉은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능이다. 금완(金碗)은 제왕의 무덤에 함께 묻는 금대접이다.

157) 한림(翰林)의 달빛: 당(唐)나라 시인 이백(李白)이 달빛을 좋아하였던 일에 빗댄 말이다.

158) 상강(湘江) 물에: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은 조정에서 배척되어 먹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었는데, 한나라 때 가의(賈誼)가 상강(湘江)을 지나면서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어 강물에 던져 굴원을 애도한 바 있다.

159) 몽산(蒙山): 동몽산(東蒙山). 본디 산동성 몽음현에 있는 산 이름이다. 옛날 노나라의 동쪽에 있었으므로 동몽이라 하였는데, 같은 산의 다른 봉우리로 운몽(雲蒙), 귀몽(龜蒙) 등의 이름이 있다. 여기서는 영남루가 있는 산 언덕에서 동편의 높은 곳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斐潤綵筵裁錦繡 鮮華朱戶削琳瑯
 工曹後到朝廷在 元帥先臨節度遄
 爐窮亂罪薰點數 髻鴉交襯妓行稠
 微醺漸覺諸言笑 卒爛還從錯獻酬
 黃鶴晴川天半落 吳門烟樹地偏浮
 西橋晚罷漁村市 南浦遙通海賈舟
 粧幕赤雲飛紫鳳 鎮虛靈嶽舞蒼虬
 曠懷橫厲翔鵬界 騷興聯翩宿莽洲
 王母桃花開不盡 茂陵金碗散無收
 將詩欲答翰林月 舉酒須投湘水流
 地主慇懃可慰藉 征人繾綣重夷猶
 塵寰未省神仙府 清夢眞成汗漫遊
 松憤歲寒鏗寶瑟 竹悲江色憂鳴球
 蒙山躑躅更登覽 要聽長林黃栗留

영남루

소세량(蘇世良)160

부생의 인생 행락 천명이 아니던가?
 이곳엔 십 년 전에 일찍이 노닐었지.
 풍경은 낯설지 않게 눈앞에 펼쳐졌고
 음악은 여전히 술자리 곁에 소란하다.
 나그네 길 여러 날 취하여 버려 두고
 시골 숲 돌아보니 저녁 연기 덮이네.
 오늘 밤 또 다시 서울의 꿈을 꾸면
 손에 책을 잡고 경연에 모시고 있겠지.
 浮生行樂孰非天 此地曾遊十載前
 風景不殊供眼界 檀槽依舊鬧樽邊
 留連客路拚沉醉 指顧村林易暮烟
 今夜又成京國夢 手開黃卷侍經筵

32

160) 소세량(蘇世良)은 중종 계유년(1513) 6월에 경상도 도사(都事)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7월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어 갈랐다.

영남루

권 벌(權 檣)¹⁶¹⁾

웅장한 누각을 영남 하늘에 높이 지어
명승지역 경계가 눈앞에 모두 보이네.
먼 길 치달리던 중에 몸을 빼어서
기러기 사라지는 곁으로 눈길 보낸다.
끝없는 강물은 배를 펼친 듯 평온하고
가없는 들의 기운 연기처럼 해말장다.
허공에 기대 봄바람에게 말씀 전하노니
꽃잎을 날려 춤추는 자리에 보내 주실런지.

高架雄樓嶺外天 名區形勝一望前
抽身長路馳驅裡 送鴈¹⁶²⁾歸鴻滅沒邊
不盡江流¹⁶³⁾平似練 無垠野氣淡如烟
憑虛爲報春風道 肯遣飛花入舞筵

33

영남루 망호당에서[題嶺南樓望湖堂] 2수

김안국(金安國)¹⁶⁴⁾

시를 오래 빚졌다고 강산은 나를 꾸짖고
봄 모습 단장하여 다시금 기묘한데,
눈 아래 풍경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말없이 쓸쓸하게 한 참 동안 섰노라.

江山嗔我久逋詩 粧點春容更作奇
眼底風烟收不得 悄然無語立移時

밝은 달은 창 엿보며 반가워하고
차가운 강은 베개에 소리를 보내온다.

161) 권벌(權檣; 1478-1548):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沖齋),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중종 2년 문과에 급제하고, 도승지를 거쳐 예조참판,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였다. 충재는 중종 무술년(1538)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62) 문집에는 鴈→眼.

163) 문집에는 江流→長江.

164) 김안국(金安國; 1478-1543):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중종 2년 문과 중시를 거쳐 대사간, 공조판서를 역임하고 중종 정축년(1517)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외판 마루에 하룻밤의 꿈,
 객지의 정을 견디지 못하네.
 皎月窺窓色 寒江送枕聲
 孤軒一夜夢 不耐客中情

영남루에서 비에 지체되어 몇 일 머물며[嶺南樓阻 雨留數日]

김안국

사흘 동안 쏟아진 비에 온 강이 넘쳐
 하늘 끝 외론 객은 홀로 창에 기댔노라.
 백년의 회포 안고 몸은 장차 늙어가고
 온 세상에 명성 떨치려던 뜻은 이미 접었노라.
 언덕에 오른 오리는 근심스레 나란히 섰고,
 저녁 알리는 북과 종은 축축해도 치는구나.
 강호 산천 아름다워 벼슬 생각 점차 얹아지니
 나그네 간장을 씻어 내릴 술은 몇 항아린가.

三日澆霖漲一江 天涯孤客獨憑窓
 百年懷抱身將老 四海聲名志已降
 上岸鳬鷺愁並立 定昏鐘鼓濕猶撞
 宦情漸薄湖山媚 澆洗羈腸酒幾缸

영남루 취한 자리에서 봉중의 운을 따라 급히 지 어 올림[嶺南樓醉席上走次弼中韻] 2수

김안국

붉은 비단 잔치 자리에 뱃노래 부르니
 천상의 향기 나부끼는 소매에 춤사위 부드럽네.
 해 저물어 서산이 어둡다고 꺼려 마시오,
 얼음같이 둥근 달 푸른 물위에 솟구칠 테니.

紅錦筵中發棹歌 天香飄袖舞婆娑
 莫嫌日落西山暝 且待冰輪湧碧波

누각 밖에 겹쳐진 천 겹 만 겹의 산은
 모조리 저무는 별을 얼굴에 찍었네.

알리라 취한 가운데 붓을 휘두르는 곳,
 참된 모습을 반쪽 사이에 그려내는 것을.
 樓外千重萬疊山 都將暮景點容顏
 須知醉裡揮毫處 描寫眞形半幅間

영남루

채소권(蔡紹權)¹⁶⁵⁾

부절¹⁶⁶⁾ 따라 일찍이 영남 땅에 놀았는데
 다시 와 손꼽으니 육 년 전이로다.
 강물은 흰빛을 끌어 성박을 돌렸고
 석양은 붉은 옷을 껴고 섬 가에 번득이네.
 발 사이로 드는 서늘한 기운 남포의 비요
 나무숲 어둠을 가르는 건 먼 들의 연기로다.
 백년 세월 흥폐는 참으로 한탄스러우니
 당시의 잔치 자리 취했던 일을 말하지 말라.

隨節曾遊嶺海天 重來屈指六霜前
 江流拖白環城外 夕照穿紅閃島邊
 涼入簾櫳南浦雨 暝分林樹遠郊烟
 百年興廢眞堪歎 莫說當時醉綺筵

34

소루(召樓)

장 적(張 籍)¹⁶⁷⁾

높은 누각 중수하여 날아갈 듯 흰하고
 맑은 물을 읊조림에 눈발이 휘날리네.
 붉은 난간에 기대니 아득한 생각 떠올라
 훌쩍 세상 떠난 몸이 절로 기미를 잊네.
 重修高閣煥如飛 戲唾清流玉屑飛

165) 채소권(蔡紹權; 1480-1548): 자는 효중(孝仲), 호는 줄재(拙齋), 인천인(仁川人)이다. 연산군 병인년(1506)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김안로(金安老)의 당으로 나이 69세에 졸하였다. 채소권(蔡紹權)은 중종 갑술년(1514) 7월에 경상도 도사(都事)로 부임하여 이듬해 8월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 갈라갔다.

166) 부절(符節): 지방의 방백(方伯)이나 수령(守令)의 직위를 나타내는 신표(信標).

167) 장적(張籍): 자는 대훈(大訓), 단양인이다. 중종 2년(1507) 증광별시에 급제하여 호조참의를 역임하였다.

·倚朱欄遐想發 超然身世自忘機

누가 영주산이 바다구석에 있다더냐?
배를 타지 않아도 단구¹⁶⁸⁾에 앉은 것을.
가벼운 잔을 권하면서 진결을 보내주니
조화에 노니는 남화경¹⁶⁹⁾의 뜻을 넉넉히 알겠네.

誰謂瀛洲在海陬 風帆不用坐丹丘
羽觴相屬輸眞訣 贏得南華造化遊

영남루

성창세(成昌世)¹⁷⁰⁾

아스라이 큰 들판 머리에 누각이 있어
주렴을 걸으면 짙은 푸름이 강에 숨어 흐른다.
연기 나는 옛 나루터에 날이 저물려하니
십리 멀리 기우는 별이 반쯤은 남았구나.

樓在蒼茫大野頭 捲簾濃綠隱江流
烟生古渡天將暮 十里斜陽一半留

달 기울자 사람은 옥 난간 머리에 서서
마름꽃을 캐려고 푸른 물을 희롱한다.
한스럽다 봄빛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푸른 버들 깊은 곳에 새벽 피꼬리 남았네.

月斜人倚玉欄頭 欲採蘋花弄碧流
堪恨春光同逝水 綠楊深鎖曉鶯留

영남루 운을 따라[次嶺南樓韻]

신광한(申光漢)¹⁷¹⁾

168) 단구(丹邱): 신선이 산다는 곳.

169) 남화경(南華經): 남화진경(南華眞經). 《장자(莊子)》 책의 다른 이름이다.

170) 성창세(成昌世): 아마도 증중 2년 증광별시에 급제한 성세창(成世昌, 1481-?)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성세창의 자는 번중(蕃中), 호는 둔재(遯齋)로 창녕인인데 대사성과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71) 신광한(申光漢; 1484-1555); 자는 한지(漢之) 또는 시회(時晦), 호는 기재(企齋),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신숙주의 손자이다. 증중 5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대사성이 되었다가 기묘사화로 삭직당하였다. 복직되어 명종 즉위년(1545) 대제학으로 위사공신

물이 삼킨 하늘에 노을과 따오기 분명한데,
 어찌하면 올라가 내 앞에 떨어지게 하리?
 관로의 봄꽃은 시구 속에서 피고
 용산의 가을빛이 술두루미 앞에 이를 때.
 맑은 회수에서는 모래를 가둔 달빛¹⁷²⁾을 보지 못하고
 황학루에선 바위에 드는 연기를 찾기 어렵네.
 관직에 매인 몸 도리어 한유의 기문을 슬퍼하여¹⁷³⁾
 좋은 놀이 펜스레 자안의 잔치를¹⁷⁴⁾ 저버렸네.

分明霞鷺水吞天 安得登臨落我前
 官路春花開句裏 龍山秋色到罇邊
 清淮未賞籠沙月 黃鶴難尋入石煙
 羈官却悲韓愈記 勝遊空負子安筵

35

영남루

신광한(申光漢)¹⁷⁵⁾

시 읊으니 다시금 흰머리가 늘어나고
 난간에 기대기 전에 눈물 먼저 흐르네.
 망호당에서 일찍이 내 선인의 글을 보았는데
 새로이 좋은 이름을 여기 영원히 남기네.

(衛社功臣)이 되고, 우찬성을 역임하였다.

172) 모래를 가둔 달빛: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 시에 “연기는 차가운 물을 가두고 달은 모래를 가두었는데/ 밤중에 진회에 배를 대니 술집이 가깝구나/ 장삿집 여인은 망국의 한을 알지 못하고/ 강 건너 아직도 후정화 노래를 부르는구나[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라고 하였다.

173) 한유(韓愈)의 기문(記文): 당나라의 창려(昌黎) 한유는 <신수등왕각기(新修滕王閣記)>를 지었는데, 그 글에 “나는 젊을 때부터 강남 지방에 아름다운 누관이 많은데 그 중 등왕각이 홀로 제일이 되며 홀륭하고 뛰어나다는 칭송을 들었으며, 세 왕씨가 지은 글을 읽어보고는 그 문장이 장하여 더욱 한 번 가서 구경하고 읽어보려고 하였으나, 조정의 관직에 매여 있어 이루지 못했다”는 구절이 있다. 한유의 이 글 또한 등왕각에 가보지 못한 채 지은 것이다. 신광한의 영남루중수기 역시 영남루에 가보지 못한 채 지은 것이다.

174) 자안(子安)의 잔치: 자안은 등왕각서를 지은 왕발(王勃)의 자이다. 등왕각 낙성식 잔치에 맞추어 왕발이 명문을 지었으므로 이른 말이다. 여기서는 신광한이 영남루 중수의 낙성식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한 말이다.

175) 신광한(申光漢; 1484-1555); 자는 한지(漢之) 또는 시회(時晦), 호는 기재(企齋),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신숙주의 손자이다. 중종 5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대사성이 되었다가 기묘사화로 삭직당하였다. 복직되어 명종 즉위년(1545) 대제학으로 위사공신(衛社功臣)이 되고, 우찬성을 역임하였다.

吟詩更覺白添頭 未到憑軒涕已流
望湖曾見吾先子 新得芳名此永留

영남루중수기문의 뒤에

신광한

가정 계묘년(1543) 여름, 나는 마침 병석에 있으면서 박부사의 간절한 청에 마지못하여 <영남루중수기>를 짓고, 또한 그 전의 운을 따라 책에다 써 두고 이를 나의 생질인 참지 조사수에게 보여주었다. 조공은 서글프게 말하기를, “제가 지난 해 사행의 일로 이 누각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선조께서 일찍이 영남에 공무로 왔다가 이 운에 화답하여 시를 지은 것을 시판 위에 새겨 놓았는데, 수적이 아직도 완전하였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일찍이 흥칙하고 민망한 일을 당하여 나이 네 살에 아버지를 잃고, 선공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봄 가을 이슬이 내릴 때마다 영모하는 감회가 무궁하였다. 이제 조생의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몰래 한탄과 슬픈 눈물이 난다. 다시금 그 운을 차운하여 책 끝에 덧붙여 기록하여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망극한 마음을 붙인다. 오호라 애통하도다.[嘉靖癸卯夏 余方在病中 勉副朴侯勤請 爲作嶺南樓重修記 且次前韻 書之于卷 以示吾甥趙參知士秀 公憾然曰 姪昔年因使事 得覽斯樓 先祖嘗從事嶺南時 亦是和韻 鑑諸板上 手跡嘗宛然云 余夙遭凶閔 生年四歲 乃失所恃 未省先公典刑爲何如 春秋雨露 永慕無窮 卽聞趙甥之語 不覺嘆吒悲涕 復次其韻 追記卷末 以寓終天罔極之意 嗚呼痛哉.]

어린 시절 하늘을 원망할 줄만 알았지
아버이의 가르침이 있는 줄을 몰랐네.
구름에 졸고 달빛에 서는¹⁷⁶⁾ 것도 세상 품안이요,
비에 적시고 서리에 젖는 초목처럼¹⁷⁷⁾ 자랐는데,
듣건대 벽사룡¹⁷⁸⁾에 필적이 남아 있다 하니
붉은 여지¹⁷⁹⁾로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려 하네.
남쪽 하늘 뚫어지게 보며 괜스레 머리 돌리니
단청 찬란한 새 누각에 부질없이 화사한 자리.

髫稚年來解怨天 不曾知有過庭前
眠雲立月乾坤內 濡雨露霜艸木邊

176) 구름 속에 자고 달빛에 서는[眠雲立月]: 부모없이 세상에 외롭게 홀로 사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177) 비에 적고 서리에 적시는 초목: 천지의 혜택을 받아 자라는 초목처럼 부모의 은혜를 일컫는다.

178) 벽사룡(碧紗籠): 푸른 김의 비단으로 아름답게 덮어서 보호한 시판(詩板).

179) 붉은 여지(丹荔): 용안(龍眼), 식용의 둥근 열매가 여는 상록 교목의 이름.

聞說碧紗餘筆跡 欲將丹荔事香煙
眼穿南斗空回首 金碧新樓謾錦筵

김밀양의 영남루 운을 따라[次金密陽嶺南樓韻]

신광한

듣건대 강호 산야에 좋은 인연 맺어서
그림같은 집 낙성하여 북을 둥둥 울린다지.
누각은 높은 터에 있어 삼신산을 삼키고
문은 넓은 바다 마주하여 온갖 냇물 보내네.
굳은 맹세 기한 지켜 노년 보낼 계획이니
금 도장 벼슬인들 쉴 나이를 어찌 만류하리.
봄이 오면 등림하는 낙을 읊을 터이나
좌중에 누가 백설편¹⁸⁰⁾을 지어 올리리?

聞向湖山結好緣 畫堂新落鼓淵淵
樓因峻址吞三島 門對滄溟送百川
鐵限擬成終老計 金章能挽欲休年
春來定賦登臨樂 座上誰題白雪篇

영남루(嶺南樓) 2수

김정국(金正國)¹⁸¹⁾

텅 빈 하늘로 몸을 빼어 날아오르니
한 줄기 은하수가 난간 앞에 떨어졌네.
눈 아래 펼쳐진 구름 산 굽어보니
신선의 배와 대추 벌써 마음에 다가오네.
삼원¹⁸²⁾의 경계인 듯 붉은 계단 거닐고,
단약을 달이는 듯 일만 동네 연기 나네.

180) 백설편(白雪篇): 백설가(白雪歌). 송옥(宋玉)의 <대초왕문(對楚王問)>에 인용된 곡조로서 양춘곡(陽春曲)과 함께 보통 사람이 화답하기 어려운 매우 고상한 노래라고 한다. 이처럼 고상한 곡조를 일컫는 말이다.

181) 김정국(金正國; 1485-1541);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중종 4년(1509)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가 기묘사화에 삭직되었다. 뒤에 복관되어 전라도관찰사와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예조, 병조, 형조의 참판을 역임하였다. 사제는 중종 기해년(1539)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82) 삼원(三垣): 자미원(紫微垣) 태미원(太微垣) 천시원(天市垣) 등 하늘의 별자리.

만약 봉래섬의 서왕모 잔치 아니라면
아마도 청도(183)의 옥루 잔치이리라.

抽身飛上沈寥天 一派銀河落檻前
俯視雲山供眼底 已知梨棗到心邊
依然步紫三垣界 宛似燒丹萬井煙
蓬島若非王母宴 清都應是玉樓筵

홀쩍 학을 타고 가을 하늘에 올랐더니
온갖 경치 모조리 눈앞에 들어왔네.
맑은 물 굽어보니 강은 다함이 없고
넓은 들에 낙엽 지고 나무숲 끝이 없다.
노을에 반조 밝아 먼 되는 가라앉고
넓은 들에 갈가마귀 어둔 안개 깨는데
우습다 시주머니(184)가 어찌나 적은지
주워 담으려니 동석한 사람에게 부끄럽네.

飄如跨鶴上秋天 萬景都輸入眼前
俯檻清流江不盡 平郊搖落樹無邊
霞明返照沈遙岫 野闊歸鴉破暝烟
自笑詩囊如許少 欲將收拾媿同筵

영남루

오 상(吳祥)¹⁸⁵⁾

서쪽에서 휘감은 산세 강 머리를 베었고
화사하고 높다란 누각 그림자 강물에 거꾸러졌다.
가고 가고 오고 오며 사람은 절로 늙는데
안개는 길게 밤숲을 둘러 남아있구나.

西回山勢枕江頭 華構崢嶸影倒流
去去來來人自老 烟霞長帶栗林留

183) 청도(淸都): 옥황상제의 궁궐. 《열자(列子)》에 “청도와 자미, 군천과 광락은 천제의 거처[淸都紫微鈞天廣樂 帝之所居]”라고 하였다.

184) 시주머니[詩囊]: 시를 지어 담는 주머니.

185) 오상(吳祥, 1490-1551): 자는 상지(祥之), 해주인이다. 중종 갑오년(1534)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영남루에서 일본 사신 수축동당에게 잔치를 베풀고 글을 적어 송별하다 [嶺南樓宴日本使臣受竺東堂書以贈別]

이언적(李彦迪)186)

반듯한 빈객 잔치에 예절 조금 허물 있어도
강산의 좋은 흥이 다시금 느긋하다.
천 길 험한 파도에 배타고 온 이 위로하러
백 척 누대에 관현악 소리 소란하다.
두 나라 즐거움은 믿음의 서찰 있어서니,
한 두루미 술에 흥금을 시편에 부친다오.
산과 바다 사는 구역 구분을 하지 마소,
품성은 당초부터 같은 천성에 근본하나니.

秩秩賓筵禮少愆 湖山佳興更悠然
千尋鯨浪勞舟楫 百尺樓臺鬧管絃
兩國歡娛憑信札 一樽襟抱付詩篇
莫言嶺海分區域 稟賦元初本一天

영남루

최 호(崔 顥)187)

푸른 용이 동으로 달려 홀연 머리 쳐들고
강속으로 꺾어 들어 푸른 물을 마신다.
눈에 가득 둘러싼 경관을 그림 누각에 바치기에
시 한 구절 얻으려고 사신이 머무르네.

翠虯東走忽昂頭 截入江心飲碧流
滿目環觀供畫閣 一句贏得使華留

영남루

정만중(鄭萬鍾)188)

186)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중종 9년(1514) 문과에 급제하였고, 장령, 밀양부사 등을 거쳐, 부제학, 이조 예조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였으며 인종 때 좌찬성이 되었으며, 명종 때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죽었다. 중종 계묘년(1543) 8월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5월에 갈렸다.

187) 최호(崔顥): 자는 혼중(混仲), 강화인(江華人)이다. 중종 갑술년(1514) 명경별시에 급제하여 판교(判校)를 역임하였다.

이십 년 전에는 그래도 검은 머리,
막부에 와서 놀며 풍류도 족하였지.
부절을 짚고 온 오늘 부끄러움 많도다,
머리 세고 얼굴 찌들어 다시 체류하다니.

二十年前尙黑頭 來遊幕府足風流
如今仗節多慚愧 髮白顏枯更滯留

영남루

조광원(曹光遠)189

객중에 하얗게 센머리를 꺼려하지 않고
이별의 한을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였지.
밤비는 무단히 아침에 도로 개여
가는 사람을 일각도 머물게 하지 않네.

客裡忘嫌雪滿頭 枉教離恨似江流
無端夜雨朝還霽 不肯行人一刻留

지난 해에 처음으로 옥난간 머리에 기댔더니
흐드러진 매화가 붉게 강물에 비치었네.
오늘 다시 왔더니 꽃이 이미 저버리고
또 다시 춘흥이 없으니 누굴 위해 머물꼬?

去年初倚玉欄頭 爛熳庭梅紅映流
今日重臨花已謝 更無春興爲誰留

소루(召樓)

박세후(朴世熙)190

188) 정만중(鄭萬鍾): 자는 인보(仁甫), 호는 조계(棗溪), 광주인(光州人)이다. 중종 11년(1516)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 경상도 도사를 거쳐 형조, 호조, 예조의 참판을 지내고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9) 조광원(曹光遠, 1492-1573): 자는 회보(晦甫), 창녕인이다. 중종 23년(1528)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도승지를 지내고 을묘왜변에 경상도순찰사를 역임하고 우찬성에 이르렀다.

190) 박세후(朴世熙; 1493-1550): 자는 중온(仲溫), 호는 인재(認齋), 상주인이다. 중종 기묘년(1519)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가 잠시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파직

강성의 풍물은 호탕하여 거두기 어렵고
 푸른 강물을 베고 누운 화사한 집이 사랑스럽네.
 물어보자 몇 번이나 좋은 잔치 열었나?
 반 공중에 붉은 촛불이 물가 섬에 빛나구나.

江城風物浩難收 且愛華堂枕碧流

爲問幾番開勝宴 半天紅燭耀滄洲

다함 없는 정회는 취하여서 못 거두고
 창백한 얼굴의 풍류가 스스로도 우습네.
 언제 쫄 흰 달이 동산마루에 오르려나?
 캄캄한 어둠이 백로주에 도로 가라앉네.

無盡情懷醉未收 蒼顏自笑任風流

何時皓月生東嶺 暝色還沈白鷺洲

소루(召樓)

박세후(朴世熙)

우습다 더 닳은 지 백년이 미처 못되어
 누를 짓고 각을 짓고 이름난 당까지 만들었네.
 다만 전후 사람의 기호가 달라서이지
 풍월이야 당초에 이나 저나 상관없네.

堪笑開基未百霜 爲樓爲閣又名堂

只緣所好殊前後 風月初無彼此妨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次密陽嶺南樓韻]

송 순(宋 純)¹⁹¹⁾

구름 산에 산들바람 저무는 하늘,
 시와 술 생각이 저녁 누각 앞에 일어난다.
 여울 비긴 곳에 가을 소리 가늘게 들고
 비 개이자 검푸른 산 빛이 더욱 짙구나.
 외로운 배에 누가 옥저를 불어 놀라게 하나?

되고, 그 뒤 다시 등용되어 중종 기해년(1539)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였다.
 191) 송순(宋純; 1493-1583); 자는 수초(遂初), 호는 면앙정(倂仰亭), 시호는 숙정(肅正)이다. 중종 14년(1519) 문과에 급제하고, 선조 때에 대사헌과 우참찬을 역임하였다. 송순은 중종 경자년(1540) 9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쌍쌍이 나는 물새가 숲 안개를 깨트리네.
 한가로이 시 읊으며 강호 풍미가 넉넉하니
 북 치고 노래하는 화려한 잔치 베풀 것 없네.

雲山風輕欲暮天 詩情酒意晚樓前
 秋聲細入灘橫處 黛色便多雨霽邊
 孤棹何人驚玉笛 雙飛沙鳥破林烟
 閑吟剩占湖山味 歌鼓無勞設綺筵

3/p

영남루 동편의 봉래관 운을 따라[次嶺南樓東蓬萊觀韻] 2수

송 순

두 산이 들에 비껴 용머리를 쳐들고
 한 물이 성을 둘러 옥류를 끌어가네.
 티끌세상 반평생 일찍이 못 보았기에
 오늘 올라와선 가다가 도로 머문다.

兩山橫野揭龍頭 一水縈城曳玉流
 塵土半生曾未見 登臨此日去還留

봄꽃과 가을 달, 한 줄기 강 머리에
 노는 이들 얼마나 강물처럼 흘러갔나.
 안타깝다 슬픔과 환락 지난날의 일들을
 시를 지어 공연히 벽 사이에 남겼네.

春花秋月一江頭 多小遊人逝若流
 可惜悲歡當日事 題詩空向壁間留

영남루에서 경차관 이원길공에게 주다[嶺南樓上贈敬差官李公元吉]

송 순

성 위의 높은 누각 먼 하늘을 당겨,
 십리 풍광이 난간 앞에 모였네.
 시야는 푸른 산 너머 활짝 열리고

한가한 정 흰 갈매기 곁에 다정하게 부치네.
 발 가득 차가운 소리는 성벽을 감도는 여울이요
 해 가린 가벼운 구름은 산을 두른 연기로다.
 명승지에 다행히도 친구 만나 웃으니
 달을 잡고 좋은 잔치에 취함을 사양마소.

枕城危棟控遙天 十里風光一檻前
 望眼豁開青嶂外 閑情狎寄白鷗邊
 滿簾寒響灘回壁 遮日輕陰嶺帶烟
 勝地幸逢親舊笑 莫辭攀月醉芳筵

40

유천역 지나는 길에 영남루를 추억하며 [楡川驛路 追憶嶺南樓]

송 순

높은 누각 어느 해에 먼 하늘가에 섰나?
 무궁한 광경은 고금에 앞자리로다.
 평평한 언덕 밖에 산마루 가로지르고
 아득히 먼 나무 곁에 강줄기가 나누어졌네,
 두루미 술과 노래 소리 천리 길 나그네를 위로하고
 가을 바람에 고기와 벼가 살찌 일만 집 연기로다.
 이별하고 돌아가는 쓸쓸한 유천 길에
 비단 자리에 취했던 일이 꿈인 양 아련하네.

高閣何年迥倚天 無窮光景古今前
 嶺頭橫斷平坡外 江尾遙分遠樹邊
 樽酒絃歌千里客 秋風魚稻萬家烟
 別來惆悵楡川路 一夢依然醉錦筵

41

소루(召樓)

양 담(梁 澹)

세월 흘러 늘그막의 예순 나이 되도록
 누에도 각에도 당에도 올라보았네.
 온 헌함의 경치가 언제나 의구하니
 여러 차례 편액을 바꿔도 괜찮으리라.

潦倒粉榆六十霜 登樓登閣復登堂
軒景物長如舊 屢換扁題便不妨

영남루

송 겸(宋 謙)¹⁹²

화사한 누각 가장 높은 곳에 노곤하게 기대어
때때로 짧은 머리를 강물에 비춰보노라.
강물은 유람객의 뜻을 이해하는 듯
누각 앞에 곧바로 와서는 가다가 도로 머무네.
倦倚華樓最上頭 時將短髮照江流
江流似解遊人意 直到樓前去却留

한 강물 머리의 봄꽃과 가을 달에
얼마나 많은 유람객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애석하다 슬픔과 환락 당시 일들을
시로 지어 공연히 벽 사이에 남겼네.
春花秋月一江頭 多少遊人逝若流
可惜悲歡當日事 題詩空向壁間留

영남루 운을 따라, 밀양으로 부임하는 사군 안테 고를 전송하며[次嶺南樓韻送安使君太古之任密陽]

주세붕(周世鵬)¹⁹³

영남루의 풍경은 남방에서 으뜸이라
은하수가 가로 흘러 난간 앞을 두른다.
삼신산 구름과 노을은 발 아래로 오고
높은 하늘의 별들이 머리 가까이 있네.
사심 없이 적셔주나니 온 숲의 비요
풍년 들 조짐이라 일 만 집 연기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지척에 있는지라

192) 송겸(宋謙): 자는 여온(汝溫), 여산인(礪山人)이다. 중종 15년(1520)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개성유수를 거쳐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93) 주세붕(周世鵬; 1495-1554):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愼齋), 시호는 문민(文敏), 상주인(尙州人)이다. 중종 17년(1522) 문과에 급제하고, 부수찬, 헌납 등을 거쳐서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중종 37년(1542) 백운동서원을 창건하였다. 명종 때 도승지,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어느 때나 사군의 잔치에서 한 번 취할꼬?

南樓風景冠南天 銀漢橫流繞檻前
三島雲霞來脚底 九霄星斗近頭邊
無私潤物千林雨 有象豐年萬戶烟
歸去田園纔咫尺 何時一醉使君筵

12

영남루

채무일(蔡無逸)194

하늘 밖 가없는 하늘로 눈을 보내면
수많은 물색이 누각 앞에 펼쳐지네.
어렴풋이 먼 형세는 긴 숲 너머요
아스라이 기묘한 모습은 석양 빛 곁이로다.
일만 리 고향 산천 손가락 따라 돌아보니
한 구역 산수 경치에 구름 안개가 묵었네.
내 걸음은 정녕 봄이 저물 무렵인지라
날리는 꽃 춤추는 자리에 떨어져도 금치 못하네.

日送無窮天外天 森羅物色館樓前
微茫遠勢長林外 縹緲奇觀夕照邊
萬里鄉關隨指顧 一區山水老雲烟
吾行正值春將暮 不禁飛花落舞筵

13

영남루

이도남(李圖南)195

남녘 고을 십 년 동안 머리는 모두 세어
서로 만나 부끄럽네 지는 꽃 흐르는 물이.
하얀 말발굽은 화산 가는 길에 익숙한지라
초헌이 잠시도 머무르지 못함을 한하노라.

十載南州白盡頭 相逢還愧落花流
霜蹄又慣花山路 却恨星輶不暫留

194) 채무일(蔡無逸; 1496-1556); 자는 거경(居敬), 호는 일계(逸溪)이다. 중종 35년(1537) 문과에 급제하고 한성서윤을 역임하였다.

195) 이도남(李圖南, 1496-1567); 자는 대봉(大鵬), 합천인이다. 중종 28년(1533)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 전적, 공조좌랑, 동래부사를 역임하였다.

영남루

오 겸(吳謙)196)

이십 년 만에 다시오니 머리 모두 세었고
예 놀던 목은 자취 강물만 공연히 흐르네.
난간에 기대 고향 생각 다시 하나니
어느 때 말을 달려 마음대로 떠날꼬?

廿載重來白盡頭 舊遊陳迹水空流
倚欄更起鄉關夢 快馬何時任去留

영남루

정언각(鄭彦愷)197)

부월 짚고 돌아오니 머리 이미 세었는데
웅천은 변함 없이 예전처럼 흐르는구려.
몸은 요동의 학¹⁹⁸⁾처럼 슬픈 감회 많은데
큰 나무 동산에 가득해도 사람은 머물지 않네.

仗鉞歸來已白頭 凝川渾似昔年流
身同遼鶴多悲感 喬木滿園人不留

영남루

심통원(沈通源)199)

천리 길 붉은 먼지에 말 머리를 파묻다가
오늘은 걱정 씻으려 긴 강물을 굽어본다.
백백한 경치들이 무궁한 경계인지라

196) 오겸(吳謙, 1496-1582): 자는 경부(敬夫), 호는 지족암(知足庵), 나주인이다. 중종 27년(1532)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의령현감을 역임하고, 명종 때 예조, 이조, 병조, 호조의 판서를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197) 정언각(鄭彦愷, 1498-1556): 자는 근부(謹夫), 해주인이다. 중종 28년(1533)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명종 때 도승지,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98) 요동의 학[遼鶴]: 요동 사람 정령위(丁令威)가 신선술을 배워 천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람과 풍경이 모두 바뀌고 없었다는 고사. 앞에 든 화표주(華表柱)의 주석 참조.

199) 심통원(沈通源, 1499-?): 자는 사용(士容), 호는 옥재(勸齋), 청송인이다. 중종 32년(1537)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해지는 줄 모르고 오래도록 머무르노라.
 千里紅塵沒馬頭 滌煩今日俯長流
 森羅景物無窮界 不覺斜陽久滯留

영남루

이몽량(李夢亮)²⁰⁰⁾

백 척 높은 누각이 강물을 눌렀는데
 몇 사람이 여기 올라 흐르는 물을 한탄했을까?
 세상 온갖 일이 닳아서 다 사라지고
 앞서간 선현의 걸출한 시구만 남겼네.
 百尺危樓壓水頭 登臨多少幾歎流
 世間萬事消磨盡 只有前賢傑句留

한 쪽 땅 끝에서 객이 되어 해를 넘기니
 돌아가는 마음 끝이 없어 물이 흐른다.
 이제 또 다시 종천의 한²⁰¹⁾을 품었음에
 난간에 기대 눈물 흘리며 다시금 체류하네.
 作客經年地一頭 歸心無盡水東流
 如今又被終天恨 涕泗憑軒更滯留

영남루 2수

채무적(蔡無敵)²⁰²⁾

하늘은 강물을 담그고 물은 하늘을 담그니
 형양의 기러기²⁰³⁾ 앞으로 하늘이 나를 보내었네.

200) 이몽량(李夢亮, 1499-1564): 자는 응명(應明), 경주인이다. 중종 23년(1528)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중종 34년(1539) 경상도어사로 민정을 살폈으며 대사관, 도승지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201) 종천(終天)의 한: 죽음을 당하여 이별하는 한. 이 때 시인은 누군가의 죽음을 당면하고 있었음이다.

202) 채무적(蔡無敵; 1500-1554): 자는 거인(居仁), 호는 교현(僑軒)이다. 중종 때 생원(生員) 출신으로 관직에 나가, 음률에 능하여 장악원 주부를 역임하였다.

203) 형양(衡陽)의 기러기: 형양은 중국 호남성 형산현의 동북쪽에 있는 고을 이름이다. 형양에 회안봉(回雁峰)이 있는데, 가을에 기러기가 북에서 날아 이곳까지 왔다가 돌

나는 새 그림자는 노을 그림자 너머로 따라 가고
 차가운 못 빛은 저무는 강변에 반짝인다.
 긴 숲 곳곳에는 붉은 해가 가라앉고,
 대숲 있는 집집마다 푸른 연기 일어나네.
 말없이 난간에 기대 잠시 쉬노라니
 가던 구름 타박타박 잔치 자리로 들어오네.

天涵江水水涵天 天遣衡陽落鴈前
 飛鳥影從霞影外 寒潭光射暮江邊
 長林處處沉紅日 脩竹家家起翠烟
 無語倚欄成小憩 行雲冉冉入華筵

48

봉래산 첫째 하늘에 올라왔더니
 늙은 중 앞에 못 신선이 그림 같구나.
 땅은 푸른 바다 무궁한 곳에 임하였고
 눈은 붉은 구름 다함없는 곳을 쫓는네,
 냇물은 먼 숲으로 흰 베를 끌어들이고
 산은 지는 해를 머금어 푸른 안개에 젖었네.
 덧없는 인생 이미 제잠²⁰⁴ 속에 떨어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얼마나 다행이나?

上蓬萊第一天 羣仙如畫老僧前
 地臨滄海無窮外 眼逐紅雲不盡邊
 川入遠林挽白練 山含殘日濕青烟
 浮生已落蹄涔裡 何幸今朝得侍筵

49

영남루

이 황(李滉)²⁰⁵

난간이 높다랗게 거울 속 하늘을 놀려
 바라보면 남방 산천이 눈앞에 다 보이네.

아간다고 한다. 임금님이 자신을 이곳까지 보냈음을 나타내었다.

204) 제잠(蹄涔): 마소의 발굽 자국에 고인 물. 보잘 것 없는 이 세상을 일컫는 말이다.

205) 이황(李滉; 1501-1570):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진성인(眞城人). 중종 29년(1534)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이 되었고, 조정에서 여러번 관직을 더하여 양관대제학과 좌찬성에 이르렀으나 끝내 물리치고, 향리에 은거하여 도산서당을 세우고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함으로써, 한국 유학의 종통을 수립하였다. 이 시의 시판은 현재 영남루에 걸려 있다.

강은 거친 들 밖에서 해문²⁰⁶)으로 밀려들고
 땅은 왜국의 산 늑늑한 구름 곁에 끝난다.
 시를 재촉하여 해 저물자 이슬비 내리고
 그림인 듯 평림²⁰⁷)에는 가느다란 연기로다.
 맑은 술잔 잡고 먼 경치 완상하니
 박자 치며 좋은 자리 소란케 할 것 없네.

欄干高壓鏡中天 一望荆吳盡眼前
 江聲海門荒野外 地窮蠻嶺瘴雲邊
 催詩晚日纖纖雨 入畫平林細細烟
 好把清樽供遠賞 不須檀板鬧芳筵

46

영남루

이 황

누대가 높다랗게 영남 하늘에 임하였는데
 나그네는 좋은 절기 국화 피기 전에 왔구나.
 구름은 상포의 언덕 푸른 단풍 너머 걷히고
 물은 형양의 흰 기러기 곁으로 빠진다.
 찬란한 휘장은 광한전의 달을 에워싸고
 옥통소는 태청궁의 연기를 불러들이네.
 평생에 시인의 흥취를 모두 갖추었는데
 그래도 술두루미 앞의 비단 자리를 밟는구나.

樓觀危臨嶺海天 客來佳節菊花前
 雲收湘岸青楓外 水落衡陽白雁邊
 錦帳圍將廣寒月 玉簫吹入太清烟
 平生儘有騷人興 猶向尊前踏綺筵

47

계임²⁰⁸)이 밀양 영남루에서 박창세²⁰⁹)의 스물 두
 운 시에 화답한 시를 차운하여[次季任密陽嶺南樓
 和朴昌世詩二十二韻]

206) 해문(海門): 바다로 들어가는 통로.

207) 평림(平林): 평지의 숲.

208) 계임(季任): 이때 경상도관찰사였던 송강(松岡) 조사수(趙士秀; 1502-1558)의 자가 계임이다.

209) 박창세(朴昌世): 눌재(訥齋) 박상(朴祥; 1474-1553)의 자가 창세이다.

을미년 가을²¹⁰⁾ 영남 바닷가에 놀 적에
 높다란 난간에 올라 웅장한 고을 굽어보았네.
 분분한 세상일은 수천 번 굴러갔고
 겹겹의 하늘의 별은 두 주기를 돌았구나.
 꿈에서는 헛되이 삼신산의 달을 찾고
 시를 지어 공연히 만호 제후²¹¹⁾ 생각했네.
 장수²¹²⁾에 병으로 묶인 것이 하늘의 뜻이던가?
 등왕각 꾸민 글²¹³⁾은 정녕 귀신이 도모한 계지.
 옛적엔 거문고 하나에 학 한 마리 따라다녔다지만
 지금은 긴 피리 들으며 높은 누각에 기뻔노라²¹⁴⁾.
 풍운은 붓에 들어 신묘한 변화 구사하고
 바다와 산 시야를 열어 트이고 그윽하네.
 악주 물가의 안개 긴 풍경은 형주 숲 밖에 있고
 장사의 가을빛은 남쪽나라 강 머리에 있네.
 하상²¹⁵⁾의 고운 바다는 기린과 봉황에 부끄러우나,
 선악은 하늘을 울리며 비파와 경쇠로 읊조리네.
 옛일을 슬퍼하노라 노래 절로 격렬해지고
 오늘은 상심하여 말이 더욱 거세어지네.
 풍근²¹⁶⁾의 묘한 바탕 주인 만날 리 적겠지만

210) 퇴계선생은 나이 35세 되던 중종 29년 을미(1535) 6월에 일본국 사신을 동래로 호송하는 호송관의 직책으로 차출되어 그해 7월 영남루에 올랐다.

211) 만호후(萬戶侯); 일만 호를 다스리는 지방의 수령. 새로운 시 일천 수가 일만 호를 다스리는 지방관의 벼슬에 못지 않다는 말이다.

212) 장수(漳水); 중국 호북성에 있는 강물 이름. 당나라 문인 왕발(王勃)이 등왕각에 이르기 전에 이곳에서 병으로 일시 지체했다는 속설을 인용한 것이다.

213) 등왕각(滕王閣)을 꾸민 글; 등왕각은 당나라 고조의 아들인 등왕(滕王) 이원영(李元嬰) 홍주자사로 재임하면서 지은 누각이다. 누각이 완성될 무렵 왕발(王勃)이 신인(神人)의 도움을 받아 마당산(馬當山) 아래 험한 물길을 거쳐 하루 저녁에 홍도(洪都)에 도착하여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지어 천하에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214) 거문고 한 장; 송(宋)나라 조변(趙抃)이라는 사람은 필마로 촉(蜀) 땅에 들어가면서 거문고 한 장과 학 한 마리를 데리고 갔고, 당(唐)나라의 조하(趙嘏)라는 사람은 “긴 피리 한 소리 사람은 누각에 기대었네[長笛一聲人倚樓]”라는 시를 남긴 적이 있다 한다.

215) 하상(霞觴); 노을처럼 붉은 신선의 술잔.

216) 풍근(風斤); 바람을 일으키는 날랜 도끼질. 좋은 솜씨. 장자(莊子)에 나오는 비유이다. 영(郢)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코끝에 흰 흙을 파리 날개처럼 발라 놓고 석공을 하여금 쪼아내게 하였는데 도끼를 바람처럼 움직여 흰 흙을 쪼아내는데도 코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사람 또한 얼굴빛 하나 변치 않았다. 송나라의 원군이 이 말을 듣고 석공을 불러서 과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석공이 말하기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재주를 받아넘길 바탕[質]은 죽은 지 오

백설가²¹⁷⁾ 드문 노래 화답할 이 어찌 많으리.
 산과 늪의 여원 형체 참으로 가소로운데
 황화 사신 좋은 시를 그릇되이 화답하네.
 가져왔더니 밤중에 무지개 빛 지붕을 꿰뚫었고
 읽고 나니 새벽 창 아래 상서로운 빛 떠오르네.
 익은 길 사방으로 준마를 치달리고
 큰 강물 천리 멀리 떠가는 배를 보내네.
 자옥한 꽃 눈에 가득 찌꺼기 지저귀고
 구름과 비 공중에 드리워 푸른 용이 춤춘다.
 달사는 티끌세상 허물벗듯 훌쩍 떠나지만
 평범한 자는 세속 따라 죄수처럼 군색하네.
 풍속을 살피며 사랑한 자취를 당음²¹⁸⁾에 남기니
 사대부가 굴주에 부처짐²¹⁹⁾을 어찌 탓하리.
 지극한 교화에 몇 사람이나 혜택을 받았나?
 나 같이 헛된 이름은 달린 혹이나 없애야지.
 쓸쓸하기에 홀로 만나도 교분이 절친하고
 시원하고 좋은 의론은 의지할 언덕 얻은 듯하네.
 그럭저럭 세월은 안타깝게 이미 잃어버렸고
 돌고 도는 화와 복은 망망하여 찾기 어렵네.
 슬픈 것은 달는 일마다 깊은 회포 얹힘이요,
 감개는 공의 훌륭한 여행의 기억 때문이라.
 어찌하면 누각에 살며 토납을²²⁰⁾ 함께 하고
 그대로 신선 되어 시끄러운 세상을 떠날까?
 할 일 없이 떠돌면서 우주를 벗어나서
 누워서 봉래산의 맑은 물을 살펴보리라.

乙未南遊嶺海秋 曾攀危檻眺雄州
 紛綸世事千回轉 合沓天星兩匝周
 夢化浪尋三島月 詩疆空憶萬家侯

래되었습니다"고 하였다.

217) 백설가(白雪歌): 고상한 곡조.

218) 당음(棠陰): 아가위 나무의 그늘. 지방관원의 선정을 칭송하는 말이다. 《시경》 소남(召南)의 <감당(甘棠)> 시에는 주(周)나라 소백(召伯)이 아가위나무 그늘에서 정사를 보살핀 자취를 칭송하였다.

219) 굴주(橘洲)에 부처짐: 굴주는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장사현(長沙縣) 서쪽 상강(湘江) 가운데 있는 섬. 좋은 굴이 생산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한(漢)나라 때 가의(賈誼)가 장사 땅으로 좌천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名士)가 밀양부사로 좌천되어움을 가리킨 말이다.

220) 토납(吐納): 도가(道家)의 도사(道士)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 쉬며 기운을 끌어 조 절하는 술법. 예로부터 도사들은 높다란 누관(樓觀)에 거처한다고 하여 이른 말이다.

病纏漳水寧天意 詞賁滕王定鬼謀
 舊說一琴隨隻鶴 今聞長笛倚高樓
 風雲入筆驅神變 海岳披眸豁遠幽
 鄂渚烟光荊樹外 長沙秋色楚江頭
 霞觴艷海羞麟鳳 仙樂轟天詠瑟璆
 弔古自成歌激烈 傷今尤覺語悲遒
 風斤妙質逢宜少 白雪希音和豈稠
 山澤臞形眞自笑 皇華佳什謬當酬
 携來夜屋虹光貫 讀罷晨窓瑞色浮
 熟路四方馳駿駕 洪流千里送羣舟
 烟花滿目啼黃鳥 雲雨垂空舞翠虬
 達士離塵清似蛻 凡夫循俗窘如囚
 觀風有愛留棠茆 食力何尤付橘洲
 至教幾人承化雨 浮名唯我去懸疣
 涼涼獨見交如漆 落落休論得若丘
 荏苒光陰嗟已失 回環倚伏莽難求
 悲傷觸事嬰深抱 感慨因公記壯遊
 安得樓居同吐納 仍看羽化脫喧啾
 浮游汗漫出六合 臥閱蓬萊清淺流

영남루

조사수(趙士秀)²²¹⁾

남긴 글 읽고 나서 도리어 머리 굽나니
 손을 꼽아 펜스레 흐른 세월 슬퍼하네.
 큰 숨씨 발휘하여 찬란함을 더하고
 대대로 문채를 전하여 고금에 남기었네.

遺篇讀罷却搔²²²⁾頭 屈指空悲歲月流

大手發揮增煥赫 世傳文彩古今留

221) 조사수(趙士秀, 1502-1558): 자는 계임(季任), 호는 송강(松岡), 한양인이다. 중종 26년(1531)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대사성, 대사헌, 경상도관찰사 등의 관직을 거쳐 좌참찬을 역임하였다.

222) 원본의 搔는 搔의 오자로 보임.

영남루

조사수(趙士秀)

어리둥절 봉래섬에 올라 진경을 잘못 찾았나?
단장한 누각에 기대어 흰 운전을 바로잡는다.
깊숙한 계곡과 산은 하늘이 애쓴 그림이요
고금의 시인들은 봄에 우는 새로다.
숲의 빛은 저녁에 보니 연기 어려 거뭇하고
강 색깔 밝은 것은 달이 은빛 냄이로다.
몇 가닥 수염 비벼끓으며 찌고 뚫어 보아도
부끄럽다 옛 사람에 미칠 좋은 구절은 없구나.

悅登蓬島誤尋眞 淸倚粧樓整白綸
卽篠溪山天費繪 古今詞客鳥鳴春
林光暮覺烟凝黛 江色明知月放銀
掀斷數莖勞點穿 愧無佳句逮前人

좋은 구경 읊다보면 저절로 진경이 있어
벼슬을 내던지고 낚시질을 배우고 싶네.
파문이 생기는 푸른 피리는 이주곡이요
댓잎과 배꽃으로 술을 빚는 봄이로다.
용두산 동으로 감돌아 모래는 눈과 같고
마암산 끊어져서 물빛은 은과 같네.
한양의 앵무주라 명구를 남긴 이는
삼백년 이래로 단 한 사람뿐이로다.

勝賞吟來自有眞 欲投簪紱學垂綸
紋生翠管伊州曲 竹葉梨花麴米春
龍岫東回沙似雪 馬巖中斷水如銀
漢陽鸚鵡留名句 三百年來只一人

소루(召樓)

임억령(林億齡)²²³⁾

오월에 신선 노니는 영주각에서

223) 임억령(林億齡): 자는 대수(大樹), 호는 석천(石川), 선산인이다. 중종 20년(1525)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옥당을 거쳐 강원도관찰사, 담양부사를 역임하였다.

헌함에 기대 먼 하늘을 바라본다.
 강물 소리는 소낙비 쏟아지듯 울리고
 조용한 마을엔 외딴 연기 일어나지만,
 시구를 찾는데 짧은 재주가 거리끼고
 진경을 찾음에 속된 골격이 부끄럽네.
 맑은 바람을 어떻게 물고다닐 수 있을까?
 나는 여러 신선들에게 물어보려네.

五月瀛洲閣 憑軒眺遠天
 江喧懸急雨 村靜起孤烟
 覓句嫌才短 尋眞愧骨臞
 淸風如何御 吾欲問群仙

먼 길의 나그네 좋은 시를 만나니
 긴 무지개가 저무는 하늘에 꽃혔네.
 푸른 것은 교외의 풀이요
 파란 것은 물가의 연기인데
 보잘것없는 벼슬은 창 끝으로 기장 찢기요²²⁴⁾
 헛된 이름은 구더기 비린내 찾는 것.
 흰 구름의 뜻은 내 이제 그만이로다.
 한 시대 시의 신선이 되고자 하네.

遠客逢佳句 長虹插暮天
 碧知郊外草 靑見水邊烟
 薄宦戈春黍 虛名蠹慕臙
 白雲吾已矣 一代作詩仙

소루(召樓)

유 수(柳 洙)²²⁵⁾

맑고 깊은 강물 위 누각에서
 머리 숙여 푸른 하늘을 굽어본다.

224) 창끝으로 기장찢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 《순자(荀子)》 <권학편(勸學篇)>에 이르기를 “예(禮)의 법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서(詩書)를 배우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손가락으로 황하물을 측량하거나, 창끝으로 기장을 찢거나, 송곳으로 항아리의 밥을 떠 먹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225) 유수(柳洙): 자는 중기(仲沂), 호는 보천(葆川), 서산인이다. 중종 갑오년(153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직장을 역임하였다.

저녁 기운은 더위를 모두 물리치고
아침 비는 안개를 반쯤 지우는데
정신 맑아 육신의 허물을 벗을 듯
풍미 좋아 누린 냄새를 잊어버리네.
오늘은 진경을 찾아서 얻었음에
완전히 신선 되어 날아갈 듯하구나.

激泓流上閣 俯首瞰青天
晚爽全鑿暑 朝霏半抹烟
魂清骨欲脫 味勝口忘臚
此日尋眞得 宛然作羽仙

내 어찌 얻고 잃음을 걱정하랴?
가고 멈춤을 천명대로 따르리라.
맑고 맑은 건 높은 집 아래 강물이요
푸르고 아득한 건 먼 숲의 안개인데
소요하는 곳에 몸의 누가 적고
시구를 되씹으니 경치가 맛있구나.
밤이 되면 너무도 기상이 맑아
난간에 기대 신선을 부르고 싶네.

吾何患得失 行止一聽天
澄澈高堂水 蒼茫遠樹烟
逍遙身齒累 咀嚼景甘臚
夜到尤清絕 憑欄欲喚仙

영남루

신 일(辛 駟)²²⁶⁾

멀리서 온 나그네가 땅이 끝나는 곳에 오르니
당 하나가 깔끔하게 흐르는 시내를 베고 있네.
나라의 일로 한가한 틈을 낼 수 없기에
삼 년 만에 한 번 웃듯이²²⁷⁾ 잠시 머무르려네.

226) 신일(辛駟): 자는 치원(致遠), 호는 삼일당(三一堂), 영산인(靈山人)이다. 중종 33년(1538)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227) 삼년 만에 한 번 웃듯: 병이 들어 3년 동안 누웠다가 일어나 한바탕 웃는다는 말. 명(明)나라의 목재(牧齋) 전겸익(錢謙益)의 <강운루상량(絳雲樓上樑)> 시에 “삼년 만에 한번 웃을 기약 있는데/ 병상에서 일어나니 시집갈 때와 같네[三年一笑有前期 病]

遠客登臨地盡頭 一堂瀟灑枕溪流
王程莫得偷餘暇 擬學三年一笑留

반평생 분주하게 다니느라 머리는 세어가고
가만히 보니 계절은 꿈결처럼 흘렀구나.
길 가에 다행히도 그림 같은 집이 있어
새 시를 부쳐서 뒷날 위해 남겨두네.
半世奔忙欲白頭 暗看時序夢中流
沿途幸喜畫堂在 寄與新詩爲後留

소루(召樓)

신 일(辛 駟)

창문 열고 달을 맞아 꿈에서 깨어나니
시냇물 소리 베개 아래로 흘러 좋구나.
이 밤엔 세속 생각 송두리째 바뀌리니
영주산이란 이름을 어찌 빌려야 하리?
開窓邀月夢初收 猶喜溪聲枕底流
此夜塵懷應換骨 取名何必假瀛州

오늘 올라와서는 흥취를 거둘 수 없으니
봄빛 저무는 빛이 함께 흐를 듯하구나.
망망하게 취한 눈은 도무지 다함이 없는데
붉은 단장이 푸른 물가에 반짝임을 사랑하노라.
此日登臨興不收 春光暮色共攔流
茫茫醉眼都無盡 却愛紅粧耀綠洲

영남루

성세장(成世章)228)

이름난 곳 명승지가 시로 전파되었으니
마음을 아로새겨서 각기 기이한 모습 나타내었네.
‘긴 젖대 소리에 누각에 기댄다’는 구절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起渾如乍嫁時”라고 한 구절이 있다.

228) 성세장(成世章, 1506-1583): 자는 경희(景晦), 호는 사암(思庵), 창녕인이다. 중종 경
자년(1540)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와 참찬을 역임하였다.

맑은 시상 이제 상상하며 한참 섰노라.
 名區形勝播於詩 雕鏤心肝各出奇
 長笛倚樓人膾炙 清思今想立移時

영남루

정응두(丁應斗)²²⁹⁾

반평생 세월이 돌아볼 순간에 지나가니
 백년 인간 일이 물 따라 바빠 흘렀네.
 고금에 영웅이 얼마나 많았을까마는
 이름만 시판 위에 남겨 두었구나.

半世光陰入轉頭 百年人事逐奔流
 英雄今古知多少 只有遺名板上留

영남루

박승간(朴承侃)²³⁰⁾

제일 좋은 강산의 가장 높은 곳에
 벽 사이 구슬 같은 시는 모두가 명류의 작품.
 행차 잠시 머문 그 때가 도리어 꿈같은데
 한스럽다 한바탕 웃으며 남은 사람 없으니.

第一江山最上頭 壁間珠唾盡名流
 檐帷暫住還如夢 却恨人無一笑留

영남루

홍담(洪曇)²³¹⁾

가을비가 막 개인 날

229) 정응두(丁應斗, 1508-1572): 자는 추경(樞卿), 나주인이다. 중종 29년(1534)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대사간, 대사헌을 지내고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판중추부사에 이르렀다.

230) 박승간(朴承侃, 1508-?): 자는 자열(子悅), 반남인이다. 중종 경자년(1540)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성(司成)을 역임하였다.

231) 홍담(洪曇, 1509-1576): 자는 태허(太虛), 남양인이다. 중종 기해년(1539)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화사한 자리에 고상한 노래가 울리네.
지세 높아 아름다운 경치 거두고
마루 넓어 붉은 노을을 스친다.
옥 촛대에 바람이 그림자를 뒤척이고
금 술병에 술이 일렁이는데
평온한 시절에 좋은 벗도 있으니
맑은 흥이 절로 많이 일어나네.

秋雨初晴日 華筵咽高歌
地高收美景 軒敞拂紅霞
玉燭風翻影 金樽酒漾波
時平兼勝友 清興自生多

영남루

유 강(兪 絳)²³²⁾

노을과 따오기 남창의 경치²³³⁾도 첫째를 양보한다고
평판한 시를 지은 명사가 얼마나 지나갔던가?
올라보면 양주의 학²³⁴⁾도 내려다보이나니
알겠네 은혜로운 이 강산 머물만한 곳임을.

霞鷺南昌讓一頭 評題袞袞幾名流
登臨下視楊州鶴 始覺恩封亦足留

영남루

정종영(鄭宗榮)²³⁵⁾

서리 바람에 나뭇잎 저서 정녕 시를 재촉하니
강물 빛과 산 빛 두 가지가 절묘하고 기이하다.
우습다 늙은 노인은 나그네 흥을 외면하고

232) 유강(兪絳, 1510-1570): 자는 강지(絳之), 기계인(杞溪人)이다. 중종 36년(1541)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간, 대사헌,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233) 남창(南昌)의 경치: 남창은 등왕각이 있는 곳의 지명이다. 등왕각처럼 아름다운 경치.

234) 양주의 학[楊州鶴]: 살기 좋은 양주(楊州)에서 천관의 돈궐미를 차고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노닌다는 허황된 생각을 비유한 기학양주(騎鶴楊州)의 고사.

235) 정종영(鄭宗榮, 1513-1589): 자는 인길(仁吉), 호는 항재(恒齋), 초계인이다. 중종 계묘년(1543)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찬성사를 역임하였다.

한 잔 술로 좋은 시절에 보답하지 못하네.
 霜風木落正催詩 江色山光兩絕奇
 可笑衰翁孤客興 不將杯酒答良時

영남루

남응룡(南應龍)²³⁶⁾

옛 사람 지은 시는 누각 머리에 있는데
 천년 세월 바뀌도록 강은 절로 흐르네.
 노을과 따오기 시²³⁷⁾를 감당 못해 중단하고
 시절 감회 옛 생각에 다시 한참 머무르노라.
 昔人題詠在樓頭 物換千年江自流
 霞鷺不堪吟斷絕 感時懷舊重淹留

맑은 구름 달을 가두어 창 머리에 비추니
 베개 위에 조름과 함께 강물 소리 듣는다.
 떠도는 이 심중에는 품평하는 격조 있는데
 어느 곳 강산이 가장 머무를 만 하던가?
 淡雲籠月照窓頭 枕上和眠聽水流
 遊子心中有題品 江山何處最堪留

영남루

박소립(朴素立)²³⁸⁾

붉은 누각에 옮겨 기대어 푸른 물을 굽어보니
 물빛과 산 색깔 온 세상에 가을이로다.
 타향의 명승지에서 정겨운 벗을 만났기에
 한 번 취해 만 섬의 근심을 모두 잊노라.
 徙倚朱樓瞰碧流 水光山色一天秋
 徒倚朱樓瞰碧流 水光山色一天秋

236) 남응룡(南應龍, 1514-1555): 자는 경림(景霖), 호는 이락당(二樂堂), 의령인이다. 중종 30년(1535)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 도사를 거쳐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237) 노을과 따오기 시: 당(唐)나라 문인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지는 노을은 외로운 따오기와 나란히 날아오르고, 가을 강물은 긴 하늘과 한 빛이로다[落霞與孤鷺齊飛 秋水共長天一色]”라고 한 구절이 있다.

238) 박소립(朴素立, 1514-1582): 자는 예숙(豫叔), 함양인이다. 명종 계축년(1553)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異鄉勝地逢情友 一醉都忘萬斛愁
 틈을 내어 올라와서 맑은 강물 굽어보니
 십리 긴 독에 푸른 풀이 가을이네.
 아득히 북극을 바라보니 산수가 막혀있고
 온 강에 안개비는 모두가 수심이로다.

登臨暇日俯清流 十里長堤碧草秋
 北極遙瞻山水隔 滿江烟雨一望愁

영남루에서 영자 운을 사용하여 능파당의 주인 안태 고에게 주다[嶺南樓用迎字韻寄凌波堂主人安太古]

정유길(鄭惟吉)²³⁹⁾

망년지교 사귄으로 만남은 적었으나
 고상한 모습에 마음 기울어 눈빛이 반가웠네.
 자취는 학²⁴⁰⁾과 같아 야인의 태갈 많고
 시는 흐르는 물과 같아 한적한 정이 넘쳐난다.
 백발에 고을살이 책임 맡아 지내지만,
 청운의 벗들은 죽고 산 이 반반이네.
 남쪽 고장에 서유자의 평상²⁴¹⁾ 분간 앓으니
 나룻가 누각에서 강물소리 들을 곳이 없구나.

忘年契裡闕邀迎 傾盖高標潑眼明
 跡似仙禽多野態 詩如流水溢閑情
 任將白髮沉州縣 聞道青雲半死生
 不分南鄉徐孺榻 津樓無地聽江聲

영남루에서 또 제자 운을 사용하여[嶺南樓又用題字韻]

정유길²⁴²⁾

239) 정유길(鄭惟吉)은 명종 무진년(1568)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240) 학: 선금(仙禽)은 학을 달리 부른 말이다.

241) 서유자(徐孺子)의 평상: 후한(後漢) 진번(陳蕃)이 태수로 있을 적에 일체 빈객을 접대하지 않았는데, 오직 서치(徐穉)가 올 때만은 특별히 평상을 설치하였다가 그가 가면 매달아 두었다. 그래서 특별한 손님을 우대하는 것을 현탁(懸榻)이라 한다. 서치의 자가 유자(孺子)이다.

242) 정유길(鄭惟吉; 1515-1588): 자는 길원(吉元), 호는 임당(林塘)이다. 중종 33년(1538)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도승지, 대사헌을 거쳐 선조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

망해당 안에다 옛날 시를 남길 적에
 붉은 나무 푸른 연기 비취새가 울었지.
 비파소리 시들하자 강에 달빛 가득하고
 가냘픈 노래 끝나자 대가지 낮게 처지네.
 그림 촛불 켜고서 가을밤을 소진하고
 젊은 색시 대하여 새벽 닭 소리 익히 들었지.
 사람의 일도 십 년 지나니 이제 이미 늙어서
 저녁 구름 서편을 머리 돌려보지 못하네.

望海堂裡昔留題 紅樹蒼烟翡翠啼
 寶瑟鏗殘江月滿 纖歌飜盡竹枝低
 憑將畫燭消秋夜 慣對青娥聽曉鷄
 人事十年今已老 不堪回首暮雲西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題密陽嶺南樓韻] 2수

심수경(沈守慶)²⁴³⁾

수많은 누대가 첫머리를 양보하는 곳
 하늘이 이곳에 풍류를 차지하게 했네.
 고금의 몇몇 사람 흥금을 시원케 하였나?
 강산이 나를 만류하여 머물도록 해주었네.

多少樓臺讓一頭 天教此地擅風流
 今古幾人胸襟爽 却被江山挽我留

난간에 기대 종일토록 머리 들어 구경하니
 일천 산이 빙 두른 곳에 강물 하나 흐르네.
 고금의 몇 사람이나 시를 짓고 떠나갔나?
 벽 사이 현판에 자취만 공연히 남았구려.

憑欄終日却擡頭 千嶂回環一水流
 今古幾人題品去 壁間懸板迹空留

임하였다. 명종 무진년(1568) 7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243) 심수경(沈守慶, 1516-1599):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당(聽天堂), 풍산인(豊山人)이다. 명종 병오년(1546)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호당(湖堂)을 거쳐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심수경은 명종 계해년(1563)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영남루

김수문(金守文)²⁴⁴⁾

봉우리가 도로 합쳐져 강머리가 되었고
누각 아래 일천 길 푸른 물이 흐른다.
형승은 영남에서 제일이라 하겠기에
당 가득한 풍월에 짐짓 지체하여 머무노라.

峯巒還合爲江頭 樓下千尋碧水流
形勝嶺南應第一 滿堂風月故遲留

부절 짚고 변방 순찰하면서 머리는 다 세었고
부모 생각 임금 그리움에 두 눈물이 흐른다.
넌 알라 지금 시는 풍월 읊는 게 아니라
뒷날에 오늘 머무른 일 전하러 함인 줄을.

仗節巡邊白盡頭 思親戀闕淚雙流
誰知不是吟風月 他日要傳此日留

영남루

유경심(柳景深)²⁴⁵⁾

누란²⁴⁶⁾ 백만의 머리를 베어버리고자
올라와 휘파람불며 강물에 맹세하노라.
군령으로 석잔 술을 돌리려고 하다가
가인에게 이끌려 한바탕 웃으며 머무네.

擬斬樓蘭百萬頭 登臨長嘯誓江流
試將軍令三盃酒 故被佳人一笑留

영남루

조 숙(曹淑)²⁴⁷⁾

244) 김수문(金守文): 명종 원년(1546)에 동래부사를 역임하고 무과출신으로 시문에 능하였던 김수문(金秀文,?-1568)을 가리킨 듯 하나 확실하지 않다.

245) 유경심(柳景深,1516-1571): 자는 태호(太浩), 호는 구촌(龜村), 풍산인이다. 중종 39년(1544)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참판, 대사헌,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246) 누란(樓蘭): 한(漢)나라 때 중국의 서북 변방을 자주 침범하였던 서역(西域) 민족.

247) 조숙(曹淑): 자는 선경(善卿), 창녕인이다. 중종 경자년(1540)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단장한 여인이 음악을 연주하여
 춤을 보고 노래도 듣네.
 우연히 좋은 모임에 와서
 느긋하게 늦은 노을 마주한다.
 금비녀는 때때로 햇빛에 빛나고
 비단 버선은 물결을 건너갈 듯.
 아가위나무 그늘에 취해 기대었으니
 감탄이 많다고 말하지 말라.

紅粧初執樂 觀舞又聽歌
 偶爾陪高會 悠然對晚霞
 金釵時艷日 羅襪欲凌波
 醉倚棠陰下 休言感歎多

영남루

양 홍(楊 洪)²⁴⁸⁾

오산²⁴⁹⁾에서 육 년 동안 머리 온통 세었으니
 알겠노라 타향에서 세월이 흘렀음을.
 다행히도 좋은 이웃 마음이 정중하여
 중선의 누각²⁵⁰⁾ 위에서 마음껏 머물렀네.

鰲山六載白渾頭 方信他鄉歲月流
 幸荷芳隣心鄭重 仲宣樓上任遲留

용두산에 뜨는 밝은 달을 누워서 보니
 일만 섬 황금이 푸른 물에 쏟아지네.
 맑은 경치 사람을 만류하여 돌아가지 못하니
 이 마음 달을 위해 머무르는 게 아니라오.

臥看明月上龍頭 萬斛黃金瀉碧流
 清景挽人歸不得 此心非爲月娥留

사정(寺正)을 역임하였다.

248) 양홍(楊洪): 자는 심원(深源), 남원인이다. 중종 경자년(154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역임하였다.

249) 오산(鰲山): 이웃 고을 청도(淸道)의 옛 이름이다.

250) 중선(仲宣)의 누각: 후한 때 시중(侍中)을 지낸 왕찬(王粲, 177-217)의 자가 중선이 다. 그는 나이 17세에 황문시랑이 되었다가 난리가 일어나자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의지하여 있었는데 그 때 지은 등루부(登樓賦)가 명문으로 알려졌다.

영남루

장문보(張文輔)²⁵¹⁾

높은 산이 끝나려는 곳을 누각이 눌렀는데
내려다보니 맑고 푸른 강물이 흘러가네.
몇 일 동안 올라와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
다시금 가인이 있어 객을 불러 만류하네.

樓壓高山欲盡頭 俯臨澄碧一江流
來登數日渾忘去 更有佳人喚客留

소루(召樓)

장문보(張文輔)

높다란 누각이 물가에 누어 있어
맑은 경치가 남방의 명성을 독차지했네.
먼 산에는 가느다란 이내가 걸쳐있고
긴 숲은 아른거리는 연기를 띠었는데
텅 비어 맑은 하늘은 운치를 더하고
차갑고 깨끗하여 세속의 냄새 하나 없네.
구름 사이로 봉황을 타고 가서는
단구에서 신선 소식 물으려 하네.

危樓枕水邊 清勝擅南天
遙嶽橫微靄 長林帶嫩烟
虛明增雅趣 寒潔絕纖膻
欲試雲間鳳 丹丘問羽仙

48

못 그림자는 누각 가에 흔들리고
높다란 난간은 푸른 하늘에 거꾸러졌네.
성근 대나무는 달밤에 소리를 내고
한가한 해오라기 강 안개에 목욕한데.
마음 깨끗하니 도리어 고요함을 알고
몸이 가벼우니 허물 벗은 줄 알겠네.
적벽에 노닐²⁵²⁾ 필요도 없이

251) 장문보(張文輔, 1516-?): 자는 백훈(伯勳), 순천인이다. 명종 원년(154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도사를 거쳐 진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정녕 날아다니는 신선을 끼고 있네.

潭影撓樓邊 危欄倒碧天
疎簾聲夜月 閑鷺浴江烟
心潔知還靜 身輕覺蛻膻
不須遊赤壁 端可挾飛仙

영남루

최개국(崔盖國)253)

못난 모습 병치레로 오두²⁵⁴ 놀이 겁이 나서
강 누각에 오르기 지쳐 옥같은 물에 양치했네.
오늘은 그대 때문에 모두 버리고 한바탕 취하니
갈매기도 일부러 갔다가 다시 머무네.

龍鍾病守恸遨頭 倦上江樓漱玉流
今日憑君拚一醉 沙鷗故故去還留

객지의 한이 하얗게 머리에 올랐으니
온갖 일 공연히 가는 물 따라 흘렀네.
관직에서 물러나지 못해 매양 부끄럽나니
늘그막에 가호²⁵⁵처럼 탐을 내어 머무르네.

星星客恨上人頭 萬事空隨逝水流
遨頭每慚歸未得 衰遲同作賈胡留

영남루에서 부사 정현의 시에 화답함[嶺南樓和鄭使君礪] 2수

252) 적벽(赤壁)에 노닐: 송(宋)나라 소동파(蘇東坡)가 삼국시대 큰 전투가 있었던 적벽(赤壁)에 배를 타고 노닐면서 지은 <적벽부(赤壁賦)>에 “날아다니는 신선을 끼고서 마음껏 노닐겠다[挾飛仙而傲遊]”고 한 구절이 있다.

253) 최개국(崔盖國, 1516-1579): 자는 자성(子省), 호는 남악(南岳), 충주인이다. 중종 무술년(153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254) 오두(遨頭): 중국 성도(成都) 지방에서는 4월 19일을 완화절(浣花節)이라 하여 지방 수령이 유람차 나들이를 하는데 온 성의 사람들이 함께 구경 나와 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이날의 유람은 모두 수령이 앞장서기 때문에 오두연(遨頭宴)이라 하고 유람나온 수령을 오두(遨頭)라고 하는 관습이 생겼다.

255) 가호(賈胡): 보배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서역의 상인. 서역의 가호(賈胡)는 좋은 진주를 얻어서 제 몸을 갈라 그 속에다 숨겼다고 한다.

제일의 신선 세계에 그림 누각 드러내니
 분명한 물색은 남국의 가을이로다.
 청상²⁵⁷⁾ 강안에는 천 그루 대나무 바람 불고
 두약²⁵⁸⁾ 모래톱엔 아홉 두렁 난초 향이 생겨난다.
 밝은 달이 보여주는 좋은 시구 거두지 못하고
 저녁 구름 머리에 먼 회포 먼저 드네.
 알겠노라 멀리 홀을 뺨에 대고²⁵⁹⁾ 읊조리는 곳에
 상쾌한 기운 맑은 광채 푸른 빛이 흘러내림을.

第一仙區著畫樓 分明物色楚江秋
 千竿風送清湘岸 九畹香生杜若洲
 佳句未收明月贈 遠懷先入暮雲頭
 遙知拄笏高吟處 爽氣清光翠欲流

일찍이 신선 바람을 부질없이 여겼으나,
 귀양와서도 오히려 추운 날 학처럼 누웠네.
 어찌하면 푸른 난새 올라타고 떠나가
 풍월 있는 강 누각에서 난간에 함께 기대나?

曾於仙艫亦汗漫 謫來猶臥鶴天寒
 何當一跨青鸞去 風月江樓共倚欄

영남루

양응태(梁應台)²⁶⁰⁾

256) 황준량(黃俊良; 1517-1563): 자는 중거(仲舉), 호는 금계(錦溪)이다.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 학유, 사헌부 지평을 거쳐 단양군수, 성주목사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257) 청상(淸湘): 물이 맑은 상강(湘江). 남방의 맑은 강물. 상강(湘江)에 순(舜)의 두 처인 아황(娥皇) 여영(女英)의 사당이 있고, 거기에 반죽(斑竹)이 있기에 인용한 말이다.

258) 두약(杜若): 다년생 숙근초의 이름.

259) 홀을 뺨에 대고[拄笏]: 진(晉)나라의 왕휘지(王徽之)가 환충(桓沖)의 참군 벼슬을 할 적에 한충이 휘지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부중에 있는 지 오래되었으니 곧 좋은 직책으로 조처를 하겠네”라고 하자, 휘지는 대답을 않고 시선을 올려 손에 잡고 있던 홀을 뺨에 대고는 “아침 나절에 서산이 상쾌하더니”라고 탄청을 부렸다는 고사가 있다.

260) 양응태(梁應台): 자는 숙전(叔躔), 제주인이다. 중종 38년(1543)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 참의를 역임하였다.

사신이 다시 와서 성 머리를 진압하니
 인물과 강산이 모두 제일류로다.
 누가 작은 매화엔 굳은 절개 없다 했나?
 의연히 붉은 빛을 그대 위해 남겨두었네.
 使華重到壓城頭 人物江山摠一流
 孰謂小梅無苦節 依然紅色爲君留

영남루

한여철(韓汝哲)²⁶¹⁾

강루에 올라 보기 얼마나 힘들었나?
 험함 아래 차가운 냇물이 가장 좋구려.
 남방 아가씨가 멀리 온 나그네 끝지 아니해도
 난간에 기대 종일토록 다시금 놀러 머물렀노라.
 江樓登望幾勞頭 最愛寒溪檻底流
 不待越娥牽遠客 倚欄終日更淹留

영남루

이희검(李希儉)²⁶²⁾

무성한 숲 긴 대나무 강머리에 가득하고
 나를 듯한 누각도 있어 푸른 강물 베고 누웠네.
 한참 앉아 맑은 낮이 긴 줄도 모르니
 산천은 저절로 사람을 끌어 머물게 하네.
 茂林脩竹滿江頭 更有飛樓枕碧流
 坐久已忘清晝永 溪山自是挽人留

영남루

윤 반(尹 泮)²⁶³⁾

261) 한여철(韓汝哲): 자는 중명(仲明), 청주인이다. 명종 3년(154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진주, 곤양 등의 지방관으로 나갔다가 공조좌랑, 성균 사예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262) 이희검(李希儉, 1516-1579): 자는 경질(景質), 호는 동고(東皐), 전주인이다. 명종 원년(1546)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대사헌을 거쳐 호조, 형조,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점점이 푸른 산은 일천 부처의 머리요
 늑실늑실 푸른 옥이 온 강에 흐른다.
 그 누가 살아 있는 그림 무궁한 뜻을
 누가 가운데 모아서 사시사철 남겨놓았나?

點點青巒千佛頭 溶溶碧玉一江流
 誰將活畫無窮思 會在樓中四節留

밀양 영남루 운에 따라 2수[次密陽嶺南樓韻二首]

권 벽(權 璧)264)

명승지 그 누가 바다 건너 있다더냐?
 기이한 경치 이 누각에 모두 모여 있는데.
 온 성의 가을빛은 서리맞은 단풍이요
 강 언덕 물방아소리 물가 대밭 곁이로다.
 기러기가 갈대 섬에 내리니 흰 눈이 휘날리고
 고깃배가 초가집에 돌아오니 푸른 연기 일어난다.
 객중에도 근심 삭일 곳을 얻었나니
 밤 되어 난간에 기대면 이슬이 자리에 가득하네.

勝地誰言隔海天 奇觀都萃此樓前
 城秋色霜楓外 兩岸砧聲水竹邊
 雁落蘆洲飛白雪 漁歸茅舍起青烟
 客中仍得消愁處 到夜憑欄露滿筵

누각 경치 남방의 으뜸이라 하지 말라,
 나보다 명승지 탐방 앞 설자 누구이냐?
 아로새긴 난간 밖에 산 빛이 다가올 듯,
 그림 처마 곁으로 강물 소리 길게 들렸네.
 몇 줄 붉은 나무는 가을철을 밝히고
 두어 점 푸른 오리 저녁 연기를 쪼개네.
 하루 종일 올라서 풍정을 못 다하고
 다시금 새 달 맞으려 재촉하여 자리를 편다.

263) 윤반(尹泮, 1519-?): 자는 도원(道源), 남원인이다. 명종 8년(155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도사(都事)를 역임하였다.

264) 권벽(權璧; 1520-1593): 자는 대수(大手), 호는 습재(習齋)이다. 중종 38년(1543)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기주관으로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고, 선조 1년 춘추관편수관으로 명종실록을 편찬에 참여하였다.

莫言樓景擅南天 探勝誰能出我前
 山色欲來雕檻外 江聲長繞畫簷邊
 幾行紅樹明秋序 數點青鳥劈晚烟
 竟日登臨情不盡 更邀新月促開筵

fo

가을 날 영남루에 올라[秋日登嶺南樓]

권 벽

나그네 시름 보내려고 한 번 올랐더니
 가을 바람 쓸쓸하게 옷깃을 스치네.
 사람들은 영남루의 경치를 예사로 말하지만
 나그네는 북녘 향한 마음 잊기가 어렵네.
 별 받아 밝은 노을 조령에 비끼었고
 구름 너머 아득한 ○는 계림을 건너간다.
 이 때의 근심은 금하기 쉽지 않아
 정겨운 술이 있다 해도 주고받지 못하네.

爲遣羈愁試一臨 秋風蕭颯洒衣襟
 傍人慣說南樓勝 客子難忘北望心
 映日明霞橫鳥嶺 隔雲遙○度鷄林
 此時未易禁愁得 縱有情樽亦不斟

영남루

이 감(李戡)²⁶⁵⁾

언덕과 진펄 치달리며 머리 모두 세었으나
 못난 재주로 어찌 왕명을 받들기 적합하랴?
 난간에 기대어 수일 동안 경치 구경함이 아니오
 변방 지킬 계책 위해 잠시 머무름일세.

原隰馳驅白盡頭 菲材豈合任承流
 憑欄數日非探勝 爲是籌邊許暫留

265) 이감(李戡): 자는 언신(彦信), 우계인(羽溪人)이다. 중종 38년(1543)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지난해는 산해관²⁶⁶ 머리에서 돌아왔다가
 올 봄엔 또 낙동강 물을 건너왔네.
 반평생 남북으로 다니며 무슨 일을 하였나?
 털끝만큼 기록에 남길 공이 없어 부끄럽구나.

去歲歸來山海頭 今春又渡洛東流
 半世南北成何事 愧乏絲毫可記留

푸른 물 머리에 기둥 마루 영롱한데
 비단 발 높이 걷고 맑은 물을 굽어본다.
 강산이 참으로 아름다우나 도무지 부질없어
 떠도는 자 하늘가에 머물지 못하겠네.

軒楹玲瓏碧水頭 綳簾高捲俯澄流
 江山信美渾閑事 遊子天涯未足留

이곳은 봉래산 가장 높은 곳이 아니냐?
 신선 사는 곳 예부터 세속과 막혔으니.
 말을 한참 세워두었다고 괴이타 하지 마오
 묵은 빚을 모름지기 명승지에 남겨야 하나니.

莫是蓬壺最上頭 仙居從古隔凡流
 傍人休怪停驂久 宿債要須勝地留

화사한 건물 남방에 제일이라 부르나니
 누각 가운데 지나간 풍류객이 몇이더냐?
 내 걸음 정녕 봄이 다간 뒤에 온지라
 단지 석류꽃만 객을 짝하여 남았네.

華構維南號一頭 樓中過客幾風流
 我行正值春歸盡 只有榴花伴客留

영남루

정언지(鄭彦智)²⁶⁷

나그네 상심하여 머리가 모두 세고

266) 산해관(山海關): 중국의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는 관문. 천하제일관으로 불리는 요충지이다. 이감은 명종 13년(1558) 성절사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267) 정언지(鄭彦智, 1520-?): 자는 연부(淵夫), 동래인이다. 명종 무오년(1558)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세월은 하염없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끝없는 풍경이 긴 숲 너머 펼쳐졌고
 가을은 뜨락의 오동잎에 들어 머무네.

客子傷心白盡頭 年光冉冉似江流
 無端風景長林外 秋入庭梧葉上留

신선 누각 산뜻한 채색이 용두산에 비치고
 아래로 맑은 강은 옥빛을 끌며 흐른다.
 끝없이 우거진 풀은 성근 비 밖에 펼쳐지고
 산허리엔 한 줄기의 석양이 남았구나.

仙樓飛彩映龍頭 下有清江曳玉流
 無盡青蕪疎雨外 山腰一抹夕陽留

하늘에 이어진 먼 산은 몇 천 개인지
 골짜기를 갈라 치닫는 강이 한꺼번에 흐르네.
 다시금 푸른 산을 대하니 맹랑치도 아니하게
 달 밝자 학소리가 반공중에 머무네.

連天遠出幾千頭 劈峽奔江一到流
 更接青山非孟浪 月明笙鶴半空留

영남루

이 명(李 銘)²⁶⁸⁾

일백 척 높은 누각 구름 머리에 솟구치고
 그림자 긴 강에 저서 푸른 옥처럼 흐르네.
 벽에 가득 시를 지은 사람은 떠나가고
 온 하늘에 밝은 달이 비추어 함께 머무네.

危樓百尺聳雲頭 影落長江碧玉流
 滿壁題詩人去後 一天明月照共留

영남루

신의충(申義忠)²⁶⁹⁾

268) 이명(李銘, 1521-?): 자는 자신(子新), 전주인이다. 명종 원년(1546)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교리와 장령을 거쳐 진산군수를 역임하였다.

한 강물이 큰 들을 감싸 둘러고
 붉은 난간 대청 마루가 맑은 물에 비치네.
 수염을 비비꼬며 시 읊어 얻은 게 무어나?
 깃드는 갈가마귀 휘갈겨 써서²⁷⁰⁾ 반쪽 벽에 남기노라.

一水縈紆大野頭 朱欄丹檻映清流
 吟髭撚斷終何得 揮作棲鴉半壁留

한 구역 맑은 경치에 머리를 거듭 돌려보니
 난간 밖에 흐르는 맑은 강이 가장 좋구려.
 백조는 쌍쌍이 내려와 객을 부르며
 속인의 발자취 이곳에 머뭇거려하는 듯.

一區清賞費回頭 最愛澄江檻外流
 白鳥雙雙來喚客 似嫌塵躅此間留

청구의 땅이 끝나는 동쪽 바다 머리,
 여기 오니 고향생각이 강물 따라 흐르네.
 고마워라 주인의 정이 정중하여서
 나그네를 억지로 머물게 하시네.

靑丘地盡海東頭 到此歸心逐水流
 多謝主人情鄭重 能教客子強遲留

영남루

곽회영(郭懷英)²⁷¹⁾

남쪽 지방 다 다니며 머리는 세려하고
 누각에 오른 오늘은 풍류에 맡기노라.
 사람들아 웃지 마소 화려한 벼슬의 나그네가
 여기 맑고 텅 빈 경치를 사랑하여 일부러 머문다고.

行盡南陲欲白頭 登樓今日任風流
 傍人莫笑華顯客 愛此清虛故故留

269) 신의충(申義忠): 자는 충경(忠卿), 평산인이다. 명종 병오년(1546)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통례(通禮)를 역임하였다.

270) 깃드는 갈가마귀[棲鴉]: 당나라 두보의 <견회(遣懷)> 시에, “밤들자 새들은 다 돌아가고/ 울어쌓는 건 뒤에 깃드는 갈가마귀[夜來歸鳥盡 啼殺後棲鴉]”라 한 구절이 있다.

271) 곽회영(郭懷英): 자는 인걸(仁傑), 청주인이다. 명종 병오년(154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시정(寺正)을 역임하였다.

영남루

조광언(趙光彦)²⁷²⁾

북녘 대궐에 월왕의 머리를 높이 걸었더니
흰 꿩이 동으로²⁷³⁾ 오고 바닷물 평안하네.
오늘 원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남²⁷⁴⁾에 남긴 주나라 교화를 베풀려 함일세.

高懸北闕越王頭 白雉東來海晏流
元帥此日知底事 却將周化二南留

채색 용 머리에 정기 높이 펴럭이고
푸른 누각 새벽빛에 푸른 물을 굽어본다.
정신은 적송자따라 조용해진지 오래러니
장자방의 심사는 유후로 책봉되기에 족하네.

旌旗高拂彩龍頭 曉色青樓俯碧流
神逐赤松廉靜久 子房心事足封留

영남루

이 린(李 遴)²⁷⁵⁾

말을 채쳐 치달리느라 머리 온통 세었는데
오늘은 한가한 틈에 긴 강물을 굽어본다.
비 온 뒤 기우는 별은 기이한 경치 더하고
평림에 푸른 안개 띠 하나를 남겼구나.

鞭馬驅馳白遍頭 乘閑此日俯長流
斜陽雨後添奇勝 翠靄平林一帶留

272) 조광언(趙光彦): 자는 군미(君美), 양주인(楊州人)이다. 명종 기유년(1549)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옥당을 거쳐 부사를 역임하였다.

273) 흰 꿩[白雉]이 동으로: 나라가 태평하여 멀리 외국의 이민족이 조공물을 바쳐오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 월상씨(越裳氏)가 흰꿩을 공물로 바친 적이 있다.

274) 이남(二南): 주나라 초기 무왕의 아우 주공단(周公旦)과 소공석(召公奭)이 교화를 베푼 곳을 각기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이라 하였는데, 《시경(詩經)》에 그 시가 전한다.

275) 이린(李遴): 자는 숙옹(叔膺), 영천인(永川人)이다. 명종 기유년(1549)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을 거쳐 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영남루

황 서(黃 瑞)²⁷⁶

남녘 변방 천리 밖의 바다 동쪽 끝에서
나라 일이 분주하여 세월만 흘렀네.
두 지역에서 다시 만날 일이 없음을 알기에
시를 지어 성명만이라도 남기려 하노라.
南陲千里海東頭 王事奔忙歲月流
兩地相逢知不再 裁詩祇爲姓名留

영남루

정복시(鄭復始)²⁷⁷

여섯 자라 머리에 봉래 영주 누각이요
현함 밖에 긴 물결 약수가 흘러가네.
한밤중에 우는 학을 따라 가고 싶으나
괴이하다 여길까 두려워 머물렀노라.
蓬瀛樓閣六鰲頭 檻外長波弱水流
夜半欲隨笙鶴去 恐貽虛怪且遲留

영남루

김우홍(金宇弘)²⁷⁸

일만 첩 봉우리가 긴 물을 둘러 있고
푸른 물 기묘한 바위 초가을 풍경이네.
여관에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는데
부슬비 쓸쓸하여 다시 근심 더하네.
峰巒萬疊繞長流 綠水奇嶠七月秋
旅館終宵眠不得 蕭蕭細雨更添愁

276) 황서(黃瑞): 자는 정옥(廷玉), 평해인이다. 명종 임자년(155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옥당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277) 정복시(鄭復始, 1522-1595): 자는 이건(以健), 동래인이다. 명종 을묘(1555) 식년시에 급제하여 참의를 역임하였다.

278) 김우홍(金宇弘, 1522-?): 자는 면부(勉夫), 의성인이다. 명종 계축년(155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목사를 역임하였다.

백척 높은 누각 강물을 눌렀는데
십리 긴 숲은 온통 가을빛이로다.
바다 밖에서 그대 만나 마음속 애기 살아나니
이러할 때 여행길 근심 참으로 위로되네.

高樓百尺壓江流 十里長林滿目秋
海外逢君心話活 此時方好慰羈愁

영남루

유 홍(俞泓)²⁷⁹⁾

그림 누각 높다랗게 옛 성 머리를 누르고
천고 세월 삭이면서 한 줄기 강이 흐른다.
시구는 사람 따라 떠나가지 아니하고
문미 사이 남긴 자취 지금까지 남았네.

畫堂高壓古城頭 千古消沈一水流
詩句不隨人共去 櫺間遺跡到今留

영남루

유 홍(俞泓)

열은 화장으로 천진함을 드러내고
저물어 거문고 안고 채색 줄을 희롱하면
일만 섬 나그네 근심 모두 눈처럼 흩어지고
한바탕 고향 꿈이 봄처럼 생겨나네.
기쁜 마음에 잔 속의 술을 다 마시고
객기로 은빛의 귀밑머리를 잊어버리네.
다만 두려운 건 새벽에 운우가 흩어지고
고당부²⁸⁰⁾ 읊고 나서 사람이 사라짐이네.

略施丹粉露天眞 晚抱瑤琴弄彩綸
萬斛客愁都似雪 一場鄉夢欲生春
歡情且盡杯中蟻 俠氣還忘鬢上銀

279) 유홍(俞泓, 1524-1594): 자는 지숙(止叔), 호는 송당(松塘), 기계인(杞溪人)이다. 명종 8년(155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280) 고당부(高唐賦): 전국시대 송옥(宋玉)이 지은 글.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고당(高唐)에 노닐면서 낮잠이 들었다가 꿈에 무산(巫山)의 신녀(神女)를 만나 운우(雲雨)의 사랑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只恐曉來雲雨散 高唐賦後轉迷人

영남루

유 홍(俞泓)

주렴을 열어 산빛을 보고
베개에 기대어 고기잡이 노래를 들으니
거문고는 가을 곡조를 더듬어
맑은 음률이 지는 노을에 이어지네.
다만 저녁비 될까 근심되고
오직 추파가 은근함이 기쁘네.
초왕의 꿈을 깨고 나면
내일 아침……

開簾看岳色 倚枕聽漁歌
寶瑟度秋曲 清商連落霞
只愁成暮雨 惟喜穩秋波
却罷荊王夢 明朝(下缺)

영남루

박계현(朴啓賢)²⁸¹⁾

세상 일 분분하여 머리가 세려는데
홀로 높은 난간에 기대 강물을 대하였다.
수어사²⁸²⁾ 하는 일은 나라의 업무인지라
명승지에 사람 없어 한 두 번 머무르네.

世事紛紛欲白頭 獨憑危檻對江流
繡衣句當王家務 勝地無人一再留

영남루

281) 박계현(朴啓賢, 1524-1580): 자는 군옥(君沃), 호는 관원(灌元), 밀양인이다. 명종 7년(1552)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을묘왜변(1555)에 경상도평사를 지내고 도승지, 대사성, 대사헌, 경상도관찰사, 호조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282) 수어사(繡御史): 국왕의 특명을 받아 행정관서를 다니며 살피는 관원.

이귀수(李龜壽)²⁸³⁾

황학루도 응당 첫머리를 내 놓으리니
단풍 숲이 그림 같고 옥 무지개 흘러가네.
느긋하게 웃으며 난간을 향하여 서서
술두루미 놓고 열흘 동안 머물기를 기약하네.

黃鶴應教放一頭 楓林如畫玉虹流
悠然笑向欄干立 樽酒相期十日留

나를 듯한 누각이 강머리를 눌렀다고 익히 들었으나
홍진 세상에 발을 잘못 디더 세월이 흘렀네.
지나온 여러 지방에선 도무지 살피지 못했지만
오늘 이 누각에 올라서는 다시금 머무르노라.

飽聞飛閣壓江頭 失脚紅塵歲月流
過了一方渾不省 登臨今日更淹留

영남루

유 훈(柳 埈)²⁸⁴⁾

붉은 누각은 푸른 봉우리를 높다랗게 누르고
다함 없는 긴 강물은 난간 밖으로 흐른다.
해질 무렵 허공에 기대어 뉘이 서늘해지니
이 몸은 수선의 만류를 받은 듯 하구나.

紅樓高壓翠峰頭 不盡長江檻外流
落日憑虛魂欲冷 却疑身被水仙留

영남루

이양원(李陽元)²⁸⁵⁾

난간에 기대 저녁 내내 시를 읊조리는데

283) 이귀수(李龜壽, 1524-?): 자는 서로(瑞老), 전주인이다. 명종 임자년(155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을 역임하였다.

284) 유훈(柳埈, 1524-?): 자는 극화(克和), 호는 청계(淸溪), 전주인이다. 명종 기유년(1549)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285) 이양원(李陽元, 1526-1592): 자는 백춘(伯春), 호는 노저(鵲渚), 전주인이다. 명종 10년(1555)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긴 숲에 흔들리는 단풍 비단처럼 흘러 갈 듯.
강둑에 핀 국화와 연꽃, 그림 같은 가을에
나라의 사신이 어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으리.

倚欄終夕側吟頭 楓擺長林錦欲流
菊岸蓮坡秋似畫 使華安得不淹留

영남루

최 웅(崔 顥)²⁸⁶

명승지의 무엇이든 시를 재촉치 않으랴만
큰 들판 긴 숲에 내리는 비도 기묘하다.
수다스런 새들은 늦은 흥을 더하여
모래부리에서 물고기 엿보며 한참동안 섰구나.

名區何物不催詩 大野長林雨亦奇
多事諸禽添晚興 窺魚沙觜立移時

영남루

홍 연(洪 淵)²⁸⁷

둔재로 보잘것없는 지방관으로 늙으면서
어찌 감히 시단의 제일류와 함께 하리?
가학으로 전한 재주 참으로 내 분수 아니나
성명을 함께 부쳐 벽 사이에 남기네.

麤才零落老遨頭 敢側騷壇第一流
傳得箕裘眞不分 姓名同寄壁間留

영남루

이경우(李慶祐)²⁸⁸

286) 최웅(崔顥): 자는 경숙(景肅), 삭녕인(朔寧人)이다. 명종 을묘년(1555)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을 거쳐 예조참판을 역임하였다.

287) 홍연(洪淵): 자는 덕원(德源), 남양인이다. 명종 6년(1551)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288) 이경우(李慶祐): 자는 비응(丕應), 전의인(全義人). 명종 계축년(1553)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장령에 이르렀다. 명종 을축에서 무진(1565-1568) 까지 밀양부사로

맑고 온화한 좋은 계절 영남의 하늘에
 만 가지 온갖 풍경 헌함 앞에 펼쳐졌네.
 모자 간에 올라오니 풍정이 무진하고
 형제 간에 서로 즐기니 흥취가 끝없구나.
 어머님께 삼신산의 축수 술잔 올리니
 비단 자리엔 도리어 오정의 연기가²⁸⁹⁾ 어렸네.
 이 모임은 인간 세상에 참으로 성대한 일,
 더구나 숙부께서도 자리 함께 하셨으니.

淸和時節嶺南天 萬景森羅一檻前
 母子登臨情不盡 弟兄相樂興無邊
 萱堂已獻三山壽 錦席還凝五鼎烟
 此會人間眞盛事 況今猶父又同筵

51

영남루

윤지형(尹之亨)²⁹⁰⁾

못 산이 춤을 추며 용두산을 에워싸고
 이곳에 솟은 누각 푸른 물을 굽어보네.
 가없는 풍경에 시흥이 빼어나서
 가던 행차 떠나려다 다시 머무네.

群山飛舞護龍頭 是處岑樓俯碧流
 風景無邊騷興逸 征驂臨發更遲留

삼라만상이 늘어선 물가의 난간 머리에
 몇 사람의 시상이 강물처럼 용솟음쳤을까?
 시 읊다 높은 난간에 홀로 기대서면
 숲 너머 분명히 들리는 피꼬리 소리.

萬象森羅水檻頭 幾人詩思湧如流
 吟餘獨倚危欄立 林外分明語栗留

재임하였다.

289) 오정(五鼎): 양(羊), 시(豕), 부(膚;제육), 어(魚), 석(腊;포) 등 다섯 가지의 육미(肉味). 대부(大夫)의 관직에 있는 자는 오정의 음식을 갖추어 제사지내는 것이 고대의 예법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자손이 대부의 관직에 올랐음을 뜻한다.

290) 윤지형(尹之亨): 자는 길언(吉彦), 무송인(茂松人)이다. 명종 10년(1555)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푸른 난간 머리에 미녀들의 화려한 잔치,
 예부터 올라 온 풍류객이 얼마나 많으랴.
 유람객도 역시 정이 많은 자라
 억지로 아가씨 웃음에 끌려 머무르노라.

紅粉芳筵碧檻頭 古來登眺幾風流
 遊人亦是情多者 強被仙娥一笑留

영남의 바다 머리에 이별 술잔 함께 잡고
 그림배를 북과 피리로 강물 가운데 띄웠네.
 인간세상 모였다 헤어지는 무궁한 일들,
 오늘 아침엔 가고 머무는 일을 한하지 않으리.

共把離杯嶺海頭 畫船簫鼓泛中流
 人間聚散無窮事 不用今朝恨去留

채찍 들어 멀리 바다 하늘을 가리키며
 말 타고 다니느라 세월을 흘러 보냈네.
 좋은 경치 만나면 거둬 느낌 있으니
 바쁜 걸음 일찍이 조금도 머물지 못하였네.

征鞭遙指海天頭 馬上從他歲月流
 佳景逢來重有感 慇懃曾不少淹留

영남루

이경희(李慶禧)²⁹¹⁾

왕명을 받들고서 남쪽 지방 살피다가
 그림 누각 앞에서 수연을 베풀었네.
 자식 기르느라 부모님은 학발이 되시었고
 아이를 어루던 곳에 때때옷 어지럽네.
 오래 사시라는 축원 소리 물고기도 함께 듣고
 화사한 촛불 연기에 늘어진 버들도 그을리네.
 아버지 돌아가신 애통한 생각이 나서,
 잔치자리 슬픈 눈물 감당하지 못하겠네.

幸承綸命覲南天 壽席初開畫閣前
 鶴髮婆娑舐犢日 斑衣凌亂弄雛邊

291) 이경희(李慶禧): 경우(慶祐)의 아우. 자는 중응(仲應), 전주인(全州人). 관직이 목사(牧使)에 이르렀다.

游魚亦聽陵崗祝 垂柳猶燃錦燭烟
却憶春堂風樹痛 不堪悲淚落華筵

영남루

손흥서(孫興緒)²⁹²

흔탁한 세상에 청류를 만나 매우 기쁘데
흰머리에 반가운 눈동자 비 온 뒤의 가을이로다.
십리에 걸친 강과 산은 명승지인데
지금 사람의 근심이 옛 사람의 근심일세.
濁流深喜接清流 白首青眸雨後秋
十里江山形勝地 今人愁是古人愁

비가 와서 큰 강의 흐름이 불어나더니
누각 위는 서늘하고 물가는 가을이로다.
이런 곳에서 다시금 이런 벗을 만났으니
일천 수의 시로 백년의 시름을 읊조리노라.
雨來添却大江流 樓上涼生水上秋
此地還兼逢此友 千詩吟罷百年愁

다시 앞 시의 운에 따라 사회에게 응답한 시 5수 가 운데 영남루의 명승[復疊前韻酬士晦五首中嶺南樓之勝]

구사맹(具思孟)²⁹³

듣건대 이름난 누각 악양루와 같아던데
차가운 강 한 줄기 성을 길게 둘렀구나.
난간에 기대 새 시구를 찾아도 싫증 없고
기둥에 기대 고향생각 모두 잊어버렸네.
동남의 산은 멀리 하늘가에 점점이요

292) 손흥서(孫興緒): 자는 사술(士述), 밀양인이다. 명종 을묘년(1555)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역임하였다.

293) 구사맹(具思孟; 1531-1604): 자는 경시(景時), 호는 팔곡(八谷),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명종 13년(1558) 문과에 급제하고,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이조참판으로 왕자를 보필하여 의주로 피란하였다. 다섯째 딸이 인현(仁獻)왕후가 되었고, 이에 따라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남방의 배는 서늘하게 빗발 너머 쓸쓸하다.
 영합²⁹⁴의 문서는 아마도 누가 되지 못하는지
 풍월을 함께 거둬 취한 마당에 드네.

聞說名樓似岳陽 寒江一帶繞城長
 憑欄不厭搜新句 倚柱都忘戀舊鄉
 點點天邊吳岫遠 蕭蕭雨外楚帆涼
 未應鈴牒能相累 風月兼收入醉場

영남루 운을 따라[次嶺南樓韻]

구사맹

이름난 구역 흡사 대라천²⁹⁵과 같아서
 강물이 늠실늠실 난간 앞을 에워 돈다.
 날아가는 따오기 너머 흥치를 금치 못하고
 소란한 갈매기 곁에 새 시 문득 생각나네.
 아스라이 먼 뒤편에 밝은 달이 흔들리고
 막막하게 빈 숲엔 푸른 연기 떠오르네.
 산과 물 넘고 건너 구경 한 번 하려했더니
 은혜로운 경사 있어 긴 잔치에 취하였다.

名區恰是大羅天 江水溶溶繞檻前
 逸興不禁飛鷺外 新詩陡覺鬧鷗邊
 迢迢遠岫動明月 漠漠空林浮翠烟
 跋涉本謨拚一賞 復因恩慶醉長筵

72

부사의 차자 경원이 진사에 급제하여 축하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절구에 언급하였다.[府伯次子慶遠 中進士 設慶筵 故結句及之.]

영남루

송정순(宋廷筭)²⁹⁶

열 두 난간 누각의 가장 윗머리에
 강이 푸른 옥빛을 담고 당을 둘러 흐른다.

294) 영합(鈴閣): 장군이 주둔하는 곳을 높여 부르는 말.

295) 대라천(大羅天): 도가에서 신선이 많이 산다고 하는 하늘나라.

296) 송정순(宋廷筭): 자는 중립(仲立), 홍주인(洪州人)이다. 명종 무오년(155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역임하였다.

누각에 가득한 풍경은 참으로 사랑스러우니
 남방 아가씨 웃음으로 만류한들 무엇하리.
 十二欄干最上頭 江涵碧玉繞堂流
 滿樓風景眞堪愛 越女何須一笑留

영남루

송정순(宋廷筍)

높은 마루 툇 트여서 시를 읊을 만하고
 푸른 산 공중에 떠올라 볼수록 기이하다.
 성근 비에 석양은 들 밖으로 날리는데
 바람 따라 얼굴에 뿌리니 술이 취할 때로다.
 高軒敞豁可吟詩 積翠浮空望裡奇
 疎雨夕陽飛野外 隨風洒面酒醺時

영남루 운을 따라 밀양으로 부임하는 행가를 전송하며[次嶺南樓韻送行可赴試密陽]

권호문(權好文)²⁹⁷

소년 시절 시험 삼아 남방을 편력할 제
 바람 서리 몇 번이나 말머리를 에워쌌던가?
 이름난 누각 위에 외로운 자취 걸지 못하고
 그림 난간 곁에 시 읊는 꿈만 공연히 날렸네.
 기러기는 푸른 바다 늦가을 달을 머금고
 해오라기 푸른 산 십리 안개를 가르네.
 소매 떨치며 아마 늦잠이 많을 터인데
 오늘의 이별 잔치 늙은 회포가 동하네.
 少年遊試遍南天 幾度風霜擁馬前
 未掛孤蹤名閣上 空飛吟夢畫欄邊
 鴈啣碧海三秋月 鷺割青山十里烟
 拂袖想應饒晚睡 老懷今日動離筵

63

297) 권호문(權好文; 1532-1587):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이다. 퇴계의 문인으로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관직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아래 은거하여 학문을 닦고 후학을 교도하는데 전념하였다.

늦봄에 송원에서 잔치를 베풀며 영남루 운을 차운하다[暮春宴松院次嶺南樓韻]

권호문

신선 놀음 하지 않아도 별천지가 있으니
 좋은 산 좋은 물이 누각 앞에 돌렸네.
 술 한 두루미 누른 빛이 두 눈썹에 어리고
 자리 사방 푸른 광채 머리 양편을 비추네.
 객을 만류하는 찌꼬리는 들의 해를 노래하고
 아이 태운 송아지는 마을 연기로 들어가네.
 봄의 신이 숲의 꽃을 다 보내고 나서
 버들개지 바람 따라 춤추는 자리에 떨어지네.

不待仙遊別有天 佳山勝水繞樓前
 一樽黃色雙眉上 四座青光兩鬢邊
 留客新鶯歌野日 載童歸犢入村烟
 東皇送罷林花盡 飛絮隨風落舞筵

44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次密陽嶺南樓韻]

홍성민(洪聖民)²⁹⁸

하얀 강 또아린 뽕 푸른 비단 같은 하늘이
 누각 앞 삼면 앞에 홀연 다가서 있는데,
 낚시 드리운 사람은 외로운 따오기 너머 돌아오고
 마름 캐는 배는 끊어진 다리 곁으로 향한다.
 복사꽃 따듯한 날씨 가벼이 비를 머금고
 두악의 향기로운 냄새 가늘게 연기 토하네.
 비파를 조율하려면 밤이 되어야 할 터인데
 구슬발에 바람 오고 달이 자리에 침노하네.

練江螺岬碧羅天 三面當樓忽在前

45

298) 홍성민(洪聖民; 1536-1594); 자는 시가(時可), 호는 졸옹(拙翁),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화담 서경덕과 퇴계 이황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헌, 예조판서,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 익성군(益城君)에 책봉되었다. 홍성민은 선조 경진년(1580) 8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9월에 갈려갔다가, 경인년(1590) 6월에 다시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7월까지 재임하였다.

垂釣人歸孤鷺外 採²⁹⁹⁾菱舟向斷橋邊
 桃花氣暖輕含雨 杜若香薰細吐烟
 寶瑟調來宜到夜 風傳珠箔月侵筵

영남루 운을 따라[嶺南樓韻]

홍성민

확 트인 넓은 호수 하늘이 이지러진 듯
 십 년 전 이곳에서 맑은 놀이 있었지.
 허공에 임한 누각은 높은 하늘 가운데 있고
 온갖 모양의 강산은 살아 있는 그림이로다.
 비단 수놓은 밝은 창에 해 그림자 흔들리고
 산호주렴 가는 발에 향불 연기 하늘하늘.
 숲 가득 꽃과 새는 서로 의심치 말라
 연분 있는 신연³⁰⁰⁾ 사또 옛날 그 자리라네.

眼豁平湖欲缺天 清遊曾在十年前
 臨虛樓閣層霄裡 盡態江山活畫邊
 錦繡牕明搖日影 珊瑚簾細裊香烟
 滿林花鳥休相訝 有分新筵是舊筵

66

능파당 운을 따라[次凌波堂韻] 4수

홍성민

단청 올린 높은 누각 성곽 머리에 치솟고
 멀리 산그림자 헤치고 가까이 강이 흐른다.
 바람에 발은 힘이 없고 사창이 차가운데
 숲가에 한가한 구름이 반나마 남아 있네.

丹碧高樓聳郭頭 遠披山影近江流
 風簾無力紗窓冷 林際閑雲一半留

벼슬길 날리는 먼지에 골몰하다가
 몸 빼어 씻으려니 강물에 부끄럽네.

299) 문집에는 採→采.

300) 신연(新筵): 새로 부임한 지방 수령을 높여 일컫는 말이다.

낙시터 바위 가에 갈매기 비웃음 사꺾기에
신선 누각에 번거로이 옥절³⁰¹을 머물렀다.

紫陌飛塵沒盡頭 抽身欲濯愧江流
磯邊定被沙鷗笑 仙閣煩將玉節留

차가운 달 떠오르자 옥 같은 봉우리 차갑고
하얀 빛 고르게 열두 난간을 나누었네.
학창의 헤쳐 입으니 강 누각이 아득한데
바람결에 곧바로 구름 끝에 오를 듯.

冰輪初轉玉峯寒 皓色平分十二欄
鶴氅披來江閣迥 臨風直訝上雲端

화사한 난간 곧바로 반 공중에 비꼰고
안개 낀 분합문 여니 먼 뫼가 평평하네.
학의 꿈 깨고 보니 산에 달은 하얗고
앞 여울은 흐르며 베개 가에 소리 올리네.

華欄直向半空橫 霧閣開來遠岫平
鶴夢初驚山月白 前灘流作枕邊聲

침류당 운[枕流堂韻] 3수

홍성민

하늘에 닿을 듯 푸른 물에 안개 걷히자
은하수가 아마도 인간 세상에 흘러내림이리라.
어느 곳에서 바람결에 봉황의 피리를 부는가?
푸른 성 옥 같은 나무 이곳이 영주³⁰²일세.

連天碧水霧初收 銀漢應從下界流
何處風邊吹鳳管 碧城琪樹是瀛洲

남포의 물결은 맑고 날아갈 듯 그림 누각,
산호주렴 차가운데 안개마저 부슬부슬.
구름 가에 학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지니

301) 옥절(玉節): 옥으로 만든 부절(符節). 관직을 임명할 때 그 신표로 삼는 것이 부절이다.

302) 영주(瀛州): 신선이 산다는 곳.

인어부인 북을 놓고 베틀에서 내려올 듯.
 南浦波明畫棟飛 珊瑚簾冷濕烟霏
 雲邊笙鶴空中響 鮫³⁰³婦停梭欲下機

명주처럼 맑은 강에 서리 같은 달빛에다
 바람 이슬 쓸쓸하게 온 당에 가득하구나.
 누각에 스미는 맑은 빛이 본디 가장 좋거니와
 발 너머 성근 그림자도 해롭지 않네.

澄江如練月如霜 風露蕭蕭滿一堂
 透閣清光元最好 隔簾疎影也無妨

능파당 운[凌波堂韻] 5수

홍성민

가없는 바람과 달은 모두 시가 되고
 아름다운 강산은 밤이 되니 기묘하구나.
 바람 이슬 창에 스며 기운이 산란함은
 차가운 연잎 옷³⁰⁴에 꿈이 깰 무렵로다.

無邊風月總宜詩 嫵媚江山入夜奇
 風露透窓遊氣亂 芰荷衣冷夢驚時

층층 성벽이 높다랗게 푸른 강변을 누르고
 봄 강물 불어나니 언덕이 모두 잠겼네.
 쌍쌍이 나는 갈매기 오고 또 가면서
 온 하늘 안개비에 너는 잘도 노는구나.

層城高壓碧江隈 春水初生沒盡丘
 兩兩白鷗來又去 一天烟雨爾優遊

그림 누각 영롱하게 채색 안개 엉기고
 은 병풍 비스듬히 가려 붉은 등이 비치네
 화사한 잔치에 좋은 건 쟁³⁰⁵을 치는 소리요
 얼음 차는 강 아가씨, 바라 치는 중일레라.

畫閣玲瓏彩霧凝 銀屏斜掩映紅燈

303) 密州邑誌에는 巧

304) 연잎 옷[荷衣]: 연잎으로 짠 옷.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은거하는 사람의 보잘 것 없는 복장을 가리킨다.

305) 쟁(箏): 열 석 줄의 현으로 치는 악기 이름.

華筵好是秦箏撥 冰蹴江娥撲鉢僧

옥 누각에 추위 스미고 숲 가득 단풍인데
강산에 낙엽 저서 음기 잔뜩 단혔네.
층층 얼음 끊어진 곳 여울 소리 급하여
세모의 타관 살이 목이 매어 우는구나.

寒透瓊樓楓滿林 江山搖落鎖窮陰
層冰斷處灘聲急 咽盡關河歲暮心

능파라는 편액으로 당 이름을 걸었는데
분합문도 영롱하게 물에 밝게 비치네.
자그마한 운모 병풍 너무 일찍 걷지 마소,
사창에 연기 젖어 새벽 한기가 나리니.

凌波扁額揭堂名 霧閣玲瓏照水明
雲母小屏休早捲 紗窓烟濕曉寒生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주인인 밀양부사에게 주다 [密陽嶺南樓韻贈主伯]

홍성민

인간사 정해진 운명을 어찌 벗어나겠나?
그대도 수년 전에 꿈꾸었다 들었네.
세상 변화 따라 붓짐을 맡기고서
가는 길 가에서 웃고 이야기하세.
두루미 술로 목전의 모습을 위로하자니
강산은 교묘하게도 옛 풍경을 보이네.
다급한 풍악 소리 오열하게 하지 말게,
부평처럼 만났다 이별하는 자리이니.

人事寧逃已定天 聞君有夢數年前
行裝只任浮沉裏 談笑惟從道路邊
樽酒慰來前面日 江山巧逞舊風烟
休將急管鳴嗚咽 萍水相逢又別筵

67

밀양의 누선 운[密陽樓船韻]

물 속 달빛을 치며 배를 띄우니
영롱한 작은 누각은 신선의 집과 같구나.
붉은 치마 그림자에 노을을 뚫는 따오기 어지럽고
통소 장고 소리에 물결을 일렁이는 고기 놀라네.
동파 노인의 바다 자랑도³⁰⁶⁾ 웅았거니와
두소룡의 '하늘 위'³⁰⁷⁾란 말 허사가 아니로다.
연엽주³⁰⁸⁾와 비교하면 어느 것이 나을런지?
한가로이 누워서 옥 글씨를 봄이 좋겠네.

擊罷空明信所如 玲瓏小閣合仙居
茜裙影亂穿霞鷺 簫鼓聲驚蹙浪魚
坡老海中誇亦得 杜陵天上語非虛
較來蓮葉差誰勝 閑臥宜觀玉字書

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次密陽嶺南樓韻] 4수

홍성민

봄 구름 비를 머금고 용두암에서 일어나
산 허리로 향하여 반쯤 흘러갔구나.
저물녘 가벼운 바람 불어 흩어버리니
뿌린 자취 희미하게 냇가 마름풀에 남았네.
春雲含雨起龍頭 却向山腰一半流
薄暮輕風吹散盡 霏微痕着澗蘋留

도화랑 물결 넘쳐 모랫부리 덮이고
깊은 못에 감돌며 흐르려 아니하네.

306) 동파 노인의 바다 자랑: 송(宋)나라 문인 동파 소식(蘇軾)이 남해도(南海島)로 유배되어 바다를 건너면서 지은 시에 “남쪽 변방에서 아홉번 죽어도 나는 한탄하지 않으리니/ 이 놀음 기묘하기로 평생에 으뜸이로다[九死南荒吾不恨 茲遊奇絕冠平生]” 하였다.

307) 두소룡의 '하늘 위': 두보(杜甫)의 <월(月)> 시에 “하늘 위에 가을 기운 가까우면/ 인간 세상 달 그림자 맑다[天上秋氣近 人間月影清]”는 구절이 있다.

308) 연엽주(蓮葉舟): 연 잎으로 만든 배. 두보의 시에 “술 술 익자 곁에서 보아도 취하고/ 연엽주 가벼워 스스로 배젓기 배운다[松醪酒熟旁看醉 蓮葉舟輕自學操]”는 구절이 있다.

풀 우거진 나루에는 바람 정녕 급하여
목란주 건너다가 작은 다리에 머무네.

桃花浪漲沒沙頭 匯到深潭不肯流
芳草渡邊風正急 木蘭舟向小橋留

강산은 그림자 보내어 누각 머리를 치고
성근 발에 스며들어 푸른 빛 흘러내릴 듯.
일을 아는 봄 바람은 장식을 더하여서
회칠한 담장에다 벽도화를 남겼네.

江山送影打樓頭 透盡疎簾翠欲流
解事春風增賁飾 碧桃花向粉牆留

수양버들 날리는 꽃 푸른 물에 어른거리고
온 봄의 안개비는 가을처럼 상쾌하네.
어디서 마름 캐다 해 늦어 돌아오나?
작은 배에 바람 급하여 근심을 일으키네.

垂柳飛花映碧流 一春烟雨爽如秋
采蘋何處歸來晚 短棹風顛惹起愁

영남루

윤우신(尹又新)³⁰⁹⁾

머리 가득 국화꽃 꺾는 시절을 저버리고
사신 행차는 멀리 바다 하늘로 흘러간다.
남아가 가고 머무는 곳 남북을 가리지 않나니
답답하게 어찌 여기서 괴로이 머무르리.

虛負黃花插滿頭 星槎長向海天流
男兒行止無南北 鬱鬱何須此苦留

영남루

309) 윤우신(尹又新): 자는 선수(善修), 남원인(南原人). 명종 신유(1561)에 문과에 급제 하였으며 관직이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누가 웅장한 누각을 오두³¹¹⁾에 세워놓았나.
그림 누각 산뜻한 지붕 푸른 물에 잠겼구려.
하물며 맑은 가을 무한히 좋은 경치
유람객을 다시 늦추어 머물게 하네.

誰將傑閣起遨頭 畫棟飛甍蘸碧流
況是清秋無限景 便教遊子更遲留

영남루

작자미상(作者未詳)

[앞의 일곱 구절 실전]

강성의 외론 객이 응시하고 섰노라니
수국에 놀란 여울 소리 귀에 들린다.
팔구 백 리 운몽택을 삼킬 만 한데
동남쪽으로 터진 곳³¹²⁾ 악양루였지.
맑은 하늘에 치솟은 나무는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변방의 산은 머리 들고 바다의 물을 마시네.
석양빛은 물결에 잠겨 금모래 일구듯 반짝이고
찬바람 대나무를 두들겨 옥구슬처럼 다그락거리네.
물색을 분간해 둔 인물은 어디에 있나?
풍광을 묘사해도 말이 힘차지 못하네.
마름 핀 물가의 희미한 연기에 어점이 드물고
가시 울타리에 먼 등불 들 마을이 조밀하다.
해오라기 앓은 먼 모습 높낮이가 가지런하고
새는 부서지는 새로운 소리로 서로 화답하는구나.
바위에 부딪치는 물보라에 구슬이 반짝이고
담 너머 매화꽃엔 눈발이 나부끼는데
포구의 구름 속 산뜻한 건물은 홍도의 누각³¹³⁾이요

310) 김희필(金希弼): 자는 인재(鄰哉), 김해인이다. 명종 임술년(1562) 별시문과에 급제 하여 부사를 역임하였다.

311) 오두(鰲頭): 산맥이 달리다가 멈추어 선 곳이 자라머리와 같다 하여 일컫는 말이다. 필사 원본의 遨는 鰲의 오기로 보인다.

312) 동남쪽으로 터진 곳: 두보(杜甫)의 <악양루(岳陽樓)> 시에 “예전에 동정호의 소문을 듣고/ 이제 악양루에 올랐노라/ 오나라 초나라 동남쪽으로 터졌고/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떠있네[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라 하였다.

회수의 달빛에 갇힌 모래는 두보의 배로다.
 청초 우거진 먼 길엔 울며 가는 말이요
 붉은 통소 비껴 불면 꿈틀거리는 이무기.
 봄 강둑에 비 개이자 버들잎 새로 피고
 저녁 강둑에 잔잔한 호수 모래 섬을 덮었네.
 경치를 보고 다만 시흥을 풀 줄만 알았지
 한가한 여가에 어찌 흑이 생길 줄 두려워하리.
 신선 구역 형승은 현포³¹⁴)에서 옮겨오고
 어진 주인 성명은 대구에³¹⁵) 견주겠네.
 다행히 시단에서 포조와 사현휘³¹⁶)를 만났으니
 동산 길에 양구자³¹⁷)를 짝할 것도 없겠네.
 북해의 술³¹⁸)을 기울여 머리 젖도록 취하고
 발 걷고 서산에 마음껏 돌아보세
 고운 잔치 자리에 혼연히 모여들고
 피리와 노래 소리는 실컷 지절대네.
 종전에 노는 이들 얼마나 많았을까마는
 그 누가 오늘 우리들 맑은 놀이 같겠는가?

(上七行缺) ○虛遊刃見金侯

江城孤客凝睇立 水國驚灘與耳謀
 八九可吞雲夢澤 東南元坼岳陽樓
 晴空樹露參天頂 絕塞山昂飲海頭
 返照蘸波明謝鍊 寒飈敲竹憂荊璆
 分留物色人安在 摸寫風光語未遑
 蘋渚細烟漁店少 棘籬遙火野村稠
 驚盤遠勢齊高下 鳥碎新聲互應酬

313) 홍도(洪都)의 누각: 등왕각(滕王閣). 왕발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남창(南昌)은 옛 고을이요 홍도에는 새 관청이라”는 구절이 있다.

314) 현포(玄圃): 곤륜산(崑崙山) 있는 위에 신선이 산다는 곳. 《수경(水經)》의 주에 이르기를 “곤륜산은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에는 번동(樊桐) 또는 판동(板桐)이라 하고, 다음을 현포(玄圃) 또는 낭풍(閼風)이라 하며 그 위를 층성(層城) 또는 천정(天庭)이라 한다”고 하였다.

315) 대구(大丘): 후한(後漢) 때 진식(陳寔)이 태구(太丘) 고을의 수령이 되어 고을 사람들과 널리 교유를 트고 지낸 적이 있다. 태구는 대구와 같다.

316) 포조(鮑照)와 사현휘(謝玄暉): 두 사람 모두 동진(東晉) 시대의 시인이다.

317) 양구자(羊裘子): 후한의 엄광(嚴光). 엄광은 양털 갓옷을 입고 칠리탄 물가에서 낚시를 즐겼다.

318) 북해의 술: 후한(後漢)의 공융(孔融)은 일찍이 북해태수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 스스로 이르기를 “좌중에 항상 객이 가득하고 술통에 술이 비지 않으면 내 근심할 게 없다”고 하였다.

觸石浪花珠的皦 過牆梅萼雪飄浮
 浦雲飛棟洪都閣 淮月籠沙杜子舟
 青草路長嘶去馬 紫簫橫捻動蟠虬
 春堤雨霽舒新柳 夕岸湖平沒亂洲
 對景但知詩遣興 投閑寧怕○生疣
 仙區形勝移玄圃 賢主姓名比大丘
 自幸騷壇逢鮑謝 不須園經伴羊求
 樽傾北海濡頭醉 簾捲西山滿意遊
 羅綺筵中欣會合 笙歌叢裡厭喧啾
 從前遊子知多少 誰似吾今接清流

영남루

민덕룡(閔德龍)

맑은 빛을 가까이 하려 난간 머리에 기대니
 동산에 달이 떠서 강물을 비추네.
 이 때 나그네의 흥을 금할 수 없어
 내일 아침에도 잠시 머물고자 하노라.
 欲近清光倚檻頭 東山月出照中流
 此時客興難禁得 還擬明朝又小留

영남루

기령(奇 苓)³¹⁹⁾

용암의 머리가 마암의 머리를 마주하고
 눈에 가득 가을빛이 침류당에 느긋하이.
 영남지방 수많은 경치 아름다운 곳 없더니
 유생의 한 바탕 웃음에 머무르게 되었네.
 龍巖頭對馬巖頭 滿目秋光饒枕流
 幾多嶺路曾無佳 還被劉生一笑留

319) 기령(奇苓, 1537-?): 자는 경연(景延), 행주인(幸州人)이다. 선조 원년(1568) 증광시에 급제하여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영남루

김성일(金誠一)³²⁰⁾

응천의 초가을에 배를 띄우고
 이름난 누각 명승지에서 큰 고을을 살피네.
 하늘이 강호의 나라를 연 세월은 얼마나 멀며
 땅이 강가의 성을 보호하여 세대가 몇 번 바뀌었나?
 흥폐를 정토³²¹⁾에 물어볼 건 없으나
 경영한 원님만은 상상할 만하네.
 당시에 이 한 구역이 마음에 맞았겠지만
 오늘도 온갖 형상이 눈과 의논 맞추네.
 강가에 희미한 것은 선리의 전각³²²⁾이요
 파릉³²³⁾에 방불한 것이 자경의 누각³²⁴⁾이리라.
 높다란 처마에 푸른 봉새 높이 내려치고
 끊어진 절벽에 흰 봉황 머리 낮게 맴돈다.
 시인의 시편들은 큰 옥을 울리는 듯
 신선의 패옥소리 밝은 구슬을 떨치는 듯.
 올라보면 건곤이 큼을 절로 깨닫지만
 행락에 세월 빠름을 어찌 알리오.
 사조의 맑은 파도³²⁵⁾는 마전한 듯 깨끗하고
 기원의 푸른 빛³²⁶⁾은 서리 속에 한결 더하네.
 한가한 구름 지친 새는 아침저녁 풍경이요
 밝은 달 가벼운 바람은 시속에 들어오네.
 가는 비 안개 낀 숲에는 푸르름이 막막하고

320)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峰), 의성인이다. 선조 무진년(156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321) 정토(淨土): 불가(佛家)의 청정한 세계. 영남루 옆에 무봉암(舞鳳庵)이 있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322) 선리(仙李)의 전각: 영남루는 전패(殿牌)를 모신 객관(客館)의 부속 건물이다. 전패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왕위를 상징하는 물건이고, 선리는 조선왕가(朝鮮王家)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323) 파릉(巴陵): 중국 호남성(湖南省) 악양현(岳陽縣) 서남쪽의 고을 이름.

324) 자경(子京)의 누각: 악양루(岳陽樓). 송(宋)나라 하남(河南) 사람으로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으로 발탁되었다가 악주(岳州) 태수로 좌천되었던 등종량(滕宗諒)의 자가 자경이다.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등자경은 경력(慶曆) 4년(1044) 봄에 파릉(巴陵) 군수로 부임하여 그 이듬해에 악양루를 중수하였다고 하였다.

325) 사조(謝朓)의 맑은 파도: 사조(謝朓)의 <만등삼산환망경(晩登三山還望京)>시에 “남은 노을은 흩어져 비단을 이루고/ 맑은 강물 마전한 듯 깨끗하다[餘霞散成綺 澄江淨如練]”는 구절이 있다.

326) 기원(淇園)의 푸른 빛: 늘푸른 대나무.

가을 깊은 갈대 언덕엔 눈이 펄펄 날리네.
 험함을 열면 남방 산의 푸른 빛을 잡아당기고
 닳줄을 풀면 남방 물의 배를 끌고 가겠네.
 세상 버리고 백학을 타는 게 어찌 어려우며
 진인 찾아 곧바로 검은 이무기를 타고 싶네.
 부럽다 형의 흥은 신선 사는 곳인 양 빼어나지만
 부끄럽네 나의 재주 앵무주에 못미치네.
 다섯 말은 이은³²⁷⁾ 되는 데 방해 안되나
 관직 하나는 간 곳마다 흑이 되구나.
 시단에 올라 천 수의 시를 감히 자랑하라
 성곽 밖에 은거할 곳을 마련할 만 하구나.
 묵은 자취는 바쁜 가운데 홀연 흩어지고
 기이한 경치는 때때로 꿈속에서 찾는다.
 범희문³²⁸⁾은 오래도록 강호에 은둔할 생각을 하고
 사마천도 연나라 조나라에 놀다가 돌아왔네.
 동작에서는 형제의 낙을 같이 하지 못하나
 서풍에 귀뚜라미 소리 건디지 못하겠구려.
 무슨 방도로 남쪽으로 나는 기러기 날개 빌어
 황당³²⁹⁾에서 한바탕 웃으며 푸른 강물 대할까?

舟泛凝川七月秋 名樓形勝閱雄州
 天開澤國年何遠 地護江城世幾周
 興廢不須詢淨土 經營猶可想賢侯
 一區當日應神會 萬象今朝與目謀
 江渚依稀仙李閣 巴陵彷彿子京樓
 危簷高翥蒼鵬翼 斷岸低回白鳳頭
 騷客篇章鳴大玉 仙官環佩振明璫
 登臨自覺乾坤大 行樂何知歲月遒
 謝眺澄波兼練淨 淇園晚翠倚霜稠
 閑雲倦鳥供朝暮 朗月輕風入唱酬

327) 다섯 말[五馬]은 이은(吏隱): 오마(五馬)는 지방 수령의 관직을 나타내고, 이은은 낮은 관직에서 숨어 지낸다는 말이다.

328) 범희문(范希文): 송(宋)나라의 범중엄(范仲淹)은 자가 회문이다. 그는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백성을 걱정하고, 강호 먼 곳에 처하여서는 그 군주를 걱정하니, 이는 벼슬에 나가도 걱정이요 물러나도 걱정인지라 어느 때에 즐거워하겠는가? 반드시 천하의 근심을 천하 사람보다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낙을 천하 사람보다 뒤에 즐기리라” 하였다.

329) 황당(黃堂): 지방 태수가 집무하는 청사, 또는 태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雨細烟林青漠漠 秋深荻岸雪浮浮
 開軒可挹吳山翠 解纜如牽楚水舟
 遺世何難驂白鶴 尋眞直欲駕玄蚪
 多兄興逸神仙府 愧我才慚鸚鵡洲
 五馬不妨成隱吏 一官隨處足生疣
 登壇敢詫題千首 負郭猶堪卜一丘
 陳迹忽隨忙裡散 奇觀時向夢中求
 希文久係江湖念 司馬初回燕趙遊
 東閣未同常棣樂 西風不耐候蟲啾
 何方借翮南飛雁 一笑黃堂對碧流

영남루

윤탁연(尹卓然)³³⁰⁾

은혜로운 왕명으로 춘추의 책임 받들고
 남방 칠십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는데,
 팔배나무 그늘 잊지 않으니 그 누가 소공³³¹⁾이며
 기러기 날아와 이틀 묵지만 나는 주공³³²⁾이 아니로다.
 산하가 장려하여 천부라 일컫거니
 문물이 변화하니 제후의 영지로다.
 좋은 모임에 마가 끼이는 빌미를 만들지 않으면
 성대한 잔치를 어찌 무모하게 열었다 한탄하리.
 천년 명승지를 일천 성가퀴에 실어왔고
 한 도의 웅장한 이름을 한 누각에 부쳤네.
 틈을 내어 올라옴은 안목을 넓히려 함이니
 지는 해에 자리 옮겨 자꾸 머리 돌리노라.
 찌푸린 눈썹 멀리 쓸어 검푸른 산은 그리고
 큰 띠를 무겁게 끌고 강물은 옥구슬 소리 울리네.
 선성³³³⁾의 퇴계선생 시 형용 잘한 줄 비로소 알겠고

330) 윤탁연(尹卓然, 1538-1594): 자는 상중(尙仲), 호는 중호(重湖), 칠원인이다. 명종 을축년(1565) 알성시에 급제하여 옥당을 거쳐 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331) 팔배나무 그늘……소공: 주(周)나라 초기에 소공(召公)이 팔배나무 그늘에서 정사를 보살폈는데 후인들이 그 공덕을 잊지 못하고 아가위나무를 베지 않고 보전하였다는 《시경》 <감당(甘棠)> 시의 고사를 전용하여 지방을 순찰하는 관찰사의 공덕을 기린 말이다.

332) 기러기 날고 이틀밤 묵으니[鴻飛信宿]: 《시경》 빈풍(邠風) <구역(九罭)>의 시에 “기러기 높은 언덕 따라 나니/ 공은 가시면 다시 오지 않으시리니/ 너의 집에 이틀밤 묵네[鴻飛遵陸 公歸不復 於汝信宿]”이라 하였다.

두공부³³⁴⁾ 시가 힘있는 줄을 따라서 알겠네.
 잠시 개였다 비 오려 함은 구름 모습 변함이요
 열고 질게 푸르름은 나무 빛의 조밀함이라.
 시골길은 가느다랗게 관로와 합하였고
 고기잡이 노래 일어나자 뱃노래가 화답하는구나.
 파란 창문에 붉은 집은 병풍 사이 그림이요
 밝은 달 성근 별은 거울 속에 떠오르네.
 관청 일 파하고 손님에게 죽엽주를 권하고
 흥이 나면 기녀를 데리고 놀잇배를 탄다.
 아름다운 술잔에는 놀란 학의 그림자 어지럽고
 금슬 소리 높아지자 구렁의 이무기 춤추는구나.
 초륜으로 봉소에 노닐 때를 상상하며
 다시금 영주각에 숙직하던 일 생각하네.
 기상이 너무도 꺾이고 공연히 늙어
 병통은 여전하여 고치지도 못하겠네.
 한 밤중 외로운 충성 북극성을 쳐다보며
 동교로 돌아가는 꿈은 고향 동산에 이르네.
 반평생 다행스러운 일……

叨承恩命任春秋 巡遍南方七十州
 棠茇不忘誰是召 鴻飛信宿我非周
 山河壯麗稱天府 文物繁華領地侯
 佳會莫教魔作祟 盛筵何恨辦無謀
 千年勝槩輸千堞 一道雄名付一樓
 暇日登臨聊騁目 斜陽徙倚屢回頭
 愁眉遠掃粧成黛 大帶重拖響戛瓊
 始覺宣城詩善狀 從知工部句偏遒
 乍晴欲雨雲容變 淡碧深青樹色稠
 村路細連官路合 漁歌還興棹歌酬
 綠窓丹棟屏間畫 朗月疎星鏡裡浮
 衙罷侑賓斟竹葉 興來携妓泛蘭舟
 霞觴影亂驚巢鶴 琴瑟聲高舞壑虬
 仍想草綸遊鳳沼 更思持披直瀛洲
 摧頹已甚空添老 病痛如前未弋疔
 半夜孤忠瞻斗極 東郊歸夢到林丘

333) 선성(宣城): 퇴계선생이 태어난 예안(禮安)의 옛 이름이다.

334) 두공부(杜工部):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는 공부(工部)의 벼슬을 지냈다.

영남루

김극일(金克一)³³⁵⁾

봉래산이 있다 해도 이곳이 진경이라
 흰머리에 푸른 인끈 차고 온 것이 다행이네.
 기름지고 실한 열매 천 그루의 밤나무요
 찬란하게 꽃이 피는 백 일의 봄이로다.
 산허리의 묵은 안개 아침이면 흰 베를 끌고
 성 모퉁이에 개인 강물 밤이면 은빛이 비끼네.
 두 겨드랑이에 훌훌 바람이 일어나니
 단구로 가서 그대로 신선이 되리로다.

設有蓬萊此是真 白頭何幸佩青綸
 凝肪實滿千章栗 爛錦花開百日春
 宿霧山腰朝拖練 晴河城角夜橫銀
 飄飄兩腋生風久 欲向丹丘仍羽人

오두막에 물러나서 진리 함양 공부하며
 이 몸이 늙도록 낚싯줄을 드리우려네.
 또 다시 부절 받고 밀양고을에 오니
 부춘산에 숨은 엄자릉³³⁶⁾에게 참으로 부끄럽구려.
 지세는 습하여서 안개비가 많지마는
 마음이 너무 맑아 금과 은을 알아보겠네.
 뒷날에 연잎 옷을 입고 떠나게 되면
 송강의 육산인³³⁷⁾에게 공손히 읊을 하리라.

退伏衡門學養眞 欲將身世老垂綸
 又分龍節來推火 深愧嚴陵隱富春

335) 김극일(金克一, 1539-1602): 자는 백순(伯淳), 호는 약봉(藥峰), 의성인이다. 명종 원년(1546) 증광시에 급제하여 관직이 부사에 이르렀다.

336) 엄자릉(嚴子陵): 엄광(嚴光).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죽마고우로서 제왕의 출사권유를 뿌리치고 부춘산(富春山) 칠리탄(七里灘)에 은거하여 낚시로 여생을 보내며 처사(處士)의 고결한 지조를 지켰던 인물이다.

337) 송강(松江)의 육산인(陸散人): 당나라 때 사람 육귀몽(陸龜蒙). 육귀몽은 자가 노망(魯望)으로 송강(松江)의 보리(浦里)에 살았는데 호를 강호산인(江湖散人), 또는 천수자(天隨子)라 하였다. 책과 다조(茶竈)와 필상(筆牀)과 낚시 도구를 배에 싣고 다니면서 강호에 방랑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地勢卑湫饒霧雨 心源清澈識金銀
他年會着荷衣去 高揖松江陸散人

영남루

김극일(金克一)

붉은 누각이 큰 자라 머리를 당겨 눌렀고
누각 아래 깊은 강은 영기어 흐르지 않네.
어느 곳 명승지가 여기에 대적하랴?
이 걸음 섬중³³⁸)에 들어가 머무르는 듯하네.

紅樓控壓巨鰲頭 樓下深江凝不流
何處名區堪敵此 此行疑入剡中留

강에 나가 뗏목 머리에서 그물을 드니
주머니돈 쓰지 않아도 온통 은빛이 흐르네.
홀연 생각나네 고향 산천 안개비 속에
푸른 연잎으로 밥을 싸고 버들 물가에 머문 때가.

臨江舉網得槎頭 不費囊中銀一流
忽憶故山烟雨裡 綠荷包飯柳汀留

누가 화살 하나로 깃발 머리를 떨어뜨렸나?
동해의 파도가 오래도록 역류하였지.
상국의 가슴 속엔 세 검³³⁹)이 장하나니
천리 길 가고 머뭇을 작게 여기시리라.

誰將一箭落旄頭 東海波濤久逆流
相國胸中三劍壯 定應千里小行留

난간에 기대 종일토록 머리를 숙이나니
막부에 들어서도 제일류 아님이 부끄럽네.
상공께서 객을 관용하시는 예가 없었다면

338) 섬중(剡中): 중국 양자강 하류지방의 지명. 진(晉)나라 때 왕자유(王子猷)가 달 밝은 밤중에 친구인 대규(戴逵)를 찾았다는 고사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339) 세 검[三劍]: 《장자(莊子)》의 <설검(說劍)>에서 논한 세 가지의 칼. 천자(天子)의 검은 사시와 오행으로 천하를 다스리고, 제후의 검은 용맹하고 지혜롭고 청렴하고 충성스럽고 호탕한 인재로 검을 삼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서인의 검은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베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음³⁴⁰)에서 일년동안 어찌 머물 수 있었으리.

憑欄終日久魁頭 入幕慚非第一流
不有相公寬客禮 棠陰那得一年留

영남루

김극일(金克一)

산이 바다를 마실 듯 용이 머리 쳐들고
푸른 숲이 부슬부슬 푸른 물에 일렁이네.
부끄럽다 새 사람에게 따로 줄게 없어서
풍경을 선사하려고 지체하여 머무노라.

山如飲海龍擡頭 蒼翠空濛漾碧流
自愧新知無別贈 惟將風景侑淹留

영남루

김극일(金克一)

문서가 산처럼 쌓이니 시흥이 나지 않아
억지로 짓다가도 다시금 일어서네.
소리 없는 시와 소리 있는 그림은
모두 개인 하늘 기러기가 앓을 때로다.

簿牒如山不到詩 縱然強作更能起
無聲詩與有聲畫 都在晴天雁沒時

영남루

김천일(金千鎰)³⁴¹)

산세가 굽실굽실 끝나는 머리에
누각이 높이 솟아 강물을 눌렀구나.
올라보면 큰 들판 아득한 곳에

340) 당음(棠陰): 아가위 나무의 그늘. 선정을 베푸는 지방관의 음덕을 나타내는 말이다. 주(周)나라 소공(召公)이 소남지방을 다니며 정사를 보살폈는데 주민들이 그가 머문 아가위나무를 기념하여 보전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341)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 언양인이다. 선조 6년 학행(學行)으로 발탁되어 경상도 도사를 거쳐 수원부사를 역임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다가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비 개고 바람 맑은데 햇별이 머무르네.
 山勢逶迤欲盡頭 有樓高起壓江流
 登臨大野微茫地 雨霽風清白日留

밀양 영남루 운[密陽嶺南樓韻] 2수

김 룩(金 玊)³⁴²⁾

그 누가 악양의 하늘³⁴³⁾을 나누게 하였나?
 부온³⁴⁴⁾의 신비한 공적 태고적 일일세.
 채색 난간에 혼령은 황학루 밖에 노닐고
 맑은 시내 감홍은 흰 갈매기 곁에 있네.
 구름 머리³⁴⁵⁾ 멀리 솟아 태깅을 보여주고
 옥 촛불³⁴⁶⁾ 높이 걸려 연기 나지 않는데,
 풍광을 몰아 부리려면 글 솜씨 좋아야 하나
 외로운 자취 오늘은 자리에 나온 게 부끄럽네.

誰教分割岳陽天 富媪神功太古前
 彩檻魂遊黃鶴外 晴川興在白鷗邊
 雲鬢遠聳還呈態 玉燭高懸不起烟
 驅使風光須健筆 孤蹤此日愧當筵

(-8)

누각 감춘 옥 골짜기에 가을 하늘이 넓고
 만리의 하늘과 땅이 안석 앞에 펼쳐졌네.
 물에 임하면 언제나 끊이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산을 보면 모름지기 끝없이 먼 데 이르러야지.
 조는 학을 놀라게 하는 탄자는 술 이슬이 번득임이요
 자는 갈매기를 깨우는 어부는 물결치는 안개로다.
 풍광을 수습하여 소매에 가득하니
 작은 병 다시 나아 거듭된 잔치에 취한다.

342) 김룩(金玊; 1540-1616); 자는 희옥(希玉), 호는 백암(栢巖), 시호는 민절(敏節)이다.
 선조 9년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참의를 지내고, 임진란이 일어나자 선조 계사년
 (1593) 5월에 학봉 김성일의 뒤를 이어 경상우도관찰사가 되었다가, 그해 10월 경상
 도의 좌우도를 합하면서 도승지로 갈라갔다.

343) 악양의 하늘: 악양루(岳陽樓)가 있는 곳의 풍경처럼 영남루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말이다.

344) 부온(富媪): 땅을 관장하는 후토신(后土神)의 별명. 노모(老母). 땅의 신은 풍요를
 상징하기에 부자집 마나님으로 비유한다.

345) 구름 머리[雲鬢]: 구름을 이고 있는 먼 산 봉우리를 가리킨다.

346) 옥 촛불[玉燭]: 옥처럼 환하게 빛을 내는 달.

樓藏玉峽豁秋天 萬里乾坤几席前
 臨水要知長不盡 看山須到遠無邊
 彈驚睡鶴翻松露 漁起眠鷗蹴浪烟
 收拾風光渾滿袖 微痾還復醉重筵

SP

안태고 주가 밀양으로 가는 길에 지어 주다. 열
 수 가운데 그 다섯째와 여섯째 시[奉驢安太古宙密
 陽行十絕 中其五六]

이덕홍(李德弘)³⁴⁷⁾

영남루란 이름의 누각 있어
 경치가 영남에서 으뜸이라지.
 한스럽다 공을 따라 놀며
 가슴 속 티끌 한바탕 씻지 못하니.
 有樓號嶺南 景致嶺南最
 恨不從公遊 一洗胸中芥

봄꽃이 용두 절벽에 난만하고
 가을 연기가 밤섬에 엉길 때,
 거문고를 치고³⁴⁸⁾ 틈을 내어
 새 시구를 퇴고하면 좋으리라.
 春花爛龍壁 秋烟凝栗島
 暇日罷鳴琴 推敲新句好

영남루에서 밤에 일어나 우연이 읊다[嶺南樓夜起偶吟]

이 우(李瑀)³⁴⁹⁾

347) 이덕홍(李德弘; 1541-1596): 자는 평중(宏仲), 호는 간재(艮齋), 영천인(永川人)이다. 농암 이현보의 조카이며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선조 때 일천(逸薦)으로 관직에 나가 임진왜란에 세자를 호종하였다.

348) 거문고를 치고: 관청의 업무를 마친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공자가 그 제자인 자유(子游)가 다스리는 무성(武城)에 갔다가 거문고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고사를 빌어온 말이다.

349) 이우(李瑀; 1542-1609): 자는 계헌(季獻), 호는 옥산(玉山),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명종 22년(1567) 진사시에 합격하고, 감찰, 군자감정 등을 역임하였다. 금(琴), 서(書), 시(詩), 화(畫) 등에 능하여 사람들이 사절(四絶)이라 하였다. 울곡(栗谷)의 아우이다.

강가 누각 고요한 밤 이슬하여 꿈이 깨고
 일어나 보니 서리 같은 달이 맑은 물에 담겼다.
 거문고를 두들겨 비풍조³⁵⁰)를 연주하니
 곡을 마치자 솔바람 소리 온 산에 가득하네.

夢斷江樓靜夜闌 起看霜月浸清瀾
 瑤琴彈作悲風調 曲闌松聲滿四山

영남루

윤우신(尹又新)³⁵¹

신선 세계 아득히 한 세상을 만들어
 그림 난간 형승이 앞설 데가 없구나.
 누각에 오를 때는 가을이 깊은 뒤요
 강호 산천 옮겨 봄은 석양 지는 곳이로다.
 짙은 물가 거꾸로 흐르는 건 긴 난간 그림자요
 무성한 숲가에 가로 뚫은 시골 연기로다.
 고금의 영웅호걸이 변화한 곳에
 두루미 술로 어떻게 성대한 자리를 만드나.

仙界微茫作一天 畫欄形勝儘無前
 登臨樓閣深秋後 徙倚湖山落照邊
 芳渚倒流長檻影 茂林橫帶遠村烟
 英雄今古繁華地 樽酒何當作盛筵

60

영남루

유성룡(柳成龍)³⁵²

돌아가는 구름이 비를 끌고 강을 건너더니

350) 비풍조(悲風調): 가을 바람 소리처럼 구슬픈 곡조. 이백의 <달밤에 노자순의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月夜聞盧子順彈琴]> 라는 시에 “홀연 비풍조를 들으니/ 완연히 겨울철 솔바람 같네[忽聞悲風調 宛若寒松吟]”이라 하였다.

351) 윤우신(尹又新): 남원인(南原人). 명종 신유(1561)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이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352) 유성룡(柳成龍; 1542-1607):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 시호는 문충(文忠), 풍산인(豊山人)이다. 퇴계의 문인으로 명종 22년(1567)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우의정이 되어 광국공신(光國功臣),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으로 책봉되었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영의정에 이르고,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책훈되었다.

은빛 대나무³⁵³⁾ 가로 비끼며 홀연 앞에 가득.
 어느 곳인지 어지러운 봉우리에 안개 개이고,
 몇 몇 마을에서는 석양 곁에 불을 사른다.
 영웅호걸 잇달아 일어났으나 공연히 자취만 남고
 좋은 모임 문득 지나가 연기 홀듯 사라지네.
 저물녘에 고향 생각을 금할 수 없어
 밤 깊도록 앉았더니 달이 자리에 찾아드네.

歸雲拖雨度江天 銀竹橫斜忽滿前
 何處亂峰晴靄外 幾村燃火夕陽邊
 英豪袞袞空遺躅 佳會忽忽似散烟
 鄉思晚來禁不得 夜深愁坐月侵筵

영남루

정희번(鄭姬藩)³⁵⁴⁾

날 듯한 좋은 건물 강물을 베고 있어
 마음 속으로 경영한 지 몇 년이더냐.
 굽은 난간에 기대 읊조리며 아무 일이 없는데
 하늘 가득 비바람이 고향 생각 자아내네.

翬飛華構枕江流 心匠經營聞幾秋
 吟倚曲欄無箇事 滿天風雨動鄉愁

영남의 명승지로 풍류를 차지했는데
 흥을 타고 올라와 보니 마침 가을이로다.
 이 때에 만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니
 술을 불러 이별의 근심 애기함도 좋으리라.

嶺南名勝擅風流 乘興登臨正值秋
 此時相逢眞一幸 不妨呼酒話離愁

영남루

정경달(丁景達)³⁵⁵⁾

353) 은빛 대나무[銀竹]: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가리킨다.

354) 정희번(鄭姬藩): 자는 자한(子翰), 호는 고송(孤松), 온양인이다. 선조 경오년(1570)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역임하고 호성공신으로 온성군(溫城君)에 책봉되었다.

산은 명승지를 바치려고 짐짓 머리 돌렸고
강물은 생황 노래에 거꾸로 흐르려 하네.
가을 숲을 비가 씻어 한결 더 빛이 나니
바쁜 가운데 틈을 내어 감히 머무르노라.

山呈形勝故回頭 水爲笙歌欲倒流
雨洗秋林增物色 偷閑忙裡敢遲留

물결 울리는 가을 기운이 강 머리에 젖고
천리 서쪽 하늘에 개인 달이 흘러간다.
어디선지 옥통소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는데
강의 반쯤 돌아가던 학이 이를 위해 머무네.

波鳴秋氣濕江頭 千里金天霽月流
何處玉簫聲斷續 半江歸鶴爲淹留

영남루에서 심상사를 이별하며[嶺南樓別沈上舍]

양대박(梁大樸)³⁵⁶⁾

남방의 평원은 시야에서 멀고
봄 강은 누각 아래에 길다.
날마다 이어지는 이별의 자리,
슬픈 음악이 잔을 재촉하네.
영남에 매화 처음 지고
물가에는 풀이 또 우거지는데
서로 만났다가 다시 전송하니
모이고 헤어짐이 참으로 서글프네.

平楚望中遠 春江樓下長
離筵不隔日 哀管促飛觴
嶺嶠梅初落 汀洲草又芳
相逢復相送 聚散劇悲涼

355) 정경달(丁景達): 자는 이회(而晦), 영광인(靈光人)이다. 선조 경오년(1570)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목사를 역임하였다.

356) 양대박(梁大樸; 1544-1592): 자는 사진(士眞), 호는 송암(松巖), 시호는 충장(忠壯), 남원인(南原人)이다. 목사 의(義)의 아들로 임진란에 의병을 일으켜 고경명(高敬明)을 맹주로 추대하고 군사를 출병하였다가 병으로 돌아와 집에서 죽었다.

꿈에 여러 벗들과 영남루에 올라 운자를 불러 시
를 지었는데 꿈을 깨어 그중 절구 두 수를 적다
[夢與諸友登嶺南樓呼韻作詩覺而記其二絕]

손기양³⁵⁷⁾

고려시대 명현들은 각기 일가를 이루어
종풍³⁵⁸⁾이 지금 시대까지 많이 불었기에,
호음³⁵⁹⁾의 큰 솜씨로도 끝내 붓을 던졌으니
다른 사람이야 의당 어쩔 수가 없었으리.

麗代諸賢各一家 宗風吹到我朝多
湖陰大手終投筆 餘子惟宜不奈何

태평성대 문장이라 대가로 꼽히는데
유풍과 남은 향기 사람들이 많이 빌어왔네.
후생이 비록 종파³⁶⁰⁾를 찾아가려 해도
나귀등에 부대끼며 밟은 자취³⁶¹⁾ 어찌 하리요.

聖代文章掄大家 殘膏剩馥丐人多
後生縱欲尋宗派 終奈磨驢踏跡何

한음 이상공이 영남루 옛터를 지나며 읊은 시의
운을 따라[敬次漢陰李公過嶺南樓舊址韻]

손기양

이공은 체찰사로서 순시하다 밀양에 도착하자, 부사 이영이 영남루 터에
초가집을 엮었는데, 순찰사 한준겸이 역석루라 이름을 지었다. 임인년

357) 손기양(孫起陽; 1559-1617);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鰲漢), 밀성인(密城人)이다. 한강(寒岡) 정구(鄭述)의 문인으로 선조 무자년(1588)에 문과에 급제하고, 영천군수와 창원부사를 역임하였으며, 광해군 때 관직을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와 학문에 전심하였다.

358) 종풍(宗風): 한 종파(宗派)의 기풍. 여기서는 조선조의 시풍(詩風)이 고려 시대의 대가를 이어받아 번창하였음을 말한다.

359) 호음(湖陰): 조선 전기의 이름난 시인 호음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이다. 호음은 영남루에서 시를 짓지 못하고 붓을 내던졌다는 고사가 있었다.

360) 후생이 종파(宗派)를: 앞 시대 이름난 시인의 높은 시풍을 이어 감을 말한다. 송나라 소동파(蘇東坡)의 시풍을 황정견(黃庭堅), 진사도(陳師道), 진여의(陳與義) 등이 계승하여 이를 강서시파(江西詩派)의 종파(宗派)라 하였다.

361) 나귀 등에: 오랫동안 나귀를 타고 다니는 고단함을 형용한 말. 당나라의 정계(鄭綰)는 이르기를 "시상(詩想)은 파교(灞橋) 다리의 눈보라 속에 나귀 등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른 말이다.

(1602)[李公以體相巡到密陽 李府使英構草屋于樓基 韓巡相浚謙 而憶昔名之.
壬寅.]

시국 일을 푸른 하늘에 물으려 하니
눈앞의 온갖 경치가 상심이 되네.
인생의 흥망이야 본디 운수 있지마는
명승지 풍월은 절로 한이 없는 것을.
강물 소리 밤이 들면 소상강에 내리는 비요
산 빛은 가을이라 낙포에 자욱한 연기로다.
누가 새 정자 지어 억석³⁶²이라 하였나?
석양이 한을 섞어 빈객 자리에 가득하네.

欲將時事問蒼天 萬景傷心在眼前
浮生興亡元有數 名區風月自無邊
江聲夜入瀟湘雨 山色秋連洛浦烟
誰構新亭名憶昔 夕陽和恨滿賓筵

62

영남루에서 사신 행렬을 동래로 보내며[嶺南樓送 使行之萊州]

손기양

구름은 하늘 가의 들에서 끝나고
가을은 비 온 뒤의 산에서 생기네.
신선의 누각에 좋은 경치 열렸고
연막³⁶³에선 맑은 환대를 받았네.
숲 그림자는 술두루미 속에 들어오고
물결소리는 자리 사이에 크게 울린다.
봉래산이 아마도 멀지 않으리니
그대 가면 어느 때나 돌아오려나?

雲盡天邊野 秋生雨後山
仙樓開勝賞 蓮幕接清歡
林影侵樽裏 波聲殷座間
蓬萊知不遠 君去幾時還

362) 억석(憶昔): 옛적을 추억한다는 말이다. 이이정의 상량문에는 억석루(抑石樓)라 하였다.

363) 연막(蓮幕): 큰 벼슬아치가 임시로 머무는 곳.

능파당에서 조여익³⁶⁴과 송별하며[凌波堂別曹汝益]

손기양

여익은 밤나무 경차관으로 능파당에 머물며 밤을 이어 침석을 같이하다가 이별하였다.[汝益以栗木敬差 留凌波堂 連夜同枕而別.]

서울의 풍진 속에 함께 객이 되었다가
강호의 등불 아래 다시 마음 나누네.
신선 누각에서 술잔 잡다가 이별하니
새 시가 있다 한들 뉘 더불어 읊으리.
京洛風塵同作客 江湖燈火更論心
仙樓把酒還成別 縱有新詩誰與吟

능파당에서 조사군 두 형제분에게 주다.[凌波堂贈趙使君兩益]

손기양

임자년(1612) 청화절에 청도군수 조안중과 그 아우 비중이 영남루에 와서 만났다.[壬子淸和 淸道守趙安仲 與其弟裴仲 來會于南樓.]

해 더딘 신선 누각에서 부평처럼 만났으니
여러 해 다른 곳에서 꿈에 그린 다음이로다.
난리 중에 헤어졌다 일룩진 머리에 놀라고
이별 뒤엔 슬픔과 기쁨 편지에 부쳤었네.
술잔을 잡고서 풍류가 어찌 적막할소냐?
이웃 고을 형제로서³⁶⁵ 쓸쓸하지 않구려.
동쪽 호수 언덕 외판 마을에 살고 있으니
조만간에 지나가며 초가집을 물어주소.

遲日仙樓萍水會 多年異地夢魂餘
亂中聚散驚斑鬢 別後悲歡托素書
把酒風流寧寂寞 連城花萼不蕭疎
孤村住在東湖岸 早晚經過問草廬

364) 조여익(曹汝益): 매호(梅湖) 조우인(曹友仁; 1561-1625)의 자가 여익이다.

365) 이웃고을 형제[連城花萼]: 형제가 나란히 이웃 고을의 수령이 되었음이다.

소루(召樓)

김지남(金止男)³⁶⁶

강에 눈이 오려하니 누각에 바람 가득한데
한 해가 저물어 파객은 시름을 견디지 못하네.
산은 모퉁이를 드러내며 정정하게 서 있고
물은 모래섬에서 빠져 얕으막하게 흐른다.
얼마동안 머물러야 공무가 끝나려는지
두루 다니면 비로소 떠도는 인생을 깨닫지.
창주의 묵은 약속 이미 늦어 저무니
백발로 흥진 세상 삼십년을 보냈구나.

江雪欲來風滿樓 歲闌孤客不勝愁
山呈圭角亭亭立 水落汀洲淺淺流
棲息幾時公事了 周流方覺此生浮
滄洲宿約已遲暮 白髮紅塵三十秋

송운³⁶⁷) 스님의 운자를 따라 영남루를 읊다. 2수.

이덕형(李德馨)³⁶⁸

옛날 영남루의 경치는 남방이 으뜸이었다. 나는 선위사로서 기축년 여름에 이곳에서 달을 감상하였고, 경인년 여름에 또 와서 비를 감상하였는데, 이 누각에서의 호리고 맑을 때의 경치는, 조물주가 나에게 지나치게 우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국난이 끝난 뒤 외람되이 개부³⁶⁹)의 명을 받고 웅천을 두 번 지났는데, 황폐한 폐허에 무너진 성곽,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두 쓸쓸하였으나, 강산의 풍경만은 여전하였다. 송운 스님이 마침 연자 운을 차운하여 나에게 주기에, 읊조리며 감개에 젖었다가 그대로 지은 시를 조종사관

366) 김지남(金止男, 1559-1631): 자는 자정(子定), 호는 용계(龍溪), 광산인이다. 선조 24년(1591)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367) 송운(松雲):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이다.

368) 이덕형(李德馨; 1561-1613):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선조 13년(1580)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참판에 대제학을 겸임하다가 임진란을 만나 동지중추부사로서 일본 사신과 담판하였으며, 청원사로 명나라에 가서 원병을 요청하여 성사시켰고, 전란 중에 여러 요직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고, 전쟁 후에는 경상, 전라, 충청, 강원도 도체찰사가 되어 난후의 수습에 진력하였으며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369) 개부(開府): 임의로 관청의 부서를 정하고 인원을 편성하는 직책을 일컫는다. 이항복은 왜란이 끝난 뒤 행판중추부사로서 경상, 전라, 충청, 강원 4도 도체찰사를 겸직한 적이 있다.

에게 받들어 보이고 화답을 구한다.[舊時嶺南樓之勝 甲於南中. 余爲宣慰使
己丑夏 玩望月于此. 庚寅夏 又來賞雨. 樓之陰晴景態 自謂造物偏餉我矣. 難後
忝開府之命 再過凝川 荒墟破郭 滿目蕭然 而獨江山風景如舊耳. 松雲師 適次
烟字韻見示 吟翫感慨 率爾有作 奉趙從事求和.]

대장 깃발 앞세우고 영남에 다시오니
십 이년의 세월이 물처럼 흘렀구나.
전쟁을 치른 뒤로 인물은 다 사라졌지만
화각³⁷⁰⁾ 소리 언저리에 강산은 여전히 아름답다.
여울소리 캄캄하게 긴 숲의 비와 섞이고
달빛은 말갭게 가까운 물가 안개에 갇혔네.
풍경은 다르지 않으나 묵은 자취 변화였고
늘그막에 때때로 꽃다운 술자리를 꿈꾼다.

建牙重到嶺南天 十二年光逝水前
人物盡銷兵火後 江山猶媚畫角邊
灘聲暝雜長林雨 月色晴籠近渚烟
風景不殊陳跡變 白頭時夢醉芳筵

역말은 술숲을 뚫으며 가고
인가의 연기는 눈 내리는 물굽이에 차갑다.
잔치를 여니 술자리엔 봄이 가득하고
문을 나서니 달이 산을 머금었네.
이별한 뒤로 서로 안부를 물어야겠지만,
서찰 오자 홀로 한가함을 부러워하네.
봄바람 부는 남방의 더운 안개 속에
바라보니 귀밑머리가 얼룩졌구나.

駟騎穿松行 人烟冷雪灣
開筵春滿座 出戶月啣山
別後須相問 書來羨獨閑
東風蠻瘴裡 一望鬢成斑

소루(召樓)

유도(柳塗)³⁷¹⁾

370) 화각(畫角): 그림을 아로새긴 뿔 피리.

371) 유도(柳塗): 자는 유정(由正), 호는 귀반(歸盤), 문화인이다. 선조 24년(1591)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역임하였다.

강에 가득 서늘한 달과 물이 맑은 누각에
 끝없는 물결소리 객수를 자아내네.
 풀 우거진 맑은 내는 지금의 좋은 경치요
 붉은 발 그림 들보는 예전의 풍류로다.
 부상에 돋는 해는 물들인 듯 붉고
 봉래섬 안개낀 봉우리 푸른 빛이 떠오를 듯.
 시상은 괴이하게도 뻗속 깊이 맑으니
 난간에 기대 가슴 가득 가을을 헤쳐보네.

滿江涼月水明樓 無限波聲動客愁
 芳草晴川今勝槩 朱簾畫棟昔風流
 扶桑曉旭紅如染 蓬島烟巒翠欲浮
 詩思怪來清到骨 倚欄披得一襟秋

능파당에 올라[登凌波堂] 2수

허적(許禱)³⁷²⁾

평림은 막막한데 긴 강물이 돌렸고
 숲 너머 일 천 봉우리 눈썹처럼 떠올랐네.
 높은 누각 위태한 난간에 석양이 다가오고
 거친 성곽 늙은 나무에 늦은 바람 드센데,
 산과 강 첩첩이 막힌 영남 땅이라
 역로는 아득히 한강 북쪽으로 이어졌다네.
 올라와 바라보니 정녕 낙엽 지는 때인지라,
 저무는 날 쓸쓸하여 절로 수심이 생겨나네.

平林漠漠繞長流 林外千峰翠黛浮
 高閣危欄斜景逼 荒城老樹晚風遒
 山河重鎖嶺南地 驛路遙連漢北洲
 臨眺正逢搖落日 暮天蕭瑟自生愁

아스라이 높은 누각 저녁에 올라와서
 소나무 뿔뿌리에 밝은 달 뜨기 기다린다.
 하늘과 물은 맑아서 혼연히 한 빛이요

372) 허적(許禱; 1563-1640): 자는 자하(子夏), 호는 수색(水色)이다. 선조 30년(1597) 문과에 급제하고, 영천군수, 형조정랑을 역임하고 인조 6년(1628) 영사공신(寧社功臣), 양릉군(陽陵君)에 책봉되었다.

구름과 산이 찬란하여 몇 천 층이냐!
 옥통소 부는 신선의 학은 지금 어디 있는가?
 비단 버선으로 가벼운 물결³⁷³⁾ 넘어가겠네.
 밤새워 난간에 기대 잠 이루지 못하는데
 여울 소리 차갑게 울리고 이슬 꽃이 맺히네.

高樓迢遶暮來登 坐待松岑皓月升
 空水澄鮮渾一色 雲山輝映幾千層
 玉簫仙鶴今焉托 羅襪輕波此可凌
 永夜憑欄無夢寐 灘聲寒咽露華凝

영남루에서 한음 이상공의 시를 따라[嶺南樓次漢陰李相公] 2수

강 항(姜 沆)³⁷⁴⁾

바람이 더운 구름을 채어 남쪽 하늘에 바치고
 푸른 깃발 붉은 깃발이 소루 앞에 필력이네.
 중태³⁷⁵⁾의 빛나는 업적 서평후³⁷⁶⁾ 뒤를 잇고
 국사에 종사한 명성 북두칠성 곁에 빛난다.
 일 천 그루 밤나무에 고운 이슬 맺히려하고
 온 강에 자욱한 안개 물고기가 희롱하여 깨트리네.
 등왕각 중수한 날 오늘에야 돌아왔으니
 당년에 곱게 춤추던 자리를 말하지 말게.

風掣炎雲獻楚天 碧幢紅旆小樓前
 中台勲業西平後 從事聲名北斗邊
 玉露欲成千樹栗 銀鱗戲破一江烟

373) 비단 버선 가벼운 물결: 황정견(黃庭堅)의 수선화(水仙花) 시에 “능파선녀 버선에 먼지 일으키며/ 미미한 달빛에 물 위로 찰랑찰랑 건너[凌波仙子生塵襪 水上盈盈步微月]”라고 하였다. 능파당의 이름에 따라 형용한 말이다.

374) 강항(姜沆: 1567-1618): 자는 태초(太初), 호는 수은(睡隱)이다. 선조 26년(1593) 문과에 급제하고, 정유재란 때 고향인 남원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잡혀가서 그곳 승려들에게 유학을 전수하였으며, 귀국한 뒤 죄인을 자처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375) 중태(中台): 한음 이덕형이 중추부(中樞府)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376) 서평후(西平侯): 한(漢)나라의 재상 우정국(于定國)은 법과 행정의 집행이 공평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한음 이덕형 또한 당대에 이미 당파에 기울어짐이 없이 공평하다는 정평이 있었다.

重修滕閣歸今日 莫說當年艷舞筵

영남의 명승지에 풀빛이 하늘로 이어져
 팔월이 되기 전에 온갖 사물이 서늘하네.
 점필재 이름난 동산³⁷⁷⁾ 거친 들판 너머요
 침서³⁷⁸⁾의 묘한 구절 화재 나기 전이로다.
 강물은 가락국 천년의 나라로 통하고
 숲은 원문³⁷⁹⁾의 일만 군사 연기를 잠꿨다.
 낮선 손은 지금까지 온갖 곡절을 겪었는데
 흰머리에 화려한 잔치 얼마나 다행이나.

嶺南形勝草連天 雲物淒涼八月前
 佔畢名園荒野外 簽書妙句劫灰邊
 江通駕洛千年國 樹鎖轅門萬竈烟
 生客只今經百折 白頭何幸忝華筵

65

소루(召樓)

이언영(李彦英)³⁸⁰⁾

경치 좋은 명승지에 만장의 높은 누각,
 신선 같은 벗을 만나 가슴의 근심을 흔들어 씻네.
 창을 열고 일렁이는 강물에 국화주를 기울이고
 사람은 허공에 기대어 푸른 강물을 굽어본다.
 열두 난간에 신선의 경지는 아득하고
 삼천 세계에는 흰 구름이 떠오르는데
 박릉의 소원을 내 일찍이 이루었기에
 흰 머리로 달 지는 가을에 다시 노니노라.

形勝名區萬丈樓 欣逢仙侶蕩胸愁
 窓開滉漾傾黃酒 人倚虛無俯碧流

377) 점필재 이름난 동산: 영남루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부북면 제대리(堤大里)는 점필재선생 김중직이 살았던 마을이다.

378) 침서(簽書): 고려 시대 중추부 소속의 관원. 여기서는 아마도 우왕 때 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를 역임하였던 하륜(河崐; 1347-1416)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륜의 시에 “誰構岑樓上接天 壁間題詠盡盧前”이라 한 구절이 있으니 임진란에 화재로 입기 전에 영남루에는 전대의 뛰어난 많은 시가 현판으로 걸려 있었던 것이다.

379) 원문(轅門): 군사가 주둔하는 병영(兵營)의 문.

380) 이언영(李彦英, 1568-1630): 자는 군현(君顯), 호는 완정(浣亭), 벽진인이다. 선조 36년(1603)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밀양부사를 역임하였다.

十二欄干玄圃迥 三千世界白雲浮
博陵○願吾曾遂 皓首重遊缺月秋

능파당(凌波堂)

안 숙(安 璫)³⁸¹⁾

머리 위에 별들은 손에 잡힐 듯한데
은하수를 기울여서 누각 앞에 부었네.
갈매기 나는 경계는 맑은 물 속이요
노을 속에 따오기 길은 어두운 물 가이로다.
누대는 미처 새롭게 단장하지 못했으나
산천은 아직도 옛 풍경을 띠었네.
게으른 나는 아직도 성남에 적이 있어
관리 되어 주인의 자리 더럽힘이 부끄럽네.

頭上星辰尺五天 銀河橫注入樓前
沙鷗境界澄波裡 霞鷺程途暝水邊
垓觀未修新制度 山川猶帶舊風烟
疎慵係在城南籍 愧作王人忝主筵

영남루에서 앞의 운을 따라[嶺南樓次前韻]

안 숙(安 璫)

서리는 가을 하늘 가득, 달빛은 산에 가득
누대는 온통 수정처럼 차갑네.
뜰 앞의 나무에는 밤들어 바람이 다시 이니
물가에 깃든 새는 한가하지만 앓구나.

霜滿秋空月滿山 亭臺渾似水晶寒
庭樹夜來風更起 水邊棲鳥不全閒

영남루 새로 지은 누각을 읊다[題嶺南新樓] 3수

381) 안숙(安璫; 1572-1624): 자는 대이(待而), 호는 낙원(樂園), 광주인이다.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광해군 원년(1609)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 도사와 영천군수를 역임하였다.

영남루의 빼어남은 남방 제일의 누각이라 일컬어진다. 옛날에 당이 있었는데 동편은 능파당이라 하고 서편은 침류각이라 하였다. 모두 임진년의 병란에 불타고 한줌의 폐허가 되었다. 지금의 방어사 기효복³⁸³⁾ 공이 밀양 부사로 부임한 지 3년 만에 정사가 이루어지고 여가가 많아서 이에 누각 동편의 옛 터에 그 형태와 제도를 넓혀 새로이 누각 하나를 건립하였는데, 그 장소로는 당이 좋지만 그 경치는 누각이 좋다. 내가 동래부사로 있다가 병으로 사임하여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이 나를 맞이하여 누각에 올라가 관람하고 나에게 기문의 글을 청하였다. 내가 보건대, 누각이 불에 탄지 오늘에 이르도록 얼마만한 세월이 흐르고 또 얼마만한 수령이 지나갔을까 마는, 아차 하는 순간에 눈앞에 우뚝 누각이 솟구치게 하면서도 기왓장 하나 채목 하나도 백성들의 재물을 허비하지 않게 한 것은 공의 현명함이다. 이어찌 밀양이 좋은 원님을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밀양은 이미 공이 부임함으로써 누각을 얻었고, 공은 또 나를 만나 기문을 위촉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좋은 만남이라 하겠다. 내 비록 공에게는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 되겠지만, 누각이 완성되자 내가 먼저 올랐으니 나로서는 또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나는 글재주가 없고 가는 길에 여가도 없는데다가, 더구나 누각이 영남에서는 제일이라 기문을 어찌 감히 짓겠는가? 그러므로 근체시 세 수를 엮어서 그 때를 만남을 대략 서술할 뿐이니, 뒤에 오는 군자들은 시로써 보지 말기를 바란다. 때는 만력 37년, 기유년 가을 7월 상순이니, 우리 성상께서 즉위하신 원년이다. [嶺南樓之勝 號爲南中第一樓。舊有堂 東曰凌波 西曰枕流 俱燬于壬辰之兵 鞠爲丘墟。今防禦使奇令公孝福 刺密三年 政成多暇 乃就樓之東古址 恢其形制 新建一閣 地則堂而勝則樓也。余自蓬山辭病北歸 公邀余登覽 請爲文而記。余觀樓燬迄今日 經幾何歲月 閱幾何守宰 咄嗟之間 突兀眼前 一瓦一木 費不及民 公之賢也。豈非密之遭歟。密旣得公而閣 公又得余而屬以記 其亦遭也。余雖不能爲之遭於公 閣始成而余先登焉。其在余 抑不可謂之不遭也。然余不文 行又不暇 況樓爲嶺南第一 記則何敢。故綴近體三首 略敘其遭云爾。後來君子 幸勿以詩觀。時萬曆三十七稔 歲在己酉秋七月上澣 乃我聖上卽位之元年也。]

만력의 신룡이 날아오른³⁸⁴⁾ 첫 가을에

382)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선조 32년(1599) 문과에 급제하고, 광해군 때 강화부윤이 되었고, 인조반정 때 예조참판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정묘호란 이후에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형조판서 겸 홍문관 제학이 되었다가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다녀온 뒤 죽었다.

383) 기효복(奇孝福): 선조 정미년(1607) 12월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광해군 경술년(1610) 5월까지 재임하였다.

384) 만력(萬曆)의 신룡(神龍)이: 만력 41년(1608) 2월에 선조(宣祖)가 승하하고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였다.

밀성에 영남루를 다시 건립하였네.
 안개 노을 아스라한 것은 봉래섬이요
 풀과 나무 희미한 곳은 앵무주로다.
 시대 따라 사업이 새로워짐은 태평시대 운과 관계되고
 땅이 사람으로 인해 훌륭하게 됨은 어진 원님을 만나서로다.
 장산³⁸⁵ 땅의 병든 늙은이는 최호³⁸⁶가 아닌데도
 취한 붓으로 가장 첫머리에 시를 지었네.

萬曆龍飛第一秋 密城重起嶺南樓
 烟霞縹緲蓬萊島 草樹依稀鸚鵡洲
 時與事新關泰運 地由人勝得賢侯
 菴山病叟非崔顥 醉墨還題最上頭

성 머리 새 누각은 구름 위로 치솟을 듯,
 푸른 나무 맑은 내에 석양이 아름답네.
 백 리 고을 민요는 어진 원님 칭송하니
 태평시대 공훈 이룬 늙은 장군이로다.
 지휘하는 능사는 심장³⁸⁷을 넓힘이요,
 웅변³⁸⁸의 방어는 두문³⁸⁹에 의지하네.
 이로부터 난간에 기대 몇 천년이 갈지,
 강물 흘러 길이 함께 좋은 정치 전하리라.

城頭新閣勢凌雲 碧樹晴川媚夕曛
 百里謳謠賢刺史 太平功業老將軍
 指揮能事恢心匠 防禦雄藩倚斗文
 自此憑欄幾千載 江流長共政成聞

웅천의 높은 누각 한 나라에 웅장한데

385) 장산(菴山): 동래(東萊)의 옛 이름이다. 이 때 이안눌은 동래부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386) 최호(崔顥): 당나라의 시인. '황학루에 올라[登黃鶴樓]'라는 다음 시로 유명하다.
 “옛 사람은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나고/ 이곳엔 황학루만 공연히 남았네/ 황학은 한 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흰 구름만 천년토록 팬스레 유유하구나/ 개인 내는 한양의 나무숲에 또렷하고/ 봄 풀은 앵무주에 무성한데/ 해 저문 고장 이 곳이 어디냐?/ 강가의 자옥한 물결 사람을 슬프게 하네[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春草萋萋鸚鵡洲 日暮鄉關何處是 烟波江上使人愁]”

387) 심장(心匠): 마음 속에서 구상한 좋은 생각.

388) 웅변(雄藩): 규모가 큰 지방을 일컫는 말. 신광한(申光漢)의 영남루기에 “밀양은 큰 고을로서 영남지방에서 걸출하다[密陽號爲鉅府 雄于嶺南]”이라 하였다.

389) 두문(斗文): 칼 집 위에 구불구불하게 별자리 모양으로 새긴 무늬. 칼을 가리킨다.

친구 건물 우뚝하니 뉘가 짝이 되랴?
 바닷가 못 산들은 북악과 이어지고
 영남의 여러 물은 남강에 모여드네.
 들 다리에 구름 어둡자 비가 헌함을 울리고
 모래 물가에 달이 높아 바람이 창에 가득한데,
 이렇게 하느님이 나를 종이 대접하여,
 흥은 일어나는데 어디서 큰 붓을³⁹⁰⁾ 얻어오랴!

凝川高樓雄一邦 新舊崢嶸誰與雙
 海上衆山連北嶽 嶺中諸水聚南江
 野橋雲暗雨鳴檻 沙渚月高風滿窓
 可是天公偏餉我 興來那得筆如杠

영남루 옛 시운을 따라[次嶺南樓舊韻] 3수

이안눌

예전 영남루에는 하늘 천(天) 자의 운을 압운한 시판이 있어서, 고려 말 이래 지금까지 화답한 자가 200여 편에 이르는데, 도칠곡³⁹¹⁾과 이도은 등의 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는 이를 사모하여 스스로의 재능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속초³⁹²⁾의 비난을 무릅쓰고 뒤를 따를까 한다.[樓舊有詩板 狎天字韻 自麗季及我國朝 和者至二百餘篇 而都七谷李陶隱諸公之作 膾炙人口 余竊慕之 輒不自揆 敢蹈續貂之譏云.]

중흥의 시대에 화려한 누각을 증건하니
 새로운 시 그 누가 고려시인을 능가할까?
 가락의 여러 산은 모두 하계에 있고
 혁거세 옛 나라는 이곳을 변방으로 삼았네.
 바람 받은 돛배 아득히 개인 포구로 돌아가고
 섬의 나무 창창하게 어둔 연기로 덮이는데
 천고의 명승지에 낙성을 하는 날
 흰머리에 제주도 없이 자리 차지함이 부끄럽네.

華樓重建中興天 新詠誰凌麗代前
 駕洛諸山皆在下 赫居故國此爲邊

390) 큰 붓을: 장대만큼 큰 붓[筆如杠]. 훌륭한 문장을 짓는 큰 솜씨를 일컫는 말이다.

391) 도칠곡(都七谷); 고려 말 우왕 때 찬성사를 지낸 도길부(都吉敷)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분명하지 않다.

392) 속초(續貂): 귀한 담비 꼬리에 천한 개꼬리를 잇는다는 뜻으로, 훌륭한 물건에 하찮은 것을 덧붙이는 잘못을 일컫는 말이다.

風帆漠漠歸晴浦 島樹蒼蒼入暝烟
千古名區落成日 白頭才盡愧當筵

산뜻한 기왓골 천 척 하늘 위에 솟아
삼포의 동쪽 언덕 무봉산³⁹³ 앞이로다.
강 건너 인가는 죽림 바깥으로 보이고
모래밭 고기잡이배는 갈대 숲가에 있네.
넷물이 맑아 최호의 시 가운데 나무숲이요,
산이 아름다워 등왕각 위의 풍치로다.
사흘 동안 난간에 기대 돌아가지 못함에
사또가 화사한 잔치를 거둬 열었네.

飛薨千尺出層³⁹⁴天 鉞浦東涯鳳岵前
隔岸人家竹林外 傍沙漁艇荻蕨邊
川晴崔顥詩中樹 山紫滕王閣上烟
三日倚欄歸不得 使君重敞一華筵

칠월 칠석 날 가을비 오는 날씨에
오동나무 잎 하나 뜰 앞에 날리는구나.
그럼 누각 아래로는 역정³⁹⁵ 천리 길이요
더운 바닷가 벼슬살이에 삼 년 동안 매였네.
남북으로 가는 사람 물가에서 막히지만
고금에 지난 일은 바람 속의 연기로다.
아득한 태산에는 어느 때 닿을꼬?
꿈속에 때때옷 입고 수연³⁹⁶에 달려가네.

七月七日秋雨天 梧桐一葉飛庭前
驛程千里畫樓底 羈官三年炎海邊
南北征人水上梗 古今往事風中烟
泰山目極幾時到 夢着萊衣趨壽筵

영남루에서 다시 읍시를 짓다[嶺南樓重題長律]

이안눌

393) 무봉산(舞鳳山): 영남루가 서 있는 언덕 동편에 무봉암(舞鳳庵)이 있다.

394) 문집과 密州邑誌에는 出層天이 凸蒼天으로 되어 있다.

395) 역정(驛程): 역과 역 사이의 거리. 노정(路程).

396) 수연(壽筵)에: 문집의 주에 “7월 9일은 곧 나의 어머니 생신이기 때문에 이른 말이 다[七月九日乃余慈氏壽辰故云]”라고 하였다.

해질 무렵에 와서 성 위의 누대에 올랐더니
 바다 문에 하늘 넓어 새가 근심스레 난다.
 산은 무협 같아서 구름을 밀고 솟았고
 내는 파강³⁹⁷처럼 성곽을 돌아 흐르는데
 강 언덕 백사장에 소나기 지나가니
 온 들판 차가운 나무에 푸른 안개 떠오르네
 밤 깊어 외론 달이 멀리 물가에 오르면
 바람과 이슬은 가을 갈대밭에 처량하겠지.

落日來登城上樓 海門天闊鳥飛愁
 山如巫峽排雲出 川作巴江遶郭流
 兩岸平沙白雨過 一郊寒樹碧烟浮
 夜深孤月上遙渚 風露淒淒蘆荻秋

영남루에서 손오한과 더불어 창수하다[嶺南樓與孫 聲漢唱酬]

박수춘(朴壽春)³⁹⁸

임진년에 누각이 모두 불타고 기해년에 부사 이영이 초가집을 엮었다.[壬
 辰樓閣蕩燼 己亥府使李英構草屋]

소루³⁹⁹는 일찍이 교남⁴⁰⁰에 떨쳤는데
 굵어진 언덕 앞에 초가 새로 지었네.
 병란을 겪은 뒤로 강산이 참담하여
 눈앞에 보이느니 쓸쓸한 풍물이로다.
 황량한 성엔 다만 용두산 달이 비치고
 고목 나무는 공연히 봉수⁴⁰¹의 연기 머금었네.
 옛날 추억에 정영위⁴⁰²의 한을 못 견디나니

397) 파강(巴江): 파(巴) 자 모양으로 굽이치는 강. 본디 양자강 종류의 파(巴) 지방을 흐르는 파자강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영남루 앞의 웅천이 파자 모양으로 흐르기에 이른 말이다.

398) 박수춘(朴壽春; 1572-1652): 자는 경로(景老), 호는 국담(菊潭), 밀양인이다. 오한 손 기양과 한강 선생 문하에 수학하였다.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 전심하여 현종 임자(1672)에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의 증직을 받았으며, 풍각의 남강서원(南岡書院)에 향사되었다.

399) 소루(召樓): 영남루 서편에 있는 조그만 누각 이름이 소루이다.

400) 교남(嶠南): 조령 이남의 영남 지방을 일컫는 말이다.

401) 봉수(鳳岫): 무봉산(舞鳳山)의 옛부리.

누각에 올라 어찌 차마 화사한 잔치를 열리.

召樓曾擅嶠南天 草舍新成斷壟前
慘慘江山兵燹後 蕭條風物眼窮邊
荒城但照龍頭月 古木空含鳳岵烟
憶昔不堪丁鶴恨 登臨那忍徹華筵

70

영남루 자리에서 동악 이안눌의 낙성 시운을 따라 [南樓席上次李東岳安訥落成韻]

박수춘(朴壽春)

무신년에 부사 기효복이 증창하고, 오한 손기양이 상량문을 지었다. 이듬해 기유년 가을 7월 낙성하는 날 동악이 동래에서 병으로 사직하고 북쪽으로 돌아가다가 이 누각에 올라 시를 지어 주고받았다. [戊申府使奇孝福重創整漢作上樑文 翌年己酉秋七月落成日 東岳自蓬山辭病北歸 仍登斯樓 有詩唱酬]

금년은 기유⁴⁰³년 칠월이라 가을에
함지⁴⁰⁴의 상서로운 해가 용루⁴⁰⁵를 비추었네.
언제나 초가를 지은 옛터가 안타깝더니
문득 풍헌⁴⁰⁶이 강변 멀리 압도함을 보았네.
태수를 만나 증견함을 다투어 기뻐하고
방백⁴⁰⁷이 오셔서 낙성하니 얼마나 다행이나.
천고에 없는 좋은 일임을 알진대

402) 정령위(丁令威): 요동 사람으로 신선술을 배워 학이 되었다는 정령위(丁令威)를 가리킨다. 《후수신기(後搜神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정령위가 영허산에서 도를 닦고서 학으로 변신하여 고향의 성문 위에 날아와 앉으려는데, 마침 소년들이 활을 들어 쏘려고 하였다. 학은 이에 훌훌 날면서 말하기를, “새야 새야 정령위/ 집나간지 천년 만에 지금에사 돌아오니/ 성곽은 여전하나 사람은 달라졌네/ 어찌하여 신선술을 배우지 아니하고/ 무덤만 충충할까?” 하고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403) 기유(己酉): 본문의 황계(黃鷄)는 간지로 기유년(1609)이다.

404) 함지(咸池): 해가 지는 서쪽 끝에 있다는 바다이다. 이 바다는 땅 밑으로 동쪽 바다와 통해 있는데, 해가 서쪽으로 함지에 들어가면 다시 동쪽바다 끝에 있는 부상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떠오른다는 전설이 있다.

405) 용루(龍樓): 제왕의 궁궐처럼 화려한 누각.

406) 풍헌(風軒): 바람을 쉴 수 있도록 마련한 대청 마루.

407) 방백(方伯): 지방 장관. 봉건 제도에 각 지방의 제후를 통솔하기 위하여 각 방면마다 방백을 임명하였다. 조선시대 각 지방 군현의 수령을 제후에 견주고 각 도의 관찰사를 방백에 견주었다.

문장의 선두를 사양하지 말라.

是歲黃鷄七月秋 咸池瑞日照龍樓
常嗟草屋開遺址 忽見風軒壓遠洲
重創爭欣逢太守 落成何幸遇君侯
從知勝事超千古 莫把文章讓一頭

영남루에서 시판의 운을 따라 지어 함께 노닌 여 러 사람들에게 보이다.[嶺南樓次板上韻示同遊諸子]

조임도(趙任道)408)

높다란 누각 텅빈 하늘에 아스라한데
만상이 무수하게 한 눈 앞에 펼쳐졌네.
들이 넓고 산이 멀어 바람도 쉬지 않지만
솔개 날고 고기 뛰는 이치도 가이없구나.
마음 비어 명경지수는 저녁 달을 담갔고
흥이 들자 긴 숲은 저녁 연기 띠었네.
좋은 곳에서 이름난 선비 또 만나
작은 배에 술두루미 싣고 다시 잔치 벌인다.

危樓縹緲沆寥天 萬象森羅一望前
野闊山遙風未歇 鳶飛魚躍理無邊
心虛止水涵宵月 興入長林帶暮煙
佳處又逢名勝士 小船樽酒更張筵

71

소루(召樓)

신득연(申得淵)409)

조령 이남에서 으뜸가는 누각이라
평생토록 꿈꾸다가 이제 와 노니네.
태백에서 갈라진 산은 하늘에 이어 일어섰고
바다에 모이는 강물 땅을 꿰고 흐르네.

408) 조임도(趙任道; 1585-1664); 자는 덕남(德南), 호는 간송(澗松), 함안인(咸安人)이다.

409) 신득연(申得淵, 1585-?): 자는 양오(養吾), 호는 현포(玄圃), 고령인이다. 광해군 2년 (1610)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신선 사는 곳이 천상에만 있더냐?
 인간 세상에도 영주산이 있는 것을.
 동국에는 최호처럼 시 짓는 이가 없어
 펜스레 황학루만 만고에 이름 독차지했네.

維嶺之南第一樓 平生夢想此來遊
 山分太白連天起 水合滄溟絕地流
 豈必仙居本上界 祇應人世亦瀛州
 題詩東國無崔顥 黃鶴空教擅萬秋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고[嶺南樓下汎舟]

김응조(金應祖)410)

맑은 밤 긴 호수에 달빛이 좋은데
 목란주 노 흔들어 파도를 일으킨다.
 누각 머리 화각은 소리소리 목이 메는데
 얼마나 많은 현인 호걸 이 땅을 지났는고?

淸夜長湖月色多 蘭槳搖蕩水揚波
 樓頭畫角聲聲咽 幾箇賢豪此地過

영남루 운을 따라[次嶺南樓韻]

김응조

우뚝 높은 누각 반공중에 솟았는데
 청산은 뒤에 있고 푸른 강 앞에 있구나.
 몇 줄 기러기는 먼 하늘 밖에 떨어지고
 수많은 나무숲은 큰 들 곁에 둘렀다.
 갈대 물가 해오라기 찬 비 맞아 조는데
 어촌 사람 흩어지자 어스름이 생겨난다.
 맑은 놀이 난만하게 신선세계 구경하고
 다시 요염한 여인으로 춤을 추게 하는구나.

突兀高樓聳半天 青山在後碧江前

410) 김응조(金應祖; 1587-1667): 자는 효징(孝徵), 호는 학사(鶴沙)이다. 인조 즉위년(1623)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간, 한성부 우윤을 역임하였다.

數行鴈落長天外 萬樹林回大野邊
蘆渚鷺眠寒帶雨 漁村人散暝生烟
清遊爛熳酬仙賞 更遣妖姬蹋舞筵

영남루

조 빈(趙 贇)⁴¹¹⁾

남방의 으뜸가는 누각에 홀로 오르니
나의 백년 근심을 활짝 녹여주는구나.
봉우리는 신기루를 머금어 푸르고 붉게 섰고
물은 뱀을 풀어놓은 듯 앞뒤로 흘러간다.
고금에 하염없는 맑은 경치는 있고
건곤이 커다란데 이 몸이 떠다니네.
시를 짓고 강호에 웃으며 노는 날이
하늘 높아지고 백로⁴¹²⁾ 내리는 가을일세.

獨上南州第一樓 曠然銷我百年愁
峯含海蜃青紅立 水救山蛇首尾流
今古悠悠清景在 乾坤納納此身浮
詩成笑傲滄洲日 玉宇初高白露秋

소루(召樓)

이민구(李敏求)⁴¹³⁾

이런 강산 있기에 이런 누각 있나니
몇 사람이나 와서 얼마나 뱃놀이를 즐겼을까?
하늘은 동쪽 고개에 삼경의 달을 띄우고
강물은 남쪽 바다로 만고에 흘러든다.
곧바로 바람 타고 하염없이 다니면서

411) 조빈(趙贇, 1587-?): 자는 계언(季彦), 호는 은성(隱星), 한양인이다. 인조 2년(1624)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평안도와 충청도 도사를 역임하였다.

412) 백로(白露): 24절기의 하나로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의 절기. 양력 9월 8일 무렵이다.

413) 이민구(李敏求, 1589-1670):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洲), 전주인이다. 광해군 4년(1612) 증광별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옥당을 거쳐 대사간,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아득히 흥을 따라 창주로 가고싶네.
 해마다 객지에서 높은 누각에 기대는 한은,
 갈대에 맑은 서리 또 한 가을이 가네.

有此江山有此樓 幾人來辦幾船遊
 天浮東嶺三更月 水接南溟萬古流
 直欲御風跨汗漫 眇然乘興到滄洲
 年年客裡憑危恨 蘆葦清霜又一秋

소루(召樓)

윤일민(尹逸民)

하염없이 북쪽을 보며 홀로 누각에 기대니
 여울 소리엔 고금의 근심이 다함 없구나.
 밀성은 명승지로 짝이 없는 곳
 동악의 재능은 가장 으뜸일세.
 들의 나무는 몇 년 만에 푸르게 우거졌나?
 물가의 새는 종일토록 떴다가 가라앉네.
 말을 달려 멀리 봉래산으로 떠나가니
 계절도 바쁘기만 한过客의 가을이로다.

北望悠悠獨倚樓 灘聲不盡古今愁
 密城形勝無雙地 東嶽才華第一流
 野樹幾年成莽蒼 渚禽終日任沈浮
 驅馳遠向蓬山去 節序忽忽過客秋

소루(召樓)

곽천구(郭天衢)⁴¹⁴⁾

관하의 명승지인 영남루는
 보이는 풍경이 만고의 시름이로다.
 용퇴성 성 가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 겪었나?
 봉황대 아래로는 긴 강물 목이 메네.
 태평시절 옛 성터엔 산 구름이 끊어지고

414) 곽천구(郭天衢, 1589-?): 자는 사형(士亨), 호는 구봉(九峰), 현풍인이다. 광해군 8년(1616) 증광별시에 급제하여 옥당을 거쳐 군수를 역임하였다.

전쟁의 남은 기운인지 바다 안개 떠오르네.
 변방은 이제부터 의지할 사람 있나니
 재능 갖춘 목민관이 다시 국경 방비하네.

關河形勝嶺南樓 一望風烟萬古愁
 龍堆城邊經幾戰 鳳凰臺下咽長流
 太平遺址山雲斷 兵火餘氛海靄浮
 屏翰從今知有倚 全才司牧更防秋

영남루

이 침(李 沈)⁴¹⁵⁾

푸른 산 머리에 열두 난간 누각 있고
 다시금 맑은 강이 넘실넘실 흐른다.
 이곳은 곧 남아가 행락하는 곳,
 석양에 걸상을 내려 다시 머무르노라.

闌干十二碧山頭 更有澄江袞袞流
 此是男兒行樂處 斜陽下榻重淹留

해 저물자 고깃배는 나루 머리에 비끼고
 누각 가운데 자는 객은 모두 풍류객.
 삼경의 달이 떠오르도록 깊이 취하였으니
 내일은 술이 깨어 어느 곳에 머물까?

日暮漁舟橫渡頭 樓中宿客盡風流
 醉深直到三更月 明日酒醒何處留

영남루 운을 따라[次嶺南樓韻]

윤순지(尹順之)⁴¹⁶⁾

강가의 외로운 성, 물밑의 하늘에 비치고
 한 시절 밝은 경개 산 앞에 어지럽다.

415) 이침(李沈, 1590-?): 자는 진숙(晉叔), 함평인이다. 인조 13년(1635) 증광별시에 급제하여 해주목사를 역임하였다.

416) 윤순지(尹順之; 1591-1666): 자는 낙천(樂天), 호는 행명(萍溟), 해평인(海平人)이다. 광해군 12년(1620)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과 옥당에 출입하였으며, 평안도관찰사였던 아버지 환(暄)이 정묘호란의 방어 책임을 문책받고 사사되자 향리로 물러나 있다가, 병자호란 뒤에 다시 출사하여 일본통신사로 다녀오고, 대제학, 좌찬성에 이르렀다.

누각은 멀리 빈 허공을 누른 가운데
 학 울음 가느다랗게 아스라이 들리고,
 장사꾼은 모래밭의 달을 밟고 돌아오는데
 기이한 새는 돌 연못의 안개 덮고 가을을 잔다.
 맑은 모래 푸른 풀이 그림 같아 보이니
 곤륜산 대모⁴¹⁷⁾ 잔치보다 훨씬 낫구나.

江上孤城水底天 一時明概亂峯前
 樓居迥壓空虛裏 笙鶴微聆縹緲邊
 賈客夜歸沙渚月 怪禽秋宿石塘煙
 晴沙碧草看如畫 絕勝崑岳玳瑁筵

73

소루(召樓)

최 옥(崔 煜)⁴¹⁸⁾

멀리 노닐다 이제 영남루에 올라서
 평생의 만 섬 근심을 모조리 녹였노라.
 인간사 십년 세월 달리는 말과 같고
 팔월의 떠도는 몸은 강물 소리 듣는다.
 삼 천의 붉은 단장은 처음 있는 일이요.
 열두 난간 단청에 지축이 떠오르네.
 내일 아침 소매 떨치고 그리하여 배 떠나면
 작은 배 행색이 맑은 가을에 속할 테지.

遠遊今上嶺南樓 銷盡平生萬斛愁
 人事十年如走馬 萍蹤八月聽江流
 三千紅粉天荒破 十二丹青地軸浮
 拂袖明朝因解纜 小舟行色屬清秋

도은의 영남루 운을 따라 밀양의 사군 김효징에게 주다[次陶隱嶺南樓韻 贈密陽金使君孝徵]

417) 곤륜산 대모 잔치[崑岳玳瑁筵]: 곤륜산은 전설상의 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산다는 곳이다. 대모는 거북과 비슷한 갑각류 짐승인 대모(玳瑁)의 황갈색 껍질을 말한다. 신선이 사는 곳인 듯 화려하게 꾸며 놓은 잔치 자리를 일컫는 말이다.

418) 최옥(崔煜, 1594-?): 자는 여명(汝明), 호는 내산(來山), 수원인이다. 인조 7년(1629)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밀양부사를 역임하였다.

건물을 새로 지어 하늘 가운데 빛나니
 물색은 도리어 다시 이전보다 나으리라.
 천고의 강과 산은 그 누가 주인인가?
 한 구역 바람과 달은 절로 가이없구나.
 산뜻한 기왓골은 긴 숲 비에 살짝 젖고
 굽은 난간엔 늘어선 산 안개가 들어오네.
 어떻게 하면 두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봄날의 화사한 잔치에 올라 마음껏 취할꼬?

重新棟宇耀中天 物色還應更勝前
 千古江山誰是主 一區風月自無邊
 飛甍細濕長林雨 曲檻輕侵列岵烟
 兩腋何由生羽翰 趁春登耽醉華筵

74

소루(召樓)

이기조(李基祚)420)

이 누각에서 이제 자경의 누각을 보나니
 따듯한 날에 올라 늦가을 바람을 쐬다.
 남방의 들녘 어지러운 산은 먼 포구에 어른거리고
 아로새긴 기와 흰 성가퀴는 맑은 강물에 비치는데,
 옥통소 소리는 구름 사이에서 내려오는 듯하고
 고리옥 같은 달은 난간 밖에서 등실 떠오르네.
 흰 머리에 멀리 천리의 나그네 되어
 누런 국화꽃 또 다시 한 해 가을을 보내네.

茲樓今是見京樓 暖日登臨散九秋
 平楚亂山迷極浦 雕甍粉堞映澄流
 玉簫悅聽雲間下 璧月還從檻外浮
 白首遠爲千里客 黃花又送一年秋

419) 이경석(李景奭; 1595-1671):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 시호는 문충(文忠), 전주인으로 종실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의 6대손이다. 인조 원년(1623)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 영돈녕부사에 이르렀다.

420) 이기조(李基祚; 1595-1653): 자는 자선(子善), 호는 호암(浩庵), 한산인이다. 광해군 7년(1615) 알성시에 급제하고 도승지를 거쳐 호조, 예조, 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영남루 2수

임담(林潭)⁴²¹⁾

동남 지방 곳곳의 누각 두루 다녔으나
이곳에 올라 비로소 온갖 근심 없어지네.
연꽃처럼 빼어난 것은 늘어선 못 산이요
파자(巴字)로 감도나니 한 강물 흐름일세.
맑은 밤에 은 비늘은 등불에 아울러 모이고
황혼의 채색 배는 달과 함께 떴구나.
어렴풋 허공으로 서늘한 바람 타고 가니
다리 아래 찬 기운 일어 만리 하늘이 가을이네.

歷遍東南處處樓 登茲始覺百無愁
蓮花秀出群峰列 巴字縈迴一水流
清夜銀鱗燈并集 黃昏彩鷁月同浮
憑虛悅御涼風去 脚底寒生萬里秋

영남 하늘에 높은 누각을 다시 일으키니
풍경은 만력⁴²²⁾ 이전처럼 여전하구나.
북극성 별자리는 현함 바깥에 걸렸고
봉래산 가는 길은 물 구름 가에 이어졌네.
긴 숲의 낙조에 모래 언덕이 희미하고
먼 맷부리 날리는 노을 들 연기와 섞인다.
조물주는 백년 일을 다 감추지 못하는데
도리어 태평시절 잔치자리 생각나네.

高樓重起嶺南天 風景依然萬曆前
紫極星懸欄檻外 蓬山路接水雲邊
長林落照迷沙岸 遠岵飛霞雜野烟
造物百年藏不盡 感懷還憶太平筵

밀양 영남루[密陽嶺南樓]

421) 임담(林潭; 1596-1652): 시호는 충익(忠翼), 나주인(羅州人)이다. 인조 13년(1635)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인조 임오년(1642)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으며, 도승지,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422) 만력(萬曆): 명나라 신종(神宗; 1573-1619재위)의 연호. 만력 임진년의 왜란에 영남루가 불타기에 이른 말이다.

열 길 푸른 병풍 파란 물굽이 굽어보고
 높은 누각 물과 구름 사이로 날아 나온다.
 요충지의 관로라 성과 못이 장하고
 방어사의 영문⁴²⁴⁾이라 세월이 한가하다.
 토산물은 연과 진의 일천 그루 밤나무요
 하늘은 동남으로 이어져 일만 겹의 산이로다.
 늦가을에 먼 길의 나그네가 올라온 곳에
 술잔 잡고 한바탕 웃은들 무엇이 해로우랴.

十丈蒼屏俯碧灣 高樓飛出水雲間
 要衝官路城池壯 防禦營門日月閒
 地產燕秦千樹栗 天連吳楚萬重山
 窮秋遠客登臨處 把酒何妨一破顏

영남루에서 시판의 운에 따라[嶺南樓次板上韻]

김홍욱

남방에 와서 이름난 누각 다 올라 보았으나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나그네 시름 떨어지네.
 성곽은 아득하게 푸른 절벽에 임하였고
 주렴 발은 저녁에 큰 강 흐름을 눌렀다.
 공중에 가득한 바람과 이슬 가슴이 상쾌하고
 그림자 엮어진 은하수에 세계가 등실 떴네.
 밤 세워 여울소리 잠자리에 들려오니
 오경의 고향 꿈은 가을에 맞지 않네.

南來登盡幾名樓 到此方知減客愁
 城郭迥臨青壁斷 簾旌夕壓大江流
 滿空風露胸襟爽 倒影星河世界浮
 永夜灘聲來枕席 五更鄉夢不宜秋

423) 김홍욱(金弘郁; 1602-1654):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 시호는 문정(文貞), 경주인이다. 인조 13년(1635)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효종 때 충청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424) 영문(營門): 군사가 주둔하는 병영.

섬아가 지은 밀양도의 운에 따라[次暹兒題密陽圖韻]

신익전(申翊全)⁴²⁵⁾

한 고을 백여 리 명승지를
누가 장지⁴²⁶⁾ 하나에다 그려 놓았나.
누른 송아지 노는 들에 풀밭은 길고
흰 갈매기 내리던 모래톱을 물이 덮었네.
밤나무 뻗뻗하게 들을 덮었고
성곽 가운데 상쾌하게 누각 솟았네.
문을 나서지 않아도 가슴에 삼키니
손으로 어루만지며 근심 죽히 풀겠네.

勝地百餘里 誰描一障留
草長黃犢野 波沒白鷗洲
栗樹森平楚 城陲聳快樓
胸吞不出戶 手撫足寬愁

영남루

임의백(任義伯)⁴²⁷⁾

은빛 촛불 붉은 난간 밤은 깊어가는데
앉았더니 바람과 이슬 옷깃에 가득하다.
맑은 통소 한 곡조에 찬 강물 목이 메고
흐린 달빛 창창하게 고목 숲을 비춘다.

銀燭朱欄夜向深 坐來風露滿衣襟
清簫一曲寒流咽 微月蒼蒼映古林

425) 신익전(申翊全; 1605-1660): 자는 여만(汝萬), 호는 동강(東江), 평山人(平山人)이다. 영의정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아들로 인조 6년(1628) 학행으로 천거되었고 병자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도승지에 이르렀다.

426) 장지[障子]: 칸막이. 여기서는 영남루 기둥 사이로 바라보이는 사방의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이르는 말이다.

427) 임의백(任義伯; 1605-1667): 자는 계방(季方), 호는 금시당(今是堂), 풍천인(豐川人)이다. 인조 27년(1649)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효종 때 동래부사를 거쳐 효종 정유년(1657)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6세손 익상(翼常)이 만든 시판이 영남루에 걸려 있다. 그 내력은 뒤에 나오는 익상의 시서(詩序)를 참조할 것.

영남루

조 형(趙 珩)⁴²⁸⁾

이름난 명승지라 이 누각을 말하기에
지친 나그네 올라와 근심을 씻으려네.
먼 뱃부리 병풍 되어 구름 가에 솟았고
긴 내는 들을 안고 난간 앞을 흐른다.
손으로 별을 만질 듯 하늘이 가깝고
시야가 동남으로 열려 땅의 형세 떠오르네.
굽은 난간에 옮겨 기대니 정신이 상쾌하여
계절마저 도리어 봄 가을을 잃어버릴 듯.

名區形勝說茲樓 倦客登臨爲滌愁
遠岵作屏雲際聳 長川抱野檻前流
手摩星斗天文近 眼豁東南地勢浮
徙倚曲欄精魄爽 四時還恐失春秋

소루(召樓)

민 희(閔 熙)⁴²⁹⁾

능파당에 하루 묵고 누각에서 내려가려고
현산에서 돌아보니 고향 시름이로다.
길 채비 철저해도 몸은 겹돌고
고향생각 자주 나고 대화성은 흐르기 시작하네.
비가 오려함에 풍경을 좋게 하고
구름 그늘에 달빛을 띄우지 아니하네.
발 너머 몰래 지절대는 노래를 들으며
큰 풍년 들 기쁜 기색을 먼저 차지하였네.

一宿凌波擬下樓 峴山回首故鄉愁
行裝到底身如寄 歸去惟煩火始流
雨意解教風色好 雲陰不放月華浮

428) 조형(趙珩; 1606-1679): 자는 군헌(君獻), 호는 취병(翠屏), 시호는 충정(忠貞), 풍양인(豐壤人)이다. 인조 8년(1630)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효종 5년(1655) 대사간으로 일본 통신사의 책임을 맡아 다녀왔으며, 관직이 좌참찬에 이르렀다. 이 시는 효종 병신년(1655) 봄에 일본 통신사로 나가면서 지은 것으로 영남루에 걸려있다.

429) 민희(閔熙, 1614-1687): 자는 호여(皐如), 호는 설루(雪樓), 여흥인이다. 효종 원년(1650) 증광별시에 급제하여 대사헌을 거쳐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隔簾暗聽歌呼鬧 喜氣先占大有秋

방백 이명웅의 영남루 연석의 운에 따라[次李方伯 命雄南樓宴席韻] 2수

이이정(李而楨)⁴³⁰⁾

치생(郗生)처럼 막빈⁴³¹⁾이 되지는 않았으나
백설가 높은 곡조로 서로 친해졌으니
금란의 사귄⁴³²⁾ 북쪽 집의 세의(世誼)를 생각하고
옥절(玉節)이 온 영남루에 친구가 있었구려.
잔을 따라 취하고 깨며 구름과 나무⁴³³⁾는 저물고
강과 산을 읊조리며 붓끝의 꽃⁴³⁴⁾이 새롭구나.
오늘은 출처⁴³⁵⁾의 의리를 논하지 마소
녹죽의 시⁴³⁶⁾는 세속의 먼지와 아득히 머나니.

不作郗生入幕賓 高歌白雪轉相親
金蘭北第思先誼 玉節南樓有故人
盃酌醉醒雲樹暮 江山吟弄筆花新
休將出處論今日 綠竹詩遙紫陌塵

관현악 빠른 곡조 손님을 즐겁게 함이나
술 마신 뒤의 회포가 가장 더욱 친하네.
앵무부 읊조리던 사람⁴³⁷⁾은 통달한 선비요

430) 이이정(李而楨; 1619-1679): 자는 공직(公直), 호는 죽파(竹坡), 벽진인(碧珍人). 무안면 내진(來珍)에서 태어났다.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祚)의 문인으로, 허미수, 장조경암, 조간송 등과 교유하였다.

431) 막빈(幕賓): 장막 안에 들여놓고 군사 기밀을 논의할 만한 귀한 빈객. 진(晉)나라 때 권신 환온(桓溫)이 치초(郗超)를 모사(謀士)로 초빙하여 장막 안에 숨겨두고 사람을 접대하며 일을 모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432) 금란의 사귄[金蘭之交]: 쇠처럼 굳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교분.

433) 구름과 나무[雲樹]: 구름과 나무, 또는 구름 속에 치솟은 나무를 가리킨다. 당나라 두보(杜甫)가 이백(李白)을 추억하며 지은 시에 “위수 북쪽엔 봄날의 나무/ 장강 동쪽에는 해 저무는 구름[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이란 구절이 있어 친구 간에 그리워하는 정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434) 붓의 꽃[筆花]: 붓 끝에서 생겨나는 꽃. 문장의 아름다움을 일컫는 말이다. 이태백(李太白)은 어려서 붓 끝에서 꽃이 피어나는 꿈을 꾸고 천하에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435) 출처(出處): 관직에 나가서 벼슬하고 재야에 물러나 은거하는 일.

436) 녹죽(綠竹)의 시: 군자를 푸른 대나무에 비유하여 읊은 시.

자고새 노래⁴³⁸⁾ 부르는 이는 아름다운 사람.
 잠자리에 바람이 이니 가을이 먼저 오고
 강산에 붓을 휘둘러서 흥취 점점 새롭다.
 슬프다 좋은 놀이 다시 얻기 어려운데
 날 밝으면 말발굽 먼지 건디지 못하리라.

催絃急管爲娛賓 酒後衿期最更親
 鸚鵡詩吟知達士 鷓鴣歌唱卽佳人
 風生枕簟秋先至 筆放江山興轉新
 悵悵勝遊難再得 不堪明日馬蹄塵

영남루에서 시판의 운을 따라[嶺南樓次板上韻]

홍 위(洪 葦)⁴³⁹⁾

누각의 나그네 말소리 강 하늘에 울리는데
 어느 곳 풍광인들 눈에 들지 않으리?
 산 그림자 속에 관로는 높았다 낮아지고
 대밭 곁에 인가는 두어 서너 집.
 먼 나무 매미 소리는 가을비로 들리고
 해오라기 모래에 내리며 어스름을 깨트리네.
 서글퍼라 쌍 오리⁴⁴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두루미 술 누구와 더불어 좋은 자리에서 취하나.

437) 앵무부(鸚鵡賦) 읊조리던 사람: 후한(後漢)의 네형(裨衡)은 재능 있고 기개가 있었다. 일찍이 조조(曹操)가 그를 동용하려 했으나 달가워하지 않자, 그를 유표(劉表)에게 보내었으나 용납되지 못하였다. 다시 강하(江夏) 태수 황조(黃祖)에게 의탁하였는데, 거기서 황조의 아들 황사(黃射)와 친하여 그의 요청으로 지은 부가 앵무부이다. 나중에 황조의 뜻을 거슬러 나이 26세에 마침내 살해되어 황학루(黃鶴樓) 앞의 강가에 묻혔다.

438) 자고(鷓鴣) 새 노래: 자고새는 남방의 따뜻한 곳에 사는 새이다. 이백(李白)의 <산자고사(山鷓鴣詞)>, 백거이(白居易)의 <산자고시(山鷓鴣詩)> 등은 모두 객지의 서러움을 자고새에 비유하여 읊었다.

439) 홍위(洪葦; 1620-1660): 자는 군실(君實), 호는 청계(淸溪), 남양인(南陽人)이다. 효종 1년(1650)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효종 정유년(1657) 동래부사를 거쳐 무술년(1658)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440) 쌍 오리[雙鴈]: 신선같은 기풍을 지닌 지방 수령을 칭송하는 말이다. 후한(後漢) 때 왕교(王喬)가 지방 수령이 되어 지방으로 나가 있으면서도 자주 조회에 참석하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조회에 참석하러 올 적에는 항상 오리 두 마리가 나란히 날아왔다. 그래서 새그물로 오리를 잡았더니, 그물 안에 왕교에게 하사한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樓頭客語響江天 何處風光不眼前
 官路高低山影裏 人家多少竹林邊
 蟬吟遠樹迷秋雨 鷺下平沙破暝烟
 惆悵雙鳬今未返 一尊誰與醉華筵

영남루에서 저물녘에 읊다[嶺南樓晚吟]

홍 위

객중에 명승지에 오니
 강천⁴⁴¹⁾에 누각이 가장 높네.
 청산이 성곽에 가득하고
 백로는 숲 언덕에 내려오네.
 틈내어 올라 두루 보기를
 평생토록 꿈꾸며 그리었으니,
 서늘한 바람 물가의 대나무를 흔들어
 자던 새 놀라는 소리를 때때로 듣네.

勝地客中到 江天樓最高
 靑山滿城郭 白鷺下林臯
 暇日登臨遍 平生夢想勞
 涼風動水竹 時聽宿禽號

밤에 영남루 앞 강에 배를 띄우고[夜汎嶺南樓前江]

홍 위

낮은 성곽 달 없이 캄캄한데
 긴 강은 차가와 물결 절로 일어나네.
 누각은 하늘 밖으로 솟았고
 대나무는 물가에 많은데,
 이슬은 어화⁴⁴²⁾를 침범하고
 가을 소리 뱃노래와 어울리네.
 맑은 놀이 흥을 못 다하니
 밤이 어떠한가 묻지를 마소.

441) 강천(江天): 강물에 비친 하늘.

442) 어화(漁火): 물고기를 잡기 위해 켜어 놓은 등불.

古郭黑無月 長江寒自波
樓從天外出 竹到水邊多
露氣侵漁火 秋聲入棹歌
清遊興不極 莫問夜如何

영남루 2수

안후직(安後稷)⁴⁴³⁾

날아갈 듯 누각이 아스라이 하늘에 치솟고
우뚝한 일 천 봉우리가 난간 앞에 늘어섰다.
가을 빛 속에 십리 맑은 강이요
석양 가에 한 소리 돌아온 기러기로다.
성 머리 뿔피리는 애잔한 곡을 불어대고
강가의 외딴 마을 저녁 연기 일어나네.
재주 짧아 무슨 수로 다 그려 내리?
다시금 여흥을 돈귀 잔치를 재촉하네.

飛樓縹緲聳中天 壁立千峰簇檻前
十里清江秋色裡 一聲歸雁夕陽邊
城頭畫角吹殘曲 岸上孤村起暮烟
才短豈能摸寫盡 更挑餘興促華筵

76

등왕각을 일찍이 일색의 하늘⁴⁴⁴⁾이라 하였는데
영남루의 명승지도 그것과 견줄 만하지.
아로새긴 난간은 멀리 하늘 위에 솟았고
좋은 경치 모조리 눈앞에 가져다 놓았네.
일 천 이랑 창파에는 밝은 달을 담겼고
몇 소리 긴 피리는 외론 연기 깨어버리네.
장막 가운데⁴⁴⁵⁾ 고달픈 사정 문지를 마소
오늘 올라와 보니 역시 성대한 잔치로고.

滕閣曾稱一色天 嶺南名勝可方前
雕欄迥出層霄上 景物都輸望眼邊

77

443) 안후직(安後稷; 1620-?): 자는 덕초(德初), 광주인(廣州人)이다. 효종 경인년(1650)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사헌부 지평을 역임하였다.

444) 일색의 하늘: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가을 물은 먼 하늘과 한 빛 [秋水共長天一色]”이란 구절이 있다.

445) 장막 가운데[幕中]: 지방관이 공무로 머무는 곳을 형용한 말이다.

千頃滄波涵皓月 數聲長笛破孤烟
幕中苦況休相問 此日登臨亦盛筵

영남루 3수

남용익(南龍翼)⁴⁴⁶⁾

화사한 꽃 여린 버들 푸른 하늘에 하늘거리고
거기다가 긴 강이 난간 앞을 에둘렀다.
큰 나무 바깥으로는 조금씩 건너는 행인이요
지는 노을 가로는 외로이 나르는 따오기.
바람이 대숲을 두들겨 빗소리가 하였더니
풀이 긴 모래톱을 덮어 아스라이 안개로다.
그날의 암행어사가 지금은 막객⁴⁴⁷⁾이라
사또의 잔치자리에서 한잔 다시 잡노라.

繁花弱柳媚青天 更有長江繞檻前
稍度行人喬木外 孤飛野鷺落霞邊
風敲密竹初凝雨 草沒長洲遠似烟
當日繡衣今幕客 一杯重把使君筵

78

여행의 시름을 석양 하늘에 기대보니
이곳의 길 행색은 완연히 예전 같네.
시절 경치는 다시금 삼월이 지난 뒤나
꿈결은 언제나 오색 구름 가에 있네.
현도관⁴⁴⁸⁾ 옛 도관에 복사꽃 비 내리고
황학루 높은 누각에 우거진 풀 자욱한데
천리 아득한 낙교⁴⁴⁹⁾는 어디에 있나?

446) 남용익(南龍翼; 1628-1692):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 의령인이다. 인조 26년(1648)은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 도사를 거쳐 효종 6년(1655)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현종 정미년(1667)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447) 막객(幕客): 막부의 빈객. 지방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수행원. 여기서는 경상도 도사(都事) 관직에 있었던 호곡(壺谷) 자신을 가리킨다.

448) 현도관(玄都觀); 당나라 때 장안(長安) 남쪽에 도가의 도관(道觀)인 현도관이 있다. 유우석(劉禹錫)의 <다시 현도관에 놀며[再遊玄都觀]>라는 시에 “백 뽕기 뜰 가운데 만나마 이끼끼고/ 복사꽃 깨끗이 지고 유채꽃이 피었네/ 복숭아 심던 도사 어디로 갔나?/ 전 번에 왔던 유씨 청년 지금 또 왔는데[百畝庭中半是苔 桃花淨盡菜花開 種桃道士歸何處 前度劉郎今又來]”라고 하였다.

449) 낙교(洛橋): 중국 낙양(洛陽)의 서남쪽 낙수(洛水)에 있었던 다리. 여기서는 막연히

내일이면 이별의 자리 건디지 못하리.
 羈愁孤倚夕陽天 此地行裝宛似前
 時景更當三月後 夢魂長在五雲邊
 玄都舊觀小桃雨 黃鶴高樓芳草烟
 千里洛橋何處在 不堪明日又離筵

7P

영남루 아스라이 남쪽 하늘에 솟아
 나랏일로 십 년 전에도 등립하였지.
 노래 부르면 맑은 밤이 뒤에도 매양 생각나더니
 대장기 세우고 작은 다리 곁에 다시 왔구나.
 찬 물가 일렁이는 흰 물결 달을 맞이하고
 수려한 산 더 푸르고 대숲에 연기 머뭇거리네.
 어찌하면 이 곳에 나를 머물러 두리?
 창을 찢으면 사철 언제나 자리를 베풀었네.

南樓迢遶出南天 王事登臨十載前
 歌吹每思清夜後 檠旌重到小橋邊
 寒洲漾白波迎月 秀嶽增青竹逗烟
 安得此間留着我 拓窓長設四時筵

80

영남루에서 옛 운을 따라[嶺南樓次舊題]

남용익

정처없는 걸음으로 세상 반을 다녔으나
 기묘한 경관이 이 누각 앞설 곳 없었네.
 부상 바깥에서는 복선사 누각에 기대었고
 갈석산⁴⁵⁰ 가에서는 망해정⁴⁵¹에 올랐네.
 눈 아래로 천리의 섬이 뻑뻑이 늘어섰고
 붓끝에는 구주⁴⁵²의 안개가 점점이 떨어진다.
 편안하기로 따지자면 이곳이 가장 나으니
 좋은 밤 비단 자리를 어찌 견게 하리오.
 浪跡行窮一半天 奇觀無出此樓前

81

서울을 가리킨다.

450) 갈석산(碣石山): 중국의 동북쪽 바닷가, 조선의 서쪽 경계에 있다는 산.

451) 망해정(望海亭): 한나라 무제(武帝) 때 하북성(河北省) 창현(滄縣) 동북쪽에 쌓았다는 망해대(望海臺)를 가리키는 듯하다.

452) 구주(九州): 일본 열도 서쪽의 큰 섬.

福禪寺倚扶桑外 望海亭登碣石邊
眼底森羅千里島 毫端點滴九州烟
如論醞藉斯爲勝 肯許良霄撤錦筵

영남루에서 독우⁴⁵³⁾ 민위와 상사⁴⁵⁴⁾ 박양 두 동년⁴⁵⁵⁾을
만남을 기뻐하며 겸하여 주인인 이사군 진에게 올림[嶺
南樓喜逢閔督郵⁴⁵⁶⁾ 朴上舍⁴⁵⁶⁾ 兩同年兼奉主人李使君⁴⁵⁶⁾ 珍]

남용익

우관⁴⁵⁷⁾과 상사는 막중의 손님이라
먼 타향에서 우연히 만나 점차 친해졌었네.
동방 급제 예전 기쁨 지금 여덟 해,
함께 모인 좋은 모임 관원 세 사람.
높은 누각 물을 둘러 물결이 깨끗하고
쌓인 안개 산에 퍼져 비가 막 새로 올 듯.
진중한 사또는 손님의 흥취를 돋우니
목의 먼지 적시기에 한 잔 술이 알맞네.

郵官上舍幕中賓 邂逅天涯轉覺親
聯榜舊歡今八載 盍簪佳會卽三人
高樓壓水波容淨 積霧漫山雨意新
玆重使君留客興 一盃端合沃喉塵

영남루에서 벽 위의 운을 따라[嶺南樓次壁上韻]

신 정(申 叟)⁴⁵⁸⁾

맑은 강 한 구비 하늘보다 푸르고
누각의 형세 멀리 들판 앞에 임하였네.

453) 독우(督郵): 각 지방의 역을 관장하는 관원. 조선조의 찰방(察訪) 벼슬이다.

454) 상사(上舍): 성균관에 등록된 유생(儒生). 상사생(上舍生).

455) 동년(同年): 과거 시험에서 같은 시험에 함께 급제한 사람.

457) 우관(郵官): 역을 관장하는 관원. 찰방(察訪).

458) 신정(申叟; 1628-1687): 자는 백동(伯東), 호는 분애(汾厓), 시호는 문숙(文肅), 평산인으로 익전(翼全)의 아들이다. 현종 5년(1664) 춘당대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과 대사성을 역임하고, 숙종 때 좌참찬, 예조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삼복의 찌는 더위 아마 오지 않겠고
 사시사철 풍월은 절로 끝이 없겠네.
 들판의 저녁 모습 천 그루의 밤나무요
 성곽의 아침 햇빛 일만 집 연기로다.
 밤이 되면 교방⁴⁵⁹에 음악 소리 요란하니
 머물러 사군의 잔치에 취하여도 좋겠네.

清江一曲碧於天 樓勢遙臨大野前
 三伏炎蒸應不到 四時風月自無邊
 郊原晚色千林栗 城郭朝暉萬井烟
 入夜教坊歌管鬧 不妨留醉使君筵



밀양 영남루에 올라[登密陽嶺南樓]

임상원(任相元)⁴⁶⁰

바다 하늘 남쪽으로 대황⁴⁶¹이 열렸는데
 영남 땅에서 이제사 제일루에 올랐노라.
 먼지 속의 벽사룡⁴⁶²은 세월을 다투고
 난간 앞에 푸른 대는 저절로 춘추로다.
 구름 걷히자 신기루 푸른 빛 번득이고
 비 개이자 용 비늘에 비취색 흘러내릴 듯.
 하루 종일 난간에 기대어 떠나기 싫은 것은
 제 고향 아니라도 놀러 머물 만 하기에.

海天南豁大荒頭 嶺表今登第一樓
 塵裏碧紗爭歲月 檻前蒼籜自春秋
 雲開蜃氣青相閃 雨霽龍鱗翠欲流
 盡日倚欄慵上馬 不論非土可淹留

순찰사 홍만조가 영남루에 와서 써서 보여준 시운 에 화답하여 [和巡使洪台晩朝到嶺南樓書示韻]

459) 교방(敎坊): 공식 행사와 빈객 접대를 위한 음악과 가무를 관장하는 곳.

460) 임상원(任相元; 1638-1697): 자는 공보(公輔), 호는 염헌(恬軒), 시호는 효문(孝文), 풍천인이다. 현종 을사년(1665)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대사헌, 도승지, 우참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461) 대황(大荒): 바다 넘어 먼 곳.

462) 벽사룡(碧紗籠): 푸른 김 비단으로 감싸 보호해 놓은 시판(詩板).

어느 해에 서로 맞아 명승지에서 만났지?
 날 듯한 일천 척 누각 층진 해자를 눌렀네.
 배 가운데 객은 학이 되었나 의심하고
 주렴 너머 떠 있는 산은 자라가 이고⁴⁶⁴⁾ 있나.
 부끄럽다 나의 글솜씨 삼사⁴⁶⁵⁾나 뒤떨어지고
 기쁘다 그대 시격⁴⁶⁶⁾ 충분히 높은 것을.
 이제부터 헌함에는 안색이 더해지리니
 시판을 남겨놓아 글씨를 비치게 하리라.

何年相迎勝地遭 飛樓千尺壓層壕
 舟中過客疑爲鶴 簾外浮山況戴鰲
 愧我詞鋒三舍退 喜君詩格十分高
 從今欄檻增顏色 留得紗籠映墨毫

영남루에서 경차관 윤유기의 시운을 따라 급히 짓 다[南樓走次尹敬差悠期韻]

손석좌(孫碩佐)⁴⁶⁷⁾

만나자 마자 곧장 이별하니
 비오는 영남루에 술 한잔이로다.
 누각 앞에는 긴 숲이 있으니
 하교의 나무⁴⁶⁸⁾와 어떻게 하라?
 相逢卽相離 一杯南樓雨

463) 임방(任墜; 1640-1724): 자는 대중(大仲), 호는 수촌(水村), 시호는 문희(文僖), 풍천인으로 의백(義伯)의 아들이다. 현종 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숙종 28년(1702)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와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464) 자라가 이고: 바다 가운데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三神山)은 파도에 떠밀려 흘러다니지 않도록 세 발 달린 큰 자라가 이고 있다고 한다.

465) 삼사(三舍): 군사가 행군할 때 하루에 30리를 나가 영채를 새우는데, 세 번 영채를 새우면 90리가 된다. 그만큼 먼 거리를 후퇴한다는 말이다.

466) 시격(詩格): 시의 격조

467) 손석좌(孫碩佐; 1642-1705): 자는 주경(周卿), 호는 성은(星隱), 밀양인으로 추천(鄒川) 손영제(孫英濟)의 현손이다. 나이 28세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유학하다가 모부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과거를 단념하고 귀향하여 엄광산 아래 은거하였다.

468) 하교(河橋)의 나무: 당나라 왕발(王勃)의 시에 “하교에서 전송 못하니/ 강가의 나무 멀리 정을 머금었네[河橋不相送 江樹遠含情]”이란 구절이 있다.

樓前有長林 爭似河橋樹

밀양부사 홍구언이 보낸 시에 대한 답장을 요구하
였는데 당시 나는 안동에 있었기에 시를 지어 갠
다[洪密陽九言索贐章逋債 時余方在花山償之]

최석정(崔錫鼎)⁴⁶⁹

누관과 강산 명승지로 여러 고을을 말하나
밀성과 영가부⁴⁷⁰ 어디가 낫다더냐?
맑고 기이함과 넓고 원대함은 차이 나지만
아름답고 번성하기로는 건줄 만 하네.
북해에서는 옛날에 공융이 술잔을 들었다 전하고
서호에서는 일찍이 소자침이 배를 띄웠다 하네.
같은 세상의 시옹이 이름난 고을에 이웃하니
문노라 이런 일은 인간 세상에 또 있는지.

樓觀江山說數州 密城嘉府較誰優
清奇曠遠雖差別 佳麗雄饒足比侔
北海舊傳文學飲 西湖曾泛子瞻舟
詩翁竝世隣名郡 此事人間問有不

밀양 영남루에 올라[登密陽嶺南樓]

이현석(李玄錫)⁴⁷¹

텅텅한 먼지 얼굴을 쳐서 가는 길 고달프더니
홀연 올라보니 먼 시야가 상쾌하네.
옥절을 앞세우고 풍속 살피는 순찰사요
붉은 난간 지는 해의 영남루로다.
노을진 잔을 당기니 산의 이내 듣는 듯하고

469)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자는 자는 여시(汝時), 호는 명곡(明谷), 시호는 문정(文貞), 완산인이다. 현종 신해년(1671)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470) 영가부(永嘉府): 영가는 안동의 옛 이름이다.

471) 이현석(李玄錫; 1647-1703): 자는 하서(夏瑞), 호는 유재(游齋), 전주인으로 수광(睟光)의 증손이다. 숙종 1년(1675)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동래부사를 거쳐 숙종 기사년(1689)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하얀 강물은 들 빛을 가로 삼켜 흐른다.
 시상이 떠오르는 데야 어찌 할 수 있나?
 동주(東州)⁴⁷²의 시 차운 알아도 새 시가 이뤄지네.

炎塵撲面困征輶 忽地登臨快遠眸
 玉節觀風巡察使 朱欄落日嶺南樓
 盃霞近挹山嵐滴 江練橫吞野色流
 詩思逢場那得制 新篇不待次東州

나는 본디 제영을 좋아하지 않지만, 매양 동주선생의 시를 볼 때마다 감히 차운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이 선위사로 왔을 때나 안찰사로 왔을 때 거의 온 도에다 시판을 걸었는데, 다만 이 누각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을까? 누각 가운데 물색을 저버릴 수 없으니, 비록 선생의 시가 없다 해도 어찌 차마 한 마디 말을 비워두랴! [余性不喜題詠 每見東州先生詩 不敢不次 公之宣慰與按節也 揭板殆遍一道 獨於茲樓 宜有而無 豈有之而佚之耶 抑其始之無也耶 樓中物色 不可孤負 雖無先生詩 何忍缺一語也.]

밀양 사또 홍수주가 억지로 시를 요구하기에 입으로 불러 지어 주다[密陽洪使君受疇强索篇章口占而贈]

이현석

높은 누각 아스라이 푸른 물을 놀렸으니
 술잔 잡고 난간에 기대어 근심 씻고도 남겠네.
 고을살이 나 먼저 간 분이 일찍이 부러웠는데
 사신의 깃발이 공을 위해 머무를 줄 어찌 알았으리.
 강 이름 낙수⁴⁷³라 그리운 정을 더하고
 산 호칭 종남⁴⁷⁴이라 생각 더욱 느긋하네.
 어찌하면 사또의 고운 답시를 얻으리?
 줄렬한 글 모과 던지듯⁴⁷⁵ 꺼리지를 않겠네.

472) 동주(東洲): 이 시대 시로 명성이 높았던 동주 이민구(李敏求, 1589-1670)를 가리킨다.

473) 낙수(洛水): 영남루 앞으로 흐르는 웅천은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낙동강의 낙(洛)은 또한 서울을 나타내는 낙양(洛陽)의 낙자와 글자가 같다.

474) 종남(終南): 밀양 읍 남쪽의 산 이름이 종남산이다.

475) 모과 던지듯: 《시경(詩經)》 위풍(衛風)의 <모과(木瓜)> 시에.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시니/ 옥돌로서 보답하나다/ 보답이 아니라/ 영원히 좋게 지내자구요[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 匪報也 永以爲好也]”라고 하였다.

高樓迢遶壓清流 把酒憑欄剩滌愁
 曾羨印符先我去 豈知旌節爲公留
 江稱洛水情添戀 山號終南意轉悠
 安得使君瓊什報 拙篇寧憚木爪投

영남루에서 주인인 부사 홍구언와 더불어 주고받 은 연구[嶺南樓與主倅洪九言聯句]

이현석

강 가의 가벼운 바람 술을 깨게 하고, [홍구]
 한 바탕 즐거운 웃음 둘 다 부평초요
 청화⁴⁷⁶시절 물색은 모두가 시료⁴⁷⁷로다.[하]
 시를 읊고 난간에 기대니 눈이 더욱 푸르네.[홍구]
 江上輕風喚酒醒[九]
 一場歡笑兩浮萍
 清和物色皆詩料[夏]
 咏罷憑欄眼更靑[九]

열 잔에도 취하지 않으니 생각이 얼마나 많으랴?[하]
 한 말 술에 백 편의 시를 지어도 괜찮으리라
 강호 산천 곳곳마다 시를 읊게 하는구나. [홍구]
 이 때 즐거운 인사 또한 문장이 되고,
 넓고 넓은 주량은 간 곳마다 너르다. [하]
 첩첩한 이야기 의표를 찔러 모두 호방한데[홍구]
 우연히 만났다가 그대로 아쉬운 이별
 오늘 저녁 사양치 말고 통쾌하게 술잔 기울이세.[홍구]
 十觴不醉意何長[夏]
 一斗百篇也不妨 在處湖山供嘯咏[九]
 此時歡晤亦詞章 恢恢酒量逢場濶[夏]
 疊疊談鋒盡意狂[夏]
 邂逅無端仍惜別 莫辭今夕快傾觴[九]

476) 청화(淸和): 맑고 화창한 봄 날씨.

477) 시료(詩料): 시로 지을 만한 재료.

강호 산천엔 예로부터 시선이 필요하니[구]
 봉래도에 귀양옴도 좋은 인연이로다.
 지세는 도호부사 오기에 적합하고[하]
 규성⁴⁷⁸)이 비치는 곳 대가의 시가 있네.
 구리 도장⁴⁷⁹) 옥절이 차례로 늘어서니[홍구]
 외직의 서울 관원 모두가 우연일세.
 어느 곳의 새로운 시가 깔끔하던가?[하]
 영남루가 참으로 풍경이 좋았네.[홍구]

湖山從古要詩仙 謫得蓬萊亦勝緣
 地勢合來都護府 奎躔映處大家篇
 銅符玉節相鱗次 外宦京官摠偶然
 何處新詞能脫灑 嶺南樓是好風煙

영남루

김창흡(金昌翕)⁴⁸⁰)

일천 겹 바다와 산 속을 드나들던 몸
 영남루 누각 위에 기대 선 사람.
 갯을 젖혀 보니 자옥한 대숲이 살구꽃을 에워싸고
 휘파람 부니 바람 부는 강에 푸른 마름 일렁인다.
 천리 길 노닐면서 나그네 신세를 잊었고
 사철 많은 풍경 중에 우연히 봄을 만났네.
 밤 되자 달을 따라 잠자리 옮기면서
 밝은 하늘 베끼다가 비로소 진경⁴⁸¹)을 얻었네.

溟嶽千重出入身 嶺南樓上依軒人
 冠欹霧竹圍紅杏 嘯動風江漾綠蘋
 千里浪遊仍忘客 四時多景偶逢春
 夜來逐月移衾枕 摸寫空明始得眞

이름난 누각 높고 원만한 곳을 차지하니
 신라 당시 절 지은 때를 앉아서 생각하네.
 종과 범패 소리 사라지고 뿔피리 부는 곳에

478) 규성(奎星): 별자리 이름. 훌륭한 문장을 나타내는 별자리라 한다.

479) 구리 도장[銅章]: 지방 수령의 직인을 구리로 새겨 내려 보내므로, 지방 수령의 직책을 일컫는 말이다.

480)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 시호는 문강(文康), 안동인으로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이며 영의정 창집(昌集)의 아우이다.

481) 진경(眞境): 진정한 경지. 이상에 부합하는 참된 경지.

살구 매화 향기 돌아오자 꽃비 내리던 그 날이네.
 봄 추위에 밤나무 숲으로 날아드는 까치요
 한낮의 대숲 그늘에 낚싯배를 대었다.
 맑은 편지 저곳은 점필재의 사당과 묘소
 붓을 멈추고서 저옥이 바라보노라.

名樓位置占高圓 坐憶新羅創寺年
 鍾唄響空吹角地 杏梅香返雨花天
 春寒栗藪投飛鵲 日午篁陰閣釣船
 對岸畢齋祠墓是 却停柔翰望悠悠

밀양 영남루[密陽嶺南樓]

김창흠

개인 날 강은 푸르게 열리고
 아침 햇살은 비단을 흐트려 놓았네.
 바야흐로 물고기 완상하려니
 과연 참으로 좋은 누각이로고.
 대숲이 에워싸도 마루는 더욱 높고
 물결 잔잔하여 노짓기도 느긋하다.
 멀리 꽃이 만발한 곳 바라보자니
 동헌에는 문서 잡무도 드무네 그려.

霽日江開綠 朝暉蕩綺疏
 方將玩水物 果是好樓居
 竹擁軒逾峻 波恬棹與徐
 遙看花密處 琴閣簿書疎

영남루에서 주인인 사또 이제상에게[嶺南樓贈主倅李季祥]

김창흠

객과 주인 모두 나그네로 만나
 영남제일루에서 봄을 맞았네.
 동풍에 흰 머리 훑날리고
 남포의 뱃전에 기대었노라.
 강 언덕 대나무 처마 끝에 흔들리고

강가의 매실이 뱃노래에 떨어지네.
아득히 삼랑진 어구 바라보니
두류산으로 거슬러 갈 수 있겠네.

賓主俱萍水 逢春第一樓
東風散華髮 南浦倚輕舟
岸竹搖簷影 江梅落棹謳
微望三浪口 溯可向頭流

주인 사또와 함께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고[與主 倅泛舟嶺南樓下] 3수

김창흡

강 언덕 양편은 푸른 대나무
능파각은 저절로 그림배이네.
아스라이 누각을 바라보려고
일부러 노를 저어 머뭇거리네.
기묘한 경계 도무지 꿈인 양,
기이한 놀이 신선이 부럽지 않네.
옛날 한 배 탔던 사람 생각하며
옥순⁴⁸²⁾ 앞에서 노래하고 웃네.

夾岸皆蒼竹 凌波自畫船
要看樓縹緲 故作棹徊儻
境異都疑夢 遊奇未羨仙
因思舊同舸 歌笑玉筍前

대밭 너머 신선 배를 띄워놓고
푸른 오리 함께 거슬러 오르니
내 지금 돌아가는 배가 늦은데
사람들은 누각 오르는 데 게으르다 하네.
노래부르는 기생은 구름 난간에 기대고
신음하는 용은 바위 못에 있었네.
돌아오니 한 두루미 술이 맑아서
늦은 흥을 비로소 온전히 거두네.

482) 옥순(玉筍): 옥 같은 죽순. 미인을 일컫는 말이다.

竹外仙舟放 青鳬共遡浮⁴⁸³⁾
 吾今遲返棹 人謂懶登樓
 歌妓憑雲檻 吟龍在石湫
 歸來一樽湛 晚興始全收

일 백 척 높은 누각 대나무 천 그루요
 나무 가지 바람에 흔들려 그림 난간에 스친다.
 물결 가운데 멀리 등실 뜬 그림자
 용두못 여울에 목란주⁴⁸⁴⁾를 더디게 돌리네.
 樓高百尺竹千竿 風動雲梢拂畫欄
 攄向波心遙泛影 懶迴蘭棹下龍灘

영남루 시판의 운을 따라[嶺南樓次板上韻]

권두경(權斗經)⁴⁸⁵⁾

누각이 높은 성벽 아스라한 하늘에 기대어,
 가을 날 온갖 형상을 술두루미 앞에 모았네.
 강물은 멀리 에워싼 산 밖으로 나오고
 바다기운은 땅이 끝난 곳에 길게 떠 있네.
 먼 멧부리 눈썹 펴고 달을 맑게 토하고
 평림에는 아득히 연기를 머금어 어둑하네.
 동남 지방 주인과 손이 함께 노는 곳에
 일큰하여 읊는 호탕한 시 좌중을 움직이네.

樓倚層城縹緲天 高秋⁴⁸⁶⁾萬象集樽前
 河流迥出山圍外 海氣長浮地盡邊
 遠岵舒眉晴吐月 平林極目暝含烟
 東南賓主携遊地 半醉豪吟動四筵

83

483) 문집에는 溯流로 되어 있으나, 후대의 차운에는 모두 “浮”를 사용하였으므로 遡浮라고 한 읊지의 표기를 취한다.

484) 목란주(木蘭舟): 목련 나무로 만든 좋은 배.

485) 권두경(權斗經; 1654-1726): 자는 천장(天章), 호는 창설재(蒼雪齋), 안동인으로 충재(沖齋) 권벌(權撥)의 5세손이다. 숙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학행으로 천거되었으며 숙종 경인년(1710) 문과에 급제하였고 경종 때 홍문관 부수찬을 역임하였다.

486) 읊지에는 秋→低

영남루에서 윤경차관의 시운을 따라[南樓次尹敬差]

이만백(李萬白)⁴⁸⁷⁾

임금님 명을 받들어 백성의 하늘⁴⁸⁸⁾ 되어
서리 같은 위엄 거두고 은혜가 흠족하네.
강호에 이른 곳마다 좋은 경치 자주 보고
친구를 만나서는 몇 차례 잔치 열었나.
북녘 대궐 향기로운 곳에 나아가더니
남산의 콩 심은 밭을 매지 않았네.⁴⁸⁹⁾
울타리의 메추리는 구름 위의 고니를 우러러보나
어느 때 다시금 같은 평상에 잠자나?

君門啣命爲民天 收却霜威惠洽然
湖海到頭頻選勝 朋知會面幾開筵
方趨北闕含香地 休理南山種豆田
籬鷄仰瞻雲鵠舉 何時重得共床眠

늦봄에 영남루 글모임에서 순찰사에게 올림[暮春 嶺南樓文會呈巡相]

이만백

성의 남쪽 봄빛이 술맛처럼 짙은데
복사꽃 흘러 따듯한 물결이 깨끗하고,
그 위로 원룡⁴⁹⁰⁾의 일 백 척 누각 있어
붉은 난간 푸른 헌함 겹겹이 보이네.
그대 기상 살펴보면 푸른 하늘에 치솟고

487) 이만백(李萬白; 1657-1717): 자는 여백(汝伯), 호는 자유현(自濡軒), 여주인(驪州人)이다. 시와 문체가 깨끗하여 속기가 없었고 글씨를 잘 썼다. 권두경(權斗經), 조덕린(趙德隣), 신몽삼(辛夢參) 등과 교의(交誼)가 깊었다.

488) 백성의 하늘[民天]: 지방 수령을 일컫는 말이다.

489) 남산의 콩 심은 밭: 도연명(陶淵明)의 시에, “남산 아래 콩을 심었더니/ 풀이 무성하여 콩 싹이 드무네/ 새벽같이 잡초를 매고/ 달빛에 호미 매고 오네[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侵晨理荒穢 帶月荷鋤歸]”라는 구절이 있다.

490) 원룡(元龍): 웅장하고 상쾌한 곳. 원룡백척루(元龍百尺樓). 《삼국지(三國志)》에 유비(劉備)가 허사(許汜)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는 전답이나 구하러 다니면서 채택할 말이 없으니, 이는 원룡(元龍)이 꺼리는 것이다. 어떻게 그대와 이야기하랴? 나는 백척 누각 위에 누워 있으면서 그대를 땅에 눕히면, 그 차이가 어찌 평상 아래 위 사이 정도에 그칠까보나!” 라고 하였다.

명승지에 좇아와선 다시 노닐려 하네.
 옥절은 멀리 아가위나무⁴⁹¹⁾ 바람에 펄럭이고
 수레는 동남쪽 고을에서 다시 왔도다.
 소단⁴⁹²⁾을 열어서 문사들을 모으니
 남쪽 하늘엔 어젯밤 구성 광채 찬란했지.
 붉은 인끈 헌함에 임하니⁴⁹³⁾ 모두가 신선이요
 푸른 옷깃⁴⁹⁴⁾ 자리 가득하니 모두 당대의 선비로다.
 붉은 누각 해 기울자 꽃 그림자 흔들리고
 한 마당 한묵⁴⁹⁵⁾으로 싸움이 한창이네.
 시 짓자 웃음 띠고 각기 스스로 자랑하니
 무리 중에 누가 먼저 여의주를 찾아내나.
 문장의 우열은 이로 좇아 정해지고
 다른 사람 주절대며 부러워 할 뿐이네.
 이 놀이는 바로 상공이 내려준 것이라
 좋은 자리 남창의 잔치⁴⁹⁶⁾와 어느 게 나을지.

城南春色濃如酒 桃花水暖波生練
 上有元龍百尺樓 朱欄碧檻重重見
 相君意氣凌清霄 思從勝地再遊衍
 玉節遙飈棠樹風 軒車復自東南縣
 爲設騷壇文以會 南天昨夜奎光絢
 紫綬臨軒摠仙侶 青襟滿座皆時彥
 朱樓日斜花影動 一場翰墨開酣戰
 詩成笑傲各自多 衆中探驪誰先擅
 文章甲乙從此定 餘子啁啾但坐羨
 茲遊正荷相公賜 勝餞何似南昌宴

영남루 잔치 자리에서 명부에게 올리다[南樓宴席]

491) 아가위 나무[棠樹]: 방백이 지방을 순시하면서 펼치는 선정을 나타낸한다. <시경> <감당(甘棠)> 시에 “무성한 아가위 나무/ 갈기지도 말고 베지도 말라/ 소백께서 쉬시던 곳이니”라고 하였는데, 소공(召公)이 소남 지방을 순시하면서 교화를 펼친 공적을 기념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492) 소단(騷壇): 시를 짓는 모임.

493) 붉은 인끈: 붉은 인끈을 드리운 지방의 관원이 많이 모였음이다.

494) 푸른 옷깃[青襟]: 옷깃을 푸른 색으로 장식한 유생(儒生).

495) 한묵(翰墨): 하얀 종지와 먹. 글을 짓는 모임이다.

496) 남창(南昌)의 잔치: 당나라 때 동왕각(滕王閣)을 완공하고 배풍 모임에서 왕발(王勃)이 그 서문을 지어 명성을 떨쳤다.

呈明府二十韻]

이만백

늑실늑실 긴 강은 떠 하나를 둘렀고
 강 머리에 아스라이 붉은 기와 드러났네.
 말을 타고 남북으로 두루 놀았으나
 백척 누각에 올라오니 흥취가 맑아지네.
 사마장경⁴⁹⁷⁾ 노닌 자취 참으로 방랑이요
 원룡의 호탕한 기상 짐짓 우뚝하구나.
 명승지에 건물 지었으니 현명한 주인이요
 좋은 날 방초 찾음이⁴⁹⁸⁾ 오늘 이 행차로다.
 수놓은 장막 얼핏 여니 하늘이 광활하고
 위대한 난간에 기대니 물의 구름이 맑은데,
 모래사장에 자는 갈매기 두 세 마리 날고
 비를 댈 돛단배는 서로 가물거린다.
 비단 수를 산에 편 듯 꽃 그림자 희롱하고
 유리 빛 강가에 어른거리니 물빛이 평화로운데,
 저녁 노을 물들어 지는 별을 덮쳐가고
 초승달이 물에 비쳐 단청 기둥에 들어온다.
 건물이 높고 거대함은 이곳에 비할 데 없고
 강호 산천 아름다움은 누가 다투겠는가?
 이미 강과 누각의 기묘한 경치 보았으니
 어찌 다만 황학루만 큰 이름 차지하리?
 막막한 푸른 하늘 무성하게 풀이 자라고
 어른거리는 저녁 숲에 흰 구름이 비끼네.
 우연히 좋은 시절 벗과 빈객 만났고
 다행히 태평성대 기로와 영결을 모았네.
 땅이 경치를 숨긴 데는 기다린 바 있었음이요
 하늘은 시인으로 하여금 길이 올리게 하시니
 어진 원님 따라 청풍을 읊고자 하나
 우습다 남방 시골뜨기 짧은 읊시 이루었네.
 옥돌을 주시리라 모과를 던지오니⁴⁹⁹⁾

497) 사마장경(司馬長卿): 한(漢)나라의 사마천(司馬遷).

498) 좋은 날 방초 찾음은: 주자(朱子)의 <춘일(春日)> 시에 “좋은 날 사수 물가에서 방초를 찾아갔더니/ 가없는 광경이 일시에 새롭네[勝日尋芳泗水濱 無邊光景一時新]”라 하였다.

499) 옥돌을 주시리라: 《시경》 <모과(木瓜)> 시에 “모과를 던져 주었더니/ 옥돌로 보답을 하네”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로 하찮은 물건에 좋은 보답을 받는다는 뜻이다.

첫소리 나는 좋은 글이라 어찌 자랑하리.
 동남 지방 주인과 빈객 아름다움을 차지하니
 문장의 첫째 둘째를 누가 평론하리?
 우리 무리의 좋은 잔치 거둬 있기 어려우니
 이름난 누각에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던가?
 머리 굽고 난간에 기대 감개가 같으나
 예로부터 이런 모임 몇 사람이나 하였을까?

滾滾長江一帶縈 江頭縹緲露朱甍
 短鞭南北遊將遍 百尺登臨興轉清
 司馬遺蹤眞放浪 元龍豪氣故崢嶸
 名區結構知賢主 勝日尋芳屬此行
 繡幕乍開天宇濶 危欄徙倚水雲晴
 眠沙鷗鷺飛三兩 帶雨帆檣互滅明
 錦繡漫山花影弄 琉璃映岸水光平
 晚霞揚彩侵斜旭 新月流輝入畫楹
 棟宇軒宏無此比 湖山佳麗有誰爭
 已看江閣專奇勝 豈獨黃樓擅大名
 漠漠青天芳草長 依依暮樹白雲橫
 偶逢佳節携賓友 幸際昇平會耆英
 地秘烟霞應有待 天教詞客乃長鳴
 願從明府清風誦 自笑吳儂短律成
 謾擬酬瓊投木瓜 寧誇擲地有金聲
 東南賓主能專美 甲乙文章孰可評
 吾輩清狂增氣岸 茲遊奇絕冠平生
 江湖勝餞知難再 歲月名樓問幾更
 搔首憑欄同感慨 古來斯會幾人并

영남루

채팽윤(蔡彭胤)⁵⁰⁰

홀로 난간에 기대 먼 하늘 바라보니

500) 채팽윤(蔡彭胤; 1669-1731):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庵), 평강인(平康人)이다. 숙종 기사년(1689)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참판,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한 점 고동머리 산이 기러기 때 앞에 있네.
 고금의 현달한 이 묵은 자취 속이요
 그림 같은 강산은 이 누각 곁이로다.
 층층 숲의 낙엽에 비내리는 가을 밝고
 먼 동네 인가에는 저녁 연기 하늘거린다.
 잔뜩 취하여 노래 높이 부르고 곁곁 웃으며
 흰머리로 꽃다운 자리에 가지를 마소.

獨憑危檻望遙天 一點螺岑雁陣前
 顯達古今陳迹裡 江山圖畫此樓邊
 層林落葉雨秋明 遠巷人家裊夕烟
 爛醉高歌仍大噓 白頭遮莫赴芳筵

84

학산이 영남루를 지나며 오르지 못하고 지은 시를 따라[次鶴山過嶺南樓未登韻]

조태억(趙泰億)⁵⁰¹⁾

부사인 이희주 자고가 기문을 청하였으나 부응하지 못했다.[府伯李熙疇子
 皐 求爲記文 未果應副.]

일찍이 기문 지어 영남루에 걸려 했으나
 등왕각의 삼왕⁵⁰²⁾을 닮기가 쉽지 않네.
 안찰사 좋은 놀이 지금도 기억하나니
 상서⁵⁰³⁾가 무슨 죄로 이곳에 길이 유배되었나?
 구름 스치는 난간에는 주작⁵⁰⁴⁾이 빛나고
 강 언덕 지나는 돛대에 흰 갈매기 일어나네.
 틈을 내어 근심 삭임도 해롭지 않나니
 악양루에도 쫓겨난 신하의 배를 묶었으니.

501) 조태억(趙泰億; 1675-1728): 자는 대년(大年), 호는 겸재(謙齋), 시호는 문충(文忠), 양주인(楊州人)이다. 숙종 임오년(1702)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자년(1720)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으며, 좌의정에 이르렀다.

502) 삼왕(三王): 등왕각의 글을 지은 세 사람의 왕씨. 왕발(王勃)은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짓고 왕서(王緒)는 <등왕각부(滕王閣賦)>를 짓고 왕중서(王仲舒)는 <수등왕각기(修滕王閣記)>를 지었는데 모두 명문이었므로, 한유(韓愈)의 <신수등왕각기(新修滕王閣記)>에 이르기를 “저옥이 이름을 등왕각 위에 올리고 글을 삼왕의 다음에 나열함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503) 상서(尙書): 육조의 장관인 판서(判書) 벼슬을 일컫는 말.

504) 주작(朱雀): 남방 별자리의 이름.

爲文曾記揭南樓 滕閣三王未易侔
按使勝遊今尙記 尙書何罪此長流
拂雲欄檻輝朱雀 轉岸帆檣起白鷗
暇日消憂知不害 岳陽猶繫逐臣舟

영남루를 중수하고⁵⁰⁵⁾ 3수

이희주(李熙疇)⁵⁰⁶⁾

이년 동안 경영하여 이제 공역을 마치니
완연하게 화려한 건물 하늘 높이 솟았네.
딩그런 모습 어찌 새롭게 창건할 것 있나
제도는 송두리째 옛 모습 그대로라네.
강물을 눌러 영롱한 것은 채색 누각 셋이요
절벽 따라 깨끗한 것은 임금⁵⁰⁷⁾ 하나로다.
모르리라 그 날의 등왕각과
강산 좋은 경치 어느 곳이 더 웅장한지.
二載經營始訖功 宛然華構倏穹崇
奐輪豈用新視創 制度渾依舊樣同
壓水玲瓏三彩樹 緣崖蕭灑一琳宮
不知當日滕王閣 勝槩江山也孰雄

조령 동쪽에 별천지가 있으니
한 방면 명승지를 한 고을이 차지했네.
무릉의 봄빛은 일 천 집의 나무에 있고
화악⁵⁰⁸⁾의 가을 향기 일 백 송이 연꽃인 듯,
지세는 아득한 곳을 삼켜 봉래섬이 가깝고
강물은 멀리 감싸 해문으로 이어졌다.
이 사이 이은⁵⁰⁹⁾은 참으로 맑은 복이 있어
노래 음악 울리는 누대에서 신선이 되었구나.
大嶺以東別有天 一方形勝一州專

505) 이 시는 이희주의 중수기문 뒤에 첨부되어 전한다.

506) 이희주(李熙疇): 경종 임인(1722) 8월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을사(1725) 7월에 교체되어 갔다.

507) 임금(琳宮): 옥돌로 만든 궁전. 불가의 사찰을 일컫는 말이다.

508) 화악(華嶽): 밀양 북쪽의 높은 산 이름.

509) 이은(吏隱): 관리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덕성을 숨기고 사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

武陵春色千家樹 華嶽秋香百朶蓮
地勢漠吞蓬島近 江流遙抱海門連
此間吏隱眞清福 歌吹樓臺便作仙

서남의 명승지를 나는 알 수 있나니
수많은 누대 중에 이곳이 가장 기묘하다.
연광정⁵¹⁰⁾ 더붙어서 품격을 논할 만하나
촉석루와 비교하여 자웅을 논할쏘나?
성 머리 밤나무는 천 그루나 되고
헌함 밖에 대나무는 사철에 푸르다.
가려한 경치에다 소쇄한 운치 겸하여
범궁⁵¹¹⁾의 맑은 풍경 현악 소리에 섞이네.

西南名勝我能知 多少樓臺此最奇
堪向練光論品格 寧將蠡石較雄雌
城頭燕栗誇千樹 檻外湘篁貫四時
佳麗因兼蕭灑致 梵宮清磬雜桐絲

영남루

이 위(李 瑋)⁵¹²⁾

날아갈 듯 누각은 영남 하늘에 높이 솟고
기묘한 경치는 촉석루보다 앞서겠네.
강둑 가까이의 찌꼬리는 멈춘 수레덮개 너머에서 울고
깊은 못의 고기는 매어 놓은 배 곁에서 뜬다.
들의 색깔을 나누는 건 둘러싼 성근 나무요
모래에 반쯤 스미는 빛은 맑게 깔린 연기로다.
오늘밤은 달구경 약속을 지키려고
저물자 노래부르는 기생 잔치 자리를 벌였네.

飛樓迥出嶺南天 奇勝宜居蠡石前
近岸鶯啼停蓋外 深潭魚躍繫舟邊
微分野色環疎樹 半透沙光冪淡烟

510) 연광정(練光亭): 평양 대동강 가에 있는 정자 이름.

511) 범궁(梵宮): 부처의 궁전. 절.

512) 이위(李瑋; 1676-1727): 자는 백온(伯溫), 호는 두천(斗川), 전주인이다. 김창협이 문인으로 문음으로 출사하여 안산군수, 영천군수 등을 역임하고 영조 3년(1727)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今夜欲尋看月約 晚來歌妓列華筵

영남루에 올라[登嶺南樓]

윤봉구(尹鳳九)⁵¹³⁾

대숲 속엔 외로운 성이요 성 위에는 누각,
긴 숲은 아득한데 작은 강이 흐르네.
만리 가을하늘 마루 창이 멀리 생기고
해는 타향의 기러기 수심 속에 떨어진다.
태평성대의 강과 호수는 참으로 즐길 만한데
몇 해나 문서 장부로 아직도 걱정인가?
옛 사람 보이지 않아 서글픔 더하는데
산의 달은 기약한 듯 난간 머리에 이르네.

竹裏孤城城上樓 長林漠漠小江流
秋生萬里軒窓迺 日落殊方鴻鴈愁
聖代江湖眞可樂 幾年簿牒尙多憂
故人不見增悵悵 山月如期到檻頭

영남루

조연신(趙彦臣)⁵¹⁴⁾

먼 강물 구불구불 절벽을 안아 감돌고
못 산은 우뚝우뚝 앞을 향해 열렸네.
마암산 나란히 개인 숲과 멀리 이어지고
무봉암 저녁 풍경소리 맑게 전해 오누나.
강이 넓어 달은 고기잡이 배를 끌고
봄이 깊어 꽃은 사또의 잔을 권하네.
난간에 기대니 정녕 신선이 된 듯한데
십리 서늘한 바람 다시금 상쾌하네.

遠水逶迤抱壁廻 群山立立向前開

513) 윤봉구(尹鳳九; 1681-1767): 자는 서응(瑞應), 호는 병계(屏溪), 시호는 문헌(文獻), 파평인(坡平人)이다. 우참찬 봉오(鳳五)의 형으로 숙종 40년 유일(遺逸)로 천거되었고 대사헌,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514) 조연신(趙彦臣; 1682-1731): 자는 여보(汝輔), 순창인(淳昌人). 숙종 경인년(1710) 증광시에 급제하고 관직이 병조참의에 이르렀다.

馬巖平接晴林迥 鳳菴清傳暮磬來
江濶月牽漁子艇 春深花勸使君盃
憑欄政有登仙意 十里涼風更快哉

영남루

김리만(金履萬)⁵¹⁵⁾

높은 누각이 영남 하늘에 걸터앉았으니
삼한이 통일되기 이전에 창건되었네.
모인 물은 외론 배 너머 맑게 일렁이고
못 봉우리는 그림 난간 가에 푸른빛을 치네.
절의 종은 가까이서 노래 소리와 섞이고
어선의 불빛은 멀리 납촉 연기와 나뉘었네.
눈에 보이는 풍광을 다 거두지 못하고
다시금 밝은 달로 화사한 자리 비추게 하네.

高樓半跨嶺南天 創自三韓未一前
積水漾清孤棹外 羣峯撲翠畫欄邊
禪鍾近雜笙歌響 漁火遙分蠟燭烟
觸眼風光收不盡 更教明月照華筵

86

영남루

권 만(權 萬)⁵¹⁶⁾

영남 하늘에 높은 누각 치솟았는데
명원⁵¹⁷⁾의 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
고금의 근심은 산 그림자 속에서 생기고
풍진세상의 꿈은 물소리 가에서 깨는구나.
외딴 성 화각 소리에 큰 달은 밝은데
옛 절 차가운 종소리 저녁 연기에 덮이네.

515) 김리만(金履萬; 1683-1758): 자는 중수(仲綏), 호는 학고(鶴臯), 예천인이다. 숙종 39년 증광시에 급제하여 양산군수, 사간원 사간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516) 권만(權萬; 1688-1749): 자는 일보(-輔), 호는 강좌(江左), 안동인이다. 영조 1년 (1725)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이 시의 시판은 현재 영남루에 걸려 있다.

517) 명원(命遠): 누구의 자인지 알 수 없다.

선조께서 부임하여 머무셨던 고을이라
몇 번이나 봄이 돌아 좋은 잔치 보냈던고?

高樓聳出嶺南天 明遠詩成末到前
今古愁生山影裡 風塵夢醒水聲邊
孤城畫角晴殷月 古寺寒鍾晚翳烟
先祖桐鄉曾駐節 幾回春到遣華筵

87

영남루

이광보(李匡輔)⁵¹⁸)

푸른 하늘 반 공중에 단청 누각 아스라하고
한 줄기 맑은 강은 난간 앞을 에둘렀다.
밤숲은 복사꽃 핀 강변 너머에 임하였고
앵봉은 무봉암 곁에 비스듬히 마주했네.
먼 포구의 갈매기는 가벼이 날리는 눈이요
아득한 산 담담한 노을은 점점이 연기로다.
낙민루와 백중이 뒀도 부끄럽거니와
연광정을 어찌 화려한 자리로 셈하리.

丹樓縹緲半青天 一帶澄江達⁵¹⁹)檻前
栗藪平臨桃岸外 鶯峯斜對鳳菴邊
輕鷗遠浦飛飛雪 淡靄遙山點點烟
羞與樂民相伯仲 練光寧數綺羅筵

88

영남루

남덕로(南德老)⁵²⁰)

위대한 누각 아득하게 남쪽 하늘에 솟아
그윽한 경치는 분명 축석루보다 앞서겠네.

518) 이광보(李匡輔; 1694-1773): 자는 좌백(佐伯), 고령인(高靈人).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제문을 가지고 윤증(尹拯)의 제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정거(停擧) 당하였다. 숙종 갑오(1714) 증광시에 급제하였다. 영조 병진(1736)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였다.

519) 읍지에는 達로 표기하였으나 遶의 訛傳인 듯 하다.

520) 남덕로(南德老; 1695-?): 자는 치휴(稚休), 의령인이다. 영조 갑인년(1735)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병인년(1746) 8월에 경상도 도사(都事)로 부임하였으며, 사헌부 지평을 역임하였다.

대숲은 황폐한 성가퀴와 멀리 이어졌고
한 줄기 강이 푸른 난간 가에 맑게 출렁인다.
차가운 산은 은근히 새 달을 머금었고
고목 숲엔 아득하게 저녁 연기 머뭇거리네.
나그네 고달픈 마음 도무지 근심인데
관현악 이별 잔치 어찌 감당하리오.

危樓迢遙表南天 幽賞端居矗石前
叢竹遙承荒堞畔 一江晴動碧闌邊
寒山隱約啣新月 古藪滄茫逗暮烟
病思羈懷渾悄悄 可堪歌管卽離筵

JP

영남루

임 정(任 琤)⁵²¹⁾

누각이 높다해도 하늘에 있지는 않는데
누각에 오르면 십리 풍경이 술자리 앞에 있네.
어룡은 아득한 가운데 피리소리에 응하고
매죽은 그윽한 곳에서 배를 맞이하네.
산과 들 합하고 떨어짐은 그대로 물색이요
마루와 방 여닫는 것은 바람과 안개로다.
연광정에서 곡하였다는 일⁵²²⁾ 도리어 번거롭고,
가인의 금슬 잔치에 거꾸러져 조노라.

從是樓高不在天 登樓十里一樽前
魚龍應笛滄茫內 梅竹迎船窈窕邊
山野合離仍物色 軒房開闔各風烟
練亭哭下還多事 倒睡佳人錦瑟筵

PO

영남루

521) 임정(任琤; 1694-1750): 자는 성방(聖方), 호는 호재(扈齋), 풍천인이다. 경종 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영조 때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522) 연광정에서 곡하였다는: 고려 학사 김황원(金黃元)이 평양의 연광정에 올라가 고금의 시판을 모두 철거하고 종일토록 읊조리다가, “긴 강 한쪽으로 늪실늪실 물이요 / 큰 들 동쪽 머리 점점이 산이로다[長江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라는 한 구절만을 이루고는 통곡하고 내려왔다는 일화가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 전한다.

묵은 안개 낀 날씨 피리를 불어 여니
 누각을 낀 대나무 숲 작은 배 앞에 있네.
 날 개이자 차가운 강에 물이 어둡고
 석양 가에 먼 뒤편 산 안개 교태롭다.
 나그네 시름 가을과 함께 물색을 더해 주고
 맑은 놀이 바다 곁에 구름 연기 닮았네.
 동산의 흥취⁵²³⁾에다 호랑의 생각⁵²⁴⁾ 속에
 마음껏 밝은 별이 밤 잔치에 떨어지네.

橫笛吹開宿霧天 夾樓森竹小舟前
 寒江水闊初晴後 遠岫嵐嬌夕照邊
 客思與秋添物色 清遊傍海盡雲烟
 東山興味濠梁想 隨意明星落夜筵

81

영남루

정민교(鄭敏僑)⁵²⁵⁾

서풍이 나를 몰아 높은 누각에 올려
 위태한 난간에 기대보니 배를 띄운 듯.
 그윽하면서 툭 트여 산 빛이 가득하고
 텅 비고 밝아서 물소리마저 떠오르네.
 처마의 구름 고요한 그림자 객을 만류하는 듯,
 물가의 나무 서늘한 그들은 아예 가을이로다.
 이만하기에 절로 명승지라 떨칠 수 있었으니
 아득히 먼 남쪽 변방이라도 관계치 않네.

西風吹我上高樓 危檻憑來若泛舟
 幽豁恰通山色滿 虛明渾帶水聲浮
 簷雲影靜如留客 渚樹陰涼盡得秋

523) 동산(東山)의 흥취: 진(晉)나라의 사안(謝安)은 젊은 시절 동산에 은거하여 기생을 끼고 놀았다.

524) 호랑(濠梁)의 생각: 장자(莊子)는 혜시(惠施)와 함께 호수(濠水)의 다리 위에서 물고기를 보고 즐거워하고, 복수(濮水)에서 낚시질 하며 진흙 속 거북이의 낙을 비유하여 초왕(楚王)의 초빙을 사절하였다.

525) 정민교(鄭敏僑; 1697-1731): 자는 계통(季通), 호는 한천(寒泉), 창녕인이다.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의 막료로 있다가 학질로 객사에서 죽었다.

只此自能名勝擅 不關窮遠極南陬

영남루

김천택(金天澤)⁵²⁶⁾

그림 누각 새긴 난간 구름 너머 떠오르고
푸른 솔 푸른 대는 강물에 비치었네.
고을 맡아 봉양함은⁵²⁷⁾ 임금의 은혜 중함이니
다시금 맑은 가을에 누각에 올랐노라.

畫閣雕欄雲外浮 蒼松翠竹映江流
專城就養君恩重 更趁清秋日上樓

영남루

황경원(黃景源)⁵²⁸⁾

주렴 걷은 하늘에 구름 그림자 고요하여
한가락 피리 소리 앞에 남국의 산천이로다.
밝은 달에 갈매기는 돛단 배 아래로 날고
높은 누각의 사람 소리 푸른 산 곁에 들리네.
물가의 꽃은 아리따게 그윽한 바위에 이어지고,
들의 나무 캄캄하게 어지러운 연기에 숨네.
강 위의 선방이 멀지 않은 줄 알겠거니
숲 건너 풍경소리가 화사한 자리에 떨어지네.

雲沙影靜捲簾天 南國山川一笛前
明月鷗飛孤帆下 高樓人語翠微邊
洲花冉冉連幽石 野樹冥冥隱亂烟
江上禪房知不遠 隔林清磬落華筵

영남루

526) 김천택(金天澤; 1704-?): 김해인이다. 영조 신유년(1741)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527) 고을 맡아 봉양함: 관원이 오래도록 고향을 떠나 부모를 봉양하지 못함을 배려하여 고향 인근의 고을 수령으로 임명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조치.

528) 황경원(黃景源; 1709-1787):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江漢), 장수인(長水人)이다. 영조 경신년(1740)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양관 대제학을 지내고 정조 때 증추부판사를 역임하였다.

낡은 성첩 가을 산에 푸른 빛 이어지고
 맑은 강은 천천히 그림 난간 앞에 움직이다.
 서리 머금은 온갖 나무 모래 언덕에 혼미하고
 달빛은 성근 대를 모아 비단 자리를 비춘다.
 삼연⁵³⁰⁾ 노인 뱃전 두드리던 곳 찾지 못하고
 명나라 장수 주둔하던 해 길이 생각하노라.
 영남 땅 자옥한 장기 일천 리인데
 이 누각 다시 올라 관현 소리 듣노라.

古堞秋山積翠連 澄江徐動畫欄前
 霜含萬木迷沙岸 月會疎簷照錦筵
 不辨淵翁鼓柁處 永懷天將駐戈年
 嶺南煙瘴千餘里 再上茲樓聽管絃



영남루

박사해(朴師海)⁵³¹⁾

절 없어진 터가 가무하는 곳이 되어
 우뚝우뚝 지붕이 옛 성 머리에 솟았네.
 산은 들판을 끌어 푸름이 가이없고
 물은 누각 앞에 와서 파랗게 어려 흐르지 않네.
 주렴 사이 달에는 계수나무 색깔 비고
 옥통소 부는 가을에 꽃비는 다 떨어졌네.
 밤 깊은 대나무 발 서늘한 소리 나니
 목란주 흔들리는 배에 푸른 눈썹⁵³²⁾ 근심하네.

寺破基仍歌舞地 崢嶸薨桷古城頭
 山拖野勢青無際 水到樓前碧不流
 蟾桂色空珠箔月 雨花飛盡玉簫秋
 夜深竹簾生涼籟 搖漾蘭舟翠黛愁

529) 이인상(李麟祥; 1710-1760): 자는 원령, 호는 능호관, 전주인이다. 영조 11년(1735)

진사에 합격하고 음보로 지리산 사근역 찰방을 역임했다. 서화가로 이름이 있었다.

530) 삼연(三淵) 노인: 삼연 김창흠(金昌翕)을 가리킨다.

531) 박사해(朴師海; 1711-?): 자는 중함(仲涵), 호는 창암(蒼巖), 반남인(潘南人)이다. 영조 31년(1755)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532) 푸른 눈썹[翠黛]: 눈썹을 검게 그린 미인.

영남루

이형만(李衡萬)⁵³³

동쪽 하늘 끝은 부상의 먼 모습이요
안식 앞에는 강과 바다 맑은 빛이로다.
백사장 물가로 돌아가는 사람 또렷하고
죽림 가에 찢꼬리 우는 소리 적막하구나.
봄 구름 골짜기 떠나 푸른 절벽에서 생기고
아침 해는 난간에 가득 붉은 연기 일으키네.
능파각에 자고서도 오히려 그리움 있어
잔 멈추고 화사한 자리에 서글피 기대었네.

扶桑遠勢極東天 江海晴光几案前
歷歷人歸沙渚外 寥寥鶯轉竹林邊
春雲離壑生蒼壁 朝旭盈欄起紫烟
吾宿凌波猶有戀 停盃悵悵倚華筵

P3

영남루

이현태(李顯泰)⁵³⁴

비 개인 강남 땅 이월 날씨에
살구꽃 난간 앞에 처음 피었네.
고인 물 대숲 속에 고기잡이 노래소리
긴 다리 지는 해 곁의 버드나무 빛.
선배의 등림한 자취는 공연한 한목이나
누각 하나 고금에 절로 구름 연기 덮였네.
경치를 마주하여 슬퍼할 건 없나니
가인의 금슬 잔치에 머물러 취할거나.

雨霽江南二月天 杏花初發曲欄前
漁歌積水叢篁裡 柳色長橋落日邊
先輩登臨空翰墨 一樓今古自雲烟
不須對景還悵悵 留醉佳人錦瑟筵

P4

533) 이형만(李衡萬; 1710-?): 자는 평일(平一), 경주인(慶州人). 영조 을묘(1735) 증광시에 급제하고 옥당을 거쳐 승지에 이르렀다.

534) 이현태(李顯泰; 1712-?): 전주인이다. 영조 경오년(1750)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영남루에 올라[登嶺南樓]

이헌경(李獻慶)⁵³⁵⁾

하늘 가 위태한 성 공중에 떠오른 듯
대황⁵³⁶⁾의 한기 들어 빗소리 근심스럽네.
강남의 나무에는 남은 꽃이 지지 않고
군청 북쪽 누각에 긴 피리소리 올라오네.
첫 북소리에 백마는 걸음을 재촉하고
다시 배를 대니 기생은 이별을 아쉬워하네.
서쪽으로 돌아가 친한 벗들이 묻는다면
조령 바깥 명승지인 이곳에 놀았다 말하리라.

天畔危城勢若浮 大荒寒入雨聲愁
餘花未落江南樹 長笛來登郡北樓
白馬催行初打鼓 紅粧惜別更維舟
西歸親友如相問 嶺外名區說此遊

영남루

안경점(安景漸)⁵³⁷⁾

강산 좋은 남국에 으뜸가는 이 누각은
사면의 풍광이 십리 강변에 있네.
봉황 떠난 암자에 대나무 묵은 곳,
학 떨어진 신선 누각에 달 밝은 가을,
석양 너머로는 흰 구름 흐르는 물이요,
해 늦은 뱃머리에 푸른 버들 찬 안개로다.
지친 나그네 난간에 기대어 세속 빛이 없기에
백년토록 다만 이곳에 머무르고 싶구나.

江山南國最斯樓 四面風光十里洲
鳳去僧菴篁老處 鶴遙仙閣月明秋
白雲流水斜陽外 綠柳寒烟晚帆頭

535) 이헌경(李獻慶; 1719-1791): 자는 몽서(夢瑞), 호는 간옹(艮翁), 전주인이다. 영조 19년(1743)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조 때 대사간을 거쳐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였다.

536) 대황(大荒): 바다 너머 먼 곳.

537) 안경점(安景漸; 1722-1789): 자는 정진(正進), 호는 냉窩(冷窩). 광주인. 낙원(樂園)숙(璿)의 5세손. 나이 50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 전직과 예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문인이다.

倦客憑欄無俗債 百年祇欲此淹留

무봉암(舞鳳菴)

안경점

난간 밖에 흐르는 강물 쪽빛처럼 푸르고
 조령의 남쪽 강산의 한없는 경치.
 밝은 달 고요한 창은 신선을 맞는 누각이요,
 흰 구름 종소리에 봉황이 춤추는 암자.
 바다로 달려드는 강물은 두 갈래로 나뉘고
 들 가득 푸른빛은 세 곳의 숲을 벌였네.
 풍광을 시로써 다 그리기 어려운지라
 성 서쪽에서 술을 사서 흥미를 머금는다.

檻外長流綠似藍 江山無限嶺之南
 月明窓靜仙邀閣 雲白鍾鳴鳳舞菴
 走海朝宗分水二 滿郊蒼翠列林三
 最難詩以風光盡 沽酒城西興味含

영남루

정범조(丁範祖)⁵³⁸⁾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 없어
 돌아가는 길에 이 누각에 다시 올랐네.
 옛 사람이 지은 글도 많은데
 늙은 나도 또한 풍류객이라.
 푸른 대 우거진 언덕에 눈이 얇게 깔리고
 백로 모여드는 모래톱에 봄기운 일어난다.
 도화수⁵³⁹⁾ 물이 불어난 뒤에는
 마음껏 가벼운 배를 저어가려네.

百度難虛過 歸驂更此樓
 古人多翰墨 吾老亦風流

538) 정범조(丁範祖; 1723-1810): 자는 법세(法世), 호는 해좌(海左), 시호는 문헌(文獻),
 나주인이다. 영조 39년(1763)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539) 도화수(桃花水): 복사꽃이 필 무렵 얼음이 녹아 불어난 물.

雪淺青簋岸 春生白鷺洲
桃花水漲後 盡意弄輕舟

영남루 시판의 운을 따라[次嶺南樓板上韻]

정범조

말을 타고 동쪽 바다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영남루 앞에 기뻔네.
백년의 성곽은 태평시대 뒤에 남았고
한밤중에 강산은 북 치고 피리 부는 곁에 있네.
절은 거울 빛을 누르며 풍경 소리 울리고
배는 대 그림자에 섞여 외딴 연기처럼 보이네.
세 번이나 올라 와도 그리움 남아 있어
비단 자리에 계명성 지도록 앉아 있었네.

鞍馬東窮海上天 歸途更倚嶺樓前
百年城郭昇平後 中夜江山鼓吹邊
寺壓鏡光聞一磬 櫂迷篁影見孤烟
登臨三度猶餘戀 坐到明星落綺筵

35

객지에서서의 밤에 영남루를 바라보며[客夜望嶺南樓]

정범조

높은 누각에 올라가려니
난간은 볼수록 기묘해지네.
맑은 종소리는 어제 밤과 같지만
둥근 달은 이미 많은 시간 흘렀네.
마음이 강산과 합치되기에
몸은 오로지 술 두루미 따라 다니지.
지난날 노래 부르던 곳은
끝내 시 짓기에 적당치 않네.

欲上高樓去 欄干望轉奇
淸鍾如昨夜 圓月已多時
意與江山會 身惟酒榼隨

向來歌吹地 終是不宜詩

영남루

이 미(李 瀾)⁵⁴⁰

표백한 듯 긴 강물에 먼 하늘 일렁이는데
문서처리로 머문 객이 굽은 난간 앞에 섰네.
누각에 그늘지자 해는 대숲 가에 머뭇거리고
들판의 형세로 사람은 밤숲 가에서 헤맨다.
어젯밤 여울 소리 비처럼 시끄럽더니
아침에 물 기운 연기처럼 모여들었네.
옛 기생은 그대로나 나머지는 모두 없어져,
당시의 검무 추던 자리만 생각이 나는구려.

瀉練長江漾遠天 簿書留客曲欄前
樓陰日逗筠叢際 野勢人迷栗藪邊
昨夜灘聲喧似雨 崇朝水氣曩如烟
依然舊妓餘渾脫 憶上當時舞劍筵

P6

영남루

김상집(金尙集)⁵⁴¹

나루터에 떠들썩 고각 소리 들리고
밤숲이 끝나는 곳, 밀물 드는 어구 마주했네.
높은 누각 멀리 솟아 동남으로 터졌고
한 강물 가운데 둘러 좌우로 나뉘었네.
봄 뒤에 백성 근심 바야흐로 급하더니
비 온 뒤에 날씨가 다시금 더워지네.
홍년의 선화⁵⁴²를 맡을 그릇 아닌지라

540) 이미(李瀾); 덕수인(德水人)이다. 영조 기축년(1769)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541) 김상집(金尙集; 1723-?): 자는 사능(士能), 강릉인(江陵人)이다. 영조 31년(1755) 문과에 급제하고 영조 때 대사간을 지냈으며 정조 병오년(1786)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밀양읍지에 이 시의 작자가 김당집(金當集)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시 본문에 선화(宣化)라는 말이 나오니 이는 작자가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하며 지은 것이고, 이로 보면 김상집(金尙集)의 시임이 분명하다.

542) 선화(宣化): 지방 장관이 왕을 대신하여 교화를 펼침.

성군 재주로 성군을 저버릴까 너무 두렵네.

渡口喧喧鼓角聞 栗林窮處對潮門
高樓迥出東南坼 一水中廻左右分
春後民憂方岌岌 雨餘天氣更氤氲
荒年宣化慚非任 多恐疎才負聖君

영남루에서 벽 위의 운을 따라[嶺南樓次壁上韻]

조 경(趙 敬)⁵⁴³⁾

오르면 평지 같고 앉으면 하늘인 듯,
제일의 이름난 누각 남방의 으뜸일세.
주조⁵⁴⁴⁾가 날아와도 오히려 아래에 있고
대붕이 내려 친 곳 도리어 가이없다.
강물이 흰빛을 일렁이니 멀리 눈이 내린 듯
밤숲에 찌는 푸름은 반나마 연기라네.
벽에 가득한 시편을 도끼자루 썩듯 보다가
슬슬함을 못 견디고 화사한 자리에 기뻐노라.

登如平地坐如天 第一名樓南紀前
朱鳥飛來猶在下 大鵬搏處却無邊
江流漾白遙疑雪 栗藪蒸青半是烟
滿壁詩篇看欲朽 不堪惆悵倚華筵

91

영남루

권심언(權心彦)⁵⁴⁵⁾

부상을 동으로 굽어보니 처마 반이 하늘인데
달려온 여러 산이 앞뒤로 에워쌌네.
천리 길에 홀로 오르니 원교⁵⁴⁶⁾ 바깥이요
한 두루미 술에 높이 기대니 곡강⁵⁴⁷⁾의 가이더라.

543) 조경(趙敬; 1727-1787): 자는 경서(景瑞), 호는 하서(荷棲),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영조 39년(1763)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 대사헌을 거쳐 형조판서,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544) 주조(朱鳥): 남방을 지키는 신조(神鳥).

545) 권심언(權心彦; 1734-?): 안동인이다. 영조 갑오년(1779) 증광 별시에 급제하였다.

546) 원교(圓嶠): 봉래산 영주산과 함께 신선이 산다는 곳이다.

547) 곡강(曲江): 당(唐) 회종(僖宗) 때 진사(進士)에 급제한 사람들이 곡강(曲江)에서

들판은 먼 나무 머금고 마음 맑히는 바람소리
 모래는 대나무 마주하여 살아 있는 화폭인데
 끝없는 석양이 비단 수를 열었으니
 옷깃 헤쳐 화사한 잔치를 거두어들이네.

扶桑東俯半簷天 奔走羣山擁後前
 千里獨登圓嶠外 一樽高倚曲江邊
 野舍遠樹清心籟 沙對疎篁活畫烟
 無限夕陽開錦繡 披襟領略最華筵

PP

영남루

김노진(金魯鎭)⁵⁴⁸

아래로는 맑은 강, 위로는 하늘인데
 높은 누각 성곽 앞에 곧게 솟았네.
 어촌에 아득하게 돛배 돌아올 즈음
 봉래 바다 희미하게 학이 가는 곳.
 위대한 절벽 구름은 천첩의 그림을 열었고,
 평야의 나무에는 일만 층 연기 쌓였네.
 종남산 끝없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더냐?
 석양에 기대어 거문고 소리 듣는 자리로다.

下有澄江上有天 高樓直出粉城前
 漁村漠漠帆歸際 蓬海依依鶴去邊
 危壁雲開千疊畫 平郊樹積萬堆烟
 終南極目知何處 徙倚斜陽錦瑟筵

PP

영남루 절구 열 수, 부사 박종우에게 바침[南樓十絕呈朴明府宗羽]

안인일(安仁一)⁵⁴⁹

잔치를 벌였는데 천자가 그 소식을 듣고 홍릉(紅綾) 띠 28개를 보내어 축하한 적이 있다.

548) 김노진(金魯鎭; 1735-1788): 자는 성첨(聖瞻), 강릉인이다. 영조 33년(1757)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간이 되었으며 정도 때 이조판서, 우참찬을 역임하였다.

549) 안인일(安仁一; 1736-1806): 자는 정첨(靜瞻), 호는 죽북(竹北), 광주인(廣州人)이다. 송와(松窩) 안명하(安命夏)에게 소학을 배우고 청천(靑泉) 신유한(申維翰)의 문장을 좋아하였다. 중년에 죽원리(竹院里)에 이사하여 그곳에서 죽포(竹圃) 손사익(孫思翼), 죽리(竹籬) 손병로(孫秉魯) 등과 종유하였다. 《죽북집(竹北集)》 8권 4책이 있다.

백소부⁵⁵⁰)의 맑은 인연 흰 학⁵⁵¹)을 단장하고
 갈홍⁵⁵²)의 신선 연분 단사를 함양했네.
 부귀영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어찌하여 매화 앞에서 살구꽃을 읊으리.

白傳淸緣裝素鶴 葛洪仙分養丹砂
 如能謝却繁華念 何苦梅前賦杏花

돈폐미 차고 학 타는 생각⁵⁵³) 흡족하기 어렵고
 감독 없고 게 있는 곳⁵⁵⁴) 생각함이 잘못이지.
 우리 고을 작은 벼슬 직책이야 박하지만
 무슨 물건인지 강산은 으뜸가는 고장이라네.

騎鶴腰錢難洽滿 無監有蟹誤思量
 吾州五斗官雖薄 何物江山第一鄉

감천⁵⁵⁵)의 게 모임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점필재 선생 옛 집터에 물이 굽어 감돈다.

550) 백소부[白傳]: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일찍이 태자소부(太子少傅)로 임용된 적이 있기에 일컫는 말이다.

551) 흰 학[素鶴]: 백거이(白居易)의 <가원삼절(家園三絕)> 시에 “원앙새는 잡힐까 두려워 하니 친하기가 어렵고/ 앵무새는 조롱속에 있어도 사람 가까이 하지 않네/ 어떻게 집에 기르는 두 마리 흰 학은/ 한가한 걸음마다 이몸 따라 다니네[鴛鴦怕捉竟難親 鸚鵡雖籠不著人 何似家禽雙白鶴 閑行一步亦隨身]”라고 하였다.

552) 갈홍(葛洪): 진(晉)나라 때 사람으로 자는 치천(稚川)이고 호는 포박자(抱朴子)이다. 선술을 좋아하여 단사(丹砂)가 많이 생산되는 구루(句瀾)의 현령을 자청하여 나갔고, 나부산(羅浮山)에서 단약(丹藥)을 연성(煉成)하여 신선이 되어 갔다. 한다.

553) 돈 폐미 차고 학 타는 생각[騎鶴腰錢]: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각기 제 소원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양주자사(楊州刺史)가 되고 싶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으겠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학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하기를 허리에 십만 폐미의 돈을 차고 학을 타고서 양주에 가서 살겠다고 하였다. 이루어 질 수 없는 허황한 꿈을 가리키는 말이다.

554) 감독 없고 게 있는 곳: 진(晉)나라의 필탁(畢卓)은 젊어서부터 방달(放達)한 사람이었는데 일찍이 이부랑(吏部郎)의 벼슬에 있으면서 항상 술을 마시며 직책을 돌보지 않았다. 한 번은 이웃에 사는 낭관 집에 술이 익은 것을 알고는 술에 취하여 밤중에 그 술독이 있는 곳을 찾아 몰래 퍼 마시다가 술독을 지키는 사람에게 들켜 결박을 당하였다. 다음날 그 신분을 안 주인이 풀어주자 주인과 같이 술독 옆에 가서 잔뜩 술을 마시고 돌아갔다. 필탁은 평소 말하기를, “수백 섬 술이 들어가는 배에다가 사철의 좋은 음식을 배 양쪽에 쌓아놓고 오른 손에 게 다리를 잡고 왼손으로 술잔을 잡고 술을 채운 배를 띄워 뱃전을 치면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한다.

555) 감천(甘川): 화악산에서 발원하여 부북면을 거쳐 남천강과 합류하는 내 이름.

한 맥의 정기 어린 동방의 노나라이니
문장가와 도학자가 얼마나 배태되었던가?

甘川修禊畫圖開 畢老遺墟曲水回
一脈元精東魯國 文章道骨幾胚胎

지금 호수의 연꽃과 계수나무 옛 호수와 같고
만어산엔 바위된 고기 일만 마리⁵⁵⁶)가 있네.
명승지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영남에 어찌 다만 이 누각만 있으리.

今湖荷桂古湖猶 又有魚山石萬頭
形勝固難更僕數 嶺南奚獨有斯樓

이 누각 풍물은 천년을 겪었는데
남두성이 그림 난간에 창창하게 비치네.
사또께서 문서장부를 펴면서부터
빛소리 산 그림자 정신이 부쩍 나네.

斯樓風物閱千春 南斗蒼蒼映畫楯
一自使君開篆牒 雨聲山影頓精神

충효의 연원은 금수⁵⁵⁷) 물 구비에서 왔고
덕망 높고 빛나는 가문 조정 반열에 으뜸이네.
두 눈썹 거의 반은 푸른 안개 기운인데,
누각 아래에서 학같은 모습 물끄러미 쳐다보네.

忠孝淵源錦水灣 德門光價甲朝班
雙眉一半青霞氣 樓下長瞻老鶴顏

누런 소매 짧은 칼로 공손 검무⁵⁵⁸) 춤을 추고

556) 바위고기 일만 마리: 《삼국유사(三國遺事)》 <어산불영(魚山佛影)>조에 이르기
를, 옛날 만어산에 독룡(毒龍)이 살면서 온갖 해악을 끼쳤는데 가락국의 김수로왕(金
首露王)이 불법(佛法)의 힘을 빌어 독룡을 설복하자, 동해 용왕이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설법을 듣고는 감화되어 일만개의 바위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557) 금수(錦水): 전라남도를 관통하여 흐르는 영산강(榮山江)의 옛 이름이 금천(錦川)
또는 금강(錦江)이다. 박종우의 관향인 반남(潘南) 고을이 영산강가에 있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558) 공손검무(公孫劍舞): 칼춤. 당나라 때 공손대낭(公孫大娘)이란 기녀가 검무를 잘
추었는데, 두보(杜甫)가 이를 소재로 시를 지어 공손무검(公孫舞劍)이라 하였다.

그림배 샷대로 저으며 설빈사⁵⁵⁹)를 부른다.
 지난 가을 객의 잔치에서 응답한 좋은 시귀
 떠나는 말은 백옥 굴레 쓰고 더디게 우네.

黃衫短鋏公孫舞 畫舫撐篙雪鬢詞
 前秋宴客酬佳句 征馬遲鳴白玉羈

서울 길 떠나가는 나그네를 쳐다보면
 눈과 구름 천리 멀리 따라 나설 듯.
 거미줄도 거문고 갑에 감히 침범 못하리니
 하룻밤 강호산천에 메아리 더욱 맑네.

瞻望征塵日下程 雪雲千里若爲行
 蛛絲不敢侵琴匣 一夜湖山響更清

남은 책 몇 장을 아침별에 살펴보나
 예전 비에 오던 사람⁵⁶⁰) 오지 않았네.
 영성하고 게으른 내가 어찌 마음에 들리오만
 매양 그림누각에 오르면 술꾼을 만류⁵⁶¹)했네.

殘書數葉檢朝暾 舊雨來人不到門
 豈謂疎慵猶可意 每登畫閣輒留髡

잎이 지고 꽃이 피는 죽하 마을에
 일양이 돌아와서⁵⁶²) 높은 관원을 뵈셨네.
 화락한 강구의 노인 농사짓고 우물 파 마시다가
 살아서 요순 시대 시작하던 때를 보았네.

葉落花開竹下村 一陽回處拜官尊
 熙熙衢老知耕鑿 生見唐堯甲子元

559) 설빈사(雪鬢詞): 머리가 하얗게 세어가는 노인의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560) 예전 비엔 오던 사람[舊雨來人]: 송나라 소동파(蘇東坡)의 차운답왕정국(次韻答王定國) 시에 “듣자니 장안에는 열흘 동안 비가 내려/ 진흙탕에 말이 빠지고 거리에 물고기 산다지/ 예전 비엔 오던 사람 지금은 오지 않아/ 느긋하게 홀로 술 마시고 텅빈 곳에 누웠노라[傳聞都下十日雨 清泥沒馬街生魚 舊雨來人今不來 悠然獨酌臥清虛]”라고 한 구절이 있다. 당나라의 두보(杜甫)가 일찍이 장안의 여관에서 병들어 누웠을 때 마침 비가 많이 왔는데 옛 친구는 찾아오고 새로 사귀 친구는 오지 않자, “예전의 비는 오고 지금의 비는 오지 않는다[舊友來 今友不來]”라고 한 데서 옛친구를 구우(舊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

561) 술꾼을 만류: 중국의 전국시대에 제(齊)나라의 순우곤(淳于髡)은 술을 좋아하였는데, 주인이 만류하여 권하면 능히 한 섬의 술을 마셨다고 한다.

562) 일양(一陽)이 돌아와서: 양기가 다시 시작하는 절기인 동지(冬至)를 가리키는 말이다.

영남루

윤 기(尹 禧)⁵⁶³⁾

흰 성첩 사이에 화려한 누각 높이 임하여
천상에 앉은 듯이 석대가 되었구나.
밤숲과 먼 들은 눈 앞에 시원하고
파자의 맑은 강이 험함 아래로 돌았다.
석양에 고깃배는 외로운 연기 속에 아득한데
맑은 경쇠 울리는 절간 골짜기 가득 구슬프네.
퇴계 선생 지은 시구 두 세 번 감상하고
남은 운치 따르자니 못난 재주가 부끄럽네.

華構高臨粉堞間 坐如天上石爲臺
栗林遠野眼前濶 巴字澄江軒下回
斜陽漁艇孤烟杳 清磬招提滿壑哀
三復退陶題壁句 欲追餘韻愧非才

영남루 모임 석상에서 루자 운을 뽑아[嶺南樓會席拈韻得樓字]

손병로(孫秉魯)⁵⁶⁴⁾

창주⁵⁶⁵⁾에서 수조가⁵⁶⁶⁾ 첫머리를 낭랑하게 읊나니
중국의 삼재도회에 올라 있는⁵⁶⁷⁾ 누각이라네.

563) 윤기(尹禧; 1741-1826): 자는 경부(敬夫), 호는 무명자(無名子), 파평인이다. 정조 16년(1792)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호조참의를 역임하였다.

564) 손병로(孫秉魯; 1747-1812): 자는 종례(宗禮), 호는 죽리(竹籬) 또는 이암(邇庵), 밀성인이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과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의 문하에 수학하고 정조 정유년(1777) 진사에 합격하였다.

565) 창주(滄洲): 물가의 은자가 은거하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

566) 수조가두(水調歌頭): 수조가는 악곡 또는 음조의 이름이다. 가두(歌頭)는 악곡의 첫 부분을 따로 부르는 말이다.

567) 삼재도회(三才圖繪)에 올라 있는: 삼재도회는 명(明)나라 만력 35년(1607) 왕기(王圻)가 찬하고 그 아들 사의(思義)가 교정한 책이다. 이 책의 지리 13권에 천하의 명승지와 누각을 실어 놓았는데, 우리나라 누적으로는 강원도 상운정(祥雲亭)과 함께 영남루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영남루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영남루는 경상도 밀양부의 객관 동편에 있다. 산허리 외곽에 의지하여 지었는데, 삼면이 넓게 트여 올라보면 시원하다. 아래로는 긴 강이 있고 강 너머로 큰 들이 있으며, 들에는 밤나무 숲이 있어서 시선이 닿는 곳이 모두 푸르다. 강 흐름이 굽이쳐서 길게 꿈틀

넓디넓은 하늘과 땅은 우리들을 용납하고
 창창한 갈대와 이슬은 또 새로운 가을이네.
 부럽다 그대는 노을 생각에⁵⁶⁸⁾ 훌쩍 떠날 수 있지만
 가련하다 나는 연잎 적삼⁵⁶⁹⁾에 절뚝거리며 숨었네.
 이별한 뒤 그리는 마음을 알려고 하는지
 강물은 분명하게 갈라져서 흐르지 않네.

滄洲朗咏水調頭 中國三才圖上樓
 納納乾坤容我輩 蒼蒼葭露又新秋
 羨君霞思能標舉 憐我荷衫已蹙幽
 欲知別後相思意 江水分明斷不流

영남루의 뱃놀이, 신경희 택명에게 줌[南樓泛舟贈 申景晦宅明]

손병로

시원시원한 삼재⁵⁷⁰⁾가 한 배를 타고
 흰 갈매기 다 날자 바다 하늘 길구나.
 강호의 오랜 이별 모두 머리가 세고
 한 두루미 술로 만난 때가 또 석양이구나.
 부끄럽다 나는 이 세상의 음악과 어울리지 않는데
 가련하다 그대는 옛날 광자⁵⁷¹⁾에 스스로 건주니.
 봄 물결 잠깐 불어 돌아오는 배 편안한데
 무슨 일로 외로이 파옥장⁵⁷²⁾을 읊는가?

落落三才共一航 白鷗飛盡海天長

거리며 긴 숲 사이로 숨은 듯 보이는 것이 마치 무지개가 물가에 드리운 듯하여 인
 간세상이 아닌 듯하다. 그 경치는 영남의 제일이다. 동편으로 망호당(望湖堂)이 있고
 서편에는 임경헌(臨鏡軒)이 있는데 모두 극히 깔끔하다. [嶺南樓在慶尙道密陽府館東.
 山腰依郭而構 三面敞豁 登覽曠然. 下有長江 江外有大野 野有栗林 蒼翠極目. 江流屈
 曲 蜿蜒而長 隱見長林間虹明水錯 殆非人境. 其勝覽爲嶺南第一. 東有望湖堂 西有臨鏡
 軒 皆極洒落.]

568) 노을 생각[霞思]: 산수 자연에 유람하는 생각. 이백의 시에 “바다 생각은 창주에
 뱃히고/ 노을 생각에 적성에 노니네[海懷結滄州 霞想遊赤城]”이란 구절이 있다.

569) 연잎 적삼[荷衫]: 은자가 입는 보잘 것 없는 옷. 하의(荷衣).

570) 삼재(三才):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재질. 하늘과 땅과 사람.

571) 옛날 광자(狂者): 미친 제 하며 세상을 피하였던 옛날의 은자(隱者).

572) 파옥장(破屋章): 가난한 살림을 한탄하는 노래. 맹교(孟郊)의 <추회(秋懷)> 시에
 “가을 오니 늙은이 더욱 가난하여/ 부서진 집에 문짝도 없네[秋至老更貧 破屋無門
 扉]”라고 하였다.

湖山久別俱衰癯 樽酒相逢又夕陽
愧我不諧今世樂 憐君自擬古之狂
春波乍漲歸帆穩 何事孤吟破屋章

영남루 주석에서 급하게 지어 사또 박종우를 전별하다[南樓酒席走草奉別朴使君宗羽] 2수

손병로

동쪽 다리에서 먼저 대나무 안부를 묻고
두루미 술로 단란하게 아스라한 누각에 앉았네.
궁한 거리 오랫동안 병든 현안⁵⁷³은
서호에서 삼년 동안 향산에 머물렀네.
생황 노래 펄럭펄럭 마음은 취하지만
가을 기운 스산하여 머리 이미 희끗희끗.
내일은 웅헌⁵⁷⁴이 장차 길에 오른다고
제주의 맑은 물이 다시 가득하구나.

東橋先問竹平安 樽酒團圓繚繚間
窮巷長時病玄晏 西湖三載住香山
笙歌旖旎心能醉 秋意闌珊鬢已斑
明日熊軒將啓道 齊州清水更灣灣

쟁 타는 아가씨 금숙⁵⁷⁵이 이별가로 바뀌고
외론 성엔 다시금 지는 해가 기우네.
동호에선 특별한 예우로 자주 환대 받았고⁵⁷⁶
남국의 풍류는 꽃 피는 봄을 거듭 만났네.
가을되자 나그네 마음은 비 내린 뒤처럼 스산하고
늘어가며 시 짓는 정은 저녁 노을과 같구려.
서글프게 구름과 산으로 한 번 이별한 뒤엔

573) 병든 현안(玄晏): 진(晉)나라의 고상한 선비 현안선생 황보밀(皇甫謐). 나이 20세에 학문을 성취하고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았다.

574) 웅헌(熊軒): 곰의 형상을 새긴 수레. 옛날 지방의 제후가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지방 수령의 수레를 뜻한다.

575) 금숙(金粟): 쟁(箏)의 현을 장식하는 부품을 가리킨다.

576) 환대하셨고[下榻]: 후한 때 남창(南昌) 사람 서치(徐稚)는 성품이 고결하여 명망이 높았는데, 진번(陳蕃)이 예장(豫章) 태수로 있으면서 평상 하나를 마련하여 매양 걸어 놓았다가 서치가 올 때면 내려서 앉게 하였다고 한다.

야인의 집을 기억해 주시거나 하실런지?

箏娥金粟轉離歌 更值孤城落日斜
異禮東湖頻下榻 風流南國再逢花
當秋客意經新雨 垂老詩情欲晚霞
悵悵雲山一別後 可能相憶野人家

영남루 모인 자리에서 운을 뽑아 누(樓)자를 얻었다. [嶺南樓會席拈韻得樓字]

남경희(南景義)⁵⁷⁷⁾

조령의 남쪽에 이름난 이 누각 하나,
올라와서 추억하네 소년시절 놀던 때를.
앞에 있는 들판 형세 창창하게 멀고,
의구한 강물 빛은 늑실늑실 흐른다.
자리 가득 사람들 쉰 머리가 서로 안타깝고
난간에 기대니 온 몸이 떠오를 것 같구나.
잔을 머금고 은근한 뜻을 사례하려니
웅천의 가을빛은 취한 뒤에 무궁하네.

大嶺之南此一樓 登臨回憶少年遊
當前野勢蒼蒼遠 依舊江光滾滾流
滿座相憐雙鬢改 憑軒更覺一身浮
含杯欲謝慙慙意 無限凝川醉後秋

영남루

김재일(金載一)⁵⁷⁸⁾

선한 이에 복을 줌은 하늘의 순리이고
온 도를 맑게 함은 전대 풍류를 이음이로다.
양춘에 거듭 감당나무 아래에 이르렀으나⁵⁷⁹⁾

577) 남경희(南景義; 1748-1812): 호는 치암(寢巖), 자는 증은(仲殷), 영조(英朝) 무진년(1748)에 영해에서 태어나 대학문해(大學問解), 역전통석(易傳通釋), 통서유의(通書疑義) 등을 저술하였고, 대산(大山) 문하에 집지(執贄)하였다. 정조 정유년(1777) 증광진사(進士)에 합격하고 이어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578) 김재일(金載一; 1749-?): 김해인으로 해남(海南)에 거주하였다. 정조 병오년(1786)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접시꽃은 언제나 상서로운 해에게로 향하네.
 남방에 머물러서 교화를 펼치고
 시가 되자 효성의 감회 바람 연기에 휩싸이네.
 난간에 기대 애타지게 고금을 회상하니
 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달은 자리에 가득하네.

福善元來必有天 澄清一道流承前
 陽春重到甘棠下 葵萼常傾瑞日邊
 節駐南藩宣教化 詩成孝感繞風烟
 憑欄黯黯想今古 江水東流月滿筵

181

영남루

허형(許珩)580

비 오는 날씨에 행인이 말을 멈추니
 웅장한 고을 이름난 누각 눈앞에 있네.
 풍경은 옛 현자의 시구 속에 있고
 강산은 오늘의 술두루미 가에 있네.
 지형은 신라의 물을 합하여 모았고
 들빛은 가락의 연기를 멀리 나누었다.
 영남제일루라 망녕된 말 아니니,
 천년동안 등립하여 좋은 잔치 몇 번이었나?

行人停馬雨中天 雄府名樓卽眼前
 風景昔賢詩句裡 江山今日酒樽邊
 地形合聚新羅水 野色遙分駕洛烟
 第一嶺南非妄語 登臨千載幾華筵

700

영남루

김광태(金光泰)

거울 같은 하늘에 금빛 파도 출렁이고

579) 양춘에 거듭: 감당나무는 주(周)나라 초기 소공(召公)이 민정을 살피면서 감당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는 고사이다. 화창한 봄날에 다시금 방백으로 부임하였음이다.
 580) 허형(許珩; 1773-?): 원주인(原州人)으로 포천(抱川)에 거주하였다. 정조 을묘년(1795) 춘당대 문과에 급제하였다.

옛 성곽 앞에 둥근 달이 배회하네.
 절간의 풍경소리 더 없이 맑거니와
 밤숲의 가을 빛이 가없이 담백하네.
 발 걸으니 굽은 난간에 차가운 바람 소리
 배 읊기니 빈 물가에 새벽 연기 떨어지네.
 영남의 가장 절묘한 일은
 채색 누각 높은 곳의 푸른 비단 자리로다.

金波搖蕩鏡中天 圓月徘徊古郭前
 蓮寺磬聲清不極 栗林秋色淡無邊
 捲簾曲欄生寒籟 移棹虛汀落曉烟
 最是嶺南奇絕事 彩樓高處綠羅筵

102

영남루

조덕상(趙德常)

문장은 호해의 선비⁵⁸¹⁾요
 풍월은 영남루로다.
 빈주가 타향의 자리에서
 강산에 하루 밤 놀았노라.
 차가운 별에 칼날의 기상 흐르고
 눈이 개이자 매화의 근심 움트는데
 십 년 동안 고달픈 벼슬살이
 술두루미 앞에 흰머리 함께 하네.

文章湖海士 風月嶺南樓
 賓主他鄉席 江山一夜遊
 寒星流劒氣 晴雪動梅愁
 十載勞形役 樽前共白頭

영남루에서 삼연 선조의 시운을 따라[嶺南樓敬次 三淵先祖板上韻]

김리탁(金履鐸)⁵⁸²⁾

581) 호해(湖海)의 선비: 삼국시대 진등(陳登)의 자는 원룡(元龍)인데, 허소(許都)는 진등의 인품을 논하여, “진원룡은 호해(湖海)의 인사로서 호탕한 기상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곱고 고운 강의 달은 몇 번이나 등글었나?
 높은 누각 오른 것이 이십 년만이로다.
 멀리 밤의 종소리 꽃 너머 절에서 울리고
 봄바람에 사람은 거울 속 하늘에 앉았네.
 성의 구름 거꾸러진 그림자 술잔에 맑게 흔들리고
 물가의 대나무 짙은 그늘 배에 가득 떨어지네.
 거문고를 치고 나니 산과 바다는 넓은데
 사또의 그윽한 생각 정녕 시원하구나.

娟娟江月幾回圓 憶上高樓二十年
 遙夜鍾鳴花外寺 春風人坐鏡中天
 城雲倒影清搖酒 水竹濃陰落滿船
 彈罷瑤琴山海曠 使君幽思正泠然

누각 그늘 바둑판은 몸을 따라 옮겨가고
 구름과 물이 처마 끝에 닿아 새가 사람 가까이 오네.
 그윽한 풍경 한 소리는 먼 나무에 맑고
 긴 강 아홉 구비 푸른 마름을 띠었네.
 석양에 돛단배는 여뀌꽃의 비 속에 지나가고
 흐르는 물처럼 술잔에 죽엽춘 술을 돌리네.
 남국의 산천을 마음 흡족히 감상하고
 요선관 안에서 맑고 참된 기운을 함양하네.

樓陰碁局動隨身 雲水齊簷鳥近人
 幽磬一聲明遠樹 長江九曲帶青蘋
 夕陽帆過蓼花雨 流水盃行竹葉春
 南國山川心賞愜 邀仙館裏養清真

우리 조상 쓰신 편액 오래이더니
 남방에 이 누각이 있었구려.
 새는 강가의 대숲에서 울고
 사람은 목란주에 의지하였네.
 물가의 갈대는 고기잡이 피리를 불고
 산의 꽃은 야인의 노래에 오르는데
 바다 하늘 아득하여 끝이 없고
 난간에 앉으니 한 강물이 흘러가네.

582) 김리탁(金履鐸): 안동인으로 삼연 김창흡의 증손이다. 신축(1781) 2월에 밀양부사로 도입하여 을사(1785) 4월까지 재임하였다. 이 시 네 수의 판은 현재 영남루에 남아 있다.

吾祖題扁古 南州有此樓
鳥鳴篁竹岸 人依木蘭舟
水葦吹漁管 山花上野謳
海天杳無極 凭檻一江流

<첫 구절은 빠짐>

난장을 저어 상류로 올라갔더니,
달은 소나무 사이 절에서 뜨고
바람은 대밭 너머 누각으로 오네.
한 가닥 연기는 마암 섬에서 생기고
고인 물은 교룡의 높으로 어둡다.
감상을 하면 진정한 경계가 있으니
강과 산에는 묵은 비가 걷히네.

○○○○○ 蘭槳上游浮
月出松間寺 風來竹外樓
孤烟生馬島 積水暗蛟湫
延賞有眞境 江山宿雨收

영남루

김리탁

바닷가 산은 비 온 뒤에 킁킁하고
잔잔한 호수는 술잔 앞에서 푸르게 일렁인다.
외론 성 누각은 여울 소리 속에 기대었고
옛 나무에 사람은 들판 가로부터 오는데,
강가의 성근 술에 고니와 학이 나르고
처마 결의 긴 대나무는 구름 연기 흔드네.
고운 무희 춤 끝나고 구슬발을 걸으니
그림 누각 동쪽 머리로 달이 자리에 오르네.

海嶠冥冥雨後天 平湖漾綠酒盃前
孤城樓倚灘聲裡 古渡人來野色邊
來岸疎松飛鶴鶴 傍簷脩竹搖雲烟
嬌姬罷舞褰珠箔 畫閣東頭月上筵

103

영남루

조휘진(曹翬振)⁵⁸³⁾

소남에 끼친 교화 이천⁵⁸⁴⁾이라 일컫나니
 벽사룡의 시판을 오래 전부터 전해오네.
 높은 누각 백년 동안 풍속을 살펴본 다음
 저무는 시각 늦가을에 해 있는 곳 바라보네.
 옛 성첩 대나무엔 끝없이 밝은 달이 걸리고
 거친 들판 숲에는 연기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
 지금도 남은 빛이 강산에 남아 있기에
 흰머리로 높다랗게 묵리⁵⁸⁵⁾의 잔치 읊조리네.

遺化召南說二天 紗籠傳道却灰前
 高樓百載觀風後 殘角三秋望日邊
 古堞竹懸無盡月 荒郊林帶未消烟
 至今餘債江山在 白首高吟墨吏筵

영남루⁵⁸⁶⁾

김광묵(金光默)⁵⁸⁷⁾

이 누각이 영남에서 가장 좋나니
 날아갈 듯 중건하여 예전보다 낫구나.
 한 고을 눈과 발이 푸른 초원 밖에 있고
 일천 집 시가지가 흰 갈매기 곁에 있네.
 불에 타고 물이 활은 곳은 신라의 발자취요
 긴 대나무에 봄이 영긴 건 옛 절의 안개로다.
 알겠노라 흥폐에는 기다림이 있는 법이니
 낙성하는 자리에 함께 취함을 사양 않으리라.

茲樓最得嶺南天 重到翬飛却勝前
 一府桑麻青草外 千家井竈白鷗邊

583) 조휘진(曹翬振): 창녕인으로 정미(1787) 4월에 밀양부사로 도임하여 기유(1789) 6월에 사퇴하였다.

584) 이천(二天): 왕명을 받아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수령을 일컫는 말이다.

585) 묵리(墨吏): 탐욕이 많은 관리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는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586) 이 시는 김광묵의 중수기문 뒤에 첨부되어 전한다.

587) 김광묵(金光默): 조휘진 부사가 영남루를 중건할 때 중건기문을 지었다.

劫灰水嚙新羅跡 脩竹春凝古寺烟
知是廢興應有待 不辭同醉落成筵

영남루 2수

남공철(南公轍)⁵⁸⁸⁾

국화 피는 계절에 침거⁵⁸⁹⁾가 맞추어 오니
선배들의 풍류는 백년 전부터 있었네.
소자가 영남으로 지방을 맡아 음에
채색 누각 탈 없이 강변에 있었구나.
남조의 사찰⁵⁹⁰⁾에는 맑은 풍경소리 들리고
북극의 산천은 먼 연기 속에 솟았네.
저물자 음악 소리 목메는 줄 모르고
그림배는 사또의 자리로 가까이 옮겨가네.

檐車趁到菊花天 先輩風流百載前
小子按藩來嶺外 彩樓無恙在江邊
南朝寺刹聞清磬 北極山川起遠烟
向晚不知簫鼓咽 畫船移近使君筵

십리에 강물이 높고 낙엽이 지는 날에
벽사롱 공손히 털고 누각 앞에 기뻔노라.
이름난 누대의 필묵은 천하에 절묘한데
방백의 부절 행차 해변을 순시하네.
차가운 성첩의 기러기는 모래섬 달에 울고
날저문 다리에 사람은 죽림의 연기를 건너구나.
밤 늦도록 능파각에 술만 마시다가
다시금 가희의 금슬 자리에 취하였노라.

十里江高落木天 紗籠恭拂倚樓前
名臺筆墨妙天下 方伯節旄巡海邊
寒堞鴈嘶沙磧月 暮橋人渡竹林烟

588) 남공철(南公轍; 1760-1840): 자는 원평, 호는 사영, 의려인이다. 정조 8년(1784) 음보로 출사하여 정조 16년(1792)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순조 원년 임술(1801)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589) 침거(檐車): 휘장을 둘러 장식한 지방 수령의 수레.

590) 남조(南朝)의 사찰: 당나라 두목(杜牧)의 <강남춘(江南春)> 시에 “남조의 사백 팔십 절간/ 하고 많은 누대가 안개비 속에 있네[南朝四百八十寺 多少樓臺烟雨巾]”라고 하였다.

夜闌徒酒凌波閣 更醉佳姬錦瑟筵

영남루 시판의 운을 따라[次嶺南樓板上韻]

이근오(李覲吾)⁵⁹¹⁾

못 산이 둘러싸고 큰 내가 감도는데
 백 척 높은 누각이 그림 속에 열렸네.
 황학루에 어찌 최호의 시가 없겠으며
 악양루에 동빈⁵⁹²⁾이 왔음을 누가 알리오?
 비단 병풍에 날씨 따뜻하여 무희가 춤을 추고
 매화 누각⁵⁹³⁾에 봄이 질어 태수는 잔을 든다.
 명승지를 살펴보고 좋은 일도 이뤘으니
 노년의 이런 낙도 기특하다 하리라.

羣山環拱大川回 百尺高樓畫裏開
 黃鶴那無崔顥詠 岳陽誰識洞賓來
 錦屏日暖佳姬舞 梅閣春濃太守盃
 領略名區窮勝事 衰年此樂亦奇哉

영남루

윤광호(尹光濩)⁵⁹⁴⁾

긴 여름 누각 위에서 먼 하늘 바라보니
 희미한 세월 이십 구 년 전의 일이구려.
 별자리 나누었던 자취 아직도 남았으니
 일본으로 돛대 높이 걸고 가던 일 생각나네.
 병이 많아 한가한 세월이 찾아들고,
 인연 따라 좋은 풍경을 응접하는데,
 봄 내내 가물어서 백성의 걱정 무겁기에

591) 이근오(李覲吾:1760-1834): 호는 죽오(竹塢), 자는 성응(聖應). 울산인으로 정조 13년(1789)에 진사에 합격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박사, 병조좌랑을 거쳐 지평을 역임하였다.

592) 동빈(洞賓): 당(唐)나라 때 사람으로 팔선(八仙)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순양자(純陽子) 여동빈(呂洞賓)을 가리킨다.

593) 매화 누각[梅閣]: 동각(東閣), 지방 수령이 집무하는 정청(正廳)을 일컫는 말이다.

594) 윤광호(尹光濩): 파평인(坡平人)으로 무오(1798) 4월에 밀양부사로 도임하여 이듬해 정월에 사임하였다.

호당하고 맑은 대풍류 줄풍류 자리에 올리지 않네.

長夏樓頭依遠天 依稀二十九年前
尙留一轍分星界 憶掛高帆出日邊
多病侵尋閑歲月 隨緣應接好風烟
連春旱儉民憂重 豪竹清絲不上筵

108

영남루 4수

박종우(朴宗羽)⁵⁹⁵⁾

지는 노을 따오기와 하늘에 이어진 물,
등왕각 영남루의 명승 앞뒤 시대에 떨쳤네.
끝없는 강 바람은 발 아래에서 불고
수많은 별들은 머리 가까이에 있구나.
산 빛은 벼루에 비취 가늘게 운이 나고
물 기운이 침범하여 절로 연기 일어난다.
밤 깊어 맨 먼저 달을 보고자
능파각 동쪽으로 자리 다시 옮기네.

落霞孤鶩水連天 滕閣南樓相後前
無盡江風來脚底 不勝星斗近頭邊
山光倒靚微生潤 水氣侵除自起烟
要向夜深先得月 凌波東畔更移筵

109

구불구불 흐르는 강은 반달처럼 돌렸고
그림 속 높은 누각 거울 가운데 뒀구나.
남쪽 바다 이어진 산, 끝이 없는 듯
동남으로 하늘 터져 홀연 누각 있었네.
성곽 밖 종소리는 무봉산에서 울려오고
대밭 가 구름의 기운 용두 늪을 감쌌네.
열 두 난간에 주렴을 걸어올리고
백 이랑 유리를 앉아서 보며 거두네.

篆屈江流環半月 畫中高閣鏡中浮
山連溟海疑無地 天坼東南忽有樓
郭外鍾聲來鳳岵 竹邊雲氣護龍湫

595) 박종우(朴宗羽): 반남인(潘南人)으로 순조 임술(1802) 2월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갑자 7월에 진주목사로 승진되어 갔다.

關干十二褰珠箔 坐見玻璃百頃收

관현악 한 소리에 저녁 연기 걷히고
대밭 앞에서 작은 배 재촉하여 부르네.
옛 사람 가고 난 뒤 지금 사람 즐기니
무진장한 가운데 다함없는 인연이로다.
마음 맞는 곳에 놀면 모두가 적벽이요
달은 예로부터 푸른 하늘에 있는 것을.
당시에도 영남루의 명승이 있었으리니
좋은 일도 아마 이곳에서 있었으리라.

絃管一吹斂夕烟 小舟催喚竹林前
昔人去後今人樂 無盡藏中不盡緣
遊到會心皆赤壁 月因從古在青天
當時尚有南樓勝 勝事應知屬此邊

붉은 난간 면면마다 각기 좋은 풍경이니
등뒤로 산 안개 개이고 작은 섬 앞에 있네.
영남 지방에서 누각으로는 제일이요
이름을 옛 절의 그대로 함은 터의 인연이로다.
대와 정자 강에 가까워 달도 좋거니와
들 넓고 산이 낮아 하늘을 받아들일 듯.
그 가운데서도 완전한 공사가 있으니
시상을 찾는 일이 흰 갈매기 곁에 많이 있네.

朱欄面面各風烟 背挹晴嵐小島前
嶺以南來樓第一 名仍寺舊地因緣
臺亭江近便宜月 野廣山底恰受天
箇裡宛然公事有 尋詩多在白鷗邊

영남루 2수

이상도(李尙度)

산호 같은 처마 머리는 갠 하늘에 가깝고
평야의 구름과 노을이 앞으로 아득하네.
절로 있는 맑은 강은 성밖에서 오고
길이 남은 밝은 달은 찾는 곳을 비추는데,

먼 포구에 어부 노래는 가는 불로 분간되고
 한산의 풍경소리는 어스름 연기를 깨네.
 하룻밤 능파각에 묵은 일이 꿈결 같은데
 목란주에서 머리 돌리니 화려한 잔치 자리로다.

珊瑚簷額近晴天 平楚雲霞渺滌前
 自有澄江來郭外 長留明月照探邊
 漁歌極浦微分火 禪磬寒山暝破烟
 一宿凌波如夢寐 蘭舟回首綺羅筵

하얀 달은 붉은 난간에 통하고
 긴 연기 굵은 물굽이를 쓸어내네.
 성은 강가의 절에 감춰지고
 구름은 바다 가운데 산에서 나온다.
 갈 길이 먼 줄을 모르고
 밤의 한가한 경치 모두 거두니
 남도의 민요소리 상선에서 일어나
 뗏가지 아롱지도록 그윽이 묵멘다.

皓月通朱檻 長烟掃曲灣
 城藏江上寺 雲出海中山
 未覺行程遠 都收夜景閒
 南謠動商舶 幽咽竹枝斑

영남루

김노응(金魯應)⁵⁹⁶

밀양성 남쪽 풍경 교남에 드물어
 출렁이는 물 종일토록 시골 사립문을 들렀다.
 십리 강변의 절벽에 낙엽이 질 때
 맑은 풍경 한 소리에 중은 홀로 돌아오네.
 새 밤송이 알밤 터지자 다람쥐가 쪼고
 시든 갈대 하얗게 펼쳐진 곳에 물새 나는데,
 내가 와서 세 밤을 자고도 아직 미련이 남아
 매양 누각 난간에 기대어 푸른 산을 보노라.

596) 김노응(金魯應; 1757-1824): 자는 유일(唯一), 호는 일와(一窩), 영의정 홍경(興慶)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고 순조 임신년(1812)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密州城南嶠外稀 漣漪終日帶村扉
斷岸十里葉初落 清磬一聲僧獨歸
新栗綻黃野鷺啄 枯蘆繚白沙禽飛
我來三宿尚餘戀 每倚樓闌看翠微

영남루

유한식(俞漢寔)

가을 바람에 홀로 영남성에 올랐더니
백 척 높다란 난간에 푸름이 비졌네.
밤숲이 께매어 놓은 듯 묵은 들이 가깝고
고기잡이 등불 비쳐 작은 못이 맑구나.
물고기는 검무를 알아 몸을 도사리고
백로는 노래 소리 익어 깃을 가벼이 친다.
알겠노라 헛된 이름 가진 선비 없듯이
이 누각도 예로부터 시로써 울린 것을.

秋風獨上嶺南城 百尺危欄積翠橫
栗藪彌縫荒野近 漁燈粧點小潭清
魚知劍舞呈身竦 鷺慣笙歌振羽輕
始信無虛名下士 此樓從古以詩鳴

영남루

이면승(李勉昇)597)

가마득한 하늘로 이어진 작은 골짜기,
사십 이년 전 일이 모락모락 생각한다.
흰 물 푸른 산 경계에 마음을 맡겨놓고
단오절 장마비에 머물면서 취하였네.
옥절의 신관 사또 귀밑머리는 눈 같은데
동향⁵⁹⁸⁾에 끼친 사랑 일만 집이 평화롭다.

597) 이면승(李勉昇; 1766-1835): 자는 계래(季來), 시호는 문헌(文獻), 전주인이다. 정조 18년(1794)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성, 대사간을 역임하였으며 순조 기축년(1829)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598) 동향(桐鄉): 지방관원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정치교화를 베푸는 고장을 일컫는 말이

칸을 지어 남긴 목적⁵⁹⁹)을 오래도록 어루만지니
삼대의 뚜렷한 전형 한 자리에 엄연하네.

迤入玄冥小洞天 騰騰四十二年前
放情白水青山界 留醉端陽積雨邊
玉節新榮雙개雪 桐鄉遺愛萬家烟
絲欄墨蹟摩挲久 三世依型儼一筵

영남루 아래 주점에서 구두로 읊다[嶺南樓下酒壚口占]

이학규(李學達)⁶⁰⁰

버들 빛 청청한데 자욱한 비 개이고
목로주점 술잔 놓고 가는 배를 보노라니
가련하다 한 줄기 강변의 집들은
모두가 강남 땅의 이름난 누각이로다.

楊柳青青烟雨收 當壚對酒看行舟
絕憐一帶沿江屋 盡是江南最勝樓

영남루

이학규

누각 위의 석양은 아스라이 낮아
영남루 관문 밖은 질퍽한 평야로다.
강물 빛은 날마다 천 길 절벽을 비추고
나무 잎은 십리 강둑에서 가을을 낳네.
촉석루와 지금까지 우열을 다투었고
망호당은 예로부터 동서에서 떨쳤네.
등립하면 저절로 떠난 사람 느낌 있나니,
반드시 당시에 함께 오지 않았어도.

樓上斜陽極望低 嶺南關外謾平畦

다.

599) 칸을 지어 남긴 목적[絲欄墨蹟]: 줄을 그어 놓고 그 사이에 먹으로 쓴 글씨. 여기서는 시판을 가리킨다.

600) 이학규(李學達; 1770-1835): 자는 형수(亨叟), 호는 낙하(洛下), 평창인(平昌人)으로 혜환(惠賔) 이용휴(李用休)의 외손이다. 신유옥사 때 전라도 능주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사건에 다시 김해로 유배되어 24년 동안 유배지에서 살았다.

江光日射千尋壁 林葉秋生十里堤
 矗石至今爭甲乙 望湖從古擅東西
 登臨自有離人感 未必當時爲解携

영남 좌도의 영남루와 영남 우도의 축석루는 그 크고 화려함과 상쾌하고 시원함이 서로 갑을을 다투는데, 아직도 정론이 없다. 누각 동쪽에 능파각이 있어 매우 장려한데, 곧 옛날의 망호당이다.[嶺左之嶺南樓 右之矗石樓 其宏麗爽闊 互相甲乙 訖無定論 樓東有凌波閣 甚壯麗 卽古之望湖堂也.]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고[嶺南樓下泛舟]

노우수(盧禹壽)⁶⁰¹⁾

남천강 물 빠지자 외로운 배를 매고
 노 젓는 소리 높아 흥이 점차 그윽해지네.
 다시금 월연정 금시당으로 향하니
 앞 사람이 뒷사람 놀도록 남겨주었네.
 南川水落繫孤舟 欸乃聲高興轉幽
 更向月淵今是去 前人留許後人遊

영남루

김양순(金陽淳)⁶⁰²⁾

일 백 척 누각이 물밑 하늘에 밝아
 상마의 인연⁶⁰³⁾ 홀연 십 년 전을 생각하네.
 고을 수령의 높은 깃발은 가을 지난 뒤에 왔고
 강호의 짧은 머리 해 뜨는 곳 꿈꾸는데,
 대숲 건너 암자는 절벽에 걸려 있고
 갈대 숲에 숨은 고깃배는 성근 연기 실었구나.
 관기는 상량문을 노래로 부를 줄 알아
 풍악이 사람을 붙잡고 달도 자리에 오르네.

601) 노우수(盧禹壽; 1778-1848): 호는 묵와(默窩), 자는 순겸(舜謙), 광주인(光州人). 김해 금곡(金谷)에 세거하였다.

602) 김양순(金陽淳; 1776-1840): 자는 원회(元會), 호는 건옹(健翁)이다. 순조 8년(1808)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순조 임진년(1833)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603) 상마(桑麻)의 인연: 전원에서 은거하는 사람과의 교분.

百尺樓明水底天 桑緣忽憶十年前
 高牙郡國來秋後 短髮江湖夢日邊
 隔竹僧菴懸峭壁 隱蘆漁艇載疎烟
 官娥解唱兒郎偉 絲管留人月上筵

112

영남루 2수

김정균(金鼎均)⁶⁰⁴

이름난 누각에 잠시 앉아 한가로운 몸이 됨은
 구름과 진펄 찌는 더위가 오래 사람을 괴롭혀서네.
 옷에 가득 서늘한 기운은 어지러이 대를 올리고
 저녁 파도가 닻줄을 끌어 마름을 살짝 흔드네.
 중은 종을 쳐서 멀리 산머리 달에게 보내고
 기녀는 곡조 바꾸어서 좌석의 봄을 이루었네.
 어찌하면 다시금 도연명 노인의 시를 얻어
 그 중에 그림을 천진하게 그려낼까?

名樓暫坐似閑身 原濕蒸炎久惱人
 秋氣滿衣鳴亂竹 夕波牽纜動輕蘋
 僧鐘迥送山頭月 妓曲纔成座上春
 安得更如淵老句 箇中圖寫逼真

공무 일에 여가 있으면,
 옷깃 헤치고 때때로 누각에 기대네.
 물새는 저물녘 고각 소리에 놀라고
 노을 따오기는 돌아오는 배를 희롱하는데
 대숲 속에 밥 반찬 그대로 놓고
 모래밭 가에서 낚시노래 서로 다투네.
 임금님 은혜 가는 곳마다 중하니
 나그네 길에 풍류가 충분하구나.

公事有餘日 披襟時倚樓
 水禽驚晚角 霞鷺弄歸舟

604) 김정균(金鼎均; 1782-1847): 자는 태수(台叟), 호는 서어(鋤漁)이다. 순조 20년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대사간,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竹裡仍廚饌 沙頭競釣謳
君恩行處重 客路足風流

영남루 2수

서락수(徐洛脩)

웅장한 누각 남쪽 하늘에 높이 솟아서
가을 경치 그림 난간 앞에 가득하구나.
밝은 달은 강물 아래로 마음을 전하고
좋은 바람 죽림 가에서 음률을 이루었지.
고을살이 다니면서 머리는 눈같이 세고
건곤 중에 모였다 헤어지는 자취 연기와 같네.
관리는 오늘 괴로이 읊조리는 공의 심정을 알고
장부 문서를 글 짓는 자리에 차마 못 아뢰네.

雄樓高出斗南天 秋景蕭森畫檻前
朗月傳神江水底 好風成律竹林邊
棲遑郡邑頭如雪 聚散乾坤迹似烟
官吏知公吟詠苦 簿書不忍稟詞筵

이별과 만남 기약치 못해 하늘에 맡기고
부평초같은 벼슬 자취 이 강 앞에 왔네.
물자 풍성하고 백성들이 잘사는 곳이
산 밝고 물 고운 곳에 물러나 있었네.
절간의 성근 종은 가까이 맑게 울리고
능선에 걸린 달은 한 점 구름 없이 깨끗하다.
명승지에 다시금 오를 기약을 맺고
한편 따뜻한 바람 부는 화갑 자리를 기다리리.

離合難期一任天 如萍宦跡此江前
紛然物富民殷處 斂却山明水麗邊
蘭若疎鍾清近響 觚稜懸月淨無烟
勝區重結登臨約 且待薰風花甲筵

영남루⁶⁰⁵ 3수

임진년에 선군께서 밀양부에 부임하여 누각을 중수하고 시를 시판에 지었는데 소자도 보았고 유고에도 실려 있다. 시판은 불이 날 적에 없어졌으니, 이제 소자가 감히 새롭게 하지 않으랴! 그 대략을 간략히 기록한다. 무오년 동짓달 불초자 장호는 삼가 쓴다.[歲壬辰 先君蒞府 樓重修 題詩于板 則小子觀焉 遺藁載焉. 板逸於灰燼之際. 今小子敢不以新. 略述其槩. 戊午至月日 不肖子章鎬 謹識.]

쇠잔한 정신 영락하여 머리카락 은빛 되고
서울 떠나 누각 오르니 다시 부질없는 봄이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산에 정한 주인 없고
관현 소리 관계 없이 좋은 손님 있음이네.
바람 불자 어화는 멀리 포구로 돌아오고
달빛 가득 신선 배는 나루 가까이 대었네.
잔뜩 취해 홀연히 절간의 풍경 소리 듣고
흰 구름 깊은 곳에서 참된 경계를 찾았네.

殘魂零落鬢成銀 去國登樓空復春
祇幸江山無定主 不關笙瑟有嘉賓
風吹漁火遙歸港 月滿仙槎近泊津
沈醉忽聞蕭寺磬 白雲深處會尋眞.

늙고 병들어 누각에 오르니 하늘에 오른 듯
자리에 앉으니 기묘한 경치 짝할 데 없네.
나를 듯한 기와지붕 선종이 올린 뒤 다시 치솟고
그윽한 바위는 그림배 곁에 많기만 하네.
가늘고 흰 깃으로 따듯한 땀을 닦고
피꼬리는 나무 숲에서 서늘한 연기와 이야기하네.
타향에서 갑자기 서글픔 더하지 못하는 것은
시든 꽃에게 분부하여 술자리 시중들게 함이네.

老病登樓若上天 坐來奇勝伍無前
飛甍復聳禪鍾後 幽石偏多畫艇邊
細白氷紈收暖汗 鸛黃○樹語涼烟

605) 이 시는 조기복의 중수상량문 뒤에 첨부되어 있고, 또 영남루에 그 시판이 걸려 있다. 시판에 그 아들 장호가 기록한 소기(小記)가 있다.

606) 조기복(趙基復): 임천인(林川人)으로 순조 신묘(1831) 6월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계사 8월에 상주목사로 옮겨 갔다. 임진년(1832)에 영남루를 개건하였다.

殊鄉未遽增悵悵 分付殘花媚酒筵

화려한 누각 다시 이룬 오늘의 이 공으로
의연한 온갖 경물에 날아갈 듯 누각 솟았네.
명승지엔 본디부터 흥폐가 없는 법이나
옛 규모 지켜가는데는 같고 다름이 있네.
바라보면 푸른 연기 대마도에 비껴 있고
사시사철 바람 불어 인어 궁궐 뒤흔드네.
영호루와 축석루는 이 보다 아래이리니
고금의 강남 땅에 홀로 웅대함을 허락하리.

綺閣重成此日功 居然雲物翼樓崇
名區未是無興廢 舊制仍非有異同
一望靑煙橫馬島 四時繁吹蕩蛟宮
映湖矗石風斯下 今古江南許獨雄

영남루 운을 따라[嶺南樓次韻]

유 현(庾 玼)

오르면 아스라히 푸른 하늘에 의지했으니
새벽 빛도 아득하게 눈 앞으로 펼쳐진다.
술을 대하여 강산에 주인이 어찌 있겠으며
누각 가득한 풍월이 호탕하여 그지없는데,
빈 배는 하얀 물결에 등실 떠 있고
넓은 들은 멀리 안개 낀 나무로 나뉘었구나.
명승지에 관현악 음악은 필요치 않은데
더구나 지금은 봄 구경하는 자리 아니니.

登臨縹緲倚靑天 曉色蒼茫在眼前
對酒江山寧有主 滿樓風月浩無邊
虛舟漫泛波橫練 曠野遙分樹帶烟
勝槩不須絲與竹 況今非爲賞春筵

116

영남루

황기원(黃起源)607)

붓을 휘둘러 그러도 붓대롱으로 하늘보기니
 조령 남쪽 지방에서 축석루의 앞이로다.
 온갖 경치 푸르스름 만상을 머금었고
 한 강물이 맑고 깨끗해 도무지 끝이 없네
 발에 드는 밝은 달은 촛불처럼 보이고
 난간 두른 뜰구름은 연기되어 흩어지네.
 예로부터 이름난 누각 객사가 되었기에
 부질없이 노래와 춤으로 이별 자리 아깝게 하네.

揮毫模畫管窺天 大嶺之南矗石前
 萬景蔥蘢含有象 一江澄澈渾無邊
 納簾皎月看如燭 遶檻浮雲散作烟
 自古名樓爲逆旅 枉教歌舞惜離筵

117

영남루

허전(許傳) 608)

나의 선군자(先君子)이신 일천공(一川公)의 시판이 예전에 이 누각에 있었
 는데, 이 누각이 불타면서 시판도 불에 났다. 이제 누각을 중건하면서 시판
 은 새로 만들지 못하였다. 불초는 감개가 있어서 고쳐 새기고 인하여 경건
 히 원운에 차운하여 끝에 붙인다.[我先子一川公詩板 舊在此樓 樓災而板亦
 焚. 今樓新而板未新. 不肖傳 感而改刊 因敬次原韻 附于末.]

신선이 되어서 하늘에 훌쩍 오른 듯
 이 몸은 영남루 그림 난간 앞에 있네.
 봉래 바다 멀리 주조(609) 아래로 통하고
 무릉도원 가까이 흰 구름 곁에 접하였네.
 평원의 온갖 나무 가을 빛이 나고
 높은 성곽 일 천 집엔 저녁 연기 나는데,
 긴 내 밤낮으로 흐름을 보노라면
 지금 사람 잔치가 옛 사람 잔치.

607) 황기원(黃起源; 1794-1862): 자는 하언(夏言), 호는 귀원(歸園)이며 장수인이다. 밀
 양 부북면 대항에서 태어나 순조 무자년(1828)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조정랑,
 사헌부 장령, 사간원 사간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608) 허전(許傳; 1797-1886): 자는 이로(而老), 호는 성재(性齋), 시호는 문헌(文憲), 양천
 인이다. 헌종 1년(1835) 문과에 급제하여 고종 1년(1864) 김해부사로 부임하였고, 형
 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쳐 판돈녕부사를 역임하였다.

609) 주조(朱鳥): 남방을 나타내는 별자리. 주작(朱雀).

飄如羽化欲登天 身在南樓畫檻前
蓬海遙通朱鳥下 桃源近接白雲邊
平原萬樹生秋色 高郭千家起夕烟
闕水長川流日夜 今人筵是昔人筵

118

영남루에서 승선 이정민을 전송하며 2수, 정민은
금릉에서 사면 받아 돌아가는 길이었다.[嶺南樓送
李承宣鼎民二首 鼎民自金陵有還]

이제영(李濟永)⁶¹⁰

새벽 하늘에 천계⁶¹¹ 울어 바다 빛이 밝아오니
올 때는 푸른 머리 갈 때에는 은빛이로다.
천문에는 밤이 되면 뗏목 그림자 흐르고
강 기운은 봄이 되어 버들 몸을 눕히네.
한 시대 의관이라 한나라 제도 우러러보고
다시 빛난 일월이라 요임금 인을 계승했네.
아마도 보리라, 선실⁶¹²에 풍운의 느낌 있어
다가앉아 조용히 귀신의 이치 논하리니.

曉唱天鷄海色新 來時蒼髮去時銀
星文夜返流槎影 江氣春生臥柳身
一代衣冠瞻漢制 重光日月紹堯仁
會看宣室風雲感 前席從容講鬼神

응주⁶¹³는 바닷가처럼 비린내 나지 않아
응주에 이르면 생각이 홀연 깨이네.
차가운 절의 종소리에 중은 달빛에 앉았고
새벽 강 고각 소리에 기러기 별자리에 비끼네.

610) 이제영(李濟永; 1799-1871): 자는 내홍(乃弘), 호는 동아(東阿), 벽진인(碧珍人)이다.
칠곡 석전(石田)에서 태어나 밀양 죽원(竹院)으로 옮겨 살았다.

611) 천계(天鷄): 해가 뜨는 동쪽에 있다는 닭. 이 닭이 울면 천하의 닭이 따라서 울고
해가 떠오른다고 한다.

612) 선실(宣室): 제왕 궁궐의 정실(正室)이다. 한나라 효문제(孝文帝)가 남방으로 좌천
되어 있었던 가의(賈誼)를 불러들여 선실에서 귀신의 이치를 물어본 적이 있다. 이
승선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을 가의의 고사에 비유한 것이다.

613) 응주(凝州): 응천(凝川) 고을. 응천은 밀양의 옛 이름이다.

언제나 나루의 물은 모두 진나라 검은 빛⁶¹⁴)이요
 어느 곳에서 산을 보나 초나라 푸른 색이라.
 다만 칠탄대⁶¹⁵) 위에 나그네가 있어서
 양관곡 한 곡조로 위로하려 기다리네.

凝州不似海堧腥 卻到凝州意乍醒
 寒寺孤鐘僧坐月 曉江殘角鴈橫星
 長時渡水皆秦黑 何處看山是楚青
 獨有七灘臺上客 陽關一曲待勞亭

영남루 상량을 보면서[觀嶺南樓拋樑]

이제영

일 백 길 반 공중에 밧줄을 꼬아 놓고
 창산⁶¹⁶)의 목수가 나는 용을 뒤흔든다.
 호수에 그림자 지고 강심은 시퍼런데,
 대패⁶¹⁷)와 못 고기가 감히 나서지를 못하네.

百丈纚纚掛半空 昌山木手擾飛龍
 平湖影落江心碧 大貝群鱗不敢宮

영남루에서 점필재의 운에 따라[嶺南樓次畢齋韻]

이형렬(李馨烈)⁶¹⁸)

가슴 트이는 동남쪽 시야가 하늘에 걸리니
 오르자는 마음 약속 오래 전에 하였네.
 외딴 마을 바깥에선 몇 가락 어적 소리,
 강 언덕 양쪽 곁에 한 무더기 숲이로다.
 달은 조각배로 고금의 나그네 보내고
 버들은 긴 저택 아침 저녁 연기를 머금었네.
 소요하며 흥을 당겨 바람 타고 앉으니

614) 진흑(秦黑): 진(秦)나라는 수덕(水德)을 기리어 검은 색을 숭상하였다.

615) 칠탄대(七灘臺): 오한(鰲漢) 손기양(孫起陽)이 은거하였던 칠탄정(七灘亭). 동아 이
 제영이 칠탄정 건너편의 다원에 거주하였기에 이른 말이다.

616) 창산(昌山): 창녕의 별칭이다.

617) 대패(大貝): 무게가 육십 관이나 나간다는 거대한 바다 조개. 거거(車渠).

618) 이형렬(李馨烈; 1789-1850): 자는 이대(而大), 호는 화산(和山), 연안인이다.

구비구비 붉은 난간 모두가 자리로다.
 胸豁東南眼掛天 登臨心約夙年前
 數聲漁笛孤邨外 一抹林梢兩岸邊
 月送扁舟今古客 柳含長邸暮朝烟
 逍遙攬興乘風坐 曲曲朱欄揔是筵

11P

영남루 주석에서 책실 정기생 형제를 송별하며[南樓酒席別冊室鄭基生兄弟]

손종태(孫鍾泰)⁶¹⁹⁾

가라말은⁶²⁰⁾ 새벽에 울고 용만⁶²¹⁾은 푸른데
 건너 포구 아스라히 가을 구름 어둡네.
 여린 기녀는 눈물 어려 소매로 가리고
 고인은 정담으로 꽃방석에 앉았네.⁶²²⁾
 찰랑찰랑 양관⁶²³⁾의 한 말 술에
 모두들 취했으나 나는 홀로 깨었네.
 성 남쪽 노을 밖에 노을은 외로운데
 누굴 위해 물가에서 두약⁶²⁴⁾을 캐나.
 무릎 치며 유자음⁶²⁵⁾을 억지로 노래하니
 비장한 이 한 소리 그대 들어보소.
 영남루 누각은 일 백 척이나 높은데

619) 손종태(孫鍾泰; 1802-1880): 자는 효등(孝登), 호는 만파(晩坡), 밀성인이다. 학문과 문장으로 당대 사단(詞壇)의 주맹(主盟)이 되었다. 고종 15년(1878) 부사 신석균이 향회(鄉會)를 주장할 때 부약정(副約正)으로 추대되었다.

620) 가라말[驪駒]은: 이별시의 하나. 주87 참조.

621) 용만(龍巒): 여기서는 영남루 남쪽 용연(龍淵)이 있는 용두산(龍頭山)을 가리킨 듯.

622) 꽃방석에 앉았네[蔽花局]: 명나라 승암(升菴) 양신(楊愼)의 《단연총록(丹鉛總錄)》에 “월(越) 지방에서는 모란이 필 적에 친소를 가리지 않고 구경하러 나오는데 이를 ‘꽃 구경관[看花局]’이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떨어진 꽃을 깔고 앉아 정담을 나누는 모습을 운치있게 표현하여 ‘꽃을 쥘는 판[蔽花局]’이라 하였다.

623) 양관(陽關)의: 양관삼첩(陽關三疊) 이별의 자리.

624) 두약(杜若): 향기가 있는 풀 이름으로 웅달에 자라는 다년생 숙근초이다.

625) 유자음(遊子吟): 부모님 슬하여 고향을 떠나 돌아 다니는 사람의 노래.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유자음>에 “자모의 손에 권 실로/ 떠나는 아들 몸에 걸칠 옷을 짓네/ 갈 길을 임하여 촘촘한 바느질/ 더디 더디 돌아올까 염려하는 마음이로다/ 한 치 어린 풀의 마음으로/ 삼촌의 따사로운 별 같은 은혜 갚기 어렵네.[慈母手中線 遊子身上衣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難將寸草心 報得三春輝]”라고 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처럼 흩어졌나.
 생황 피리는 능파각에 목메어 울리고
 구름 같은 나무는 침류정에 정을 남겼네.
 사백⁶²⁶인 금파와 신선같은 운재⁶²⁷는
 나란히 다니면서 하늘 꽃 향기 꺾었네.
 다섯 밤 동안 시통⁶²⁸과 용미연⁶²⁹으로
 한 봄철 취목을 휘둘러 귀갑병⁶³⁰을 만들었네.
 수암⁶³¹선생은 옛날의 소노천⁶³²이라
 식이야 철이야 그 문정에⁶³³ 다녔네.
 나는 어리석어 세상과 어긋났기에
 광음⁶³⁴하며 실의하여 쓸쓸함을 근심타가
 서로 만나 한바탕 웃고 지기⁶³⁵가 되니
 비오나 서리오나 기약 정녕하였지.
 몇 번이나 시 읊으며 무릎을 맞대었나?
 때때로 취하여 소리치며 함께 형체 잊었지.
 보지 못하면 생각하고 생각나면 찾아가
 몰소빨 통령하듯⁶³⁶ 말없이 마음 알았네.

626) 사백(詞伯): 글을 짓는 문인들이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

627) 금파(錦坡)와 신선같은 운재(雲齋): 밀양부의 책실로 있었던 정기생 형제의 호가 금파와 운재이다.

628) 시통(詩筒): 시를 지은 종이를 넣은 통. 당나라 때 시인 원진(元稹)과 백거이(白居易)가 이웃 고을에 있으면서 시를 통에 넣어 서로 주고받았던 고사가 있다.

629) 용미연(龍尾硯): 중국 안휘성(安徽省) 무원현(婺源縣) 용미산(龍尾山)에서 생산되는 좋은 베틀이다. 여기서는 좋은 글을 주고받으며 같고 닮았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630) 취목(醉墨)을 휘둘러 귀갑병(龜甲屏)을: 취목은 술에 취하여 휘두른 듯 함부로 쓴 글씨이고, 귀갑병은 옥돌을 거북 등딱지처럼 다듬어 만든 병풍이다. 것처럼 아름다운 시축(詩軸)을 이루었음을 말한다. 곽자형(郭子橫)의 동명기(洞冥記)에 “위로神明대(神明臺)를 세우고 그 위에 상아 평상을 놓고 옥을 섞어 귀갑 병풍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631) 수암(睡庵)선생: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632) 소노천(蘇老泉): 송나라의 문인 소순(蘇洵)의 자가 명윤(明允)이고 호가 노천이다. 동파 식(軾)과 영빈(穎濱) 철(轍)의 부친이다.

633) 식(軾)이야 철(轍)이야 문정(門庭)에: 소노천의 아들인 동파 식(軾)과 영빈 철(轍)이 그 가정에서 정하(庭下)의 가르침을 받았듯이 좋은 가학(家學)을 받았음을 말한다.

634) 광음(狂飲): 미친 듯이 함부로 술을 마심.

635) 지기(知己): 지기지우(知己之友). 자신을 알아주는 벗.

636) 몰소빨 통령하듯[犀通靈]: 몰소빨을 잘라 태우면 아무리 어두운 곳도 환하게 비출 수 있듯이 마음을 통하는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의 온교(溫嶠)가 무창(武昌)의 우저기(牛渚磯)에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못에 괴물이 많다는 말을 듣고 몰소 빨을 잘라 불을 붙여 물밑을 비춰 보았더니 온갖 기괴한 괴물들이 다 나타났다고 한다.

그림 난간 눈이 오면 만나 술을 나누고
 개인 호수 밝은 달에 불러 배를 띄웠네.
 존군께서 좋은 치적으로 관직을 집으로 삼으니
 이별한지 벌써 삼 년이 되었구려.
 금성⁶³⁷⁾의 뒷날 밤 서로 그리는 꿈은
 아마도 가을 방에 태현경 짓는⁶³⁸⁾ 나를 걱정하리.
 교남 구름 천리에 돌아가는 기러기 없고
 누각 달 오경에 반딧불도 많은데,
 인생의 만남과 이별 일정치 않은 지라,
 밤비는 시를 읊어 방울을 흔드는 듯.
 한 움큼 추사⁶³⁹⁾의 눈물 봉합에 넣고
 앉아서 흐릿하게 떠있는 구름을 보네.

驪駒曉嘶龍巒青 別浦迢迢秋雲冥
 軟妓凝淚掩羅袂 故人敍話敲花局
 灩灩一斗陽關酒 四座沉醉我獨醒
 郭南寒樹孤霞外 爲誰採採杜若汀
 擊節強歌遊子吟 一聲悲壯君須聽
 嶺南之樓百尺高 幾人於此散如星
 笙簫咽響凌波閣 雲樹留情枕流亭
 錦坡詞伯雲齋仙 聯翩手折天葩馨
 五夜詩筒龍尾硯 一春醉墨龜甲屏
 睡庵先生古老泉 軾乎轍乎趨門庭
 我以愚賤與世違 狂吟落魄愁飄零
 相逢一笑爲知己 雨屐霜鞋期丁寧
 幾回漫詠相促膝 有時醉叫俱忘形
 不見則思思輒訪 悵悵心照犀通靈
 畫欄薄雪邀命酒 晴湖明月招揚舲
 尊君課最官爲家 一別何遽今三齡
 錦城後夜相思夢 倘憐秋室草玄經
 嶠雲千里無歸鴈 閣月五更多流螢

637) 금성(錦城): 전라도 나주(羅州)의 옛 칭호.

638) 태현경(太玄經) 짓는: 한(漢)나라 애제(哀帝) 때 시국이 어수선 하자 양웅(揚雄)은 시사에 관여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태현경(太玄經)을 지었다.

639) 추사(秋士): 나이 든 선비. 《회남자(淮南子)》 무칭훈(繆稱訓)에 “춘녀는 글기워하고 추사는 슬퍼한다[春女思 秋士悲]”라 하였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 “춘녀는 양기에 감응하여 그리워하고 추사는 음기를 보고서 슬퍼한다” 하였다.

人生離合不可常 夜雨吟詩如撼鈴
絨將一掬秋士淚 坐看曖曖浮雲停

영남루 운을 따라[次嶺南樓韻]

손종태

이름난 누각 남쪽 하늘에 나는 듯 솟아
오랜 세월 이전부터 흥폐가 무상했네.
관도는 숲 그림자 밖에 가늘게 나뉘고
인가는 물 소리 곁에 많이 살구나.
구름 병풍 저녁에 걷는 건 맑은 봉우리 달이요
그림 배 봄 단장은 건너 포구의 연기로다.
다행한 건 늙어서도 인연이 알지 않아
동풍이 꽃 지는 잔치자리에 불어오네.

名樓飛出斗南天 興廢無常浩劫前
官道細分林影外 人家多住水聲邊
雲屏夕捲晴峯月 畫舸春粧別浦烟
猶幸老來緣不淺 東風吹上落花筵

120

영남루에서 사군 이경의 시운을 따라[南樓次李使君景]⁶⁴⁰⁾

손종태

비온 뒤 높은 누각 개인 빛이 맑은데
붉은 난간 거꾸러진 그림자에 푸른 물결이 이네.
안개 구름 주인을 얻어도 남은 경지가 있고
관현악 손을 붙들어 성을 나가지 않게 하네.
한 자리 꽃샘⁶⁴¹⁾은 술 기운을 돋우고
사방 산의 단풍 잎은 가을 소리 알리는데,
펼럭이는 그림배와 날렵하게 단장한 달은
노는 사람 미진한 정을 길이 불드네.

雨後高樓霽色清 朱欄倒影碧漪生
雲烟得主猶餘境 絲管留賓不出城

640) 士+敬.

641) 꽃샘[簪花]: 꽃 잎을 놓고 술잔을 섬하는 것.

一席籌花迎酒氣 四山風葉報秋聲
飄飄畫舫輕裝月 長繫遊人未盡情

영남루의 노래, 악부 12율로 지어 명부 정노용에 게 주다[嶺南樓歌 樂府十二律戲贈鄭明府老容]

손종태

삼재도화에 실려 있는 가장 이름난 누각
인물 많은 강산, 영남의 아래 고을.
동남지방에 둘러싸여 만상을 포괄하고
나는 듯 난간은 멀리 큰 냇물을 눌렀네.
三才圖上最名樓 人物江山嶺下州
襟帶東南籠萬象 飛欄迥壓大川流

노래하는 아가씨 나직하게 망강남⁶⁴²을 부르고
용두못 절벽이 들쭉날쭉 마암산과 마주했다.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오가는 나그네들
난간에 기대면 지는 해가 멀리 정을 머금네.
歌姬低唱望江南 龍壁參差對馬岩
雨雨風風多少客 倚欄斜日遠情含

지절대며 울리나니 좋은 날 관현악 소리요
강좌⁶⁴³의 변화한 곳 홀로 이름 떨치네.
화악산 뽕죽한 봉우리 기세를 열고
웅천의 물 매끄럽게 정영을 걸러낸다.
嘲轟勝日管絃聲 江左繁華獨擅名
華嶽峰尖開氣勢 凝川水滑澆精英

황화 사신 행차라 누각 가운데 잔치하니

642) 망강남(望江南): 악곡의 이름. 수(隋)나라 양제(煬帝)가 사방 2백리의 땅에 정원을 꾸며 서원(西園)이라 하고 주위 40리의 못을 파서 못 가운데 봉래 방장 영주산을 쌓고, 용봉가(龍鳳舸) 배를 띄워 놀면서 6장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시초이다. 그 뒤로 그 곡조를 차용하여 여러 작가들이 가사를 지었는데, 이위공(李衛公)이 사랑하던 기생 사추낭(謝秋娘)이 죽은 뒤에 그녀를 그리워하여 지은 망강남의 가사가 널리 알려졌다. 몽강남(夢江南)으로도 불린다.

643) 강좌(江左): 경상도 낙동강 동편의 고을. 경상좌도(慶尙左道).

지는 꽃 다발 다발 물에 담겨 붉구나.
 침류정 정자 위로 자리 옮겨 바라보니
 달 밝은 데 사람 건너고 물결에 무지개 누웠네.

使華行李宴樓中 落花叢叢蘸水紅
 徙倚枕流亭上望 月明人渡臥波虹

봄이 오면 어느 곳엔들 풍류가 없으리오.
 그림배가 와서 대밭 머리에 멈추네.
 단장한 여인 두 줄로 늘어서 백저가⁶⁴⁴를 노래하니
 물 가운데 날 듯한 누각 영주보다 낫구나.

春來無處不風流 畫舫來停竹樹頭
 紅粉兩行歌白苧 水心飛閣勝瀛洲

능파선자 벗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남국의 새로 지은 죽지사⁶⁴⁵에 목이 메이네.
 들 나루에 있는 배는 모두가 흰 고니요
 봄 성엔 나무마다 찌꼬리가 우는구나.

凌波仙侶帶兒癡 南國新釀咽竹枝
 野渡有船皆白鵝 春城無樹不黃鸝

배꽃 피는 담가에 버들 꽃이 나르는데
 웃으며 가리키네, 제 집은 물가 반쯤 닫힌 사립
 백옥 타구에 붉은 비단 담요를 깔았으니
 권한건대 오늘 저녁 취하여 가지 마소서.

梨花牆畔柳花飛 笑指兒家水半扉
 白玉唾壺紅錦闥 勸君今夕醉無歸

언제든지 흰코 공골말⁶⁴⁶ 훌쩍 몰아서,
 버들 다리 동편에서 저희 집을 물으세요.

644) 백저가(白紵歌): 모시가 많이 생산되는 중국 남방 오(吳) 지방에서 유행한 무곡(舞曲)의 이름. 악부시제(樂府詩題)로 여러 사람의 가사가 전하는데, 장적(張籍)의 백저가 가사에는, “회회 흰 회 회고도 선명한데/ 봄옷을 지으면 소년에게 어울리겠네[皎皎白紵白且鮮 將作春衣稱少年]”라고 하였다.

645) 죽지사(竹枝詞): 악부(樂府) 곡조 명칭의 하나. 본디 사천성 동부지방의 민가였는데,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새로 가사를 지어 삼협(三峽) 지방의 풍광과 남녀의 연정을 노래함으로써 널리 전파되었다. 죽지사의 내용에는 대개 지방의 풍토와 아녀자의 정감이 풍부하게 노래된다.

646) 공골말[騮]: 털빛이 누르고 주둥이가 검은 말.

저희 집엔 새 용수로 거른 맑은 술 있고요
병에는 막 피어난 작약 꽃을 꽂았답니다.

何許翩翩白鼻騮 柳橋東畔問農家
農家有酒新窺淥 瓶插初開芍藥花

소상도⁶⁴⁷⁾ 여섯 폭 그린 석류 치마는
제일 고운 선녀라는 초운이지요.
날렵하게 비단 땡기 풀어 내리고
향기로운 꿈 밤새도록 사또를 괴롭힐테지.

瀟湘六幅石榴裙 第一仙娥艷楚雲
輕輕解下纏頭錦 香夢終宵惱使君

강남에 부슬부슬 저녁 어스름이 들면
한 소리 어적에 여뀌 꽃의 가을이라.
빨래하는 아가씨 간 뒤 마진한 듯 강물 맑고
활 쏘던 친구 돌아가자 밤송이 벌어지네.

江南霏微夕氣收 一聲漁笛蓼花秋
漂娥去後江澄練 射耦歸時栗坼毬

솔개구름⁶⁴⁸⁾ 비를 끌고 강 언덕을 지나니
대문 앞에 붉은 복사꽃 한꺼번에 터졌네.
배 가운데 하릴없이 취한 젊은이들은
밤 되자 촛불 켜고 거문고 높이 치네.

雲鷗曳雨過江臯 齊綻門前絳色桃
無賴舟中醉年少 夜來持燭射琴高

해 저물어 옥빛 속에 물가의 마름 캐고
달 밝은 누각 머리에 미인을 바라보다가,
다정한 소소소⁶⁴⁹⁾를 불러 일으켜
가벼운 술잔 백화춘으로 머물러 취하네.

瑤華畹畹採汀蘋 明月樓頭望美人
喚起多情蘇小小 羽觴留醉百花春

647) 소상도(瀟湘圖): 소상(瀟湘) 지방의 경치 여덟 폭을 그린 소상팔경도.

648) 솔개구름: 솔개 그림자 만큼 자그마한 구름.

649) 소소소(蘇小小): 중국 남방 전당(錢塘) 지방에 살았던 명기(名妓)의 이름. 진(晉)나라 때의 명기 소소소의 묘가 가흥현(嘉興縣)에 있는데, 후자는 또 남제(南齊) 시대 사람이라고도 한다.

점필재 선생이 양씨 아가씨에게 지어 준 영남루 죽지
곡 9장을 따라[步嶺南樓畢齋先生竹枝曲九章贈梁娃韻]

손종태

능과 선녀의 고리옥 소리 울리고
질은 풀 더부룩하게 물 한 구비 감췄네.
죽지사 노래불러 목이 매는 곳,
발에 반쯤 기우는 해 멀리 산이 머금었네.

凌波仙女響鳴環 芳艸茸茸護一灣
唱到竹枝聲咽處 半簾斜日遠含山

비에 섞여 떠나는 마음 못 열어 답답한데
용두못 질푸른 여울 부딪치며 소리치네.
내일 아침 차마 어찌 저와 이별하려고?
백저가 노래하는 적삼 정성껏 지었다오.

和雨離腸鬱不開 龍灘浹碧激湍隈
明朝忍與情儂別 白苧歌衫信手裁

그림배 피리소리에 춤 추는 그림자 뜨고,
촉옥⁶⁵⁰은 앞에 날고 뒤로 갈매기.
괴이타, 그 무엇이 사람 꿈을 깨웠나?
바람이 발을 흔들고 갈고리 달이 걸렸네.

畫舸笙簫舞影浮 前飛屬玉後沙鷗
怪來何物驚人夢 風動細簾月一鉤

님을 맞아 예사로 옥루춘⁶⁵¹을 부르나
여덟 번 몸을 뒤집으니⁶⁵² 귀신 들린 듯.
온 내에 머물게지 날리고 한식절 비 내리니,
눈물 없이 정다운 사람 어찌 보내겠소.

邀權慣唱玉樓春 八破翻身若有神
風絮一川寒食雨 更堪無淚送情人

650) 촉옥(屬玉): 물새 이름.

651) 옥루춘(玉樓春): 사곡(詞曲) 곡조의 하나. 《화간집(花間集)》의 “달은 옥루에 비추고 봄의 물시계 재촉하네[月照玉樓春漏促]”과 《준전집(尊前集)》의 “옥루의 안개비 내리는 밤 봄이 이르다[春早玉樓烟雨夜]”라는 구절에서 이름을 취한 것이라 한다.

652) 여덟 번 몸을 뒤집으니: 미상. 아마도 춤을 추는 동작인 듯.

꽃다운 마음 다 녹이도록 앉아 꽃을 닦고
 봄 구름 움직이지 않은 채 추파를 보낸다.
 누가 이 연약한 몸을 별천지에 내었나?
 님을 만나자 말자 이별은 또 어떤 일고?

銷盡芳魂坐撚花 春雲不動送秋波
 誰教軟質生別界 纔遇權來又別何

첩의 한은 금수⁶⁵³)에 지저귀는 외로운 원앙새고요,
 낭군의 마음은 청전⁶⁵⁴)을 지나며 우는 학과 같지요.
 외로운 원앙 우는 학이 무슨 마음일까요?
 누가 아래 자욱한 파도에 떠 다니는 배지요.

妾恨孤鶩啼錦水 郎心過鶴唳青田
 孤鶩唳鶴何心事 樓下烟波不繫船

물가의 길고 짧은 높다란 버들가지,
 봄바람에 버들개지 붙잡아 둘 힘이 업네.
 훌쩍 날아 떠나가서 배꽃의 꿈이 됨은,
 밝은 달 서쪽 나루 패옥을 풀 때라오.

長短水邊高柳枝 東風無力駐游絲
 悠揚去作梨花夢 明月西津解佩時

하늘 가 외론 노을은 따오기 너머 높고
 푸른 창 멀리 언덕을 넘어 가는구나.
 집집의 문과 골목에 비파나무인데
 그 중에 어느 곳이 설도⁶⁵⁵)의 집이나?

天際孤霞鷺外高 綠窓遙見過亭臯
 家家門巷枇杷樹 那箇其中是薛濤

대나무 무성한 가지에 쓴 마디 많음은
 저의 여린 아홉 구비 에돈 창자 같지요.
 서울로 멀리 가는 모습 서글피 바라보나

653) 금수(錦水): 비단 같은 물.

654) 청전(靑田): 신선과 학이 사는 곳.

655) 설도(薛濤): 당(唐)나라 때 장안(長安)에 있었던 명기(名妓) 이름. 자는 홍도(洪度). 시를 잘 지어 여고서(女考書)라 불리어졌고, 원진(元稹), 백거이(白居易), 두목(杜牧) 등과 시를 주고받았다. 만년에 완화계(浣花溪)에 살면서 송화소전(松花小箋) 종이를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설도전(薛濤箋)이라 하였다.

기러기 어느 날에 편지 갖고 오겠소?
 竹有枝芳多苦節 似儂九曲軟腸迴
 征塵悵望皇華遠 南鴈何當帶信來

영남루 운을 따라 연서 사군의 삼랑진 행헌 아래 에 바침[步嶺南韻奉呈蓮西使君三浪行軒下]

손종태

우중충한 하늘에 유정당⁶⁵⁶ 높은데
 풍류는 사또 앞에 나설 자 없네.
 산의 초루⁶⁵⁷ 화각 소리 시판 밖에 걸렸고
 강가 객관 차가운 배는 꿈결에 들어온다.
 한 고을 맑은 정치 삼월에 비가 오고
 한 봄의 꽃이 흩어지니 일만 집 연기 나네.
 어찌하여 기정⁶⁵⁸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름난 누각 작은 술자리에서 다시 취하나.

惟正堂高卯色天 風流無出使君前
 山譙畫角懸詩外 江館寒帆入夢邊
 百里琴清三月雨 一春花散萬家烟
 那緣丐得旗亭會 更醉名樓設小筵

121

영남루 주석에서 장삼에게[嶺南酒席贈長三]

손종태

교남 좌도 이름난 누각 만상을 구비하여
 복사꽃 핀 문과 거리 남호⁶⁵⁹를 베고 있네.
 산은 운사⁶⁶⁰를 맞이하여 시가 일천 축이요,
 강은 우공⁶⁶¹을 움직여서 그림이 한 틀이로다.

656) 유정당(惟政堂): 관청 건물의 명칭인 듯 하나 위치가 분명치 않다.
 657) 초루(譙樓): 성 벽 중간에 세운 망대.
 658) 기정(旗亭): 깃발을 내 걸고 술이나 음식을 파는 곳. 요리점 또는 주점.
 659) 남호(南湖): 영남루 남쪽 웅천의 물이 넓게 고인 곳.
 660) 운사(韻士): 운치를 아는 선비. 시인.
 661) 우공(尤工): 뛰어난 솜씨를 가진 기술자.

권주가 부르는 병풍에 봄 소리가 남았고
능파선자 버선에는 새벽 흔적이 없는데,
홀홀 가는 백마는 뉘 집에 묵었던가?
마음 좋은 주인 이름 소오노라지.

嶠左名樓萬象俱 桃花門巷枕南湖
山邀韻士詩千軸 江動尤工畫一廚
勸酒歌屏春響在 凌波羅襪曉痕無
翩翩白馬誰家宿 好箇主人蘇五奴

영남루

임익상(任翼常)⁶⁶²

선조 참판공께서 일찍이 영남관찰사로 오셔서 순찰하다가 영남루에 이르러 절구 한 수의 제영을 남겼다. 불초가 김해로 부임하는 길에 지나가며 이 누각에 올랐더니 옛 제영은 이미 없어지고 전하지 않았다. 불초는 시를 외어 써서 다시금 벽에 걸고, 경건히 절구 세 수를 지어 아래에 기록한다. 숭정 네 번 제 임자(1852) 9월에 6세손 익상이 삼가 쓴다.[先祖參判公 嘗按嶺節 巡到嶺南樓 留一絕題詠. 不肖赴金海之路 歷登是樓 舊題已泯沒而無傳也. 不肖迺誦而書之 更揭於壁 敬成三絕 錄於下. 崇禎四壬子九月六世孫翼常 謹書.]

선조의 자취 추억하니 슬픈 감회 깊은데
아득한 풍경 푸른 빛이 옷깃에 가득하네.
적막한 영남루에 시를 다시 걸었으니
아마도 성근 달이 대 숲을 비추리라.

追惟先蹟愴懷深 極目烟霞翠滿襟
寂寞南樓詩更揭 也應疎月照篁林

강물 빛과 들 빛에는 가을 이미 깊은데
천리 길 남방에 와서 회포 한 번 상쾌하네.
늦가을 기러기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는가?
끝없는 푸른 산이 구름 숲 건너 있네.

江光野色已秋深 千里南來一爽襟

662) 임익상(任翼常): 자는 경문(景文), 호는 청서(靑墅), 풍천인이다. 김해부사와 사헌부 집의를 역임하였다. 이 시는 그 선조 임의백(任義伯)의 시판을 다시 새겨 영남루에 걸면서 차운한 것이다.

霜雁數聲何處至 青山無限隔雲林

동남쪽 바다 기운에 푸른 구름이 깊고
 가는 길 지루하여 객의 회포 고달프네.
 가락의 옛 성은 멀지 않으리니
 고깃배 오늘 밤엔 단풍 숲에 묵으리라.
 東南海氣碧雲深 行路支離惱客襟
 駕洛故城知不遠 漁舟今夜宿楓林

영남루에서 시판의 운을 따라[嶺南樓謹次板上韻]

배극소(裴克紹)663)

한 누각 짝이 없이 홀로 하늘을 지탱하고
 온갖 기교 들쭉날쭉 그림을 앞에다 바치네.
 흥폐는 때가 있어 세 번 화재 겪은 뒤요
 올라 보니 꿈같아라 구만리 하늘 가.
 주렴 끝에 만리 풍경 밤은 달을 바치고
 대밭 너머 일 천 집엔 저녁이 연기를 보내네.
 강산에 노니는 객의 붓을 돌구어서
 남방의 문기가 화사한 자리를 빛내네.

一樓無伴獨支天 百巧參差畫供前
 興廢有時三火後 登臨如夢九宵邊
 簾端萬里宵呈月 竹外千家夕送烟
 惹起江山遊客筆 斗南文氣耀華筵

영남루 벽에 짓다[題嶺南樓壁]

강위(姜瑋)664)

663) 배극소(裴克紹; 1819-1871): 자는 내휴(乃休), 호는 묵암(默庵), 김해인이다. 정재(定齋) <柳致明>의 문인으로 철종 1년(1850)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664) 강위(姜瑋; 1820-1884): 자는 중무(仲武) 또는 요장(堯章)이고, 호는 추금(秋琴) 또는 고환당(古權堂)이다. 경기도 광주에 세거한 진양인이다. 제주에 유배되어 있었던 김추사(金秋史)의 문하에 찾아가 수학하고, 동지사를 따라 청나라에 두 번 다녀오고, 병자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 전권대신 신현의 막료로 보좌하였고, 수신사 김홍집의 서기로써 일본을 다녀오고, 다시 김옥균 등 개화당의 인사들과 일본에 다녀왔다.

하늘 가의 세월에 떠도는 느낌 있는데
귀뚜라미 소리 속에 밀양을 지나노라.
시험삼아 여러 분네 시 거울 속을 찾았더니
장대 하나 안개비 내리는 영남루로다.

天涯歲月感浮由 蟋蟀聲中過密州
試覓都家詩鏡裏 一竿烟雨嶺南樓

스산한 대숲의 비 강촌에 가득하니
강가의 위대한 누각 가만히 혼을 끓네.
석양에 조각배를 띄워 홀로 떠나서는
만첩 청산 속에 칠원으로 향한다.

刁騷篁雨滿江村 江上危樓暗斷魂
斜陽獨放扁舟去 萬疊青山向漆原

영남루

김기호(金琦浩)⁶⁶⁵⁾

영남루는 바닷가 남쪽 하늘을 지켜
백 리 강산이 눈 안에 가득 들어오네.
외딴 절 스님은 꽃 그림자 속에 잠자고
부교⁶⁶⁶⁾의 행인은 석양 가로 건너네.
지형을 감싸 안은 것은 긴 강물이요
들빛이 아득한 건 먼 포구의 연기로다.
현판에 두 세대 이름 나란히 적혔으니
스승님이 마치 자리에 계신 것 같네.

嶺南樓鎮海南天 百里湖山滿眼前
孤寺僧眠花影裏 浮橋人渡夕陽邊
地形回抱長江水 野色蒼茫遠浦煙
板上題銜聯二世 先師恍若在函筵

123

밀양 영남루에 올라[登密陽嶺南樓]

665) 김기호(金琦浩; 1822-1902): 자는 문범(文範), 호는 소산(小山)이며 김녕인(金寧人)이다. 성재 허전(許堅)의 문인으로 창원 파정리에 은거하여 강학하였다.

666) 부교(浮橋): 밀양 영남루 앞의 남천강에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는 배다리를 가설(架設)해서 건너 다녔다.

이름난 누각 높다랗게 거울 같은 하늘에 기대었고
 열 두 폭 고운 발은 버들 앞에 늘어졌네.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물 겹겹이 둘러친 가운데,
 밝은 달 맑은 바람 곳곳에서 다가오는 곳.
 나는 새 너머 아득한 별판 건너다보고
 성 남쪽 아스라한 연기 굽어 눌렀네.
 이곳에 다시 오에 옛 느낌 많아
 술 단지 기울인 이 몇이며 시 잔치 베풀 이 몇이더냐.

名樓高倚鏡中天 十二綳簾垂柳前
 佳山麗水重重裏 朗月清風在在邊
 平臨鳥外迷茫野 俯壓城南縹緲煙
 此地重來多感古 幾人樽酒幾詩筵

이성오 영구가 영남루에 놀며 지은 시의 운을 따라 급히 지어 화답하다[走草和李性五齡九游南樓韻(丹疊因爲贈行)] 2수

손휘수(孫彙秀)⁶⁶⁸⁾

좋은 모임 영남루에 해가 더딘데
 장년의 시인 운치는 또 꽃피는 시절일세.
 보배로운 귀한 격조 좌석 가운데 얻고
 그림 같은 강산을 시에 옮기니,
 가는 곳마다 벗이 있고 따라서 술 있으며
 정을 나눔도 관악 아니오 현악도 아니로다.
 뜻밖에도 현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였으니
 우리들의 풍류를 조물주가 아심이로다.

好會南樓麗景遲 壯年騷致又花時
 爲珍標格席中得 如畫江山詩上移
 行處有朋仍有酒 敘情非管亦非絲
 不虞幸就群賢禩 吾輩風流造物知

667) 장석룡(張錫龍; 1823-1908): 자는 진백(震伯), 호는 유현(遊軒), 인동인이다. 헌종 병오년(1845) 정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사간원 대사간, 사헌부 대사헌, 형조판서, 한성판윤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668) 손휘수(孫彙秀; 1827-1896): 자는 태오(泰五), 호는 고금(古琴), 밀성인이다.

거처를 묻고나서 눈뒹고 한참 보았던 일은
 두소릉도 일찍이 소년 시절에 겪었다지.
 살구꽃 좋은 시절에 새로운 모습 보이고
 좋은 문장은 누 집의 옛 저택에 옮겨졌는가?
 노쇠한 목청으로 백설가를 읊조림이 나는 부끄러우나
 아름다운 머리 아직도 검은니 그대는 힘쓰게나.
 우리 고을 좋은 경계에 남은 빛이 많으니
 후일에 다시 만나면 이렇게 서로 알리세.

纔問仙居拭眼遲 杜陵曾歷少年時
 杏花好節新儀見 文藻誰家古宅移
 愧我衰喉吟白雪 勉君英鬢尚青絲
 吾州勝景多餘債 異日重逢以是知

영남루

노필연(盧泌淵)⁶⁶⁹

누각은 맑은 강을 둘러 하늘과 한 빛인데
 동남지방 형세가 마루 앞에 있구나.
 일만 집 버들은 피꼬리 소리 속에 드리우고
 양 언덕 모래사장엔 갈매기가 줄고있다.
 파란 기와지붕 높아 눈 내릴 때 좋겠고
 푸른 산 반쯤 떨어져 구름 연기 보이네.
 사포의 풍류와 운치 맑고도 아담하여
 하루 종일 노래와 음악 좋은 자리를 움직이네.

樓壓清江一色天 東南形勝在軒前
 萬家垂柳鶯聲裏 兩岸平沙鷺夢邊
 碧瓦高臨宜雨雪 青山半落見雲烟
 使君風韻清而雅 鎮日琴歌動錦筵

영남루에서 유부사와 함께 시판의 운을 따라[嶺南樓同兪知府次板上韻]

669) 노필연(盧泌淵; 1827-1885): 자는 한약(漢若), 호는 극재(克齋), 광주인(光州人)이다.
 성재선생 허전의 문도로 김해 금곡(金谷)에 세거하였다.

그림 누각 붉은 기와는 하늘에 이어졌는데
 돌아가는 이 서글프게 난간 앞에 기대었네.
 외판 배 너머로 봄 바람은 일렁이고
 일만 대숲 가에 아침해가 불그레하네.
 일백 대 방망이 소리 풀빛 푸른 강변에 울리고
 한 소리 새 울음은 버들 연기 속에 지저귀네.
 알리라 이별한 뒤 꿈 속의 영남루는
 풍류 아는 태수의 잔치자리에 만나마 남아 있으리라.

畫閣朱甍接遠天 歸人悵悵倚欄前
 春風蕩漾孤帆外 朝日曛曛萬竹邊
 百隊鳴砧青草岸 一聲啼鳥綠楊烟
 應知別後南樓夢 半在風流太守筵

달밤에 영남루에 올라[月夜登嶺南樓]

허훈(許薰)671

중천에 솟은 이름난 누각 옛 얼굴 기억하며
 십 년 만에 다시 오르니 구레나룻 시름에 지쳤네.
 관현악 적적하여 풍류가 쓸쓸하고
 산과 바다 멀고멀어 가는 길이 험난하다.
 높다란 성채에 달이 걸려 강 기운 흔들리는데
 외로운 배에 서리 내려 기러기 소리 차갑구나.
 긴 노래 한 바탕 부르니 어룡이 듣는데
 난간을 두루 두드리는 동안 밤은 이미 깊었네.

天半名樓記舊顏 十年重上鬢愁殘
 管絃寂寂風流拙 山海迢迢道路難
 危堞月懸江氣動 孤舟霜落雁聲寒

670) 허원식(許元弼; 1828-1891): 자는 순필(舜弼), 호는 삼원당(三元堂), 하양인(河陽人)이다. 성재(性齋) 허전(許傳)의 문인으로 고종 즉위 원년의 정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성균 전직,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고 신미년 증시에 을과로 발탁되었으나, 계유년에 정국이 달라지면서 중화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향리에 은거하였다.

671) 허훈(許薰; 1836-1907): 자는 순가(舜可), 호는 방산(舫山), 김해인이다. 성재 허전과 계당(溪堂) 유주목(柳疇睦)의 문하에 배알하고 학문에 전심하였으며, 만년에 경기전 참봉으로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長歌一放魚龍聽 敲遍欄干夜已闌

영남루(672)

신석균(申奭均)⁶⁷³

서녘 바람에 사람이 영남루에 기대어
수국의 푸른 산을 홀어서 거두지를 못하네.
일만 호 생황과 노래소리에 달이 밝은 밤이요
한 강의 고기잡이 젖대에 흰 구름 피는 가을이로다.
늪은 중은 절간에서 저녁종 성글게 치고
열녀 사당 앞으로는 낙엽이 흘러간다.
눈에 가득 보이는 갈대 꽃 삼십 리
기러기 떼 수없이 물가 섬에 내려앉네.

西風人倚嶺南樓 水國青山散不收
萬戶笙歌明月夜 一江漁笛白雲秋
老僧院裡疎鍾晚 烈女祠前落葉流
滿眼蘆花三十里 雁鴻無數下汀洲

무봉대(舞鳳臺)

신석균(申錫均)

봉황 떠난 거친 대가 저물어가면
절간이 먼 언덕에 나타나는데,
바다 구름에 천 겹 산이 어둡고
강에 뜬 달 한 스님이 고상하다.
고기잡이 불에 봄 별이 어지럽고
샘물 소리는 밤비에 호탕하구나.
부처님 자비는 술책이 있으리니

672) 이 시는 겸수(謙叟) 손병현(孫柄鉉)이 편찬한 《밀주승람(密州勝覽)》에는 고종 무인년(1878)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밀양향안(密陽鄉案)을 중수한 연서(蓮西) 신석균(申奭均)의 시로 실어 놓았다. 임병섭(任炳燮)이 편찬한 《영남누대지(嶺南樓臺志)》에도 이를 따랐다. 그런데 《교남지(嶠南志)》에는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의 작으로 실려 있고, 심경혼(沈景混)의 작 또는 퇴계(退溪)의 작이라는 설도 있다. 여기에 서는 향부로(鄉父老)의 전문(傳聞)을 존중하여 신석균의 작으로 올렸다.

673) 신석균(申奭均): 호는 연서(蓮西), 평산인이다.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고종 무인년(1878)에 밀양향안(密陽鄉案)을 중수하였다.

중생을 구제하는 수고를 사양마소.

鳳去荒臺晚 梵宮出遠阜

海雲千嶂暗 江月一僧高

漁火春星亂 泉聲夜雨豪

慈悲應有術 普濟莫辭勞

영남루 시판 운에 삼가 사족을 달다[謹足嶺南樓板上韻]

이정봉(李庭鵬)⁶⁷⁴

이 누각 영남 하늘에 가장 으뜸이니
촉석루 영호루 모두 나서지 못하네.
우거진 풀 가에 앵무주 긴 섬이요
지는 노을 곁에 등왕각의 높은 누각.
밝은 달에 뱃사람 밤 이야기 들리고
들의 객점 새벽 밥짓느라 흰 연기 보이네.
네 세대 아름다운 자취 편액으로 건 곳에
추모하고 그리는 마음 이 자리에 더하네.

斯樓第一嶺南天 矗石映湖都不前
鸚鵡長洲芳草際 滕王高閣落霞邊
舟人夜語聞明月 野店晨炊見白烟
四世流芳扁揭地 羹牆追慕倍斯筵

127

영남루

송병선(宋秉璿)⁶⁷⁵

영남의 명승지로 이 누각을 말하나니
진종일 등림하여 객수를 보내노라.
상쾌한 기운 구름은 용두산에서 나오고
물빛을 내가 안고 마암산으로 흐르네.
외딴 암자 밝은 달에 종소리를 떨구고

674) 이정봉(李庭鵬; 1830-?): 자는 남현(南見) 호는 교산(喬山)이며, 고성인이다. 위 시는 《교남유고(喬南遺稿)》에 실려 있다.

675)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자는 화옥(華玉), 호는 연재(淵齋), 은진인으로 우암 송시열의 8세손이다. 고종 15년(1878) 일천(逸薦)으로 여러차례 관직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항의하여 자결하였다.

일만 집 푸른 연기 나무 빛이 떠오르네.
 밤 늦게 배에 앉으니 바람 이슬이 찬데
 온 강의 갈대는 서늘한 가을인 듯.

嶺南名勝說斯樓 長日登臨遣客愁
 爽氣雲從龍岳出 水光川抱馬巖流
 孤庵明月鍾聲落 萬戶青烟樹色浮
 夜久坐船風露冷 一江蘆荻似清秋

영남루에서 양헌공 시판의 운을 경건히 차운하여 [嶺南樓敬次襄憲公板上韻]

이조한(李朝漢)⁶⁷⁶

영남루 위에는 영남의 하늘,
 사방에서 푸른 산이 앞 뒤로 에워쌌다.
 저녁 배는 용두산 아래 함부로 다니고
 새벽 종소리 무봉암 가에 성글게 들린다.
 파란 강에 스미는 빛은 달이 먼저 맞이하고
 푸른 나무 가는 바람은 아득히 연기 띠었네.
 옛적에 내 할아버지 편액을 걸어 두었기에
 선인의 자취 추모하여 경건히 자리에 올랐네.

嶺南樓上嶺南天 四面青山擁後前
 暮楫凌行龍岵下 晨鍾疎落鳳菴邊
 青江光透先迎月 綠樹風微渺帶烟
 昔我大爺扁揭志 適追先蹟敬登筵

128

영남루

이만도(李晩燾)⁶⁷⁷

676) 이조한(李朝漢; 1842-1906): 자는 내성(乃成), 호는 황남(潢南)이며, 고성인으로 교산 이정봉의 조카이다.

677) 이만도(李晩燾; 1842-1910): 자는 관필(觀必), 호는 향산(響山), 진성인으로 고종 3년(1866) 정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홍문관 부수찬,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집의, 양산군수 등을 역임하였고, 을미사변(1895)에는 예안의 의병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경술국치(1910)에 단식으로 순국하였다.

누각은 맑은 못 아래위 하늘에 비치고
 노는 이는 그림 배 앞에 거꾸로 앉았네.
 비구름이 푸른 산 너머로 막 개이자
 강물 소리는 멀리 흰 갈매기 곁에 떨어진다.
 거대한 절벽이 삼 리 성곽을 지탱하고
 나를 듯한 기왓골은 만 집 연기를 피우네.
 총마사⁶⁷⁸) 되어 백성 일을 논하면서부터
 공무가 아니면 잔치 자리에 오르지 않네.

樓映澄潭上下天 游人倒坐畫舫前
 雨意初收青嶂外 湖聲遙落白鷗邊
 巨壁撐來三里郭 飛甍篆出萬家煙
 自從驄馬論民事 苟不因公不上筵

128

영남루⁶⁷⁹)

김진호(金鎭祐)⁶⁸⁰)

멀리 강좌의 고을에 유람하면서
 처음으로 영남루에 올랐다.
 흰 성첩은 그림처럼 둘러서고
 차가운 물은 흐르지 않을 듯 영기었는데,
 오랑캐 복장이 저자에 뒤섞여 있고
 소 시장은 백로의 섬에 가득하네.
 먼 하늘에 눈보라가 다가오기에
 나그네의 근심을 그려내지 못하네.

遠遊江左郡 初上嶺南樓
 白堞繚如畫 寒潮凝不流
 卉服雜官市 牛塵滿鷺洲
 長空風雪至 無以寫羈愁

678) 총마사(驄馬使): 관리의 탄핵을 맡은 직책의 시어사(侍御史)나 사헌부의 관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679) 교남지에 실려 있다.

680) 김진호(金鎭祐; 1845-1908): 자는 치수(致受) 호는 물천(勿川), 상산인(商山人)으로 단성(丹城) 법률(法勿)에 세거하였으며, 성재(性齋) 허전(許傳)과 만성(晩醒) 박치복(朴致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권하석을 밀양부로 찾아가서 영남루에 오르다[訪 權霞石於密陽府登嶺南樓]

이상규(李祥奎)681)

영남 지방에서 제일의 이름난 누각
가 없는 풍물이 술통 앞에 있구나.
흰 구름은 일만 첩 산 너머에 흐르고
밝은 달은 늦가을 고인 물 곁에 빛나네.
모래사장에는 천리를 왕래하는 선박이요
밤숲에는 일만 집 질게 깔리는 연기로다.
가련할 사 태수는 풍류가 좋아
하루 종일 음악 소리로 빈객의 자리 흔드네.

第一名樓大嶺天 無涯風物在樽前
白雲萬疊羣山外 皓月三秋積水邊
沙市往來千里舶 栗林濃滴萬家煙
可憐太守風流好 鎮日笙歌動客筵

130

영남루

장석영(張錫英)682)

행인이 홀로 영남루에 오르니
해학의 존망은 이미 십년이로다.
무정할사 늑실늑실 흐르는 긴 강물이요,
눈에 가득 우거진 건 물 가의 무성한 풀이로다.
구름 깊은 무협에서 노는 이와 이별하고
꽃이 지는 사당은 옥인의 근심일세.⁶⁸³⁾
명승지를 풍류객에게 맡겨놓고는
기녀의 관현악 소리 잠시도 쉬지 않네.

行人獨上嶺南樓 海鶴存亡已十秋

681) 이상규(李祥奎; 1846-1921): 자는 명뢰(明賔), 호는 혜산(惠山), 파산인(巴山人)이다.

성재 허전의 문인으로 의금부 도사를 역임하였다.

682) 장석영(張錫英; 1851-1929): 자는 호는 회당(晦堂), 인동인이다.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의 문인으로 을사조약(1905) 때 청참오적소(請斬五賊疏)를 올리고, 기미년(1919) 유림의 파리장서를 기초하였으며, 제2차유림단운동의 영남대표로 활동하였다.

683) 옥인(玉人)의 근심: 《회당집(晦堂集)》의 협주(夾註)에 “누각 아래 아랑사가 있다 [樓下有阿郎祠]”고 하였다.

無情滾滾長江水 滿目萋萋芳草洲
巫峽雲深遊子別 叢祠花落玉人愁
名區任與風流客 粉黛管絃不暫休

영남루

장승원(張承遠)⁶⁸⁴

위대한 누각 영남 하늘에 높게 지어
아스라이 옛 성곽 앞에 등립하였네.
소 잔등의 석양은 넓은 들 너머요
시퍼런 봄 물결은 끊어진 다리 곁이로다.
일천 집 푸른 대는 강의 비를 매달았고
일만 리 천둥치는 수레는 바다 연기를 채어간다.
삼십 칠년 만에 다시 온 나그네는
흰 머리에 꽃지는 자리가 근심에 겹네.

危樓高架嶺南天 迢遞登臨古郭前
牛背斜陽平楚外 鴨頭春浪斷橋邊
千家翠竹懸江雨 萬里雷車掣海烟
三十七年重到客 白頭愁殺落花筵

영남루

장상학(張相學)⁶⁸⁵

아스라이 높은 누각 하늘 가까이에 있고
강물은 푸른 난간 앞을 돌며 부딪치네.
일천 집의 주림과 장막은 꽃 향기 속이요
한 길 철로는 푸른 대나무 가에 있네.
정녀사 황폐하고 서늘한 바람소리 들리는데
낮은 절은 고요하여 쇠잔한 연기에 잠겼다.
물 빠지고 구름 걷힌다는 구절 높이 읊으니

684) 장승원(張承遠; 1853-1917): 자는 공유(公裕), 호는 운정(雲庭), 인동인(仁同人)이다.
영남루에 걸려 있는 이 시의 현판에는 관찰사로 왔을 때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85) 장상학(張相學; 1872-1940): 자는 신로(莘老), 호는 화강(華岡), 옥산인(玉山人)이다.
장농산(張農山)과 사미헌(四未軒)의 가학을 계승하여 향리에서 강학하였다.

선생의 풍류가 완연히 남아 있는 듯.

縹緲高樓尺五天 江流回薄碧欄前
千家簾幕花香裡 一路蹄輪竹翠邊
貞女祠荒聞爽籟 老禪龕寂鎖殘煙
高吟水落雲收句 夫子風流宛在然

132

퇴계선생의 영남루 시에 “물 빠지고 구름 걷힌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退溪先生嶺南樓詩 有水落雲收句 故云.]

아랑각(阿娘閣)

장상학(張相學)

아랑은 윤씨의 딸이다. 부친의 관직을 따라 관아에 와 있다가 하루 저녁에 유모의 피임에 빠져 영남루 위에서 달을 구경하다가 강도가 칼을 대어 강가의 죽림 가운데 던져버리니 아는 자가 없었다. 귀신이 원통함을 관사에게 하소연하여 강도는 마침내 처벌을 받았다. 뒷 사람들이 그곳에 정각을 세우고 빗돌을 새겨 표시하였다 한다.[娘尹氏女 隨父官在衙. 一夕爲乳媼所欺 玩月樓上 盜刺刀 投之江岸竹林中 莫有知. 鬼能訴冤官司 盜乃伏法. 後人就其地立閣鐫石以表之云.]

누각 위의 달은 밤마다 희고
누각 앞의 대나무는 해마다 푸르건만
아랑은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공연히 정각과 표석만 남겼네.
가사 아랑이 서왕모처럼 오래 살고
가사 아랑이 명부가 되었다해도
백세토록 아랑의 이름
남녘 고을 사람 사람의 입에 전파되지는 못했으리라.
강가의 배다리에는 대로가 뚫려
시끌벅적 분분하게 동서로 다니는데
그 중에 종놈 얼굴에 무릎 꿇는 무리들
아랑의 기풍 듣고 부끄럼이 없을 소냐!

樓頭月 夜夜白 樓前竹 年年綠
阿娘一去不復還 空留旌閣與表石
假使阿娘壽王母 假使阿娘爲命婦
未必百世阿娘名 播在南州人人口
江上船橋大路通 擾擾紛紛西復東

就中奴顏婢膝輩 能無愧怍聞娘風

무봉암(舞鳳庵)

신익균(申翊均)⁶⁸⁶

서리 이슬 축축하여 벌써 늦은 가을 되니
 거친 성의 나뭇잎은 사람 향해 흘러다니네.
 위태한 암자 올라 보니 세속 생각 없어지고
 노쇠한 나이에 만나보니 모두 머리 세었구나.
 이별의 한으로 북쪽하늘 기러기를 근심스레 보고
 씩씩한 마음 영남루에 옮겨 기대었노라.
 술 따르며 돌아갈 길 늦다고 하지 말라.
 낙시꾼이 앞 여울에 배를 대지 않았으니.

霜露淒淒已晚秋 荒城樹葉向人流
 危庵一上無塵想 衰境相逢盡白頭
 別恨愁看天北雁 壯心移倚嶺南樓
 添盃休說歸程晚 釣叟前難⁶⁸⁷不下舟

영남루에 올라[登嶺南樓]

안하진(安廈鎭)⁶⁸⁸

영남의 이름난 누각 반공중에 솟아
 잡은 술잔 앞에 만상이 펼쳐졌다.
 늘어진 버들 너머 긴 강은 거울 같고
 외로운 새 곁에 먼 숲이 병풍처럼 둘렀네.
 눈에 보이는 건 모조리 신세계이나
 가슴을 씻어주는 옛 풍경이 아직 있네.
 우리나라 곳곳에 기이한 경치 많지마는
 이곳에 오면 모두가 제일이라 치켜세우네.

大嶺名樓出半天 森羅萬象把盃前

686) 신익균(申翊均;1873-1947): 자는 현필(賢弼), 호는 동화(東華), 평山人(平山人)이다.
 문집 10권 5책이 있다.

687) 문집의 難은 灘의 오기로 보인다.

688) 안하진(安廈鎭;1876-1935): 자는 사초(士初), 호는 농서(農西), 광주인이다. 만구(晩求) 이종기(李種杞)의 문인이다.

長江鏡拭垂楊外 遠樹屏環獨鳥邊
 觸目無非新世界 盪胸猶有舊風烟
 海東處處多奇勝 到此咸推第一筵

중수 뒤의 영남루에 올라[登嶺南樓重修後]

강신철(姜信喆)689)

산천이 참담하게 안색을 바꾸었다가
 오늘 날아갈듯 눈이 다시 새롭다.
 이름난 누각 천년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니
 부생의 한 시대 가벼운 티끌 같네.
 강호와 조정의 인물들 어디로 갔나?
 물과 달의 풍경은 절로 가난치 않네.
 지금은 발 디딜 곳 없어 탄식하면서
 누각에서 내려와 백구 노는 물가로 향하네.

山川慘澹改顏色 此日翬飛眼更新
 勝榭千年猶不朽 浮生一代似輕塵
 江湖廊廟人何去 水月風烟自不貧
 感歎如今無着足 下樓還向白鷗濱

영남루690)

조종진(趙琮鎭)691)

천지 동남쪽에 첫째가는 누각이라
 천고에 대장부의 근심을 씻어주었네.
 큰 들에 구름 걷히자 푸른 산이 물러나고
 긴 바람 받은 강에는 푸른 물이 용솟음친다.
 아마도 금오산 위에 있었던 누각이나,

689) 강신철(姜信喆;1879-1949): 자는 길원(吉元) 호는 퇴산(退山), 진양인이다. 소눌 노상직의 문인이다.

690) 이 시는 효종 병신년(1655) 통신사로 왔던 조형(趙珩)의 시와 함께, 무진년 유하(榴夏)에 조형의 육세손(六世孫)인 영산현감 운한(雲漢)이 한판에 써서 새겨 영남루에 걸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다.

691) 조종진(趙琮鎭): 효종 병신년(1655) 통신사로 왔던 조형(趙珩)의 5세손이다. 시판에 정사년 여름에 지은 것으로 새겨져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신기루가 아닐런지,
 먹을 갈아 시를 지어 거둬 뒤에 쓰나니
 우리 선조 시를 영원히 전하려 하네.

天地東南第一樓 洗來千古丈夫愁
 雲開大野退青嶂 江得長風湧碧流
 疑是金鰲山上載 何如彩蜃海中浮
 欲題墨沼重書後 吾祖詩垂不記秋

무봉대(舞鳳臺) 692)

작자미상

퍼덕퍼덕 나를 듯한 일 백 척 누각이
 멀리 동남지방 큰 강 머리에 임하여,
 단청은 강산에다 그림 그린 듯,
 천지의 정신인양 팔월의 가을.

撲撲將飛百尺樓 迥臨吳楚大江頭
 丹青欲畫江山面 天地精神八月秋

삼가 시판의 운을 차운함[謹次板上韻] 693)

※ 《밀주승람(密州勝覽)》에는 다음 구절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였는데, 본문집에 없거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박열(朴悅)의 부(賦)

마암에 비가 내려 강에 물결 일고

692) 이 시는 《밀주징신록(密州徵信錄)》에 실려 있는데 작자의 성명을 모른다고 하였다.

693) 이 시는 영남루에 걸려 있으나, 시판의 아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전문을 판독할 수가 없으므로 번역하지 않았다. 판독되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는 떨어져 나가 읽을 수 없는 부분이다. 此樓迥出嶠○天/百里形觀○眼前/ 漁子○○微雨裏/ 行○○舶夕陽邊/ ○○先得千峰○/ ○水層生萬○○/我欲凌波○○遠/ 聊將詩○○開筵/ 丁亥菊秋完山人 李○○

밤숲에 서리내려 잎이 떨어진다
雨馬巖而江波 霜栗林而葉下

정추(鄭樞)의 시

바위 치는 여울 소리 빗소리처럼 시끄럽고
밤 기운 공중에 떠서 연기처럼 담담하네.

灘聲激石喧如雨 夜氣浮空淡似烟

김근(金謹)의 시

낮은 성 천년묵은 나무에 구름이 걸리고
가을 바람 일만집 연기에 벼가 익는다.

雲橫古堞千年樹 稻熟秋風萬戶烟

이발(李撥)의 시

푸른 두둑에 노란 꼬리 흔드는 것은 바람에 뒤집히는 보리요
파란 물결에 흰옷 끌고 가는 것은 물가의 연기로다.

黃搖翠壘翻風麥 白曳青波傍水烟